

장 편 소 설

판 결

량 흥 일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장 편 소 설

관 결

량 흥 일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나오는 사람들

김 연 주	지방법원 부장판사
리 선 미	봄빛다방 주인
윤 경 진	신문사 기자
조 승 철	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
장 기 철	지방법원 원장
리 성 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원 영 준	정보원 국장

장편소설 판 결

분렬의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는 수난많은 민족사에
사람은 어떤 생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가.

그것은 설사 한결음이라 해도 겨레의 아픔을 가시는
길에 바쳐지는 참된 자욱으로 되어야 하리. ...

오늘도 XX지방법원가까이에 있는 확성기에서는 여느때처럼 플류트곡이 흘러나오고있다. 외국의 이름난 작곡가가 창작한 명상곡이다.

차분한 선율은 마음속 분쟁지역인 법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설교하는듯싶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생을 다시한번 관조해보시라...》

판사들은 한주일에 두번이상은 공판을 진행해야 했다. 거의나 금전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이다. 돈앞에서는 부모와 처자, 형제도 모르는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장은 늘 법원의 숨을 가쁘게 한다.

사건에 대한 심리와 공판...

하루일과는 모두 한형타에서 찍어낸듯했다.

김연주도 이런 부담속에 생명의 시간을 줄이고있었다. 그러나 고군독전으로 지켜가는 초지여서 여기에 인생의 락을 심어가는 그였다.

그렇다고 사생활에서는 별로 나온것이 없다. 이렇다하게 가까운 사람도 없었다. 간혹 친지들과 마주앉았을 때에도 서둘러 제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다. 남들의 이야기를 리트머스시험종이로 분석하고서야 자기 입장을 내놓는다. 항상 직업적인 타성에 포로되어있는 그였다. 그러다보니 인간생활에서는 자연히 거품같은 존재로 되고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판사들의 몸무게를 《형량이 무거운 판사》, 《형량이 가벼운 판사》로 구분한다.

연주는 자기가 전자에 가깝다는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직업이 그에게 《숨쉬는 목석》, 《랭혈인》이라는 표쪽을 서슴없이 걸어놓은 모양이다.

허나 그것이 결코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는 법관이라는 지위와 존엄에 대해 남다른 자부를 가지고있었다. 그 지탱점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미전에 삶을 포기했을는지도 모른다.

승강기에서 내린 그 녀자는 복도 맨끝에 있는 사무실로 걸음을 옮겼다.

건물안은 《법원은 서류장 번지는 소리만 들린다.》는 말처럼 꼭 사찰

에 들어선 기분이다. 복도벽면에는 《사건에 대해 문의가 있는 변호사와
검사는 직원의 안내를 받으라.》는 문구가 썩여있다.

법원에서 연주의 대우는 높았다. 그만큼 그의 어깨에는 부장판사라는
의무와 행정실무적인 짐이 무겁게 실려있었다.

사무실은 허를 찰 정도로 간소하고 텅텅했다. 어느모로 보나 고품이 질
었다. 한가운데 놓인 책상은 동남아시아산인데 척 보기에 15살나마 먹
어보인다. 창가림도 구식이다. 여성특유의 취향이라고는 아무리 코구멍을
벌름거려도 맡기 힘들다.

그통에 너서기만 닥달질을 당했다.

《저 늙은 처녀야 구시대의 골동이라쳐두 당신이야 현대인이 아니요.
사무실의 꼴을 좀 보우!》

《이거야 꼭 거덜난 창고같은게!...》

이웃들의 지칭구에 못이겨 서기는 창가림과 꽃병, 특색있는 차주전자
와 고뿌들을 사왔다.

《난 숙빈 치장은 좋아하지 않아요!》

방주인의 사례는 너무도 린색했다.

사람들은 아연함을 금치 못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란 다 저런가?...》

《하긴 마른 아지에 꽃이 필리 만무하지!》

사무실에 색다른것이 있다면 부임되면서 가지고 온 두점의 풍경화뿐이
다. 미국의 어느 한 명승지를 화폭에 담은것들이다. 그리고 이전 주인들
에 비해 책장에 빈 공간이 없는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법전과 철학
을 비롯한 각 분야의 서적들도 찾아볼수 있었다.

연주가 사무실의 문을 열자 거울앞에 서있던 너서기가 놀라며 얼굴을
붉혔다.

《부장판사님,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연주는 힐난조로 되알지게 말했다.

《그렇게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싶으면 아예 미용원으로 자릴 옮기는게
낫지 않을까?》

《저-어, 죄송합니다.》

처녀는 청소도구를 들고 황황히 방을 나섰다.

판사에게 있어서 재판 10분전은 참으로 바쁜 시간이다.

문건들이 다 준비되자 그는 옷장으로 다가갔다. 장안에는 법복과 하얀
샤쓰가 걸려있었다.

연주는 선뜻 법복을 꺼내들지 못하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사시장철 변함없는 검은색이다. 겨울코트보다 얇고 여름옷보다는 두텁
다. 왼쪽가슴 안쪽에는 《김연주》라는 이름이 새겨져있다. 언제 봐도 싫
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할 때마다 감지하는 애착과 감정으로 심중해진
다. 애뜻한 정을 느껴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 그 품을 앗아간 가증스
러운 존재들과의 싸움에 나선 무사의 갑옷이었다.

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꼭 선교사를 방불케 한다. 하긴 성경에는 《재판
은 하느님에 속한 일》이라고 써여져있다. 그래서인지 판사들은 자기는 하
느님을 대신하여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하느님의 사도》라며 은
근히 목을 빼들곤 한다.

드디어 출정시간이 되자 연주는 서류철을 끼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뒤로 재판서기가 따라섰다.

법정까지 걸어가는 동안은 여느때보다 더 진중해진다. 재판정이 가까워
지면서 가슴속설레임과 긴장감은 한층 더해진다. 그것은 대체로 판사의
권능이 그곳에서 발현되기때문이다.

법관들이 전용으로 리용하는 통로에 들어서면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럴 때면 꼭 지구의 평행선을 횡단하는 기분이다. 뇌리
를 굽어내리는 철문닫기는 소리조차 환영곡처럼 느껴진다.

그녀자는 민사법정으로 다가갔다.

낮익은 경위가 살가운 기색으로 그에게 목례하였다. 그리고는 먼저 법
정안으로 들어가 지엄있는 목소리로 구령하였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드디어 연주는 법정안에 들어섰다.

방청객들이 일어서면서 내는 의자소리는 인차 잦아들고 침묵이 드리
웠다.

재판석으로 오르는 계단은 두개였다. 시세에 떨어지게 아직도 나무계단
으로 되어있다. 아마 우정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재판관이 그 계단을 디딜 때마다 내는 소음은 피고인의 가슴을 한줌
으로 줄아들게 한다.

아닌게 아니라 빼격거리는 소리가 조는듯한 공기를 차갑게 흔들어

댄다. 주의를 끌어당기는 불협화음으로 방청객들의 신경은 더 예리해진다.

재판정에 나서는 판사의 기분은 무대우에 선 가수와는 상반된다. 배우는 그래도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하지만 법정의 판사는 방청객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그들나름대로의 판단과 감정이 담긴 눈초리앞에 서있다.

저 사람은 형량이 무거운 판사이겠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 생긴걸 봐선 마음이 넉넉할것같은데...

믿음과 기대, 질시와 경멸의 혼탁된 분위기가 삼시에 재판정에 무겁게 드리운다. 그렇게 놓고보면 재판관은 피고를 재판하고 자신은 방청객들의 심사를 받는다고 해야 할것이다.

자기 자리에 앉은 연주는 재판석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검사석에는 40대의 검사가 뚱뚱한 몸집에 어울리게 틀진 자세로 앉아있다. 그옆에서 검사서기가 휴대용컴퓨터를 펼치고있다. 그들은 하나와 같이 의기양양한 기분에 젖어있었다.

맞은편 변호사석은 그와 대조적이다. 먹을것을 제대로 못먹었는지 50대의 변호사는 작고 강대처럼 말라있었다. 폐병을 앓고난 환자처럼 피부색이 백지장같은 서기조차도 눈망울이 긴장으로 얼어든듯했다.

오늘 공판은 이미전부터 승부를 갈라놓은것같았다.

사람들은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검사와 변호사를 먼저 떠올린다. 그만큼 그들의 지위는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관심사로 된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마치 엉치에 용수철을 달아놓은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그리고는 재판관과 방청객들을 향해 피고와 원고에 대한 자기의 논거를 달변가처럼 퍼놓는다.

반면에 재판관은 그렇지 못하다. 재판석우에 병풍처럼 앉아있을뿐이다. 그것도 위생실에 가고싶은것을 참고있는듯한 표정으로...

그야말로 주역이 아니라 잠시 화면에 비쳤다가 사라지는 단역처럼 느껴진다. 묻고 듣기만을 반복한다.

그러나 내면은 결코 단조로운것이 아니다. 머리속에서는 증권거래소 못지 않게 복잡하고 분주한 심리적격돌이 벌어지곤 한다.

법정에도 자기식의 숨결이 흐르고있다. 직4각형의 공간이지만 여기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생명들이 숨쉬고있다. 하나와 같이 대기의 산소

를 흡입하지만 폐장을 통해 내뿜는 공기는 서로 다르다. 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은 제 나름의 견해와 인식을 가지고있었다.

바로 이것을 재판관이 바로잡아야 한다. 그의 판결문은 모든 사람들이 혼연히 들이킬수 있는 청신한것이여야 한다. 서로 다른 공기를 하나로 정제시킨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자에 앉은 김연주는 문건을 펼치고 기계적으로 재판석우에 놓인 필갑에서 골무를 꺼내 손가락에 꺾다.

골무는 지문이 있는쪽에 수십개의 돌기가 도돌도돌 붙어있어 기록지를 번질 때마다 좌-악, 좌-악 흥이 나도록 빠르게 번저지면서 딱 한장씩만 넘어가도록 제어해준다.

이윽고 그는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며 스위치를 넣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하였다.

연주는 이미 재판준비를 하면서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있었다.

이번 사건은 피고를 기소한 원고인 21살 난 녀대학생에 의하여 발단되었다. 그 녀자는 29살 난 피고를 유혹하고 스스로 육체를 허락했다.

피고와 원고사이의 관계는 근 1년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다나니 처녀는 종내 임신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것을 구실로 많은 현금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에 제기하겠다는것이다.

피고는 그의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는 녀자였고 또 그가 지긋게 달라붙으며 제 육체를 스스로 내맡겼다는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원고는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해산하였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보육비까지 요구했다.

피고는 자기가 어린애의 아버지임을 시인하면서도 원고의 요구를 거절했다.

검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배상하는것과 함께 3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주는 피고에게 눈길을 돌렸다.

순하고 연약하게 생겼지만 머리카락은 까투리둥지를 방불케 했다. 자기를 될수록 참혹하게 보이면 그 어떤 동정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절망

적인 눈길은 발밑에서 허둥거리고있었다.

검사의 론거는 마치 예리한 수술칼을 방불케 하였다. 한마디한마디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피고인의 살을 마구 저며내고있었다.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단지 벌금형과 그에 따르는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는 표정뿐이다.

피고측과 대조되게 원고는 상반된 자세를 유지하고있었다. 오연하게 고개를 쳐든 그 녀자는 진바지에 금시 앞가슴이 튀어나올것같은 몸매샤쓰를 입고있었다. 물감을 들인 갈색머리채는 목우로 우아하게 땅아올려 흠잡을데 없이 세련되어보였다.

약간 나온 광대뼈와 작은 코, 동그란 턱... 그중에서도 제일 이목을 끄는것이 눈이다. 반달모양으로 된 눈섭밑에는 길고 휘우듬히 올라간 속눈썹이 영채어린 눈동자를 장식하고있다. 곱다고 서슴없이 말할 정도로 이 빼장한 얼굴은 사내들의 눈뿌리를 꺼리낌없이 빨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충분했다. ...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은 재판관에게 있어서 제일 고타픈 시각이다. 이 순간은 그야말로 바다라는 《우물》을 통채로 마시는것과 같은 심정이다. 판결에 따라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기때문이다.

판결문은 결코 수천여매에 이루는 장편소설의 원고가 아니다. 극상해야 원고지로 3~5매정도이다. 거기에 피고와 원고는 물론 검사와 변호사가 뼈꼭소리 한마디 지를수 없게 팽정하고 론리적인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재판관은 오직 판결문으로만 이야기한다.》고 말하는것이다.

어디에 저울추를 놓아야 하는가?...

김연주의 심중은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있었다.

《재판관의 결정권은 법률이라는 울타리안에 존재하며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어지러운 공기를 정제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그는 위엄있게 일어나 재판정을 둘러보았다.

《본 재판은 사건을 심리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 공간안에는 꼭 호흡을 정지한 사람들만 존재하는듯싶었다.

《피고 리장진에게...》

연주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피고에게로 향해졌다.

피고는 심한 놀라움과 둔하고 막연한 공포를 느끼며 머리를 푹 떨구었다. 제 머리위에 떨어질 채찍을 체념한듯 쥐었다놓은 두부모같았다.

《피고 리장진에게 무죄를 선언한다!》

법정은 바람에 놀란 갈숲처럼 설레이기 시작했다. 가슴을 조이며 기다려온 순간이 너무도 큰 극적변화를 가져온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연출가라고 해도 어찌 이런 장면을 만들어낼수 있으랴.

피고는 믿어지지 않는듯 재판석을 향해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다 다시 변호석을 바라본다. 연한 미소를 띤 변호사를 보고서야 창백했던 얼굴에서 서서히 피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신 원고의 표정은 무섭게 이그러졌다.

그보다 먼저 못마땅한 눈찌를 날리며 일어선것은 검사였다.

《재판관님, 항의합니다.》

《항의를 기각합니다!》

연주는 단마디로 잘라매며 판결문을 계속 읽기 시작했다.

《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건의 성립과 존재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것을 간청한데로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있다. 행위의 표현과 형태, 결과는 어떻게든 원인이 중요하다. ...

둘째,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불순한 목적실현에 리용당한 희생물로 밖에는 달리 볼수 없다. 증인들의 진술이 증명하는바와 같이 원고 지혜란은 리기적인 의도밑에 본 행위를 저질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밀한 타산밑에 진행된 직접고의이므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

따라서 본 재판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한다. 이 판결은 이 시각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판결문에 대한 찬반의 소요가 다시 일었다.

어떤 사람들은 판결문을 긍정하며 머리를 끄덕였다. 반대의향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녀성들이다. 그들은 재판관을 쏘아보며 끼리끼리 뭐라고 쑈알거렸다. 내놓고 자기들이 의견을 피력할만한 담은 가지지 못한것같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이 땅에서 앞으로 저 원고는 홀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생활고를 어떻게 감당해내겠는가? 법은 어째서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지 못하는가? 하긴 이 사회에서야 별수 없는 일이였고 또

제 팔자로, 숙명으로만 받아들여야만 한다. 장차 그 어린 아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래일 아침 한강에 그애 시신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허나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항변은 너무도 무의미하다는것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다.

발작적으로 나온것은 역시 원고인 지혜란이었다. 도고하던 이전의 자세를 허물고 눈물을 흘리며 미친듯이 날뛰었다. 한쌍의 랭랭한 눈빛은 사람의 피부를 꿰뚫을만큼 예리했다.

《이봐 재판관, 재판을 똑바로 해. 너두 너자야?... 내가 네 딸이라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겠어? 그래, 살기가 고통스러운 이 <남한>땅에서 나처럼 연약한 여자들이 엄청난 생활난을 무슨 수로 타개하라는거야?》

폐정을 선언하고 퇴정하던 연주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차분한 어조로 타이르듯 말했다.

《이봐요. 내 오늘 같은 녀성으로 또 인생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한마디 충고하겠어요.》

원고는 리성을 되찾는듯 잠자코 그를 주시했다. 허나 증오의 눈빛만은 거두지 않았다.

《당신이 말한것처럼 사람이 생을 산다는것, 그것은 바로 하나의 고통이에요. 하지만 갈피잡기 어려운 생존경쟁에 자기가 연약한 여자라는 생각으로 뛰어든 그자체가 더없는 오산이에요. 자신을 녀자로 인정하기 전에 생명을 가진 유기체이며 그것을 유지해야 할 사람이라구 먼저 생각해보세요. 사내들의 몸에 엉켜돌아가며 그 진으로 목마름을 달래는 녀굴이 아니라 길없는 산판에 제 길을 낼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녀자두 자기 목숨을 제힘으로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좌중은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두드려보듯 침묵하고있었다.

김연주는 등뒤에 머물러있는 시선들을 감지하며 퇴정했다.

김연주가 원장방으로 들어서자 장기철은 여느때처럼 친절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이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함께 일한적이 있었다. 연주가 그곳에 배치되었을 때 그는 이미 판사로 일하고있었다. 그러다가 몇년전에 여기 지방법원의 원장으로 조동되었던것이다.

판사시절 장기철은 평판이 좋았다. 못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체구에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게 박힌 그의 얼굴은 언제나 호방한 인상을 주었다. 생김새가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말처럼 항상 동료들을 대하는데서는 허물이 없었다.

헌데 서울로 승진한 후 호인이라는 평판은 가물철의 고인물로 되어버렸다. 실권을 쥐여줘봐야 그 사람의 본심을 알수 있다는 말처럼.

그의 표정은 아래사람들을 깔보듯 항상 표리부동해있었다. 억실억실한 눈가에 주름발이 잡히고 쪼프러지는 순간이면 오금이 저려 그앞에 서있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에게는 상대의 허점들을 꿰쳐두었다가 요긴한 대목에 와서 터쳐놓아 그의 손발을 얹어매는 기질이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법원내의 직원들은 그의 사내다운 성격과 호함진 웃음을 두려워했다.

재판정에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사의 기소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한문장도 놓치지 않고 기억한다. 재판석에 앉은 그가 진실여부를 가늠할 때면 꼭 사찰의 불상을 방불케 한다. 꼭 다물린 두툼한 입술, 조는듯 살며시 내리접은 눈시울...

그러다가도 문제점을 발견하면 예리한 눈길로 검사 혹은 변호사를 노려보며 질문을 던지곤 한다. 만일 그들이 주춤거리는듯한 기미가 있으면 서슴없이 사건에 대한 자기의 분석을 논리적으로 서술해나간다.

김연주는 자기가 서울에 오게 되는데는 그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개구리도 한우물에서 자랐으면 서로 사이가 좋다는 말처럼 그 녀자에 대한 원장의 사려는 남들의 질투를 자아내고있었다.

《어서 앉소.》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서있는게 더 좋습니다.》

《허, 그러지 마오.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 어디 성의를 보일 재미가 있소.》

연주가 자리에 앉자 장기철은 사람좋은 인상을 펴보였다.

《오늘 재판이 참 잘되었더구만!》

《그건, 뭘 녀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뭘 크게 뜻을 담은건 아니요. 사실상 그 사건은 가법성이 없는 행위나 다름없소. 물론 피고는 한 녀자의 인권을 침해했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의나 과실로 볼것이 아니거던. 왜냐면 원고가 그것을 원했기때문이지.》

그는 익숙된 동작으로 차를 한모금 마셨다.

《솔직히 일부 사람들은 오늘 판결에 대해 일련의 의견을 제기하더구만. 당신이 자기가 녀성이라는것을 망각하고있다고 말ियो.》

연주는 몽치처럼 치미는 반발심을 터놓으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래서 난 그들을 나무람했소. 판사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지 않는가구 말ियो.》

《원장님, 그 문제때문에 절 불렀습니까?》

언제나 직선적인 연주의 성격에 기철은 비죽하니 웃음을 지었다.

《사실은 새 사건이 제기돼서 그러오.》

그는 두툼한 문건철을 내놓았다.

《이건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낸 기소장이요.》

연주는 본능적으로 그걸 받아 펼쳤다.

《이름 조승철, 변호사협회 회원!...》

귀억은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한 인간의 얼굴로 하여 그는 숨이 꺾막히는것같았다. 혹시나하는 생각으로 사진과 주소성명을 다시 훑어보았다.

화사수류 수십년세월속에 퇴색시키려 했던 모색이 지금 눈앞에 놓여있다. 오랜 세월 침전물로 가라앉혔던 과거사가 지극히 뇌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그 한토막한토막들은 연주의 인생에 새겨진 폭탄구멍이였고 살점들이 뭉청뭉청 떨어져나간 상처들이였다.

그 녀자는 가슴속아픔을 억제하듯 두눈을 꼭 감았다. 허나 그것은 이미 때늦은 방비책이였다.

《원장님, 이젠?!...》

《그렇소. 난 당신이 이 사건을 말았으면 하요.》

연주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으며 기소장을 도로 밀어놓았다.

《아니, 전 못합니다!》

단호한 결심이 배인 목소리였다.

장기철은 씩쓰레한 미소를 지었다.

《나두 당신이 그렇게 나오리라구 짐작했소. 하지만 어찌했소. 마음에 드는 일만 찾아서 할수 없는게 생활이 아니요.》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가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물처럼 덮여있었다.

《원장님, 그런데 굳이 이 사건을 제게 말기는 이유가 뭡니까?》

《난, 당신을 가장 마땅한 책임자로 보기때문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원장님두 알다싶이 저야...》

한손을 들어 장기철은 그의 말을 제지시켰다.

《알고있소. 당신이 정치적색채를 띤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걸. 하지만 부장판사야 지금껏 자기 의무에 성실하지 않았소.》

《어쨌든 전 이 재판만은 말할수 없습니다.》

연주는 단호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철은 맹랑한듯 한쪽입귀를 실그리며 랭소를 지었다.

《물론 당신은 지금껏 주로 강력범들이나 민사사건만을 다루어왔소. 하지만 당신두 이젠 재판경험이 풍부한데 이런 재판에도 나서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거요. 더우기 이젠 나이도 어지간한데 인생에 뭔가 남는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요?》

연주는 눈길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허지만 반박할수 없었다.

그래, 내 인생에 남은것이란 뭔가?!...

저도 모르게 눈망울이 아래로 떨어졌다.

장기철은 그의 마음속상처를 보듬는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람이란 자기 생애 열매를 남겨야 하는거요. 그 열매라는데 과연 뭘겠소. 재부와 명예, 관직이 아니겠소. 난 수십년동안 법관의 의무를 성실히 집행해온 당신한테 마땅히 차례져야 할 열매가 뭘지 잘 알고있소!》

연주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원장은 지금 자기의 속을 손금 들여다

보듯하고있는것이다.

《때문에 난 이 사건을 당신한테 맡길 결심을 한거요. 이런 재판이야말로 법관생활에서 큰 흔적을 남길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장기철은 서랍에서 인쇄된 문건을 꺼냈다.

《그리고 난, 당신이 이걸 심중히 대하리라구 보오.》

대법원에 올려보내는 문건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연주의 가슴은 가느다란 흥분으로 뛴뛴했다. 자기를 이곳 지방법원의 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내신서였다.

그제서야 요즘 건물내부에서 공기처럼 떠도는 소문이 헛소리가 아님을 알았다.

장기철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소환되게 되어있었다. 원장의 후임은 김연주라는 말들이 술술 나돌았다. 풍문으로만 여겼던 소리가 정설로 이렇게 앞에 놓일줄은 몰랐다.

입술을 웅다물며 연주는 그것을 도로 밀어놓았다.

《원장님, 저두 이런 재판이 중요하다는걸 모르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꼭 제가 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가 하는겁니다.》

《당신이야 이미 피소자가 변호사로 나섰던 재판에서 그를 이긴 경험 이 있지 않소.》

그것은 20여년전 광주지방법원의 판사로 배치된 연주가 처음으로 진행한 단독재판이었다. 그때 그는 1960년대초 《간첩》으로 복역하였던적이 있는 한 녀인을 《사회안전법》으로 재구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의 변호사로는 다름아닌 조승철이 참가했었다.

연주는 그때 무죄를 주장하는 그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고에게 유죄를 선언한것이다.

그후 그는 일체 《사상범》들을 취급하는 재판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법관이 될 결심을 할 때부터 품었던 초지와는 거리가 너무도 멀었기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시절부터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일에는 일체 끼여들지 말라는 아버지의 훈시를 지론으로 여겨온 그였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껏 지켜온 계를 어기고 《보안법》위반자를 공판하라고 하니 어찌 받아들일수 있단 말인가.

장기철은 그 어떤 의미가 깔린듯한 눈길로 연주를 바라보았다.

《난 당신이 이번 기회에 <권력에서 너무 멀어지면 출다.>는 말의 의미

를 깊이 새기길 바라오!》

연주는 비죽하니 웃어보였다.

《그렇지만 <권력에 너무 다가서면 타죽는다.>는 말두 있지 않습니까?》

온화하던 원장의 낯색은 대변에 검은구름으로 뒤덮였다.

《연주판사, 당신이 아무리 도고하구 고집이 세다 해도 이건 너무하구 만!... 남의 성의를 무시하는것도 례의가 아니라구 했소. 법관이라면 응당 개인감정보다 이 사회의 운명을 먼저 생각해야 할게 아니요. 조승철은 일반형사범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상범>이란 말이요.》

장기철은 신경질적으로 내신서를 책상우에 내던지며 사무실밖으로 나갔다. 그통에 차거운 랭기가 방안을 휩쓸었다.

연주는 차마 발길을 뗄수가 없었다. 눈길은 내신서와 기소장사이에 머물러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려고 정문을 나서는데 여러명의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다.

마이크와 수첩을 든것으로 보아 기자들이었다.

《판사님, 오늘 어떻게 그런 극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고에게 뜻이 깊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판사님의 생활체험에서 나온 고백이라구 봐두 될가요?》

《오늘 판결에 대해 원고측에서 항소하지 않는다구 장담할수 있습니까?》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질문앞에 연주는 질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끄러운 물음들을 하나로 짜잡아 단마디로 대답했다.

《법은 결코 그 어떤 편견에 설수 없는 가장 정확한 저울추입니다. 설사 그가 누구라 해도 자기의 범행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어야 합니다.》

말을 마치고 그들을 피하려 하는데 한 사나이가 수첩을 들고 막아섰다.

모여온 기자들중에서 제일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다.

희지도 검지도 않는 침착하고 지적인 얼굴빛, 도톰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을 이룬 코, 그보다도 한번 다시 쳐다보게 되는 그런듯 진하고 선명한 눈썹과 번듯한 이마 그리고 방금 그려놓은듯한 눈동자에서는 정기가 막 쏟아져나오는것같았다. 특히 처녀들의 눈길을 자아낼 반고수머리가

인상적이다.

《전, ××신문사 기자 윤경진입니다.》

연주는 억지로 표정을 밝게 하며 되물었다.

《기자선생, 난 방금 오늘 공판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했다고 보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차거운 어조였지만 경진은 흔연히 받아들였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리해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연주는 시답지 않은 눈길로 그를 바라봤다.

《판사님은 판결에서 어린애의 차후 처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연주는 골살을 찌프렸다. 생각밖의 허점을 건드린것이다. 그렇다고 설익은 대답으로 그를 때버릴수는 없었다. 기자보다 그가 신문에 낼 기사내용이 더 두려웠다.

《그건, 기자선생이 걱정할게 아니라구 봐요. 그애는 어디까지나 불륜적행위의 산물이랍니다. 더우기 오늘 재판의 목적은 원고와 피고사이에 벌어진 범행에 대한 판결이었구요. 그러니 어린애는 법적보호밖에 놓여있었다구 볼수 있지요.》

경진은 실망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렇다구 그 어린 생명의 장래에 대해 무관심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장래?!... 미안하지만 여기는 가정법원이 아니랍니다. 또 그들은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었구요. 그러니 어린애의 문제처리는 어디까지나 그애를 낳은 어머니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보는수밖에... 그리고 법은 현행만을 중시하지 미래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답니다.》

거침없는 대답앞에 경진은 아연해지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그럼 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김연주는 가볍게 목례했다. 그리고는 경진이를 옷에 묻은 점불을 때버리듯하며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윤경진은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야속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법관이기 전에 녀성이 아닌가. 어찌면 어린 아기의 운명에 대해 저리도 랭담할수 있는가?

뒤미처 다가온 동료기자들이 연주쪽을 보며 투덜거렸다.

《허, 이제 보니 아예 랭혈인으로구만!》

《광주지방법원에 있을 때부터 대리석같은 녀자로 소문이 났다네. 자식은 물론 가정도 없는 독신이라는구만!》

《아니, 저 나이에 아직 미혼으로 있단 말이요?!》

기자들은 술렁거리며 의문을 드러냈다.

윤경진은 연주의 경력에 더 신경이 쏠렸다.

《선배님, 저 부장판사가 정말 광주지방법원출신입니까?》

《그렇네. 그곳에서 수십년간 판사로 일하다가 지난해에 여기로 출세했지. 이름은 거 뭐 김연주라던지...》

윤경진은 문득 치미는 생각으로 주차장밖을 벗어나는 연주의 승용차를 바라보았다.

3

김연주는 서초구 서초동에 들어서면 은근히 흥분되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단순히 《부와 멋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곳이어서가 아니다. 법관이 될 결심을 한 사춘기시절부터 자기의 꿈과 리상을 이곳에 얹혀놓은 그였다.

서초동에는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이 들어서있다. 이른바 《법조구획》이라고 할수 있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것이 연주의 소원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이곳에 오면 대법원청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한다. 결코 찬탄의 시선만이 아니였다. 일종의 야심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내가 저들보다 못한게 뭐가? 나라구 왜 저 건물에 발을 들여놓을수 없단 말인가?

돌이켜보면 하늘의 별을 따려는것과 같은 망상도 아니다. 학력과 경력으로 보면 얼마든지 좁안에 쥔수 있는 열매이다. 그 첫 사다리가 바로 오늘 장기철이 보여준 내신서라고 볼수 있었다.

서초동의 우중충한 건물들을 야심만만한 눈으로 둘러보고난 김연주는 차에 올랐다.

오후부터 밀려들던 검은구름은 어둠과 한데 어울려 사위를 암흑속에 몰아넣기 시작했다.

물웅덩이의 울창이들처럼 인종이 바글대는 서울거리는 숨막힐 지경이다. 배기가스와 땀내, 공해와 소음...

사방에서 마구 비쳐대는 네온등불빛에 오가는 길손들의 걸음새는 술에 취해 비칠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주말휴식 시작이라 더 분주했다.

소화력이 약한 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늘어섰다. 욕망과 즉흥을 앞세우며 앞으로 나가려다가도 교통경찰의 눈총이 두려워 주저하곤 한다.

연주도 벌써 몇번이나 제동기를 밟았는지 모른다. 어느때 같으면 차에서 내려 지하철도를 리용했을 그였다.

허나 오늘은 그럴 기분이 나지 않는다. 속에서 일어나는 번열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게다가 인후의 아픔은 예리하게 뇌리로 울려쾅친다. 거의 3년째 괴롭히는 인후염이다. 지금같은 봄철에는 황사때문에 더했다.

반포대교를 건너 강북땅에 들어서니 복잡하기는 강남지역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방자치제선거가 다가오면서 더 번잡했다.

광장들은 물론 지어 장마당에서까지 립후보자들이 유세를 벌리며 유혹의 바람을 일으키고있다. 마치 제 살점이라도 베줄듯 속빈 웃음과 없는 재간을 깡그리 짜내며 지지를 구걸하는 그들의 목청은 도시의 소음을 짓누른다. 흔히 정치가는 주인이 되기 위해 머슴흉내도 곧잘 내곤 한다.

연주는 차를 서울역과 린접한 룡산구 동자동쪽으로 몰아갔다. 남대문로5가를 지나 남대문오른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남산공원쪽으로 갈 결심이다. 그쪽 교통형편이 다른 곳보다 나을것같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영동과 서울역사이에 있는 동자동에서 발목을 잡히우고말았다.

룡산구주민들이 도로바닥에 엉치를 붙이고 룡성투쟁을 하고있었다. 요구조건은 강제철거결사반대였다.

지금 이곳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것이 초미의 문제로 나섰다.

《정부》와 야합한 건설업주들이 무작정 철거를 요구하며 달려드니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용암이 이글거리고있었다. 그것은 한해전에 강제철거

를 반대하여 경찰들과 맞서싸우던 철거주민 여러명이 건물에서 불타죽는 참상까지 벌어졌기때문이다.

어제만 해도 공사중지의 처분을 요구하는 신청이 지방법원에 2건이나 제기되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중뿔나게 나섰다가 난데없는 망치에 머리가 터질수 있었던것이다.

실업가들과 《정부》관료들사이에 유무상통이라는 굵직한 쇠사슬이 얹혀 있다는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당국에서는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그 권한을 건설업자들에게 넘겨주고 대신 묵직한 돈다발을 쟁긴다. 또 건설주들은 그를 빚대고 쪼들릴대로 쪼들린 백성들의 마지막거처마저 무자비하게 짓밟고있었다.

언제인가는 한 건설업체가 철거자들이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무작정 한 건물의 전기를 잘라버린적이 있었다.

수십세대나 되는 사람들이 전기와 물고생에 시달렸다. 2명의 주민들이 어둠속에서 복도를 걷다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문제는 건설업체의 태도였다. 환자들의 면회는 고사하고 입원하여 텅 빈 그들의 집을 기점으로 건물을 마구 헐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쌍방사이에 란투극이 벌어지고 나중에 경찰까지 개입하여 거주자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술한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 목숨을 내대며 《정부》의 처사에 항거했다.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강제철거를 요구하는 집권세력들의 처사에 격분한것이다.

남조선에서 평백성들은 월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힘들다. 몇푼 안되는 돈으로 임대주택을 사용하다가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고만다. 방세와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별의별 세금을 다 물고나면 손에 남는것이란 얼마간의 쌀값뿐이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철거를 받아들일수 있겠는가.

가난의 길을 밟아 이곳으로 흘러들어 가난을 벗삼아 살아온 그들은 이제 또 새로운 가난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져야 할 생사기로에 놓여있었다.

무슨 일에서나 주동분자가 있는 법이다.

한 젊은이가 단우에 올라서서 시위자들을 추동하고있었다. 앞가슴에는 《강제철회반대!》라는 표어가 걸려있다.

두손을 불끈 틀어잡은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나서 격조높이 웨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력사는 무심히 스치거나 거칠게 엮어매여 우리의 삶에 쓰라린 아픔의 상처를 남겨주고있습니다. 이 사회가 근대와 현대사의 란 폭한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우리 국민의 생활은 풍랑을 만난 쪽배처럼 산산이 부서지곤 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몇몇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국민들이 되여야 합니다. 흘러온 력사는 이 강토를 피로 지키고 후더운 땀방울로 가꿔온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백성들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인이 되었던 시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착취와 압박, 빈궁속에 허덕이는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했을뿐입니다.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자기의 진정한 보금자리도 없이 부평초처럼 떠다녀야 하는가 말입니까?

여러분, 단결은 힘이고 승리입니다.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강제철회를 반대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우리 손으로 끝까지 사수합시다!》

시위자들이 호응해나섰다.

《웁소. 우린 절대로 물러설수 없소.》

《당국은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강제철회를 결사반대한다!》

김연주는 차창으로 비껴드는 젊은이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어찌 보면 어제날의 조승철을 보는듯했다.

그 사람도 대학시절에는 저렇듯 화려한 웅변술로 학생들의 인기를 모았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처지에 놓였는가. 차례질것이란 피고석과 철창뿐이다. 왜 사람들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면 부서진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꼭 그 파도가 되고싶어할까. 하긴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저들의 행위를 그 무슨 뜻이라고 형상하곤 하지. 아니 그것은 뜻이 아니라 망념이라든가 야망으로 봐야 정확할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연주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동정심도 품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가난한 존재들로밖엔 보이지 않았다.

한참후에야 그는 시위자들이 내주는 길을 따라 차를 서울역사쪽으로 몰았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볼수 있었다. 장차 지방법원의 원장이라는 밝은 길이 열려있다. 판사가 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법관으로서의 성공탑을 한단두단 쌓아온 그였다.

허나 그 기쁨을 삼광주의 환희로운 축포가 아니라 쓰라린 과거의 아픔으로 묵살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승철!...

사람들은 흔히 아름답지 못한 일은 쉽게 잊어버리려 한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망각이라는 묵중한 무게로 짓눌려놓았던 과거사가 되살아나는 것을 어쩔수 없다. 잊어버리려고 모지름을 썼다. 그러나 그것은 밀려드는 어둠과 더불어 서서히 뇌리에 다시 파리를 틀고있다.

인생은 오십대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마음속상처만은 치료할 능력이 없는것같다. 망각의 힘으로는 결코 추억의 파도를 막을 방파제를 쌓을수 없는지.

김연주는 종내 남대문시장주변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말았다. 거미줄처럼 엉켜돌아가는 생각으로 더는 운전할수 없었다. 서울시청근처에 있는 지하철도를 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터벅터벅 시청역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는 뜻밖의 환호소리에 머리를 쳐들었다. 길옆공지에서 한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합성을 지르며 흥분에 들떠있었다.

누가 또 선거유세를 하는 모양이군!

지하역입구로 향하던 연주는 피륙 치미는 예감에 걸음을 멈췄다.

귀전에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그를 자극한것이다.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였다.

밀집된 사람들의 어깨성너머로 앞을 주시하던 연주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에 힘을 주었다.

가설무대우에서는 한쌍의 남녀가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처녀는 낮익은 인기녀가수였다. 사나이는 50대초반쯤 나보였는데 꼭 어데선가 본듯했다.

선물에 심신을 맡긴 관중들은 그들과 호흡을 맞춰 합창하고있다. 나중에는 덩실덩실 춤판을 벌려놓기까지 한다.

밝은 조명이 사나이의 모습을 비치는 순간 연주의 눈동자는 허공에서

굳어졌다.

《조승철?!-》

사나이의 너부죽한 얼굴은 보름달처럼 흰했고 두툼한 입술과 부리부리한 두눈은 더없는 정기로 광채를 뿜었다.

지금껏 기억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한 인물이다. 허나 오늘은 운명의 희룡인지 그의 모색만 자꾸 나타난다.

증폭된 승철의 노래소리는 귀바퀴를 한번 맴돌고는 귀청을 두드리며 귀관으로 날아들어간다. 그리고는 마치 분무기의 미세방울처럼 뇌수의 감각선들을 짜릿하니 자극한다.

노래가 끝나자 조승철은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무대를 내려섰다.

그가 꼭 자기한테로 다가오는것같아 연주는 몸을 돌렸다. 허나 내짚는 걸음은 연추를 매단것만같았다.

등뒤에서는 관중들의 노래소리가 계속 울려오고있다. 그들은 지금 통일의 환희와 기쁨, 희망으로 물결치던 걱정지 시대를 재현하고있다. 가슴가슴마다에 못잇을 그 시절이 고이 간직되어있는듯싶다.

연주는 이 씨클무대는 어느 통일단체가 주최한것이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시위나 집회, 모임을 대할 때마다 그는 심한 통증을 느끼곤 한다. 그들의 웨침이나 노래는 법관인 자기의 가슴에 서슬푸른 도끼날을 서슴없이 들이대는것만같았다.

눈가에서는 조승철의 모색이 줌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도마우에 올랐는지도 모르고 분별을 잃고있는 그가 더없이 가련해보이기까지 했다.

문득 장기철원장이 한 말이 떠올랐다.

《조승철은 일반형사범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상범>이란 말이요!》

지겹게 매달리는 생각을 털어버리고 걸음을 옮기는데 앞쪽에서 《정말 수고하셔요.》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아니, 괜찮아요.》

정답게 오가는 대화에 연주는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순간 눈망울은 얼음덩이로 굳어졌다.

조승철과 나란히 걸어가는 녀인의 모습이 불빛에 비껴든것이다.

선미, 네가?!...

다정히 걸어가는 그들의 뒤모습을 질투어린 눈길로 쏘아보며 연주는 입을 지그시 깨물었다. 무엇이랴 이름할수 없는 예리한 감정이 세포와 피줄을 마구 란도질하고있었다.

4

종로구 삼청동은 소격동, 화동, 팔판동을 통털어 이루는 명칭이기도 하다. 이곳은 아직 고색질은 낡고 오래된 기와집들이 립추의 여지가 없이 박혀있었다. 어찌 보면 옛시절이나 시골에서 볼수 있는 풍경이라 할 것이다.

허나 엄연한 현실이었다. 원인은 청와대와 립접한탓에 지역개발에서 심한 제약을 받고있다는데 있었다.

얼마전부터야 비로소 몇개의 박물관들이 들어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비좁은 공간에서 숨을 헐떡거리고있었다. 강남구의 압구정동에 비해볼 때 삼청동은 백조와 새끼오리의 차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병아리무리속의 계사니인양 단층집들사이에 탑식아파트 몇개가 보인다. 그곳에 김연주의 보금자리가 있었다. 5층에 있는 집은 평방수가 그리 크지 않은 두칸짜리였다.

집값이 금값인 서울바닥에서 이만한것을 쓰고사는 사람도 그리 쉽지 않다. 일반평민들은 한생 제 집은 꿈도 꾸지 못한다. 세집에서 태어나 세집에서 죽어야 할 신세들이다.

연주는 변화한 곳보다 시골풍경을 느낄수 있는 이런 곳이 더 좋았다.

집안은 적막하고 쓸쓸했다. 마치 사람사는 집같지 않았다. 주인의 손이 언제 닿았는지 모를 정도로 방안은 제 균형을 잃고있었다.

그는 자기 보금자리에 품을 아꼈다.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틀어박힌 가구들은 호흡을 멈춘 장식물에 불과했다. 랭담하고 무미건조한 주인의 쓸쓸한 숨소리만 반사하는 물건짝들이었다.

방안에 들어선 연주는 여느때처럼 긴 한숨을 내그었다. 이젠 몸에 배인 습관이다.

반겨줄 남편은 물론 자식 하나없는 고독한 삶이다. 즈이 없는 생활은

그한테서 가정에 대한 애착을 말끔히 증발시켰다. 이 모든것을 떼꺾주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일이었다.

그는 가방을 책상우에 홀 던지고 옷도 벗지 않은채 침대우에 벌렁 누웠다.

어둠을 가까스로 밀어내는 탁상등이 그를 가엾게 비쳐주고있다.

아, 이것은 정녕 벗어버릴수 없는 내 운명의 사슬이란 말인가?!

시선이 미치는 곳마다에 승철의 모색이 비끼군 하였다.

차라리 그 자리를 모면했더라면 더 좋았을걸!...

과거의 양금이 되살아나는것이 두려워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무슨 일이드 잡아 불미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리고싶었다.

그러나 선뜻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저녁밥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뻔했지만 손발이 따라서지 않는다. 가정 일에 습관되지 않은데다가 기분 또한 번거로워 귀찮기만 하다.

부엌은 그대로 한산하기 그지없다. 아침밥을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지저분하게 놓여있었다.

자연히 손맥이 풀렸다. 혼자 사는 몸이라 언제 한번 때식을 제대로 끓여본적이 없었다. 묵은밥이나 식당음식으로 굶때기가 일쑤이다.

음식짓는 일은 녀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리해되지 않았다. 음식도 맛스럽게 먹여주는 사람, 좋다나쁘다 타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만드는 맛이 있는것이다. 제 혼자 먹으려고 밥을 짓고 요리를 한다는건 정말 싱겁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살고있는 아버지가 찾아와 집안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다.

《허나새나 사람사는 집인데 이게 무슨 꼴이냐?》

김주성은 골깊은 한숨을 내그었다.

《난 네가 미국에 남지 않고 굳이 이곳으로 오겠다고 할 때 잃어버린 네 행복을 되찾기를 바랬다. 그런데...》

《아버지, 팔자도망은 못한다구 했어요.》

《아니다. 인생은 가꾸기에 달린거다.》

진득진득한 괴로움이 주성의 얼굴에 면사포처럼 씌여졌다.

《아버지, 전 후회하지 않아요. 법관이라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주성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후회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으랴만 때로는 그것이 랑심의 가책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때도 있는거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어떤 충동에서인지 전등을 켜고 경대앞에 마주앉았다.

거울면에는 흰머리카락이 얼기설기 드러나고 이마와 눈귀에 주름발이 앓기 시작한 그의 모색이 비쳐졌다. 랑쪽의 광대뼈는 우멍한 두눈과 대조적이다. 좁쌀주근깨들로 더 침침해보이는 얼굴이다.

그 녀자는 경대서랍에서 주사기통을 꺼냈다. 섬찝한 주사바늘이 은빛 광을 번뜩이며 불그레한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병의 고무마개에 주저없이 박혀들었다.

공포가 실린 두눈동자는 약이 채워진 주사기에 머물러있다.

이어 그는 길게 호흡하고나서 손전지로 목안을 비쳤다. 불빛에 의해 별절게 충혈된 인후가 거울면에 드러났다. 오래동안 앓은 흔적이 력력한 인후는 만성으로 넘어가 출혈반점으로 가득차있었다. 그것들은 누런 농으로 덮여있었다. 꼭 병든 돼지의 폐를 보는것 같다.

연주는 침을 삼키고 소독솜을 문 핀셋을 조심스레 입안에 넣었다. 싸한 알콜내가 입안의 감각기관을 자극한다. 전지불의 도움으로 살며시 그러면서도 천천히 혀바닥과 인후를 닦아가기 시작했다. 무수한 참대바늘들이 마구 찌르는듯한 아픔이 랑쪽미간을 타고 태양혈쪽으로 올려뻗친다.

입밖을 벗어난 숨에는 누런 고름이 묻어나왔다. 그러기를 몇번...

잠시 숨을 돌린 그는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미구에 닥쳐올 아픔으로 벌써부터 등골로는 전율이 스쳐지나간다.

왼손에 들린 전지는 목구멍안을 다시 비쳤다. 그뒤를 따라 오른손에 든 주사기의 바늘을 인후로 접근시켰다. 거침없이 전진하던 바늘은 인후앞에서 정지되었다. 뭔가 주저하는듯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다. 예리한 바늘이 목표에 박혔다.

씨익!—

두눈이 굳어졌다. 마치 예리한 주사바늘은 목구멍을 관통시켜 꿰뜨리는것같은 섬찍한감이 들었고 머리는 전기에 감전된듯했다.

김연주는 밀려드는 아픔을 참느라 배와 목덜미에 힘을 주었다. 주사기에 채워진 약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잔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들고있었다.

아!—

더는 참지 못하고 그는 주사기를 뽑았다. 의식은 정지되고 오직 약을 주입하고 빨리 주사바늘을 뽑아야 한다는것만이 머리속에 지배했다. 근육주사도 아니고 인후에 제손으로 주사를 놓는다는것은 남자들도 꺼리는 일이다.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직 참아야만 했다. 하지만 연주는 이 일을 벌써 열흘째나 번지지 않았다.

옆에서 전지라도 비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다시 약속에 소독약을 묻혀 상처부위를 닦아냈다. 뭐라고 형언할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그는 눈을 감은채 한참동안 앉아있었다.

그는 인후염때문에 한달동안이나 병원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말세질이 많은 중년의 녀의사는 그가 판사라는것을 알고 자질구레한 사건들에 대해 캐묻는데서 재미를 보고있었다.

자기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것이 질색인 연주는 끝내 병원 걸음을 그만두었다.

아픔을 참느라 한동안 앉아있다가 피딱 벽시계를 보니 벌써 23시가 넘었다.

잠자리에 눕기는 했지만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궁싯궁싯 뒤척거리기만 했다. 만사를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도 괴로운 밤이었다.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에 질식될것만같아 그는 종시 침대에서 일어났다. 시원한 밤공기로 번민속에 잠긴 머리를 식히고싶었다.

창밖은 언제부터였는지 비가 내리고있었다. 창살같은 비줄기는 단잠을 청하는 단층집들의 철판기와를 사정없이 콩마당질하듯했다.

갑자기 장막의 한가운데가 쪽 갈라지며 시뻘건 불줄기가 번쩍거렸다. 그 서슬에 비좁은 골안의 골목들이 드리났다 사라진다. 이어 우뢰소리가 도시의 머리우에서 무섭게 울리고있다.

때아닌 소낙비는 녀인의 가슴속에 얹혀있던 세월의 이끼를 한꺼풀두꺼풀 서서히 벗기고있었다. 비발은 어제날의 추억을 투명하게 씻고 다듬으며 연연히 실어오고있다.

...경상남도 거창은 궁벽하고 외진 산골이다.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줄기의 남덕유산을 등지고 동쪽으로는 가야산, 서남쪽으로는 지리산이 멀리 보인다. 그리고 남쪽 저쪽에는 황매산이 내다보인다.

거창은 동쪽출입구가 가조면이라면 서쪽은 안의면으로 나있었다.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막은 고장이지만 《한들》이라는 제법 넓은 들판이 있어 물산이 여느 고을 못지 않았다. 그러나 남도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산골이라 외지사람들은 이곳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한다.

연주가 아버지의 손에 끌려 안의면에 발을 붙인것은 9살 잡히던 해 봄이다. 서울이라는 번잡한 도회지에서 살아온 그에게 산천풍경은 신비로운 세계가 아닐수 없다.

봄빛이 흐르는 대지에서 만물은 생의 활력을 되찾으며 삶을 즐기고있다. 나무들의 아지마다에는 방금 피어난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골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강바람은 연록색물이 오른 수양버들가지들을 가볍게 희롱하며 주위를 맴돈다. 바위를 감돌며 은구슬을 뿌리는 산골물은 허연 물안개를 피워올리고있다.

강기슭을 따라 늘어진 뚝에서는 염소와 양, 소들이 한가롭게 햇풀을 뜯고있다. 그런가 하면 산자락의 땀기밭들에 돌아난 냉이와 민들레를 비롯한 봄풀들은 꽃송이로 아름다웠다.

이른 봄날의 대기는 청신하였고 지어 향기롭기까지 했다.

자연의 황홀경은 어린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너무도 충분했다. 그는 여직 친어머니의 얼굴을 잘 모르고 자랐다. 인정많은 아버지의 눈빛이 푸른 하늘이였고 너부죽한 잔등은 마음껏 뛰놀수 있는 대지였다.

그런데 일은 갑작스레 벌어졌다. 그것은 새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다음부터였다.

귀여운 동생이 생겨 연주의 생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해쭈 밭쪽 웃는 아기를 돌보는것은 계집애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기쁨이고 락이였다.

하지만 이붓어머니는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인물이나 몸단장을 보면 기녀도 울고갈 정도였지만 어디까지나 기생의 자리저고리에 불과했다. 결만 있고 속은 없는 녀자였다. 집안살림살이에는 장님이였고 남편의 그림자를 감시하는데서는 올빼미눈이였다. 심통 또한 똑감자갈아 항상 소박당한 계집 뽕풀이대상을 찾는 기상이다.

그 서술에 뜯기우고 찢기우는것은 영낙없이 어린 연주였다. 심술은 대소한의 날씨도 울고갈 정도였다. 이붓딸의 언행을 모두 빼돌서하니 대했고 걸음걸음 잔소리와 욕설을 따라세웠다.

그럴적마다 어린 소녀는 주성의 손에 매달려 묻곤 했다.

《아버지, 작은 새들도 다 엄마가 있는데 나한테는 왜 엄마가 없나요?》

딸애의 하소연앞에 김주성은 먼 하늘만 쓸쓸하게 바라보았다. 가슴아픈 사연에 짓눌린 긴 한숨만이 대답을 대신했다. 더이상 딸의 가공한 정상을 볼수 없어 이곳으로 데리고 왔던것이다.

《이제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함께 있거라!》

계집애는 랑태머리를 곱게 짠 머리를 가로흔들었다.

《싫어, 싫어... 난 아버지하구 같이 있을래.》

딸의 랑손을 꼭 잡고 주성은 딱한 표정을 지었다.

《나두 너와 함께 살고싶다. 그렇지만...》

계집애는 아버지의 어진 눈가에 어리는 물기를 보았다.

《그럼 방학때마다 날 데리러 꼭 오지?...》

《그래, 그러구말구.》

이렇게 김연주는 산골마을에 깃을 내리게 되었다.

《할머니, 나한테 왜 엄마가 없나?》

할머니는 대답대신 저고리고름으로 눈굽을 찍곤 했다.

《원 계집애두...》

환경의 적응력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빠른것 같다.

며칠동안 우울해있던 연주는 인차 생기를 되찾았다. 동네애들과 친숙해져 드살차고 쾌활한 제 성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도회지에서 나서자라 일찌기 글을 깨친 덕에 학교에 가서도 제법 엄지손가락노릇을 하였다. 한달이 지나서부터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신소가 대문을 그칠새없이 두드렸다.

《배나무집할머니, 손녀신책을 좀 잘하시라구요. 그게 어디 계집애예요. 가운데 뿔 하나 달구 나온 놈이지!...》

《우리 덕칠이가 이 집 손녀한테서 또 얼굴을 할퀴워가지구 돌아왔수다. 꼭 고양이 한가지라니까.》

《에이구, 며칠전엔 애들을 휘동해가지구 우리 집 추리나무 하날 통채루 요정내더니 오늘은 글썄 창문에다 돌팔매질까지 해뒀수다. ...》

그런 날이면 연주는 의례히 할아버지앞에 장판지를 내대야 했다.

《이놈의 계집애, 무슨 놈의 종자가 그렇게 드살차니!...》

싸리나무가 가독누에같은 상처자리를 남기며 날아들수록 소녀는 눈물

한점 없이 입술만 양다물었다.

그때마다 할머니가 큰일이라도 난듯 벅적이며 뛰어들어오곤 했다.

《령감, 환장을 했수? 그래, 에미없는 애가 불쌍하지두 않소?》

에미없는 아이?!...

소녀의 가슴에 박힌 웅이는 점점 뿌리를 뺏으며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것도 또 낯선 고장에 와서 사는것도 다 어머니가 없는탓이라는것이 골수에 새겨지고있었다.

나한테는 왜 엄마가 없을가? 내가 미워 달아났을가? 왜 아버지 새 엄마를 데려왔을가?

돌배나무밑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있을 때면 동정어린 손길을 내미는 사내가 있었다. 더벅머리소년인 조승철이었다. 그는 연주보다 두살이나 우였다. 서로 이웃하고있어 두 집사이는 자별한 관계였다.

그때부터 연주는 항상 《오빠, 오빠!》 하며 꼬리처럼 따라다녔다.

언제인가 승철이가 제포래 애들과 제기차기놀이를 할 때였다.

《오빠, 나두 같이 놀자마?》

옆에 있던 퇴박이마인 지택이가 시까스르며 한발 나섰다.

《야, 이진 남자들이 하는 놀음이란 말이야. 앓아싸개가 끼워들면서...》
승벽심이 강한 소녀는 까만 눈을 올롱거리며 대들었다.

《앓아싸개가 어쨌다는거야. 서서싸개는 뭐 그리 세보이니?》

퇴박이마도 지지 않겠다고 한발이나 나온 코를 훌 들이키며 마주섰다.

《너 같은 계집애들은 세간놀이나 하란 말이야.》

《뭐야!...》

온몸에 가시를 돋히며 해봤지만 결국 연주는 놀음판에 끼워들지 못했다.

그날 저녁 연주는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아무리 계집이래도 사내들이 하는 놀음놀이에 끼워들수 없다는것이 리해되지 않았으며 속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 인식을 자기가 깨버리고싶은 생각뿐이었다.

다음날 그는 승철에게 제기를 만들어달래서 그것을 차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시간이 흐르니 꽤 해낼만했다. 결코 사내가 하는 일을 계집이라고 못한다는 법이 없을것같았다.

며칠후 그는 퇴박이마에게 도전하였다. 누가 제기를 많이 차는가 겨루어보자는것이였다.

총각애는 때국물이 오른 팔소매로 코를 닦고나서 《흥, 너 같은 앓아

짜개가?!...》 하고 흘겨보았다.

승철이가 연주의 편역을 들었다.

《지택아, 뭘 그러니. 한번 해보려무나.》

되박이마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코방귀를 끼며 겨루기에 나섰다.

내기에서 지택은 제기를 서른여섯번이나 차올렸다.

입술을 웅다물고 찼으나 연주는 가까스로 서른한개였다. 비록 다섯개가 모자랐지만 그는 기뻐다. 앞으로는 꼭 이길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것이다.

그때부터 사내들은 연주가 저희 놀음판에 끼워드는것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했다.

어른들은 그에게 《사내번지기》라는 덧이름까지 붙여주었다.

이때부터 승철과 연주사이는 더 가까워졌다.

손아래에 동생이 하나없는 사내는 소녀를 친동기처럼 살갑게 대해주었다.

한어미의 몸에서 태어난 남매처럼 자별한 그들을 두고 아낙네들은 장차 좋은 배필감이라고 노닥노닥 재잘거렸다.

아닌게 아니라 연주는 《난 앞으로 승철오빠한테 시집갈테야!》라는 말을 꺼리지 않았다.

그때마다 승철은 멋적어하며 《너 같은 계집애한테 누가 장가를 들겠대?》라며 머쓱해하곤 했다.

철없는 애들의 봄꿈은 사춘기에 이르면서 짝밤알처럼 여물어가고있었다.

허나 총각티가 잡히고 오새가 들면서 승철은 연주를 만날적마다 괜히 얼굴이 시뻘개서 눈건사도 제대로 못했다.

소녀는 판판이었다. 이제는 봄물이 피여올린 꽃망울처럼 처녀꽃이 다 잡혔지만 곁에서 날아드는 눈초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승철오빠!-》 하면서 달려와 매달리곤 했다. 그럴 때면 꼭 영낙없는 오랍누이었다.

방학을 서울에서 보내고 돌아올 때도 승철이한테만은 뭐든지 꼭 사오곤 했다.

그러나 그것도 한시절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한 조승철이가 서울에 있는 ㅈ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비록 집살림이 푼더분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한 결실이였다.

승철이가 대학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 연주는 그를 마을어구에 서있는 느티나무아래로 불러냈다.

《아닌밤중에 왜 그래?》

통명스럽게 내뿜는 사내의 물음은 소녀의 마음을 시서늘하게 했다.

진중일 이 시각만을 기다렸는데 어찌면 이렇게 말할수 있단.

《오빠, 무슨 남자가 그래? 나만 보면 두꺼비보듯 놀라면서… 내가 뭐 자길 잡아먹겠나.》

《사람들이 보면 뭐라구 하겠니. 다 큰것들이 때없이 만난다구 흥질 할게 아니니.》

《남들이 무슨 상관이란. 난 그런건 개의치 않아. 오직 오빠만 보면 그만이야.》

승철의 속은 더없이 후더웠다. 가을하늘처럼 맑은 연주의 눈동자는 달 빛속에 투명하게 들여다보였다. 자기를 진심으로 따르는 소녀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그들은 잔디밭에 나란히 앉았다.

《오빠, 나두 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루 갈테야.》

《네가?!…》

《그럼요. 거기서 대학공부를 하면 오빠를 자주 만날수 있잖니.》

《하긴 넌 집두 서울에 있으니 이모저모로 좋을게야.》

연주의 얼굴색은 컴컴해졌다. 언제 한번 잊은적이 없는 아버지와 귀여운 동생이었다. 그러나 이붓어머니의 서슬푸른 낯짝이 어려와 가슴이 섬찝했다.

《참, 넌 정말 어머니가 없니?》

심기가 흐려있던 연주는 참지 못하고 무릎우에 얼굴을 푹 박았다.

가느다란 흐느낌소리와 함께 세차게 들먹이는 그의 어깨를 본 승철은 겁이 덜컥 났다. 무심결에 그의 아픈 곳을 찔렀다는 후회가 뒤통수를 쳤다.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울지 마!》

사내의 따뜻한 위로에 소녀는 《오빠!》 하며 품에 안겼다.

어망결에 그를 안은 승철의 얼굴은 별경게 달아올라 허둥지둥했다.

그럴수록 연주는 그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그만 울음을 그쳐. 내가 네 친오빠가 될게!》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듯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물기속에 잠겼던 까만 눈동자에서는 생기가 발산하고있었다.

《정말?!...》

《그럼... 그러니 앞으로 어머니가 없다고 서러워말아.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울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며 웃어야 한댔어.》

《참, 오빠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할래?》

《난 변호사가 되려구 해.》

《변호사는 뭘 하는 사람이게?...》

승철은 구름속을 헤여가는 달을 바라보았다.

《으—음, 그건 한마디로 말하기가 힘들어.》

《체,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면 두마디로 말하면 되잖아.》

달빛에 하얀 이발을 드러내보이는 소녀의 미소는 매력적이였다.

조승철은 머리를 굽으며 힘들게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는 죄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정말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해주는 사람을 말해.》

김연주는 밝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야 그럼 오빠, 대단한 사람이 되겠구나?!》

《글쎄, 그렇긴 하지만 그게 어디 쉽니. 난 학비때문에 걱정이다. 농사나 짓는 우리 부모들이 그걸 보장하느라 꼬리없는 소가 돼야 한대구 생각하니...》

갑자기 우울해진 승철을 보는 연주의 마음은 쓸쓸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칭얼거렸다.

《으—음 오빠, 아까 날 보구 앞을 내다보면서 웃으라구 하구선 오히려 제가 울적해하네.》

그제서야 승철의 낯색은 환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난 고학을 해서라도 꼭 변호사가 되겠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감옥에 끌려가 뜯기우고 찢기우니. 난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테야.》

그 모습은 연주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굳센 의지와 확고한 결심을 피력하는 사내의 자태가 더없이 돋보였다.

연주는 젖은 눈을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널린 별들과 산 허리에 있는 마을의 불빛이 섞여 물기어린 그의 눈동자에서 아름다운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들은 한참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을 걸으며 연주는 자주 총각의 얼굴을 훑쳐보았다. 언제 봐야 말이 적고 의젓해보인다. 친오빠처럼 살뜰하고 따스한 정으로 설음만 가득찬 자기의 가슴을 녹여주곤 한다.

연주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갑자르던 끝에 웅얼거렸다.

《참, 오빠!》

승철은 부리부리한 눈길로 그를 돌아보았다.

《왜?》

보통이를 가슴에 꼭 껴안은 연주는 그의 눈빛에 질린듯 입을 웅다물었다.

《뭔지 어서 말해.》

연주는 선뜻 입을 열수 없었다. 어느때는 주저를 모르던 그였지만 정작 속마음을 터놓자니 어쩐지 허바닥이 제멋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주뭉거리던 소녀는 달콤한 미소와 함께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 이거 우리 할머니가 주렸어.》

연주의 랑불은 선흥빛으로 물들고있었다.

《이게 뭔데?...》

《내가 알게 뭐람. 집에 들어가서 펴봐.》

사내의 가슴에 보통이를 꼭 안겨준 소녀는 집쪽으로 나는듯이 달려갔다.

승철은 어둠속에 묻혀지는 연주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보따리속에는 양복과 학용품들이 들어있었다.

승철의 코마루는 시큰해왔다. 항상 벌ча고 더뭉거리기만 하던 연주의 속이 이렇듯 깊은줄은 몰랐다. 정에 주리고 지친 소녀의 진정이 어린 옷이어서, 명랑과 웃음으로 불행에서 탈출하려는 소녀의 숨결이 배인 물건들이어서 더없이 소중한게 여겨졌다.

승철이가 대학으로 떠난 후 연주의 생활은 조명없는 무대나 같았다.

좋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것만같아 마음은 서럽기만 했다. 그럴수록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정이 더 그리웠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토방에 앉아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의 얼굴은 노기로 푸르딩딩해있었다. 대신 아버지는 침침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채 주눅이 들어있었다.

정에 주릴대로 주린 연주는 철부지처럼 주성의 목에 매달렸다.

《아버지, 날 데리러 오셨지요?!》

주성은 딸의 기대어린 물음에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

연주가 기쁨을 터치기 전에 마른벼락이 내리쳤다.

《무슨 당치 않은 소릴!…》

할아버지의 술진 눈가에서는 퍼런빛이 뿜어나왔다.

《내가 양놈들의 땅으로 이주해가는것만도 수치스러운데 저애까지 데리고 가겠대구?!…》

로인은 대통을 토방모서리에 대고 탁탁 털면서 잘라매듯 말했다.

《다시는 내앞에서 그따위 허튼수작질은 말아! 그래, 에미없이 자란 저 불쌍한것을 이제 남의 땅에까지 데려가서 그 알량한 네 후처의 등살에 살점이 다 찢겨나가게 하겠다는거냐?… 안된다, 안돼! 내가 숨이 붙어있을한 절대로 연주만은 너한테 맡길수 없다.》

할아버지는 더이상 말할것이 없다는듯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갔다.

속이 한줌으로 줄아든 연주는 아버지를 바라볼뿐 아무 말도 못했다.

김주성은 피로운 심정을 터놓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딸한테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것같아 한숨만 폭폭 내그었다.

《아버지, 우린 다른 나라로 이사가나요?》

《그렇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렇게 반대를 하니 이번에도 널…》

가슴속에 고여드는 설음을 껴안고있던 연주는 주성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전 여기에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 너두?!…》

《예, 이제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가면 누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겠나요. 난 여기서 사는데 더…》

연주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참아오던 오열이 목구멍을 메워버렸다.

지금껏 어머니정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만을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마저 대양너머로 멀리 떠나는것이 아닌가.

아, 내 운명은 어쩌면 이리도 박복할가?

김연주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오늘은 저한테 어머니에 대해 말해줄수 있겠지요?》

바늘에라도 찔린듯 흠칫하던 주성은 딸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는 철이 다 든 연주였다.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

《연주야, 네 어머니는 네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다.》

《어째서...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따지고드는 물음앞에 주성은 담배를 붙여물었다. 희뿌연 연기속에 피로운 심사를 실어보내듯 그는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네가 두살 잡히던 해 가을이었다. 그때 난 널 데리구 할아버지의 생일때문에 이곳으로 와있었지. ...》

연주는 말을 주춤하는 아버지를 재촉하며 물었다.

《어머니는 왜 오지 못했나요?》

주성은 어두워진 기색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토방을 내려앉힐듯 한숨만 거칠게 내그었다.

《그때 네 어머니는 산후탈이 도져서 움직이기가 불편했단다. 그런데 그가 혼자 있는 틈에 도적들이 집에 들어올줄이야...》

토막토막 끊기는 그의 목소리에는 질은 아픔이 배여있었다.

이윽고 담배연기를 길게 빨아들이고난 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소식을 받고 서울로 되돌아갔을 때는 이미 네 어머니는 물론 온집이 재가루로 되어버린 상태이더구나.》

연주는 주성의 팔을 부여잡고 다우쳐물었다.

《그러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시르죽은 기색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경찰과 이웃들에게 알아보니 우리가 나들이간것을 알고 집에 들어왔던 도적들이 네 어머니한테 발각되자 저들의 범행을 감추려고 그를 칼로 찔러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게 아니겠니. 결국 네 어머니는 시신도 남기지 못한채...》

김주성은 숨이 킁 막힌듯 말을 더 잇지 못했다. 낮색은 죽은 짐승간처럼 침침하게 어두워지고있었다.

연주는 입술을 웅다물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자기에게서 가장 귀중한 품을 앗아간 폭력배들에 대한 복수심만이 끓어번지고있었다.

며칠후 아버지는 끝내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해갔다. 어머니가 이붓어머니이면 친아버지도 이붓아버지가 된다는 말을 증명해보이듯...

5

자지럽게 울리는 초인종소리에 김연주는 두눈을 버쩍 떴다.

신새벽부터 누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림을 제끼던 그의 눈동자는 한벌 더 커졌다. 해가 벌써 한발이나 솟아있다.

늦잠을 잤구나!

그는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치미는 생각에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풀썩 주저앉았다. 주말휴식이라는것을 잊었던것이다.

또다시 초인종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인지 몹시 급한 모양이었다.

출입문을 여니 뜻밖에도 동생인 김수일의 내외가 서있었다.

《누이!-》

《아니, 너희들이 웬 일이나?》

연주는 반가움과 의문이 엇갈린 눈길로 그들을 맞이했다.

수일은 질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집에 있으면서두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안해인 류정이라도 가무잡잡한 얼굴에 미소를 피우며 나무람했다.

《에이, 이렇게 신신편편해있는걸!... 우린 또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지요.》

연주는 안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초인종소리를 못들었구나. 그런데 다들 어떻게?...》

배부른 꾸레미를 량손에 든 류정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종알거렸다.

《글쎄, 난들 알게 뭐예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침부터 누이네 집에 가자구 설치대는데...》

거두지 못한 부엌을 보여주는게 창피해서 연주는 바빠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다.

그러자 워낙 영치가 가볍고 눈치가 빠른 류정이가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만류했다.

《누이, 봐주세요. 내가 다 어렵히 하지 않을라구요.》

그 녀자는 가볍게 헬끔거리며 속에 품고있던 의문을 은근히 내비쳤다.

《그런데 누이가 지방법원의 원장후임으로 선출됐다는게 정말이예요?》

연주는 연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일이가 넥타이를 풀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보오. 당신은 내 말을 통 믿지 않더니...》

《흥, 신새벽부터 <여보, 누이가 인차 원장으로 된다는데 가서 축하를 해줘야지.> 하며 흥두께 내밀듯하니 어떻게 선뜻 믿겠어요.》

류정은 방안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등에 대고 입술을 호박꽃처럼 짝 내밀어보였다.

연주는 의문스러웠다. 동생이 어떻게 내신서의 내용을 알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애정이 아버지인 그 소릴 어디서 들었다니?》

류정은 두눈을 꼭게 흘겼다.

《아이, 누구긴 누구겠어요. 원영준국장님한테서지요.》

《아니, 그럼?!...》

김연주는 뇌리를 꺾지르며 스쳐가는 생각에 정신이 버쩍 들었다.

그가 알고있다면 혹시?!...

그러지 않아도 조승철의 재판때문에 그를 만나고싶었던 연주였다.

아직 처녀시절의 미모가 그대로 남아있는 류정은 미소를 남실거리며 시누이의 어깨를 톡하니 건드렸다.

《역시, 누인!...》

찬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는 그의 입을 연주는 손바닥으로 가리웠다. 그리고는 한쪽눈을 꺾끔거리며 암시했다.

《됐다, 그 소리는 그만하자. 아직 정식 임명받은것두 아닌데...》

류정은 입술을 꼭게 삐죽거렸다.

《참, 누이 나 갈아입을 옷을 좀 줘요.》

《옷장에서 마음에 드는걸 찾아보렴.》

방안으로 들어가는 류정을 바라보는 연주의 마음은 즐거웠다.

시누이는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의 흉허물을 찾는다는 해보다 밝다고 했지만 그들사이엔 서로 무림이 없었다. 심지가 약한 동생에 비해 류정은 주대가 있고 사내처럼 시원스러워 대하기도 편했다.

여느때는 휴식날이면 침대에서 덩굴던가, 심심풀이로 기소장을 들여다 보곤 하던 그였다. 그런데 동생네 부부가 찾아오니 사람사는 집안같은게 흥그럽기만 했다.

수일이는 비록 이복동생이지만 친형제나 다름없었다.

미국에서 살던 그가 추방령을 받고 서울에 온것은 몇해전 초봄이었다. 가까운 친척 하나없는 연주에게 있어서 수일은 외로운 생활의 구석을 비쳐주는 빛이나 같았다.

허나 생활은 바라는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다.

아직 젊어서인지 수일은 인차 세상흐름에 말려들었다. 그때는 온 강토가 통일열기로 굽이치던 때인지라 그는 벌써 어느 사회단체에 발을 담고 있었다.

《난 네가 그 어떤 정치문제를 론하는 마당엔 뛰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술에 취한자들의 객기에 불과한거야. 권력을 위해 악청 돋구는자들의 란무장이란 말이다.》

연주는 그의 처사를 두고 여러번 충고했다.

수일은 막무가내였다.

《누인 말끝마다 자기의 중립주의를 주장하는데 그럼 내 한가지 묻자요. 그래, 누이는 자기가 옹호하고있는 <법치주의>를 어떻게 보세요? 이 사회의 정치가 정말로 법에 기초하여 실현된다구 보는가 말이에요? <법에 의한 행정>, <법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는가 말이에요?》

창살같은 질문앞에 연주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온 리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그였다.

《넌 벌써부터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풀수에 차기 시작했구나. 물론 법의 시행에서 일련의 결함들이 나타나는데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결 트집잡고 악법으로 락인하는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굵은 상처를 도려내려면 생활이 묻어나오는것은 당연한 일이야.》

《흥, 역시 <법치주의>수호자다운 론리군요!》

《그만해라.》

격한 감정을 억제하느라 숨을 들이킨 연주는 느슨해진 어조로 말을 이었다.

《넌 내가 왜 법관이 되었는지 다는 모를게다. 난 두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강력범들에게 빼앗겼어. 지금도 시신마저 깡그리 타버린 어머니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 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자들을 징벌하려고 법복을 입은거야!》

《물론 나도 지금껏 누이가 <보안법>을 휘두르는 재판에 나서지 않는 것을 준칙으로 여긴다는걸 모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법관이기때문에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대구 봐요.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애매한 사람들을 <반공>이라는 칼도마우에 올려놓고 란도질해서는 안 된다는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외면하다가는 후날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뵈엔 달리 될수 없단 말이에요.》

손세를 써가면서 자기주장을 력설하는 동생앞에 연주는 락심천만한 기색을 지었다.

역시 리념에 관한 문제였다. 한형제조차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서로 비방하며 사는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배는 물길을 따라가고 사람은 희망과 신념을 따라간다고 연주는 더이상 가타부타 하지 않았다. 이제는 동생의 배머리를 제가 조종할수 없는 것이다. 단지 남매간의 의리만 변치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수일이 역시 그것을 바랬다. 벌써 5년전의 일로 되었다. ...

실내복을 입고 나오는 류정을 보는 순간 연주는 별안간 입술을 한쪽으로 실그러뜨리며 킥킥웃기 시작했다. 꼭 통나무토막에 천을 씌워 놓은것같았다.

그의 눈길에 이상해서인지 류정은 제 모양을 거울에 비쳐보았다. 그러다가 어이없다는듯 깔깔 웃어댔다.

《아유, 망측해라!... 에이 난, 왜 엉치가 이렇게 장판지에 가서 달라 붙었는지...》 하며 팔소매와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렸다.

《아이, 누이 이제 그만 웃어요. 그런대구 작은 키가 이제 와서 커지겠나요 뭐.》

《하긴 절구통에 치마를 입혀놔두 오금을 못쓰는 사내들두 있다더라.》

《그것 봐요. 아무렴 내가 그 절구통보다야 못하겠나요 뭐.》

류정은 넉살좋게 대꾸하며 구력지안의 물건들을 꺼내놓았다. 고기와

통줄임, 납새 등 갖가지 음식감들이 쏟아져나왔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사왔니. 돈이 퍼그나 들었겠구나.》

《제가 벌어 제가 먹는데 뭘 하나요 뭐. 오늘은 우리 집안의 명절이나 같은데 실컷 먹구 마시자요. 한강 뚝섬광장에 있는 <벼룩시장>에 가니 다른 곳보다 확실히 녹더군요.》

《거기에도 <벼룩시장>이 생겼니?》

《생긴지가 언제이게요. 누이두 한번 가보세요. 지하철도 유원지역 딱 맞은편이에요. 종로구나 중구, 성동구의 <벼룩시장>들 못지 않아요. 광장 바닥에 온통 상품을 널어놓은게 참 불만해요.》

류정은 일하다말고 손세를 써가며 설명해댔다.

연주는 어처구니가 없어 혀를 찼다. 사회가 점점 더 부패되어가는 꼴에 눈이 시렸다. 서울바닥이 온통 장마당천지로 돼버리는것같았다.

류정이가 말한것처럼 뚝섬지구 광장은 물론 중구의 충무아파트홀 광장, 성동구의 구청광장, 강북구의 예술회관 광장을 비롯한 공지들에서는 매 자치구들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는 《벼룩시장》들이 존재하고있었다. 판매 시설이나 위생방역 같은것은 전혀 없다. 콘크리트바닥에 상품과 음식물들을 펼쳐놓고 구매자들을 찾는 장사군들의 목소리는 아비규환을 방불케 한다. 광장의 면모자체가 완전히 손상되고 돈벌이에 환장된 인간들의 아귀다툼장소로 변해버렸다. 성하는것은 무질서와 범죄뿐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구들에서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장려하고있었다. 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도시의 면모보다도 《벼룩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에 더 관심이 있었던것이다.

《참, 애정인 왜 데려오지 않았니?》

《그앤 요즘 어른들보다 더 바빠 돌아친다니까요. 대학에서는 밤늦게야 돌아오지, 그리구 아침이면 묵은밥을 대충 걸치곤 새처럼 날아나지요 뭐. 오늘은 뭐 인터넷서점에 간다나요. 어쩌면 신통히 제 아버지를 닮았는지...》

류정이의 빨간 입술은 새벽까치처럼 설새없이 나풀거렸다.

그의 장광설이 연주에게는 듣기가 좋았다. 마치 달변가라도 된듯 손재까지 써가는 모양새가 귀염성스럽기까지 했다. 모든 행동이 사랑스럽고 지어 신비스럽기도 했다.

《언젠 뭐 자길 닮았다더니?...》

류정은 어쭙게 웃었다.

《고울 때는 날 닮구 미울 때는 제 애빌 닮은거지요 뭐.》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시름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엘 본지도 벌써 몇달이 잘되는구나. 그새 껍 컸겠지?》

류정은 홍당무우를 칼로 썩둑썩둑 자르더니 연주의 입에 물려주었다. 그리고는 자기도 하나 씹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난 처음엔 고게 날 닮아서 올챙이처럼 되지 않겠는가 하구 얼마나 걱정했게요. 너자야 나처럼 인물이나 뻔뻔해선 뭘 하나요. 키도 크구 몸매도 고와야 시집갈 걱정두 없지 않나요. 아, 그런데 요건 먹은 건 다 단지처럼 옆으로 퍼지구 키는 어데 커야 말이죠. 그런데 한 뒤달 전부터 살이 빠지더니 싱아대처럼 자라는게 알리더군요. 이젠 나보다두 더 커서 육할 땐 내 뒤목이 다 뻗뻗해지는데요 뭐.》

《그럼 한시름 났구나.》

《정말 그래요. 가만 보니 그애가 점점 커가면서 꼭 제 고모를 닮는 것같아요.》

터무니없는 말에 연주는 《뭐, 나를?!...》 하며 웃었다.

《예, 그렇다니까요. 날 닮은건 명백히 아니구 또 제 아버질 닮은것두 아니구... 그러니 고모밖에 닮을 사람이 있나요 뭐.》

《넌 종종 그런 실없는 소리루 사람을 웃긴다니까.》

《아니예요. 시컨에야 어디 누이만한 사람이 있나요 뭐.》

《별소릴 다 하는구나. 그래 요새 애정이 아버지일은 잘되니?》

류정은 칼로 배추를 다듬으며 투덜거렸다.

《에이구, 나두 모르겠어요. 잘되는지 마는지 원... 요즘엔 밤늦게까지 컴퓨터에 마주앉아 망에서 무슨 글을 그리두 많이 주고받는지... 꼭 19살 난 애정과와 같지요 뭐. 내가 뭘 하나 엿보는 기미만 좀 보이면 못할짓이라두 하는것처럼 얼굴이 시뻘뻘해서 해보자구만 드니...》

《컴퓨터를 전문 다루는 직업이니 그러겠지 뭐.》

연주는 불통그러진 그의 마음을 녹잡혀주었다. 그러나 동생의 행동이 레사롭게 여겨지지 않았다.

몇년전부터 사람들속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그것이 우환거리를 낳고있었다. 류언비어를 류포하는데서 생산성이 제일 높은 수단으로 리용되었던것이다. 레를 들어 한 인물에 대한

신빙성없는 생활자료를 게재한다면 가입자들은 그것을 곧이 믿고 그에 대한 자기식의 견해를 대글형식으로 파급시킨다. 하나의 헛소문이 정설로 인정되기가 쉬웠다. 더우기 지금같이 선지유세가 한창일 때는 더했다.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거론하며 정당이나 립후보자의 몸값을 저울질 하기도 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라는 방탄벽을 내대며 국내정세파동에 영향을 주는 이 문제로 하여 정계는 물론 공안기관까지 골머리를 앓았다.

음식감들이 준비되자 류정은 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입은 휴식을 몰랐다.

《참 누이, 요즘 거 무슨 <종북>사건이 또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으나 연주는 혼연히 받아들였다.

《그건 어디서 들은 소리니?》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면 노상 그런 일이 터지는거야 사실이 아니나요. 지금 밖에서는 소문이 짜하던데요 뭐.》

《소문이라구 다 옳은진 아니야. 아무렴 공안기관이 무근거하게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니.》

류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이 감돌았다.

《글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지야 어디...》

그 녀자는 연주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중동무이었다. 허나 입은 여전히 빗장을 열어놓은 상태였다.

《솔직히 난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을 숨기려구 하지, 또 밖에서는 흥흥한 소문만 나돌지... 어찌 보면 이 <한국>이라는 데도 미국이나 다름없다는감이 들어요.》

《그건, 무슨 소리니?》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총기류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죽어가지요. 하지만 내가 이곳에 와서 몇년 살아보니 여긴 죄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굴레를 씌워서 처형하더군요.》

《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류정의 표정은 더 심각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요즘 지하철도에서는 <좌익사범>을 신고할데 대한 방송을 계속 불어대고있지 않나요. 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등골이 다

오싹해지군 해요. 참, 그런데 이 <남한>땅엔 <좌익사범>은 있는데 왜 <우익사범>이라는 말은 없나요?》

김연주는 말없이 배추잎사귀만 움지락거렸다. 류정이의 말이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라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실용정부》(리명박 《정권》)가 들어왔을 때부터 남조선에서는 진보단체 《숙청》이라는 돌개바람이 그 어느때보다 더 세차게 몰아치고있었다. 몇 해동안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던 《좌익사범》이라는 표현은 몇달전 《국정원》 원장이 새로 취임한 후부터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말하는 《좌익사범》들이란 대체로 통일운동가들과 《종북》인사들을 의미한다. 이런것으로 하여 올해에만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때 김수일이 기지개를 하며 나왔다.

《여보, 아직 안됐소?》

《젓달래는 애처럼 너무 보채지 말아요.》

수일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지청구를 늘어놓았다.

《오늘은 누이의 날이니 음식이 누이입에 맞아야 하요.》

연주가 가볍게 나무람했다.

《무슨 사내가 부엌일에 간참이니.》

《누인 몰라서 그래요. 요즘 녀자들은 어디 누이네 세대하구 같은줄 아세요. 손에 물을 묻히기 싫어서 매점이나 식당에만 눈길을 돌린단 말이에요.》

류정은 곱게 두눈을 흘겼다.

《또 봉건같은 소릴 하네. 아 남들이 파는걸 사주면 서로가 좋은데 웬 시비질이예요.》

《당신은 아직 모르는구만. 남자는 안해가 만든 음식을 맛보면서 애정을 더 느낀단 말이요.》

《예-예?!... 그럼 녀자는요?》

수일은 어깨를 으쓱 취율리며 노래가락 흥얼거리듯 말했다.

《아, 그거야 물론 남편의 땀내나는 옷을 빨 때이지!...》

류정은 남편의 생활론리앞에 더 다른 말을 못했다. 아마 그걸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제부턴 당신의 그 요리솜씨를 물어둘 생각은 아예 마요.

그럼 난 누이와 좀 이야기를 하겠소.》

연주는 동생을 따라 방안에 들어갔다.

수일은 자리에 앉으며 저으기 심중한 표정으로 물었다.

《조승철변호사에 대한 재판을 누이가 맡게 되나요?》

너무 직선적이라 연주는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내용인데 수일이가 어떻게 아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리고 동생은 왜 이다지도 심각해하는지...

《넌, 그 소릴 어디서 들었니?》

연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수일은 누이의 예리한 눈빛이 두려운듯 눈길을 내리깔았다.

《거야 알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다가 연주의 두손을 부여잡고 사정하듯 말했다.

《누이, 제발 그 재판만은 말지 말아주세요.》

동생의 언행이 이상스러웠다.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는게 분명했다.

혹시 이해가 그 사람의 사건과 련관된게 아닐까?

그는 따지고드는듯한 어조로 물었다.

《솔직히 말해봐라. 혹시 너 그 사람의 일에 공모한건 아니겠지?》

수일은 놀란 노루처럼 벌떡 일어서며 불통그러진 소리로 대꾸했다.

《같은 말을 해두 무슨 소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왜 그 재판에 그리도 관심을 가지니?》

다급하게 몰아대는 연주앞에 수일은 속이 썩기는듯 인상을 찌프렸다. 그러다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어쨌든 누인 이 일에 관계하지 않는게 좋을거예요.》

《혹시 날 위협하는건 아니겠지?》

수일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생똥같이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네가 그 일때문에 안달아하는 원인이 있을게 아니니.》

《그건 다 누이를 위해서 그러는거예요. 만일 누이가 그 재판을 맡게 되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수 있단 말이에요.》

뭔지 꼭 짚지 못하고 두리뭇실하게 중얼거리는 동생이 의심스러웠다. 고집스러운 그 속통을 이 자리에서 헤쳐보기도 어려웠다. 장차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것같은 위구심이 들었다.

이때 초인종소리가 울렸다.

류정의 명랑한 음정이 팽배해진 그들사이의 공기를 밀어던졌다.

《누이, 우리 애정이가 왔어요!》

6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의 언덕에 산비둘기 몇마리가 날고있었다.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파쇼독재의 칼날에 숨진 렬사들이 누워있는 이곳에도 봄은 찾아왔다. 푸른 자락을 펼친 상록수들, 보라빛들꽃, 봄물오른 잔디들이 억울한 령혼들을 봄바람으로 부르고있었다.

로동조건개선을 요구하며 독재《정권》에 항의하여 분신자살한 전태일로 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진혼의 행렬이 이곳으로 모여왔던가. 통일운동가였던 문익환,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민주화운동가들이였던 장준하, 함석헌...

산자와 죽은자의 마음속대화로 민중의 소원이 이승과 저승의 담을 넘어 합류되고있었다.

결코 비감만 흐르지 않았다. 찢기우고 짓밟힌 열혈의 심장들이 이곳에서 봄을 기다리고있다. 자연의 봄이 아닌 환생의 봄을...

흐릿한 하늘아래 장례행렬이 흐르고있다. 붉은 천을 씌운 령구를 앞세운 조객들이 모란공원으로 오른다. 그들의 얼굴과 눈동자마다에는 고인과 영결하는 아픔이 짙게 서리고있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조차 비감에 젖은 눈을 들어 그들을 지켜보고있다.

사진에 비낀 고인의 모습은 백발의 녀인이다.

죽었다는것과 살아있다는것은 무엇이 다를까? 살았다 함은 육체에 혈액이 돌고 모든것을 의식하고 모든것을 감각한다는것인가? 죽음이라 함은 모든 관능이 육체의 썩어짐과 함께 그 활동을 잃어버린다는것인가?

고인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틀을 정히 든 윤경진은 지금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있다. 얼굴의 모든 선들에는 절통한 비애가 새겨져있었다.

슬프게 숙어진 이마와 눈으로부터 약간 홍조를 띤 두볼우에 흘러내리다 마른 눈물자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표정은 가슴저린 아픔으로 구슬퍼보였다.

세월이란 참으로 야속하고 박정하다. 한 인간의 육신을 한겹두겹 꺾고 꺾아 꺼리낌없이 저세상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다.

아, 어찌 세월의탓이라고만 해야 한단 말인가!

가장 귀중한 인간을 잃은 슬픔으로 심장은 갈기갈기 토막쳐나가는듯했다. 피를 말리우며 대성통곡으로 이 슬픔을 가셔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눈물없는 몸부림이야말로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것과 같은 아픔이며 흘러야 할 눈물만큼 사람의 피를 말리우는 피로움이였다.

수십년세월 독재의 사슬과 칼날에 병들고 찢기운 유명무명의 인사들이 잠든 모란공원!

바로 오늘은 통일을 위해 마지막호흡까지 몰아쥔 한 녀인이 안식처를 정하고있다.

고인의 령혼을 부르듯 산비둘기들이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주변을 날아엿다.

하늘조차도 낯색을 흐리며 조용히 흐느끼고있다.

석상처럼 굳어진 조객들의 비분인양 보슬비가 봉분우에 차분히 내려앉는다.

앞에 놓인 화환들조차 오열하듯 바르르 떨고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윤경진은 젖어든 눈길로 묘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민주렬사 윤기옥의 묘!》

세상경난을 겪을대로 다 겪어 온통 주름투성이인 녀인의 얼굴이 고행에 찬 그의 삶을 보여주는듯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다웠다. 비록 육체는 갓어도 옛 미모의 흔적을 안고 근엄한 기색으로 경진을 바라보고있었다. 그 눈길은 마치 그를 껴뽏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며 온몸에 스며드는것같았다.

물기어린 경진의 눈빛도 고인을 심장에 쏘아박듯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제는 저세상사람이 된 나의 스승,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간직해온 모성의 품이였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이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하며 또 선생님이

기도 하다! 아, 이렇듯 귀중한 은인이 없는 나의 생은 과연 무엇에 필요하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계절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윤기옥의 사랑과 믿음으로 경진이는 어지러운 세상을 투시할수 있는 눈과 귀를 갖추었다. 그 보석같이 밝은 빛을 받으며 자유로이 춤을 추고 미래를 개척할 힘을 키워왔다.

귀전으로는 자갈밭같은 인생길을 피눈물로 걸어온 윤기옥의 절규가 울려온다.

《나는 암흑시대에 태어나 파쑈독재의 사슬에 청춘을 빼앗긴 녀성이다. 하루아침에 <간첩>이라는 억울한 루명을 쓰고 10여년이라는 삶을 <보안법>이라는 서슬푸른 이발에 갈기갈기 찢기웠다. 비록 몸은 살았어도 죽은 령혼으로 사랑과 모성애를 찬탈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죽음의 철창속에 갇혀 갇은 전횡과 폭행, 고문속에서 통일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였다. 왜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 길을 택했으며 선행로 통일이라는 글발을 새기며 초불처럼 쫓는가를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그들이 바라온 소원인 통일! 바로 여기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기에 나는 스스로 그 길을 택했다. 차디찬 감방에서 내가 찾은 길은 다름아닌 민주와 통일이기에 짓밟히며 살아온 남은 여생을 그 길에 짊그리 바치고싶다. ...》

이것은 그가 남긴 수기 《옥중에서 찾은 출로》의 한 대목이다.

윤기옥의 삶을 더듬는 윤경진의 입가에서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있다. 조용하면서도 비장하게 울리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상실의 아픔으로 무거워진 대기속으로 퍼지고있었다.

조객들은 물먹은 목소리로 합류했다.

노래소리는 고인을 배려우는 추도곡인양 비발속을 메아리치고있다. 모란공원에 누워있는 열사들의 혼백을 깨워주며 그들이 바라던 민주와 봄, 통일의 새봄을 불러올 열의로 굽이치고있었다. ...

떨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헤여지고싶지 않은 품을 떠나는 경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허나 가야만 했다. 스승이 피워준 꿈, 포근한 손길로 떠밀어주는 그 길을 따라 힘찬 걸음을 내디뎌야만 하였다.

...어둑어둑한 어둠은 젊은이의 가슴속에도 소리없이 밀려들고있다. 발밑으로 기진한듯 흐르는 물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넋없이 앉아있는

그였다.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스승의 모습은 지극히 가슴을 저미고있다.

수십년세월 별로 웃어본적이 없는 윤기옥이다. 거치른 인생길을 걸어 온 불행한 삶, 그속에서도 눈비를 막아주는 옷자락이 되어 품안아 키워 준 어머니이기도 했다. 때로는 엄한 추궁으로 운명의 지지점을 세워준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토록 사려깊던 윤기옥을 잃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수 있으랴.

《여기에 있었구만.》

신문사에서 함께 일하는 명필이가 쓸쓸한 기색으로 다가왔다.

《자넨가.》

며칠새 꺼칠해진 경진을 보며 친구는 실숨을 내그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구. 비분에 잠겨 자신을 지내 혹사하는것두 떠나간분에게 죄되는 일이라구 생각하네. 그러니 자기를 이겨내야지. 더우기 자네야 우리들의 회장이 아닌가.》

명필의 충언을 고맙게 감수하며 경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네. 그런데 무슨 소식이 있나?》

명필은 얼굴에 화기를 실어오며 말했다.

《광주에 있는 친구들이 소식을 알려왔네. <사회안전법>으로 재기 소된 윤기옥선생님을 재판한 사람은 다름아닌 김연주라는 판사였다는 구만!》

경진의 눈빛은 놀라움에 젖어있었다.

《김연주?!...》

《그렇네. 며칠전 XX지방법원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부장판사일세. ㄸ대학교에 다니다가 미국류학까지 한 녀자라는구만. 광주지방법원의 판사로 배치되어 첫 단독재판으로 그 사건을 맡았다는거네.》

윤경진은 법원의 정문에서 만났던 연주의 표상을 떠올렸다.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골수에까지 차있는 녀성이다. 그날 재판에서도 어린애의 운명에 대해서는 너무도 냉담했었다.

《그때 윤선생님을 변호한 사람은 조승철이라구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네.》

《그게 정말인가?!...》

한줄기의 빛을 발견한듯 경진의 낮색은 밝아졌다.

《그렇네. 현대 흥미있는건 검찰이 그를 재판에 기소하였는데 바로 김연주가 재판장으로 나설것같다는 소문일세.》

《아니, 그럼?!...》

락심한 기색으로 경진은 한숨을 내그었다.

《그래, 무슨 죄명인가?》

《그야 뻔하지 않나. <북찬양고무죄>에 뭐 <간첩>혐의까지 있다나...》

경진은 어금이를 지그시 깨물었다. 그 악법은 순진하고 성정고운 윤기옥에게 《간첩》루명을 강제로 씌워 그의 삶을 란도질해왔다. 그런데 오늘은 또 그를 변호하였던 사람이 그 희생물로 되지 않았는가. 독재자들이 내흔드는 파썸악법이 청산될 날은 과연 언제란 말인가.

그는 속에서 일어나는 번열에 떠박질리운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니 그 변호사선생은 만날수 없다는 소린가?》

《아마 그래야 할것갈네. 현재는 불구속이라지만 언제 구속할지 모르니까.》

량미간을 쪼프리며 상념에 잠겨있던 경진은 생각난듯 명필을 바라봤다.

《참, 그 김연주라는 판사를 만나보면 어떨가?》

명필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흥, 그 얼음장같은 녀자를?!... 설사 만난다구 해두 자기가 유죄를 선고한 녀인에 대해 좋을 소릴 할것갈나?》

경진은 머리를 끄덕였다. 하지만 별도리가 없었다. 현재는 윤기옥사건에 제일 가깝게 접근한 사람들은 조승철과 김연주 두사람뿐이다.

《그렇다구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을수야 없지 않나?》

명필은 혼연한 태도를 취했다.

《너무 조급해말라구. 지금 우리 청년통일실천협회 성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있으니 인차 좋은 소식이 올거네.》

《어쨌든 그들을 만나보는것두 나쁘지는 않을것갈구만.》

경진의 조갈든 입술은 다시 열렸다.

《참, 그 조승철변호사는 아직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지?!》

《그렇네. 대신 경찰들의 집중감시를 받고있네.》

경진의 안면근육은 금시 이완되었다.

《내가 그분을 만나겠어!》

명필이 두손을 설레설레 내저었다.

《그건 안돼. <중복>인사로 락인된 그를 만났다가 자네까지 남의 눈초리를 달고 다닐셈인가?》

경진은 넋지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보라구, 사람이 너무 소심해지면 주어진 조건도 리용하지 못하게 되네.》

명필은 두눈이 켜졌다.

《조건이라는건 또 뭔가?》

《우리한테 기자라는 공개적인 신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 자넌 취재형식으로 그를 만나겠다는거겠지!》

《만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 그한테서 일정한 자료를 받으면 사건해명이 더 빨라질게 아닌가.》

명필은 손바닥으로 턱을 쓸며 《그러다가 혹시 그가 넘겨주지 않으면 어찌겠나?》 하고 중얼거렸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진보인사들을 변호해왔네.》

명필은 경진의 말에 공감하듯 연한 미소를 띠었다.

7

《국정원》청사는 서초구 내곡동에 자리잡고있었다. 중구의 명소로 일러오는 남산을 버리고 한강너머 강남지역으로 온것은 그대로의 원인이 있었다.

내곡동은 구룡산과 대모산, 경기도 성남시와 경계를 이루는 인룡산사이에 형성된 분지이다. 이 지대는 서울시내에서 《레이다에 걸리지 않는 곳》으로 인정되어 거의나 개발제한구역들이다. 《정부》에서는 서초동을 《법조구획》으로 꾸렸다면 여기에는 《세계최대의 정보구획》으로 형성할 결심이었다.

중심부에 뱀처럼 파리를 틀고앉은 《국정원》의 청사들은 어느모로 보나 살기가 번뜩이고있었다.

미국대사관에서 돌아온 원영준이 사무실문을 여는데 녀직원이 기다린듯

다가왔다.

《국장님, <알파팀>의 활동자료입니다.》

밤색뚜껑의 결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큼직하게 찍혀있었다.

영준은 문건을 받으며 물었다.

《나한테 손님이 오지 않았소?》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리성삼검사가 한시간째 기다리고있습니다.》

《어서 들여보내오.》

방에 들어선 원영준은 코트를 벗어 말코지에 걸고 책상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방금 받은 문건을 번졌다. 조직된지 몇년 안되는 《알파팀》의 최근실적과 성원들의 동향자료였다.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까만 양복을 입은 리성삼이 주뭇하니 들어섰다. 비굴한 미소를 담은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결에 바투 다가섰다.

《국장님, 그새 옥체건강하셨습니까?》

인사말 또한 거북할 정도로 으리으리했다.

영준은 그 소리에 당황한듯 문건을 접었다.

그제서야 성삼은 실책을 깨닫고 헛식은 웃음을 지었다.

《미안하게 댔습니다. 반가운김에 제가 그만...》

오히려 영준은 호방한 기색을 보였다.

《괜찮네. 그래, 오래 기다렸겠구만?》

성삼은 그가 원하는 자리에 선뜻 앉지 못하고 허리를 굽석거리며 송구하게 말했다.

《기다리는거야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전 제가 국장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것같아 죄스러울뿐입니다.》

영준은 그에게 려송연이 들어있는 담배통을 내밀었다.

《오늘은 내가 임자를 부른것이니 미안해할진 없네. 자 어서 피우라구.》

원영준이 담배를 물자 성삼은 얼른 불을 붙여주었다. 그리고는 재털이를 제격 받쳐주었다.

원영준은 리성삼을 처음부터 탐탁하게 본것은 아니다. 자료를 료해해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맏힌데가 없고 주견이 없으며 아침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등뼈없는 놈처럼 나근나근한게 검사로서 자기 본업에 충실하겠는가 하는 의심이 앞섰다. 허나 따르는 개는 때리지 말랬다고 몇번 만나보

고는 자기 견해를 일축해버렸다. 항상 비굴해보이는 표정속에는 상대적인것이 숨어있었던것이다.

평시에는 뒤전에 서있다가도 밀어주는 손만 있으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성적인 성미가 마음에 들었다. 명예와 직위를 위해서 제 부모도 서슴없이 도마우에 올려세울 인물이었다.

원영준은 그한테서 자기의 젊은 시절을 보고있었다. 지금도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는 그 《용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명예와 재부가 없었을것이다. 설사 그가 누구라 해도 자기의 경쟁자로 나선다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이 그의 장점이었다.

한데 리성삼이 그 비슷한 점을 가지고있었다. 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생활이란 결코 자기 리념의 자막대기에 의해 계산된 치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의 운명도 한 틀거리에 매이지 않는다.

한때 대학시절에는 자주와 민주를 웨치던 리성삼이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검을 든 검사로 된것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알수 없던 작자가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의 칼날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개천에서 룡이 난것만큼이나 신비한 일이 아닐수 없다.

《사람이란 대세의 흐름을 판가름할줄 알고 권력이라는 불침의 함선에 몸을 실을줄 알아야 한다.》, 《머슴노릇도 별방지주집에서 해야 하듯 사람도 큰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인생관이었다.

이 《진리》의 물살에 몸을 실었기에 오늘같은 날이 있었다고 리성삼은 로골적으로 자부하곤 했다.

권력이란 매혹적인 녀성과 같아서 그는 그것을 지못게 사랑했다. 리해관계와 타산으로 체질화된 천성적인 처세술을 승진의 발판, 도약대로 삼고있었다.

영준은 바로 이 점을 좋게 보으며 그를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장차 이런자들을 거머쥐면 제 손발은 덜 놀릴수 있었다.

그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리성삼은 진보단체들과 통일인사들을 숙청하는데서 사냥개로는 그야말로 제격이었다.

최근에는 집권세력들의 가려운 잔등을 긁어주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성삼은 《실용정부》가 집권하자 그들이 주관하는 《종북》숙청에서 가시적인 실적을 올렸던것이다.

대표적인것이 지난해에 남북통일실천연합을 《종북》단체로 몰아붙인 사건이었다.

그때 영준은 그를 검사로 내세워 이 단체의 주요간부 4명을 《간첩》으로 몰아 그들에게 징역형을 언도하게 하였다. 그속에는 성삼이가 대학 시절 진드기처럼 붙어다니던 선배들도 있었다. …

한마디 말도 없는 원영준의 태도에 성삼은 속이 불쾌했다.

쌍놈의 두상, 불려다놓구 왜 침묵이야… 그렇지, 이런 때는 먼저 선손을 때라구 했던가!

두손을 맞잡아 무릎짚에 끼우고 조심스레 앉아있던 성삼은 갑자기 터진 팔자루같은 웃음을 피워올렸다.

《그새, 국장님의 신색이 펴 좋아지신것같습니다.》

멀뚱하니 담배를 빨며 생각에 잠겨있던 영준은 그제서야 그의 존재를 느낀듯싶었다.

《히, 그렇게 보이냐? 아닌게 아니라 일전에 임자가 보낸 보약을 먹었더니 온몸에 기가 되살아나는것같더군.》

《이젠 년로하신 몸인데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십시오.》

녀직원이 커피잔들을 담은 다반을 들고 들어왔다.

《어서 드오.》

영준의 권고로 손에 커피잔을 황송하게 받아든 성삼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국장님은 언제 봐야 류별난 정서를 품고계십니다.》

느닷없는 칭찬에 원영준은 무슨 소리냐는듯 두눈을 반쯤 더 떠보였다.

《전 지금까지 집은 물론 사무실두 이렇듯 소박하게 꾸리고계시는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국장급이면 누구나 집과 사무실을 서양식으로 번뜻하게 꾸리지 않습니까!》

그의 말대로 원영준의 사무실은 생각외로 검소했다. 바닥에는 오래된 이빨리아산 주단이 깔려있었다. 책상은 마호가나나무로 만든것인데 몇군데 옷칠이 벗겨져있었다. 한쪽벽면에는 남아메리카의 풍경화가 몇점 붙어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서예를 즐기는 원영준이 직접 쓴 정약용의 시

《물》중에서 한개 절이 죽자에 새겨져 걸려있을뿐이다.

산골샘물
마음은 언제나 바다에
이발돈친 돌이
제아무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천침만침 힘로를 꿰뚫고
너 의젓이 골짜기를 나서누나

원영준은 때없이 이 시를 읊조리며 자신의 오늘을 궁지롭게 되새겨보곤 한다. 꼭 자기의 인생로정을 담은것같았던것이다.

《임자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네. 사람이 사치에 반하게 되면 녀를 잃고 녀를 잃으면 종당에는 자신을 지켜낼수 없네.》

리성삼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매사에 심중하고 조심스러운 이 늙은이가 자기를 감추기 위해 집은 물론 사무실조차 대충 꾸려놓았다는 것을 잘 알고있었다. 남들의 눈에 그렇게 인식되기를 바라는 하나의 기만술이었다.

앞에서는 청렴을 부르짖는 그의 리면이 얼마나 어둡시그레한가를 그는 모르지 않았다. 돌아가는 말에 의하면 압구정동의 호화주택이 별도로 아들이름으로 등록되었고 외국으로 빼돌린 돈도 막대하다고 한다.

하긴 권력을 가진자들에게 있어서 그썸한것은 벼룩의 피만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다들 퇴직전에 그것을 숨겨두고있을뿐이다. 처신문제에서는 더없이 꼼꼼한 원영준은 자기를 이렇게 《소박》과 《검소》로 포장해놓은것이다.

《자, 나때문에 당신의 휴식이 잘리우는것같은데 우리 본론에 들어가는게 어떨가?》

성삼은 의자에서 영치를 살짝 들며 상냥한 어조로 대답했다.

《국장님의 의향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자를 찾은건 내가 일전에 맡긴 일때문일세.》

성삼은 기다리길라도 한듯 서류가방에서 문건을 꺼내들고 일어났다.

《아, 우리끼리는데 형식은 그만두고 앉아서 이야기하라구.》

《예, 고맙습니다.》

그는 허리를 갑작거리고나서 자리에 앉았다.

《국장님, 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며칠밤을 꼬박 밝혔습니다.》

그는 첫마디부터 은근히 제 수고를 드러내보였다.

영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시켰다.

《그건 무슨 말이요. 내가 알기에는 우리 <국정원>은 물론 경찰에서도 그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찰에 넘긴것으로 아는데?…》

리성삼의 입가에는 뺨소가 흘렀다.

《물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서야 어디…》

원영준은 그의 불평을 긍정하든지 마는지 아리송한 표정으로 담배연기만 들이켰다.

《그래서 전 하루에 5시간씩밖에 자지 못하며 모든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싶이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그자의 가택수색에도 직접 참가했구요.》

원영준은 미간을 찌프리며 말허리를 꺾었다. 짬만 있으면 남들의 성과를 제것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아하는 심보가 비위에 거슬렸다.

《그거야 검사인 당신이 응당 해야 할 일이 아니요?》

리성삼은 손수건으로 벗어진 이마에 내뺨 땀을 닦았다.

《예, 그렇긴 하지만 모두들 일을 어떻게나 거칠게 해냈는지 원… 제가 뒤저듬질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횡설수설에 진절머리가 난듯 영준은 담배를 재털이에 신경질적으로 비볐다.

《그만하오. 그거야 어디 아이밴 제집 자랑같은게 어디 들어주겠소.》

성삼은 송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이보게, 난 자네의 수고나 묻자구 찾은게 아니야. 일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었구 또 걸린게 뭘가 하는걸 알자는거네.》

그제서야 성삼은 시들어진 기색으로 한참동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을 끝냈을 때에야 원영준은 비로소 이마살을 폈다.

《그래, 자네 보기에는 제일 걸린게 뭘것같은가?》

리성삼은 영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 래일중으로 당장 조승철을 구속하자는겁니다. 산판에 있는 호랑이보다 우리안에 갇힌 호랑이를 다스리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지금껏

불구속으로 그자를 놔둔건 너무도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영준은 갑자기 두눈을 홑뜨며 그를 노려봤다. 꼭 먹이감을 노리는 맹금의 눈초리였다.

《제 허바닥이라구 다 리로운건 아니야. 그래, 이 <국정원>의 두뇌는 다 당신보다 못해서 그자를 구류하지 않은줄 아는가?》

생각할수록 기분이 잡혔다.

별 핫바지 같은것들이 감히 혼시하려들다니...

사실 조승철의 구속을 미루자고 제기한것은 다름아닌 원영준이었다. 지방자치제선거로 여야간의 대립이 극도에 달한 현정세에서 그를 구류하면 오히려 우환이 될수 있었다. 진보단체들에서 인기가 있는 그를 서빨리 다쳤다가는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수 있었던것이다. 있을수 있는 골치거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영준은 상부에 제기하여 구속을 늦추도록 한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달랐다. 그동안 담당검사인 리성삼이 기소장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만 내대면 그만이다.

원영준은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있는 성삼에게 그루박았다.

《다신 아무런 계산도 없이 제 생각을 입에 담지 말게. 뭐나 다 때가 있는 법이야. 구속령장발급에 대해서는 우리 상부가 임자네 검찰청과 ××지방법원에 이야기하도록 하겠네.》

《알겠습니다.》

이어 그들은 이번 재판을 두고 한참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성삼을 보내고난 원영준은 김연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재판장으로 나서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또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김연주는 더이상 인후염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다른 의사를 선택하여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걸음을 했다.

치료는 끝났으나 그 아픔은 여전히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판사님은 몸을 너무 혹사하는군요. 개미가 언제를 무너뜨린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의사는 환자를 나무람하며 치료도구들을 거두었다.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구 작은 병집이 큰 죽음을 불러온다는걸 왜 모르세요.》

불만섞인 충고는 연주의 귀청을 얼어들게 했다. 결코 스쳐가는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의사선생, 좋은 말을 해주어 정말 고마워요.》

녀의사는 그런 말은 무심하다는듯 제 주장을 펴나갔다.

《명예와 재부는 결코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답니다. 문제는 제 몸의 주인은 자신이라는데 있지요. 사람들과 섞일려면 나쁜 결함을 제때에 고쳐야 하듯 목숨을 해치는 병집은 제때에 들어내야 한답니다.》

《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요즘한거야 하는 생각에 그만...》

《판사님, 인간생활에서는 남의 충고를 귀에 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실패를 한답니다.》

녀의사는 연주에게 몸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다.

《아무리 직업이 특별하다 해도 몸관리는 제가 해야지요. 판사님의 병은 피곤하거나 신경을 너무 쓰면 더하답니다. 더우기 지금같이 황사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봄철에는 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주는 미안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부탁했다.

《알겠어요.》

의사는 인사를 마치고 문밖을 나서려는 연주를 불러세웠다.

《그리구 치료비는 이미 지불했으니 매일 정상적으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김연주가 병원건물을 벗어나는데 손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그 소리에 놀라기라도 한듯 그는 황급히 손전화를 꺼내들었다.

《아저씨, 저 연주예요.》

비록 반가움에 젖어 자기를 소개했지만 속은 안스럽기만 했다.

《허, 넌 이 늙은이를 진종일 이 차집에 앉혀놓을 생각이나?》

책망어린 목소리였지만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간다는게 그만...》

《그렇다면 마음이 놓이는구나. 사람한테야 건강이 첫째이지.》

다심한 그의 목소리에 더 미안해지는 연주였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차 가겠어요.》

《내 걱정은 말구 천천히 오너라. 바빠 다니다가 차사고라도 생기면 어찌겠니.》

《알겠어요.》

연주는 원영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머금었다. 어제 그는 그에게 오늘 이 시간에 동대문앞에 있는 차집에서 만나줄것을 부탁했던 것이다.

웃사람을 오라가라 하는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별수 없었다. 사적인 문제로 사무실까지 찾아갈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집에 찾아간다는것은 더 어색했다.

연주에게 있어서 원영준은 후견인이나 같았다. 아버지와 대학동창인것으로 하여 남다른 관심을 돌리는 그였다. 법관을 희망하는 연주를 적극 뒤받침해주고 또 미국류학의 길까지 닦아준 은사이기도 했다.

왜서인지 아버지는 딸이 법관으로 되는것을 한사코 반대했다.

연주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을 앗아간 살인범들을 제 손으로 징벌하고싶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때 원영준이 나서서 김주성을 리해시키지 않았더라면 판사로서의 오늘이 없었을것이다.

몇해전 동생이 미국에서 추방되어 남조선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곁에 수일이와 와서 기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난감하기도 했다. 그의

거주등록이 어려웠던것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구실저구실 내대며 많은 돈을 요구했다.

연주가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돈을 변통하느라 했지만 그 액수가 엄청난지라 엄두를 낼수 없었다. 돈만 있으면 모든것을 다할수 있는 세상이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살아가는 리치가 그런지라 어쩔수 없었다. 해당 기일내에 호적등록을 하지 못하면 동생은 불법체류자로 될판이었다.

이때 원영준이 나서서 끌치거리를 풀어주었다. 고맙기 그지없었다. 어려운 모퉁이마다 도와주는 더없는 은인이였고 아버지맛잡이었다.

오늘도 연주는 그의 충언을 듣고싶었다. 조승철의 재판을 말아야 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런 사사로운 일로 폐를 끼치는것이 자존심에 허락치 않았다. 그러나 집에 찾아온 수일의 연행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일이라 방심할수 없었다.

차집에 들어서니 접대부가 그를 안내했다. 원영준은 칸막이를 한 식탁에서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아저씨,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원영준은 년장자답게 혼연한 태도로 반색했다.

《그만해라. 너를 보니 노여움이 싹 가셔지는구나.》

연주가 자리에 앉자 접대부가 차를 내왔다.

영준은 담배를 끄고 동안이나 연주를 들여다보았다. 마치 오래동안 떨어져있던 딸자식을 보듯이.

연주는 면구스러워 차를 마시는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에 널 보니 정말 기쁘구나. 헌데 서울에 온지도 어지간한것같은데 왜 우리 집엔 한번두 찾아오지 않느냐?》

가벼운 나무람에 연주는 안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저두 몇번이나 찾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볍고 잦은 걸음보다 무게있는 한걸음이 더 의미가 있을것같아서...》

《역시 넌!... 하지만 정도 나누어야 깊어지는 법이란다.》

《명심하겠어요.》

《사실 우리사이에야 허물이 있으면 안되지. 그러구 나두 이젠 늙어서 그런지 사람이 찾아오는것 이상 더 반가운게 없더구나.》

《이제부터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제서야 영준은 노여움이 풀린듯 밝은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네 아버지의 건강은 어떻다더냐?》

연주의 낯색은 흐려졌다.

《열흘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병세가 더한것같습니다.》

영준은 심중한 기색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놈의 심장병이 끝내 일을 치려는 모양이구나!》

병상에서 괴로워할 친구의 정상에 목이 갇힌듯 그는 차를 한모금 들이켰다.

《그렇게 놓구보면 난 네가 곱지 않구나.》

《아니, 그건?...》

《아무리 멀리 떨어져있다한들 아버지한테 그렇게 무관심할수 있나. 그 래두 그는 항상 네 걱정만 안고있더라. 아직까지 안정된 생활을 찾지 못 했다고 말이다.》

《?!...》

연주는 뭐라고 선뜻 변명할수 없었다.

《관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자식을 걱정하는게 바로 부모들이란다. 그 런데 넌 뭐냐? 아무리 일이 바쁘다한들 한번 찾아가보면 못쓴다더냐. 요 즘 자식들이란 제 부모가 늙구 오금을 쓰지 못하면 과일껍질보다 더 못 하게 여기거든.》

마치 제가 당하는 아픔이기라도 한듯 영준은 혀까지 찼다.

연주는 속이 뜨끔했다. 부인할수 없는 책망이었다. 지금껏 아버지와 함 께 있는 날보다 떨어져있는 날이 더 많았다. 그것을 빌미로 불효한것만은 사실이다. 제때에 깨우쳐주는 원영준이 고마웠다.

《연주야, 넌 자기를 아버지가 이승에서 안고가는 마지막빛이라는걸 명 심해라.》

김연주는 그의 말을 묵묵히 새겨듣기만 했다.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은 행복한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데 있다. 그 런데 너한테는 지금 뭐가 남아있니?... 물론 난 네가 법에 충실하다는건 안다. 하지만 이루어놓은 명예와 직위가 없는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 는가 하는거다. 더구나 넌 현재까지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있지 않느냐.》

연주는 말없이 차잔을 만지작거리고있었다. 악의없는 질책이지만 그의 마음을 지극히 울려주었다.

영준은 마치 친딸을 대하듯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난 네가 늦게나마 제 명예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법관으로서의 성공!... 바로 이게 아버지에게 드릴수 있는 기쁨이 아니겠니?》

영준은 차를 한모금 마셨다.

《허, 이거 내가 로파심에 사로잡혀 객적은 소리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니예요.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영준은 그제서야 안면근육을 풀며 헉헉하게 웃었다.

《참, 그런데 오늘 날 만나자구 한건 뭇때문이야? 자존심이 강한 네가 날 불러낼적에야 무슨 풀기 힘든 매듭이 있어서겠지?》

연주는 속에 품고있던 아픔을 터놓았다.

《전 애정이 아버지가 이번에 새로 제기된 사건과 연관된것같은게 깨를 하기만 합니다.》

《거, 검찰에서 너희 법원에 기소했다는 변호사의 <보안법>위반건 말이야?》

《예.》

잠시 뭔가 생각에 잠긴듯하던 영준은 락심한 기색을 지었다.

《허, 그녀석은 언제 봐야 골치거리거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헤덤비는지 원... 그래, 지금두 운동바람에 봉 떠있냐?》

《글쎄, 제 보기엔 이전보다는 펍 나아진것같기는 한데 어쩐지...》

영준은 이해된다는듯 머리를 주억거렸다.

《그래서 친길 물속보다 헤아리기 힘든게 사람의 속이라구 하지 않니. 네 말처럼 그애가 정말 그 사건과 연관되어있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전 아저씨가 그애의 뒤생활을 좀 알아봐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거야 그리 어렵겠냐만... 참, 말이 난김에 내 너한테 한마디 더 하겠다.》

정색해진 그의 태도에 연주는 저으기 긴장해졌다.

《솔직히 난 어제 너희네 원장이 걸어온 전화를 받고 실망했다.》

연주는 눈길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이 갔다.

하나 뭐라고 대꾸할수 없었다. 늙은이의 거적눈에는 진한 피로움이 걸려있었던것이다.

《사실 너한테 그 재판을 맡겨달라구 너희 원장한테 부탁한 사람은 바로 나다.》

연주의 두눈은 반쯤 더 커졌다.

《아니, 그럼 아저씨가?!...》

원영준은 의미심중한 기색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리유란 다르게 없다. 그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할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기때문이다.》

《아니, 그건?...》

연주의 시선은 의문으로 질어갔다.

영준은 그 녀자의 손에 제 손을 다정히 얹으며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너두 알다싶이 정쟁으로 항상 어지러운 곳이 바로 이 사회가 아니냐. 더우기 지금처럼 선거유세가 한창인 때에 <사상범>을 다루는 재판까지 벌어지면 서울바닥은 또 별집 쑈서놓은것처럼 될게 아니냐.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작자들은 저마다 허바닥을 놀릴거란 말이다. 그 무슨 <색갈론>을 벌린다느니, <종북>사건을 조작한다느니 하면서 말이다.》

원영준은 그 일을 련상하기라도 하듯 긴 한숨을 토해냈다.

《그러니 아저씨는 그 골치거리를 제가 풀수 있다는건가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 너는 지금껏 보수니 진보니 하는데 일체 머리를 돌리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연주는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그렇다고 《보안법》련루자들에 대한 재판을 말지 않는다는 견해만은 허물고싶지 않았다. 더우기 대상은 다름아닌 조승철이 아닌가.

《아저씨두 알다싶이 저야...》

《나두 네가 그런 일을 마다한다는것은 안다. 그러나 방금전에두 말했지만 이건 일개인의 준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구 본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결심을 해라.》

차잔을 내려다보던 연주는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하지만 아저씨,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라는건 이 사회의 불법을 가리우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고들 말하고있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고난 원영준은 답답한 기색으로 물었다.

《히, 그건 <보안법>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 그럼 너두 그것이 폐지되어 오몰장으로 가야 할 악법이라구 보느냐?》

예리한 심지가 박힌 질문에 연주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그러나 자기의 견해만은 숨기고싶지 않았다.

《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심증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들은 좀 수정해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원영준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명심해라. 망치가 약하면 못이 솟아나기마련이다. 이전에는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느니, 고쳐야 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왔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렇게 된다면 친북세력들만 좋아할게 아니냐.》

원영준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좌우간 그 문제는 그만 론하자. 어쨌든 너야 자기의 중립성을 주장할테니까.》

그러면서 그는 어색하게 웃어보였다.

《그러나 이번 일만은 다르다. 너무 예민한것이어서 자칫하다가는 남들의 눈총을 받기가 일쑤다. 허나 그건 어디까지나 재판에 얼마만한 공정성을 부여하는가에 따르지. 피고의 범행을 법의 요구대로 분석하고 평가한다면 무슨 다른 말이 나오겠니. 그래서 난 네가 이 공판에 나서기를 바라는거란다.》

영준은 주름발이 늘어선 울대를 꿈틀거리며 침을 삼켰다.

《이건 피소자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문제이기 전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구...》

연주는 의아한 기색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만일 이 사건에 수일이가 개입되어있다면 어찌겠니? 그러구 널 법원 원장으로 내정한 사람들의 얼굴도 봐야 할게 아니냐!》

연주는 드디어 갈피잡을수 없는 번민에 빠져들었다.

그러니 지금껏 견지해온 원칙을 버려야 한단 말인가?

난처하기 그지없었다. 자기를 키워준 은인이나 다름없는 늙은이의 당부였다. 국민들에게 《법의 공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가슴이 빠근했다.

한편으로는 법관으로서의 출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동생의 피기없는 얼굴이 떠오르기도 한다. 아버지는 이전에도 수일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만일 이러저러한 연고로 하여 그가 이 사건에 연관되어있다면 그의 운명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조승철을 법정에 세우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니 속이 편안치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그가 지금까지 력설해온 그 리념이 뭔지, 그가 이토록 위험천만한 중죄인인지 아닌지 가늠하고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허나 선뜻 응할수 없었다. 꼭 형클어진 실토리를 풀어야만 하는 심정이다.

그의 심중을 헤아리기라도 하듯 원영준은 차분한 음정으로 말했다.

《연주야, 명성이란 인생의 열매로 되는거다. 때문에 사람의 삶은 그것을 생취하기 위한 줄달음이어야 하는거다. 그러니 잘 생각해봐라!》

의미심중한 말을 남긴 원영준은 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김연주는 늙은이의 뒤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인생의 열매!...

9

시간이 흐를수록 남조선전역에서는 지방자치제선거를 위한 유세가 더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었다. 이 선거에서 이겨야 장차 《국회》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수 있었던것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서울과 지방도시들에서는 여야당간의 두뇌전이 첨예화되고있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들은 이 소식들을 전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선거의 막뒤에서 벌어지고있을 음모에 대해서는 모르고있었다. 늘쌍 그러했듯이 권력쟁탈전의 리면에는 항상 큰 사건이 발생하곤 했다.

더우기 몇해전에 청와대의 주인으로 된 리명박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자기 체온이 스미기 전부터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과 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기에 눈알이 뒤집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였다.

2008년에 진행된 미친소고기수입반대를 위한 초불집회로 《정권》 위기를 느낀 현 《정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명목밑에 저들의 측근들을 공간기관에 전진배치하였다. 《정통공안》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들을 검찰의 주요직책에 들여앉혔다. 그들은 《아직도 복에 대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불행》이라고 하면서 《<종북>진보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선언했다.

이것은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는 《실용정부》가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해 극도의 양심을 품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었다.

이런 때에 조승철의 재판문제가 상정되었으니 연주의 심리는 더욱 번거로웠다. 그 발화점이 이번 재판이 아니라고 장담할수 없었다.

지겨운 생각에서 한시바빠 벗어나고싶었다. 연주는 열병에 시달리는 환자처럼 찬물을 정신없이 마셨다. 속은 시원히 열렸지만 머리는 여전히 뻘근하다.

이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화장기질은 너서기가 들어섰다.

《원장님이 부르십니다.》

드디어 올것은 온것이다. 오늘은 분명 확답을 받아내려 할것이다.

륙감적으로 미쳐오는 생각에 신경이 팽팽해졌다.

방에 들어서니 컴퓨터를 들여다보던 원장이 살가운 태도로 맞아주었다.

《허, 그런데 휴식한 사람같지 않구만. 오히려 눈에 피발이 선게...》

뻔히 알면서도 모르쇠하는 그 심보가 고약스러웠다. 콧 싸주고싶었지만 그의 성의에 찬물을 뿌리는것같아 그만두었다.

《원장님이 무섭게 달구니 무죄인들 어디 견디겠습니까?!》

장기철은 넉넉한 기색으로 받아들이며 의자를 권했다.

《어쩌겠소. 당신두 이제 내 자리에 앉아보오. 매일과 같이 술한 재판들이 제기되니 머리가 막 터져나갈 지경이요.》

원장은 예견한대로 조승철의 기소장을 그앞에 내밀었다.

《그래, 이제는 결심이 섰겠지?》

연주의 입귀에서는 랭소가 흘렀다.

《그러니 이걸 꼭 제가 말아야 한다는겁니까?》

도전적인 말투에 기철은 순한 웃음을 지었다.

《이건 내가 당신의 능력을 믿기때문에 그러는거요.》

《원장님, 지나친 믿음이 때로는 부담으로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란 세상에 없는 법이요.》

어제 밤 연주는 이 일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 원영준의 권고나 부탁도 있지만 기본은 동생 수일이야 이 사건에 끼워있을수 있다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든장질했다. 또 설사 피소자가 조승철이라고 해도 이것은 피할수 없었다. 원영준의 말대로 오직 《보안법》의 조항에 준해서 피고의 유무죄를 판별하면 그만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였다.

《그런데 기소장에는 다르게 없습니까?》

연주는 장기철의 의중을 떠볼 심산으로 넌지시 물었다.

《아무렴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기소했겠소. 나두 대충 봤는데 이진 명백히 매우 위험한 <리적행위>란 말이요.》

《그렇게두 엄중한가요?》

《그렇소. 당신두 아마 깜짝 놀랄거요. 허나새나 변호사라는 량반이 이진 너무하단 말이야.》

그의 장광설이 설새 없을것같아 연주는 의문점을 슬그머니 내비쳤다.

《그런데 피소자는 자기의 범죄를 인정했습니까?》

기철의 안면에는 살얼음장같은 기운이 순간적으로 스쳐갔다.

《당신은 괜한데 신경을 쓰는것같구만. 검찰에서 제출한 기소장은 충분한 분석과 증인들의 진술에 기초한것이란 말이요.》

불만기어린 어조였지만 연주는 제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전 <법의 공정성>을 지키자는겁니다.》

《허, 당신은 꼭 내가 그걸 어기라구 한것처럼 말하는구만. 참, 그건 그렇구 여기 와서 이거나 좀 읽어보오.》

갑자기 생각이 난듯 장기철은 연주를 컴퓨터앞으로 잡아끌었다.

인터넷과 연결된 화면에는 백여명의 가입자들이 쓴 대글이 기고문에 올라있었다. 그들은 글에서 조승철의 범죄에 대해 제 나름의 악담을 퍼부었다.

《이런 악질<빨갱이>가 어떻게 아직도 서울거리를 활보하는가?》

《<종북>은 즉시 추방시키라!》

《조승철을 당장 극형에 처해주세요.》

연주는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흘렸다.

대학시절에는 학생들속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던 승철이다. 그런데 오늘은 지탄과 경멸의 대상으로 되고있지 않는가. 그에 대한 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판결도 선언되었다는감이 들었다.

《원장님, 그런데 한가지 이해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뭔지 어서 말하오.》

《어떻게 되어 이 사람들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있는가 하는겁니다.》

담배불을 붙이려던 장기철은 질중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당신은 별난데 다 신경을 쓰는구만. 한사람이 인터넷에 이 내용을 올리면 가입자들이 다 보게 된다는걸 그래 연주판사는 잊은게 아니요.》

쉽게 이해할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연주는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전 그 한사람이 의심스럽다는겁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을 그렇게 잘 알고있는지?…》

기철은 씹쓰레한 기색으로 안면근육을 찡그려보였다.

《이 건물안의 술한 사람들가운데 허바닥에 구멍이 뚫린자가 어디 한둘이요.》

그는 담배연기를 내뿜고나서 타이르는듯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난 어쨌든 당신이 부디 <내 배를 치라.>라는 성구를 잘 되새겨보길 바라오.》

연주는 도전적인 눈길로 그를 바라봤다.

《원장님은 혹시 절 제 어머니인 아그리빠나의 목을 친 네로에 비교하는건 아니니까?》

장기철은 안스러운 기색으로 머리를 가로저었다.

《내가 아무렴 당신을 그 폭군에게 비기겠소. 난 단지 원영준국장님의 신의를 잊지 말라는것뿐이요.》

연주는 그들사이에 이미 전화가 오고갔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권으로 원영준과의 관계를 이번 일에 끼여넣는 원장의 의도가 아리송했다.

《전 결코 누구의 입김에 의해 사망으로 날려가는 민들레씨앗이 아니

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장님의 요구에 응한건...》

장기철은 그의 입에서 또 다른 송곳같은 소리가 나올것같아 손사래질을 해댔다.

《됐소, 어쨌든 나도 당신이 이렇게 나오리라구 믿었소. 참, 담당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리성삼검사이니 그와 잘 협력해보오.》

연주의 눈빛은 놀라움에 젖어들었다.

《그 사람 말입니까?!... 그런데 판사와 검사가 공판전에 만나 사건을 토의하는건 재판절차상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너무 고지식해서 그러지 마오. 당신이야 이런 재판은 처음 해보는거나 같지 않소. 그러구 듣자니 그 사람과는 대학 선후배사이였구 또 이전엔 보통관계가 아니였다는 말두 있던데...》라며 기철은 의미심중한 미소를 띄워보였다.

김연주는 소태를 씹은듯 인상을 찡그렸다.

《원장님, 까치와 까마귀는 한둥지에 들지 않는답니다.》

기철은 어색한 미소로 그의 대답을 받아들였다.

《당신의 성격은 여전하구만! 어쨌든 모든 일이 잘되길 바라오. 앞으로 원장으로 사업하자구 해두 이번 재판이 좋은 경험으로 될수 있지!...》

연주는 기소장을 내려다보며 어금이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참으로 갈피잡기 힘든것이 인생이다. 오늘같은 날이 있으리라고 과연 누가 상상해보았겠는가. 내가 조승철의 유무죄를 판결해야 한다니...

《한가지 제기해두 일없겠습니까?》

《뭐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연구할수 있게 시간을 좀 충분히 주었으면 합니다.》

장기철은 갑자기 선감을 씹은듯 꼴살을 찡그렸다.

《기소내용과 증인진술들이 이렇게 명백한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겠소. 내 보기에는 괜한 시간낭비같은데?...》

그의 표정에서 연주는 뭔가 미심쩍은감을 느꼈다.

《<피고를 잘 모르고서는 옳은 판결을 내릴수 없다!>, 이건 판사들의 사업준칙이라구 원장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으로 전 알고있습니다.》

원장은 어색한 기색으로 멧적게 웃었다.

《허, 내가 그랬던가?!》

사람들은 아무리 소설책을 열심히 읽어도 주인공을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기소장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고 그에게 선과 악을 선고할수 있다. 본인 당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사건기록철에 근거하여 판결문을 써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것만큼 어리석은 판사는 없다. 물론 기소문에는 피소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과 경력 같은것이 적혀있다.

허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자기가 다루어야 할 사람과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수 없다.

연주는 지금까지 상대의 눈빛을 마주보고 또 그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 피고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심리는 항상 목소리와 눈빛에서 드러난다고 보고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연주는 안락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수 없었다. 아니, 스스로 택한 일이라고 해야 정확할것이다. 마음은 더없이 무겁기만 하였다.

책상우에는 기소장이 반듯하니 놓여있었다. 허나 확실히 그것을 번지 고싶지 않았다.

법관생활 수십년에 인생의 피로움을 다소나마 잊게 해주던 기소장들이었다. 수많은 사건들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일거리는 그가 불우한 운명의 음영속에서 시들지 않게 해준 지렛점이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것이 그의 머리우에 쏟아진 된서리나 같았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까지 위험한 존재란 말인가?

연주는 두손바닥으로 턱을 고인채 묻는듯한 시선을 기소장에 주었다. 마치 신비한 점성술을 지니고 점을 치는듯한 모습이다. 단 한장도 번지지 않은 문건속에 기록된 피소자의 죄상을 चे나름으로 분석하는듯싶었다.

이윽고 그는 결심을 내린듯 손에 끝무를 끼고 기소장을 번졌다.

눈빛은 그 무엇을 구멍내리만큼 예리했다. 그것은 환자를 수술대우에 올려놓고 그의 내장을 헤쳐보게 하는 메스의 시퍼런 날이었다.

그러나 절개와 박리 등의 과정이 심화될수록 신음소리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구멍에서 울려나온다.

조승철은 《간첩》혐의를 내놓고라도 《회합과 통신》, 《찬양과 고무

및 동조》, 《리적표현물 제작 및 수입, 복사, 소지》 등을 란폭하게 위반하였다.

피소자는 몇년전 광화문 한복판에서 남북통일실천연합이 조직한 행사에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모든 국민들은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 일념밑에 반통일세력의 집요한 책동을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 《남과 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무게있게 실천하는것만이 민족의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소장에는 이밖에도 조승철이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이 벌리는 통일행사에 참가한 자료들이 첨부되어있었다.

검찰의 기소내용들은 벌써부터 유죄를 선고하고있었다.

기소장을 번질수록 연주는 속에 큼직큼직한 돌들이 쌓이는듯하였다.

제일 위험한것은 조승철이 지난해말 주변나라에서 진행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합의밑에 진행된 회의에 참가하여 북의 대표에게 중요한 비밀을 넘겨주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는 《국정원》이 검찰에 제시한 록화자료에 수록되어있었다.

부인할수 없는 물증들은 피소자가 손오공으로 둔갑한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슬이었다.

기소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난 연주는 거울앞으로 다가갔다.

은백색면에 비친것은 자기가 아니라 조승철의 모습이다.

《그래, 이게 바로 당신이 나에게 그토록 력설하던 리념이였는가요? 철창에 갇혀 남은 여생을 보내야만 하는 참담한 운명의 종말인가 말이에요.》

김연주의 입가에는 씩쓰레한 미소가 어렸다.

물론 누구의 인생이나 다 번뇌와 아쉬움이 있기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의 근거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는다.

츠대학교는 북악산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승철은 지금 감회로운 심정으로 서양식건물인 본관을 바라보고 있다. 잊을수 없는 학창시절과 학우들의 모습이 련련히 이어지고있었다.

정의와 진리, 자유를 위해 포석우에 피를 뿌리며 쓰러진 그들을 어이 잊을수 있단 말인가.

렬사들이 바라온 통일은 아직 미완성이였으며 오늘도 투쟁으로 이어지고있다. 그 길은 어제와 그뤼고 오늘도 래일도 목숨으로 개척해야만 하였다. 외세에 의존하여 사리와 사육만을 추구하는 반통일세력과의 결사전이였다.

승철은 이미전에 정보원과 연줄이 있는 한 대학후배로부터 이런 우편물을 받았다.

《선배님, 신변에 각별히 주의해주십시오. 지금 <국정원>에서는 올해 초부터 선생님에 대한 집중감시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인터넷회선들은 물론 신상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일들이 매일 본부에 보고되고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들은 장차 선배님을 제거할 무서운 음모를 꾸밀것같습니다. ...》

알아보니 《국정원》은 통일단체들의 활동을 《리적행위》로 몰아 수사하던 과정에 조승철이도 포함시켰다. 진보인사들을 변호해온 그를 눈에 든 가시로 여겼던것이다.

물론 예견 못한것은 아니였다. 허나 악마의 거치른 발톱이 검은구름처럼 거침없이 다가들줄은 몰랐다.

얼마전 극우보수적인 어느 단체에서는 그 무슨 《친북인명사전》에 올릴 명단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조직은 두해전 보수적인 학자와 공안기관출신의 반통일사대분자들이 주동이 되여 만들어낸것이다. 이들이 발표한 명단에는 몇년후에 발간하게 될 《친북인명사전》에 올릴 수천명의 인물중에서 1차로 선발한 대상들이 적혀져있었다.

여기에 조승철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방안을 지지하며 《보안법》의 폐지와 현 리명박《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진보적인 인사들이었다.

이 명단은 발표되자마자 사회계와 언론계는 물론 국민들의 커다란 반향에 부딪혔다.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혀 썩어가고있던 《색갈론》을 또다시 꺼내들어 《반공선풍》을 일으키려 한다고 격분을 터쳤다.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이 단체에 대한 법적소송에 나서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권력의 힘은 무제한하였다.

승철은 자기에게 밀려드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경찰이 진행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수색, 검사의 호출과 심문, 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

그는 무질서하게 날아드는 창살들을 막아내듯 온몸에 힘을 주었다. 이어 비장한 결심이 어린 걸음을 힘있게 내디뎠다.

이제 진행될 초빙강연에서 자기의 의지를 피력할 결심을 가다듬고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강연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의식하고있었다.

연사가 수백명의 심중을 한데 틀어잡지 못한다면 청강생들은 엉치가 쭈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한뉘 변호사로 살아온 조승철이지만 이들의 시선을 한데 걸어잡는다는것이 조련치 않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각이한 주장과 주의를 제창하는 학생들이었다.

현실은 기대밖이었다. 벌써 10분이나 지났지만 청강생들의 눈망울에는 기름기가 흘렀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의 웅변술이 뛰어난것은 결코 아니었다.

학생들은 모두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현실을 예리하게 해부하고있는 그에게 심취된것이다.

그는 학생들의 이러한 심리를 타고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현 <정권>은 집권한 첫날부터 친북은 숙청해야 한다는 강도적인 논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 어째서 제 동족을 사랑하고 제 민족끼리 힘을 합쳐 국토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이루자는 참된 의지가 배척을 받아야 합니까?

제2차 세계대전시기 도이쉴란드의 선전상이였던 한 전범자는 <나에게

한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고 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수많은 애국자들을 마구 체포투옥하고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이 지났지만 오늘의 이 <남한> 땅에는 그 말이 <중북척결>, <마녀사냥>이라는 죽음의 대명사로 변신하여 떠돌고있습니다.

...

그래,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할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세를 등에 업고 이 강토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현 보수당국자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강당의 뒤쪽에 자리잡은 김연주는 처음부터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 녀자는 오늘 기소장에 제시된 조승철의 범행이 진행된 장소에 대한 조사와 증인들을 만나 기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 3대학 교에 왔었다. 그런데 마침 그가 초빙강연을 한다는 소리에 이렇게 청강생들속에 끼워있었던것이다.

강사의 발언에는 처음부터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짙게 실려있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념원을 묵살하고 철퇴로 묶으려고 하는 <보안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조선에서는 물론 국제인권단체들과 세계 각국에서도 이 파썸적인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는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실례를 몇가지만 들어봅시다. 1992년 5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리사회에서는 최종문건에서 <보안법>이야말로 국제인권법규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권리를 유린할 가능성을 담고있다고 명백히 확정하면서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6월에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진행된 유엔주최 세계인권대회와 다음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정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04년 9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가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형사재판소 감시련합관계자, 스위스, 우간다대표를 비롯하여 권위있는 국제기구들과 인권관계자들은 <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최고의 악법이라고 략인하면서 당장 철폐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국제회의들에서만 울려나온 목소리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극악한 반인륜적인 악법이였으면 그것의 조작과 개악을 암암리에 묵인조장한 미국조차도 반인권적실태와 후파에 더 외면할수 없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격언에 이르기를 이미 지나간 시대의 옛 법을 고집하는 사람은 커다란 머저리가 아니면 큰 죄인이라구 했습니다.

하나 현 집권자는 역대 반통일집권세력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으로 모든것을 대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있습니다. 때문에 이 <남한>사회는 오래전부터 철창없는 감옥이라고 말하고있는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통일이라는 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도모하고 신뢰하며 화합의 손을 맞잡아야만 할것입니다. ...》

조승철은 정숙속에 묻혀있는 강당을 한번 일별하고나서 물로 목을 추겼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을 찬양해도, 북의 사람과 만나기만 해도 이 악법의 사슬에 묶어놓고있습니다. 하나의 겨레, 하나의 민족인 남북겨레가 오래동안 지속되어온 아픔을 가시고 통일을 이루자는것이 어째서 비법으로 되는가 하는겁니다.

미국에 대해 칭찬하고 지지하면 <충신>이 되고 피를 함께 나눈 형제들이 사는 북에 대해 찬양하면 <역신>이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남조선입니다.

아래집과 웃집사이에는 비록 울타리가 있지만 기쁜 일, 슬픈 일을 모두 제일처럼 여기고 서로 도와주며 한식술처럼 지내는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미풍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짓밟히고 말살되고있으며 같은 동포들이 살고있는 북의 현실에 대해 입에 올리기만 하면 사법살인의 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청강생들은 숨을 죽인듯 조용했다.

《사실상 이 악법은 <안보>의 미명아래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형제와 동포들을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있습니다. <리적성>, <체제위협성>의 허울아래 우리 국민들의 당당한 권리와 선택을 빼앗아가고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파쑈적인 악법이 활개치니 독재와 인권말살의 독버섯이 자라고있으며 민족분열의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가고있습니다.

지금 현 집권세력들은 이 악법을 폐지하면 <간첩>들만 좋아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실로 봐야 하겠습니까? 지금껏 이 <남한> 사회에서의 <간첩>들이란 반통일세력들이 저들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로 꾸며낸 간첩이 아닌 간첩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수다한 음모들을 털거하지 않는다 해도 아마 학생들이 더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같은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면 불안해지지만 서로 손을 잡으면 편안해진다는데 있습니다. <보안법>이 폐지되면 극소수의 사대매국노들과 동족대결세력에겐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행복의 대통로가 열리게 된다는것입니다. 왜냐면 이 법이 폐지되면 진정한 민주주의와 온 겨레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 열릴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사코 반대하는자들은 과연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제 안일과 이익을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개념 그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역적의 무리로밖엔 달리 볼수 없는것입니다.》

《옳은 말이요. 통일을 이룩하는것이야말로 우리 겨레를 살리는 진정한 길이요!》

청강생들의 열렬한 호응속에 승철은 격조높이 호소했다.

《비극의 력사, 분렬과 대립, 반공과 반북리념이 응축된 <보안법>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없습니다. 이 악법은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폐지해버려야 합니다.》

연주는 머리가 뻥해지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오늘 조승철에 대한 구속령장이 발급되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에 대한 구류는 이젠 시한문제이다.

저 사람도 분명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보고있을것이다. 그러니 단말마적인 행위로 마지막집을 짜내려는건가? 법률적인 압박이 크다고 하여 그것을 독재로 매도하는것은 지나친 억지가 아닌가. 모난 돌처럼 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소위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위반하는자만이 그의 타격대상으로 되지 않는가. 참, 이해되지 않는다. 무엇때문에 자기 생활에 스스로 화근을 불려들이는지.

연주는 조용히 강당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현 《정권》을 반대해나선 승철이가 두려웠다. 그럴수록 자기가 법관이라는 자각을 더 가다듬게 되는 그였다.

법에는 인정과 사정이라는 문구가 없다. 오직 공정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자신에 대한 의무감을 가다듬을수록 왜 그런지 마음은 공허하기 그지 없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어떻게 되어 승철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지 이해할수 없다. 아마 이런것을 보고 운명의 희롱이라고 하는지...

11

남녀간의 정이란 참 류별난것이다. 떨어지면 그림다가도 정작 만나면 왜 서인지 마주보기가 점직해진다. 철없던 그 시절 《오빠》라고 부르던 때의 일은 다 꾸며낸 일화처럼.

김연주는 아버지의 권고를 뿌리치고 제 고집대로 ㅈ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그날부터 대쪽처럼 박아넣은 결심이였다.

난 기어이 법관이 될테다! 나한테서 어머니의 꿈을 앗아간 가증스러운 무리들을 징벌할테다!

희망대로 법학을 전공할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는지 아니면 조승철이와 함께 있게 되어서 그런지 마음은 화창한 봄날같았다.

그와 한교사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은 티없는 가슴속에 포근한 봄바람을 잉태하게 했다. 외면하자고 눈만 감으면 왜서인지 그의 얼굴만 떠오른다. 대하면 대할수록 처녀의 명예와 자존심 같은것은 홀랑 벗어던지게 하는 사나이였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감정은 금시 피여날 봉오리로 화했다. 어제날의 애뜻한 관계를 사랑이라는 열매로 알차게 익혀가는 행복스러운 날들이였다.

오늘도 연주는 승철에 대한 생각을 안고 대학구내를 거닐고있었다.

개인 밤하늘가에는 명룡한 오색빛을 내뿜는 별들이 다분하게 매달려있다. 보석같은 별빛은 처녀의 속눈썹에 가랑가랑 맺힌 물기를 헤치며 새여든다. 철없던 그 시절 신비로운 공상의 세계로 소녀의 맑은 눈동자에 비껴있던 별빛, 그 별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정답고 친근하게 처녀의 투명한 살속을 투시하고있다. 사랑의 감정으로 일렁이는 봉긋한 가슴을 어루

만지며 뭐라고 열심히 속삭이는듯했다.

활엽수의 잎사이로 한쌍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고있다.

아마 저건 부부별일거야!

승철과 나란히 선 자신을 그려보노라니 절로 미소가 피어난다.

오빠 둘도 없는 나의 별, 영원한 내 사랑의 별이에요!

문득 승철의 얼굴이 다가든다. 온넛을 통채로 빨아들이듯 이글거리는 눈동자에 숨막혀 질식될것만같다. 맑고 유정한것이 조용히 물결치는 그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고싶은 심정이다.

그러한 감각을 느낄 때면 가슴속에는 행복의 파도가 넘실 굽이쳐오른다. 마치 온천물이 서서히 온몸을 감싸안는것같다. 그의 따스한 체취가 특골과 신경줄속으로 서서히 퍼지며 체온을 상승시켜준다. 온 육신이 초대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듯싶다. 동네아낙네들의 덕담속에 올랐던 《천상배필》이 현실로 되어가는듯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전교생앞에서 열정적으로 제 심정을 토로하던 모습이 의젓하게 안겨든다.

《학우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도 옥중에서 교형리들과 맞서싸우고계시는 한 통일시인이 쓴 시를 읊으려 합니다.》

온 대학이 떠나갈듯한 열광의 박수소리와 환호가 그를 휩싸안는다.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구호이다

꿈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시에

남모르게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조국은 하나다!》

권력의 눈앞에서

양키점령군 총구앞에서

자본가개들의 이발앞에서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구호이다

...

김연주는 두손을 가슴에 모으며 숨을 죽인채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먹물로 그어놓은듯한 두눈썹, 그밑에서 생기를 한껏 풍기는 눈망울, 선이 뚜렷한 코날, 양중한 입술과 반고수머리... 열정적인 그 모습은 그대로 처녀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모색으로 새겨지고있었다.

그의 시선이 자기쪽으로 향할 때면 《연주, 어데 있소?》 하고 소리쳐 부르는것같다.

서둘러 눈길을 피하고싶지 않다. 꼭 자기의 혼백을 통채로 걷어가는듯한 그 억실억실한 두눈에 영원히 포로되고싶다. 그의 몸에 내장되어있는 사내의 기질은 술한 처녀들을 그러안고 다채로운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갈것만같았다.

갑자기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팔다리가 매시시해지면서 입술이 굳어지는 것같았다.

내가 왜 이렇가? 긴장해서일가? 아니면 너무 격동되어서...

처녀는 그 모든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자기 심장의 박동과 호흡, 맥박들에서 이상한 점을 느낄수 있었기때문이다.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을까?

연주는 몸이 가벼워지면서 공중으로 훨훨 떠오르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온몸이 그대로 단우에 서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날아가는것같았다. 아니 그런 느낌이었다.

연주는 이 시각 자기의 신경과 체액, 내분비계통에서 강렬한 변화가 일어나는것을 분명 알아차렸다. 의식과 사유, 심리와 생리가 다같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것을 강렬하게 자극하고있었다. ...

지금도 그는 손에 든 책의 끄트머리를 잘근잘근 씹으며 승철의 모습을 미소속에 그려보고있었다.

이때 어깨너머에서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사랑의 대하에 빠진 처녀의 심장
등근달아 흠쳐보지 말아
오직 그대에게만 달려가는 이 마음
반짝이는 별들아 탐내지 말아

깜짝 놀라며 연주는 몸을 돌렸다.

리선미가 얼굴에 함박꽃같은 미소를 남실거리며 서있었다.

《아니, 이놈의 계집애!... 정말 혼나보겠니?》

선미는 웃음발을 연신 날리며 나무들사이로 땀돌았다.

연주는 종주먹을 쥐고 따라갔다.

《너 자꾸 까불델래?》

가슴을 할딱거리며 선미는 느티나무를 가운데 두고 연주와 마주섰다.
숨은 턱에 닿았건만 그의 입술은 철새없이 나풀거렸다.

《아, 승철씨! 당신만을 사모하는 이 처녀의 심장을 포근히 안아주세요.》

김연주는 그를 붙잡고 량겨드랑이에 두손을 넣었다.

《에익, 이 못난이. 계속 놀러델래?》

《아이 그러지 마, 간지러워죽겠어...》

《그럼 잘못했다구 해, 어서... 그렇지 않다간 아예 저녁손가락을 내놓을
줄 알라.》

선미는 끝내 두손을 들고말았다.

《그래, 그래... 짝사랑에 빠진 네 심장에 다신 돌팔매질을 안할게.》

두 처녀는 손을 잡고 마주섰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까르르
요절하듯 웃었다.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는 교정의 저녁공기를 기분 좋게 흔들어놓았다.

교사에서 나오던 학생들이 영문을 몰라 그들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제서야 두 처녀는 놀란 개구리들처럼 소리를 그쳤다. 허나 손바닥으로
입을 막은채 키득키득거리고있었다.

한참후에야 그들은 팔을 낀채 교문을 나섰다.

《연주야, 난 한참 공부하다가 네가 없어진걸 보구 속이 다 덜컹했어.
어느 사내가 훔쳐가지 않았나 하구 걱정을 했지 뭐.》

《피, 거짓말! 이 팔랭이가 옆에서 방해하지 않으니 아마 만세 삼창이라
두 불렀겠지...》

선미는 고운 눈매로 흘겼다.

《아니야, 이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 반대거던.》

《왜, 갑자기 성모마리아라두 됐니?》

두눈을 할죽거리던 선미는 이죽거리듯 말했다.

《그건, 내 생사와 관련되는 문제니 할수 없지 뭐. 술집의 걸레처럼 술쏟아진것, 물쏟아진걸 모두 닦아내면서라도 너한테 아침을 해야 할판이니까.》

애매몽롱한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연주는 긴 속눈썹을 스벅거렸다.

《어마나! 내 몸값이 언제 그렇게까지 비싸졌니?》

선미는 호하니 실숨을 내그었다.

《한침대우에서 누워자는 처녀가 봄바람에 붕 뿔으니 어떻게 하겠니. 자칫하면 내 잠자리를 그 사내한테 떼우겠는데...》

보조개가 깊이 패인 동그스름한 그의 얼굴에 의미있는 웃음이 어려있었다.

말뜻을 음미해보던 연주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마나?... 아이, 망측해!...》

그는 선미를 따라잡으며 책가방을 휘둘러댔다.

《너, 정말 계속 놀려대겠어?》

리선미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정색한 기색을 지어보였다.

《연주, 솔직히 말해봐.》

급작스러운 행동앞에 연주는 두눈이 켜졌다.

《갑자기 왜 그러니?》

《넌 지금, 승철씨를 사랑하구있지?》

순간 연주의 얼굴은 앵두빛으로 물들며 확확 달아올랐다.

《어서 말해. 너야 속생각을 품고있는 성미가 아니지 않니.》

그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지금껏 짝밤알처럼 붙어다니는 사이였다. 서로 흥허물없는 자매간이나 다름없었다. 성격이 드세차고 더뎈거리기 잘하는 연주에 비해 선미는 매사에 진중하면서도 성미가 쏠리지 않았다. 두 처녀가 함께 움직일 때면 하나의 완성된 창조물처럼 호흡과 숨결이 착착 맞아 돌아가곤 했다.

《사실 난 그와 한마을에서 살 땐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단지 소꿉시절의 각시놀이처럼 여겼어. 그런데 지금은...》

《그럼 성삼씨는 어떻게 하겠니? 그가 널 마음에 두고있는것같은데...》

김연주는 쓰겁게 웃어버렸다.

《흥, 까마귀 까투리 잡아먹을 생각말래라. 난 어쩐지 입통제도

못하며 노상 헤실헤실거리는 그 사람이 두렵기만 하더라. 꼭 가면을 쓴 것같은게...》

《왜, 그래두 승철씨와 같이 시위마당에 자주 나서던데...》

《난 빈 크림단지처럼 먹통두 됐다, 약통두 됐다 하는 사내는 좋아 안해. 남편이란 안해의 희망이야. 너자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내는 남편자격을 상실한것이나 다름없어. 그 사람은 나한테 전혀 맞지 않는 옷이나 갈애.》

그의 말에 공감하며 선미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하긴 그래. 내가 보기에도 승철씨가 너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구 봐. 정말 반해볼만한 사내야!》

김연주는 짐짓 놀라는듯한 기색을 지어보였다.

《어마나! 그럼, 선미 너두 그를 짝사랑하는게 아니가?...》

리선미는 연주의 어깨를 가볍게 때렸다.

《넌, 날 어떻게 보구 그래? 나한테야 이미...》

《아이참, 내가 깜빡 영민씨를 잊었구나. 어쨌든 넌 행복한 여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새침데길 낚아냈을가?》

선미는 랑불을 불히며 할미꽃처럼 고개를 외로 숙였다.

《애두 참 싱겁게... 너자란 남자가 지긋게 달라붙으면 별수가 없더구나 뭐.》

그러자 연주는 손사래질을 해댔다.

《난 너의 그 지론을 부정해. 다시말해서 선각자들의 <사랑론>을 따를 수 없다는거야. 그건 다 우리 여자들에게 속박의 멍에를 씌운 유교의 후파이거던.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란 말이야. 그런 낡은 사랑관은 골동품창고에나 가야 할 세월이야.》

리선미는 두손을 가슴에 가져가며 탄복했다.

《어마나, 널 다시 보게 되는데?!...》

김연주는 한쪽눈을 찡끔해보이고는 자기의 주장을 펴나갔다.

《난 사랑의 선택권은 항상 남자에게만 있다고 생각지 않아! 결혼, 그 자체는 남녀 두사람에게 있어서 다같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

《그러니 넌?!...》

연주의 마음은 어느 정도 흥분되어있었다. 마치 시인이라도 된듯 자기의 감정을 열정적으로 토로하고있었다.

《그래, 난 주동적으로 내 사랑을 쟁취하겠어. 눈앞에 제일 매혹적인 사내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가 먼저 손을 내밀기만 기다리겠는가 하는거야. 난 그 사랑을 꼭 잡구 놓지 않겠어. 제힘으로 쟁취하지 못한 사랑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수 없는 법이야.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것은 그가 그릇되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행동할 때 가서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기때문이야. 난 사랑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누워서 상사병을 앓느니 주동적으로 쟁취해야 한다구 말이야.》

《그러다 혹시 목이 마르다구 독주를 마시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어드랬니. 난 정이 없는 사내의 품에 안겨 일생을 사느니 차라리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순정을 바치며 하루를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구 봐.》

선미의 두눈동자에는 놀라움이 한껏 어렸다.

그렇게 하숙집골목에 접어들던 처녀들은 그만 깜짝 놀랐다.

《어마나?》

불시에 검은 그림자가 앞을 막아나섰던것이다.

두 처녀의 심장은 한줌으로 줄어들었다.

코트깃을 세우고 색안경까지 낀 사나이였다.

금시 자기들을 덮칠것만같았다.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은 굴뚝같았지만 두다리가 마비된듯 움직이지 않았다. 승냥이를 만난 토끼꼴이였다.

김연주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콩알만해진 심장을 억제하며 서리돋친 소리로 내쏘았다.

《누... 누구예요? 한밤중에 왜 처녀들의 앞을 막아서는거예요?》

사나이는 전지불을 피득 비치며 그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아니?!... 이거, 정말 실례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머리숙여 사죄했다.

김연주는 얼터름했다. 급작스레 변하는 사나이의 태도에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뒤에서 선미의 나직한 탄성이 튀어나왔다.

《어마나, 영민씨가 아니세요?!》

《아, 선미씨구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소. 얼마나 기다렸다구...》

사나이는 선미의 손을 잡고 반가워했다.

《시험공부를 좀 하느라구… 참, 인사해요. 제가 일전에 말한 제 친구예요.》

선미는 서영민에게 연주를 소개했다.

《아 그렇습니까. 참, 그렇게 농구보니 어디선가 눈에 많이 익힌 모습입니다.》

《기억해주시니 고맙군요. 그렇지만 난 처녀들의 앞길이나 막아서는 그런 무뢰한은 새겨두지 않는답니다.》

영민은 오른손을 뒤통미에 가져다댔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급한 일이 생기다보니…》

《사실이구 오실이구 그런 변명은 필요없어요. 그래, 무슨 일인가요?》
당당한 처녀앞에 주눅이 든듯 영민은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저—어, 선미씨를 좀 만나려구…》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앞으론 꼭 명심해요. 선미는 결코 독수리가 마음만 먹으면 덮쳐가는 병아리가 아니란걸 말이에요.》

연주는 선미에게 돌아서더니 한쪽눈을 찡끔거리며 속삭였다.

《그래두, 범이다야!》 하며 그를 영민이쪽으로 떠밀었다.

선미는 그제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으로 《그럼, 잠깐만 기다려줘.》 하고 당부했다.

《아무렴, 그런데 오늘 밤엔 내가 하숙방에서 쫓겨나는건 아니겠지?》

《어마나! 앤 참…》

두 련인은 저쪽으로 걸어갔다. 무슨 심각한 문제를 토의하는지 그들의 말소리는 무겁고 침침하게 들려왔다.

《영민씨,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선미를 찾아온게 아니요.》

간간히 들려오는 그들의 이야기에 연주는 은근히 신경이 갔다.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까?

이윽고 그앞에 다가온 선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감빨았다. 오히려 팔꿈치로 영민이를 툭툭 건드릴뿐이다.

김연주는 룡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짐작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하세요.》

서영민은 버릇인지 오른손을 뒤통미에 가져다댔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고나서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실은 연주씨에게 미안한 부탁이 있어서 그렇니다.》

《아니, 저한테요?》

《예, 지금 검정개들이 우리 학생회장을 잡겠다고 눈에 불을 달구 돌아치고있답니다.》

김연주는 찬물벼락을 맞은듯 온몸이 오싹했다.

《경찰이 승철오빠를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간 말이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위원회 위원들은 그의 거처지를 여러곳으로 옮겼지요. 헌데 오늘 저녁 비밀장소로 찾아갔는데 글썄 사복경관들이 벌써 매복하고있는게 아니겠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피신처들은 이미 다 드러난 형편이니 이를 어찌면 좋습니까. 그래서...》

연주는 요즘 승철이가 드물게 대학에 나타났다가 가뭇없이 사라지던 일이 떠올랐다.

《제가 무슨 도움을 줄수 있나요?》

《저어, 다르게 아니구...》

영민은 더이상 말끝을 맺지 못하고 갑자르기만 했다.

옆에서 속상해서 입술만 감빰던 리선미가 그를 대신했다.

《연주야, 승철씨를 오늘 밤만이라두 우리 하숙방에서 묵게 할수 없을가? 래일 새벽엔 시외로 자리를 옮기겠다는구나.》

《뭘, 우리 하숙방에?!...》

너무도 어이가 없어 연주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젠 달리할수야 없지 않니. 야간통행금지시간도 다됐는데...》

선미는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연주는 영민을 바라보았다.

《승철오빠 지금 어데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럼, 어서 가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우리 하숙방은 너무 좁아서...》

그러자 서영민이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걱정마십시오. 선미씨는 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김연주의 눈망울은 순간적으로 커졌다.

《에—에, 그럼 난 어찌라는거예요?》

영민은 어색한듯 오른손을 뒤덜미로 가져갔다.

《저어, 이렇게 말하면 실례인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하숙집주인들이 다른 눈치를 채지 않게 하자구 해두 그렇구…》

《그래,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영민은 능글능글한 표정을 지었다.

《전 연주씨가 승철군과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뭐예요, 그럼 내가?!…》

선미가 그의 두손을 꼭 잡았다.

《연주, 이해해주렴. 우린 승철씨를 위험속에서 구원하자는거야. 그가 체포되면 우리 조직은 다시 일어서지 못해. 그러구 대학에선 너희들을 친남매로 알고있지 않니.》

연주는 놀란듯한 시선으로 선미를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짐작되는것이 있었다. 이미전에 대학안에 반파썸민주화를 위한 비밀조직이 활동하고있다는 소리는 들어왔다. 그러나 그 조직책임자가 바로 조승철이었으며 또 저 온실안의 꽃처럼 여겼던 선미까지 그 성원이라는것은 몰랐다. 바로 대학에서 일어나는 반《정부》시위와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동맹휴학이 이들에 의해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그럼 너두?!…》

선미의 두눈가에는 미소가 그윽하니 실렸다.

《그건, 후에 말해줄게. 단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해줄건 승철씨는 이제 경찰들에게 잡히면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다는거야.》

《뭐, 징역?!… 그건 절대로 안돼.》

연주는 저도 모르게 목청을 높였다.

《그러니 좀 도와줘.》

《어서 승철오빠한테로 가보자.》

하숙집앞 구석진 곳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뜻밖에도 리성삼이 승철을 부축하며 앉아있었다. 그는 연주를 보자 별스럽게 어색한 인상이었다.

《연주씨,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럼 성삼씨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이 <남한>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연주는 그의 말을 흘려들으며 승철의 머리맡에 앉았다. 이마에 감긴 붕대에는 피가 내배여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늘 시위때 경찰들과 몸싸움이 있었지요. 그때 곤봉에 그만...》

조승철은 의식이 없는지 아니면 기운이 진해서인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왈칵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오열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애써 입을 껴물어야만 했다. 야밤중에 젊은 너자의 청승맞은 울음소리가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수 있었다.

《동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수면제를 좀 먹었습니다. 아마 한시간후면 깨날겁니다.》

《자, 어서요.》

연주는 앞뒤를 가릴새가 없었다. 남들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비끼겠는가 하는것은 후에 불일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의무만이 머리를 지배했다.

12

김연주의 하숙방은 2층에 있는 다락방이었는데 너무도 비좁았다. 선미와 함께 리용하는 침대를 제외하면 한사람이나 겨우 드나들 정도였다.

방에 홀로 남자 연주는 안절부절을 못했다. 피흘리며 쓰러진 승철을 보는 순간에는 뭐든지 다해낼것같았다. 그러나 정작 침대우에 누워있는 그를 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었다.

눈가에 맺혀진 눈물은 주르르 흘러내리고있었다.

모든것이 꼭 자기 실책으로 빚어진것만같았다. 승철의 곁에 붙어있지 못한게 후회됐다. 옆에 있었더라면 그한테로 날아드는 곤봉에 제 몸을 내댔으련만.

연주는 자신을 질책하며 서영민이가 남겨놓은 위생가방을 열었다. 거기

에는 새 가제천과 외상약들이 들어있었다.

우선 승철의 이마에 감긴 붕대를 갈아대야 했다.

다행히 상처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소독솜으로 닦고 새 붕대를 감았지만 문제는 피가 묻은 교복과 속내 의였다.

처녀의 몸으로 아무런 의사소통도 없는 사내의 옷을 벗긴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소꿉시절이라면 주저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수도 없는노릇이다.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갑자르던 연주는 드디어 용단을 내렸다.

까짓거, 속옷상의나 하나 벗기는게 무슨 큰일이라구.

이 시각 남녀간 도덕적감정은 녹거리향수의 냄새보다 더 빨리 날아났다.

교복을 벗기자고보니 큰 몸집을 움직이는것이 여간 벅차지 않았다. 코등과 등골에서는 벌써 진땀이 내뿜고있었다. 허나 사나이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에익, 무슨 사람이 이렇게도 감각이 무디담. 이런 남자는 앞으로 제색시를 누가 업어가는줄도 모르구 잘거야. 에익—

너무도 밍광스러워 주먹으로 광광 때려주고싶었다.

겨우 교복은 벗기고 속옷상의를 부여잡고 씨름질을 하는데 조승철이 간신히 눈을 떴다.

《아니, 이젠?...》

크고 억실억실한 두눈이 갑자기 올려다보자 처녀는 소스라쳐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마나!—》

방 한쪽구석으로 달려간 연주는 두손바닥으로 확확 달아오른 얼굴을 감쌌다.

조승철은 어리둥절했다. 눈길에 닿는 곳마다 낯선 물건들이었다. 더우기 남자의 소지품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수 없다. 후각을 향긋하니 자극하는 냄새는 류달랐다.

그의 눈길은 방바닥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피묻은 붕대와 약솜, 약병들이 놓여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이마에 타격을 받고 쓰러졌던 일이 기억났다.

영민이랑 다른 친구들은 어데 갔는가? 그런데 방금전 내 옷을 벗기려던 처녀는 누구인가? 그래, 꼭 연주 같은데... 헌데 내가 어떻게 그의 하숙방에 와있을까?

풀길 없는 의문을 안고 그는 한손을 이마에 가져다댔다. 새 붕대의 감촉이 손맛 좋게 느껴졌다.

그러니?!...

반쯤 몸을 일으킨 승철은 내의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저기에 피자옥들이 큼직하게 나있었다. 저쯤 구석에 연주가 몸을 웅송그린채 앉아있었다.

나때문에 또 울었겠구나!

《연주!》

처녀는 승철의 부름에 흠칫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눌수 없는 당혹감에 얼굴을 들수 없었다. 등뒤에서는 승철의 선선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왜 그러구있니?》

웅글하고 서글서글한 음정은 참 듣기 좋았다.

깊은숨을 들이키며 연주는 천천히 눈길을 들었다. 순간 그들의 눈빛은 허공에서 부딪쳤다.

두사람은 서로 이상한 느낌으로 굳어졌다. 무엇인가 특별하면서도 새로운 감촉이었다. 쉽게 잊혀지지 않을것같은 새롭고 총동적인 느낌을 거의나 동시에 느낀것이다. 그 감각은 계속 안으로, 안으로만 짚아든다.

이글이글거리는 사나이의 검은 눈동자를 마주보며 처녀는 묘한 현기증을 느꼈다. 가을하늘처럼 티없이 맑은 눈, 땀이 송송 돌아보이는 부드러운 코날... 어디라없이 담박하고 성실한 품성을 품고있는 듯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와있니?》

총각이 먼저 어색한 분위기를 허물었다.

처녀는 전후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왜서인가 가늘게 떨리고 자꾸만 더듬거렸다.

아이, 내가 왜 멍추처럼 자꾸 이러니?...

파들파들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은근히 아래배에 힘을 주었다. 허나

심장은 여전히 제 박자를 어기고있었다.

본인이 다 이상할 정도였다. 여느때 같으면 승철앞에서 드살찬 팔랭이로 행동했을 그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꼭 그한테 포로 된듯한 심정이다.

선미가 옆에 있었다면 이 팔을 보구 뭐라고 했을가?

승철의 우선우선한 목소리가 처녀의 긴장을 늦춰주고있었다.

《내가 너한테 또 부담을 줬구나!》

《아, 아니예요.》

한시바빠 자리를 모면하려고 연주는 피문은 봉대와 교복을 소랭이에 건어담았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화끈화끈거리기만 한다.

《네가 혼자 있는 침실에 들어와서 정말 미안해.》

조승철은 침대에서 가까스로 일어났다.

김연주는 절구공이같은게 속에 툭렁 떨어지는것같았다.

《아니, 어쩔려구?...》

《난, 그만 돌아가겠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승철은 말을 채 맺지 못했다. 처녀의 원망어린 눈길을 보았던것이다.

《달리 생각지 말아. 아무리 궁지에 몰렸다한들 내 어찌 남한테까지 화가 미치게 하겠니.》

조승철은 교복상의를 집으려고 팔을 내뻗쳤다.

소랭이를 등뒤로 가져간 연주는 새파래서 내쏘았다.

《안돼요!》

승철은 어리둥절했다. 처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일렁이고있었던것이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니?》

《어쩌면 그렇게 말할수 있어요. 그래, 내가 여직껏 오빠한테 남이었던 말이에요. 예... 어서 말해보요? 어서...》

련발적으로 재촉하며 다가드는 항의에 승철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뭐라고 선뜻 대답을 찾을수 없었다.

《뭐, 내가 남이라구요?! 오빠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수 있어요. 지금껏 날 친동생으로 여긴다구 하던건 다 거짓인가요? 그래 내가 오빠의 상처를 처치해주고 옷을 빨아준다구 무슨 큰일이라두 나는가 말이에요?》

어깨를 들먹이며 내뻗는 하소에 승철은 코마루가 시큰해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연주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구있어!》

눈물범벅이가 된 얼굴을 쳐든 처녀는 그루박듯 말했다.

《아니예요. 오해는 오빠가 하고있어요. 지금껏 날 뭘로 봤어요. 그래, 이제 나가면 경찰한테 잡힌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제 체면때문에 범의 아구리로 내보낼 그런 매정한 너자로 봤는가요?》

《내가 연주를 그렇게 봤다면 여직 제 친동생처럼 여겼겠니. 난 그런 생각을 가진적이 단 한번도 없었어. 오히려...》

말끝을 채 맺지 못한 승철은 머리를 외로 돌렸다. 지금 그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감정이 솟구치고있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것이였다.

연주의 표정은 차츰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자기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승철은 손수건으로 연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자들이야 다르지 않니. 처녀가 남자와 하루밤을 지냈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니. 그건 칼로 낸 상처보다 더 깊은 거야!》

처녀는 행복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가. 그림자같은 위험보다 한 처녀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가. 난 저 웅심깊은 마음속을 한껏 헤여가며 모든것을 다 바칠테야!...

승철은 싱긋하니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교복을 달라는 의미였다.

허나 연주는 여전히 요지부동의 자세였다.

《난 설사 그 어떤 루명을 쓴다 해두 절대로 내보낼수 없어요!》

《걱정말아. 경찰들의 감시망속에서도 몇달동안 뻔쳐온 내가 아무렴...》

《그만하세요. 사내들은 흔히 여자들앞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뽐내려구 하지요. 만약 오빠가 잘못되면 난 누굴 믿구 살겠나요. 그렇게 되면 난...》

연주는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자신이 잘 알고있었다.

승철은 난처해졌다. 처녀에게 지울수 없는 허물을 남겨준다는것은 너

무도 비렬한것이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앞길을 막아서는 저 고집을 꺾을수도 없었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구나. 그러니...》

승철에 대한 원망의 폭발인듯 연주는 교복을 그의 가슴에 확 던져주었다. 그리고는 문을 확 열어제꼈다.

《정 그렇다면 어서 나가세요. 난 오빠를 여직껏 좋게만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너무도 무정하군요. 남의 진정을 한치도 받아들이줄 모르는 목석이란 말이에요.》

분했다. 그토록 깨끗한 마음을 고여왔건만 어쩌면 이렇게 매정하게 뿌리칠수 있단 말인가.

《어서 가고픈데로 가세요!》

물기어린 연주의 눈길앞에 승철은 주눅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처녀의 목소리는 그의 가슴에 류다른 감정으로, 열렬한 호소로 안겨들었다. 이전에 오가던 실랑이가 아니었다.

그는 출입문을 닫으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그를 불렀다.

《연주!...》

처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돌아섰다. 뭐라고 표현할수 없는 뜨거운 감정으로 젖어든 눈망울로 사나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한테는 오빠밖엔 없지 않나요. 거기가 없는 나의 생활이란 영영 없는거예요.》

연주는 제 말에 스스로 놀라기까지 했다. 마음속에 고이 안고있던 순정을 이제야 드러내보인것이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기쁘기만 했다.

승철은 처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난 언제나 네 오빠로 남아있을테야!》

후더운 바람을 몰아오는 사나이의 진정으로 하여 연주의 맥박은 꽃잎처럼 바르르 떨렸다.

《싫어요. 난, 오빠의 안해가 되고싶어요!》

뜻밖의 일이라 승철은 숨이 킁 막히는것만같았다.

이것은 고백이었다. 그것도 엷은 허바닥에서 울리는 화려한 연사가 아니다. 후더운 심장으로 방풍림을 쌓고 뜨거운 피방울로 피워낸 진실하고 깨끗한 순정의 웨침이었다.

얼마나 듣고싶었던 말인가. 일생토록 고이 간직하고싶었던 부름이다.

오래전부터 사랑을 하면서도 연주의 연한 가슴에 또다시 상처를 남길 것만 같아 지금껏 저어했던 그였다. 시위장을 달리면서도 언제나 그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고 경찰의 곤봉에 쓰러질 때에도 남먼저 눈가에 비낀 처녀의 모습이였다.

언제이든 마음속의 진정, 진실한 사랑의 감정을 터놓으려 했지만 경찰들의 추적을 피해다녀야 하는 몸인지라 스스로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명랑과 활기에 넘쳐있는 연주에게 또다시 눈물을 가져다줄수는 없었다. 뜨거웁고 열렬하게 애무하면서도 그것을 속에 품고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토록 하고싶었던 말을 처녀에게서 먼저 듣게 되지 않는다.

승철은 갑자기 마음속동요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곳에 그대로 정착할수 없을 정도로 맥박이 빨라졌다. 형언할수 없는 혼란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고있다. 숨결이 잦아지고 허바닥은 말라들기 시작한다. 생각은 혼탁되고 혈관으로는 뜨거운 불줄기가 흐르고있다. 리성은 이미 감성의 힘앞에 머리를 숙이고있다. 이성을 감싸고있던 방화벽은 스스로 무너지고있었다.

《연주!—》

희미한 불빛아래 마주선 두 그림자는 어차피 서로 합쳐질것을 갈망하고있었다. 온몸을 태우는련정의 힘은 그들을 하나의 포승줄로 묶어놓고있었다.

달콤한 무기력과 애뜻한 마음, 잠에 드는듯한 감각이 연주를 사로잡았다.

《승철씨!—》

...

《저, 미안하지만 조승철변호사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조승철이 대학정문을 벗어나는데 한 젊은이가 앞을 막아섰다.

뜻밖이라 잠시 주춤했던 그는 긴장된 눈길로 상대를 바라봤다.

《그렇소. 그런데 저기는?...》

《××신문사 기자 윤경진입니다.》

명함장을 보고나서야 승철의 안면근육은 서서히 풀렸다. 물론 직업의 진실성여부는 알수 없다. 허나 꾸밈없는 청년의 표정은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래, 무슨 일이요?》

경진은 주위를 둘러보고나서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실은 선생님한테서 몇가지 알아볼게 있어 그러합니다.》

《나한테서?...》

《그래, 뭔지 어서 말하요.》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언행에서 뭔가 읽은듯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자기가 경찰들의 감시대상이라는것을 알고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지요.》

그들은 대학앞으로 난 인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저녁시간이어서 행인들로 번잡했다. 서로가 어깨를 부딪치며 어기기가 일쑤였다.

경진은 자기가 이 시간을 택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감시의 눈초리를 따돌릴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것이다.

얼마쯤 걸어가던 그는 옆으로 빠지는 좁은 골목을 앞두고 속삭이듯 말했다.

《선생님, 미안하지만 이쪽으로 가십시다.》

승철은 이미 그의 의도를 파악한지라 선선히 응했다.

갈래많은 골목길을 얼마간 지나고보니 자기들이 걸던 인도로가 다시 나졌다.

미행을 따돌리느라 어지간히 땀을 흘린 경진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수고를 끼쳐서 안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선생님께 후환이 미칠것같아서…》

그의 낯색은 안스러운 감정으로 싸여있었다.

승철은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듯 후덕한 눈길로 바라봤다.

《걱정해줘서 고맙소. 하지만 너무 긴장해서 그러진 마오. 젊은이를 만났다고 내 죄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테니까.》

이윽고 그들은 자그마한 차집에 자리를 잡았다.

록차를 청한 경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선생님을 찾아온건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싶어서입니다.》

승철은 잠시 생각에 잠긴듯하더니 다시 물었다.

《그래, 내 사생활에 관한 문제요?》

《그렇게 아닙니다. 전 선생님이 20여년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윤기옥이라는 피고인을 변호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승철은 저으기 놀라웠다. 호협스러운 이 청년은 누구이며 또 무엇때문에 그때의 일을 알고싶어하는지… 순전히 기자의 호기심에서 묻는 질문 같지는 않았다.

《그렇소. 그런데 난 젊은이가 어째서 그 재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 알고싶구만. 더우기 오래전에 있는 일을 말이요.》

승철은 차를 천천히 마시며 경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색이 침침해진 청년은 쓸쓸한 기색을 지었다.

《사실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분이십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그만…》

윤기옥이 경진에게 바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있는 승철의 눈망울은 한벌 더 커졌다. 이어 눈가에서는 밝은 빛이 흘러나왔다.

《그러니 임자가 그분의 시신을 안장했겠구만?!》

《예. 시민단체들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승철은 옛 지기라도 만난듯 반가와하며 경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윤기옥의 행처를 찾았다. 그를 변호하면서 받은 충격이 너무도 컸던것이다. 그가 걸어온 삶의 갈피갈피는 억울한 수난자의 피

눈물자국이였다. 어떻게 하나 불행한 너성에게 광명을 안겨주고싶었다.

그러나 안타까운것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후 3년간의 옥살이를 마친 그의 행방을 알수 없는것이였다. 오랜 세월 수소문하던 끝에 두해 전 그가 강릉의 어느 한 산골마을에서 고독한 인생을 마무리하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승철은 이 너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려고 각방으로 노력했다. 그가 복역한 형무소들을 찾아다니며 초기재판기록들을 찾았다.

하나 어찌된 일인지 그때의 사건철들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사건취급자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였다.

승철은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자신이 《리적분자》로 기소되어 손발이 묶인 몸이 되었다. 게다가 며칠전엔 윤기옥이 가슴속원한을 풀지 못한채 저세상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가 생존해있을 때 빛을 주지 못한것이 죄스러웠다.

이러한 그에게 경진이는 더없이 고마운 청년이였다. 그는 신문지상에서 윤기옥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억울한 루명도 벗지 못한채 한많은 세상을 하직한 그를 생각하니 오장이 토막쳐나가는것같았다. 현대 이렇게 끝끝한 젊은이가 그의 마지막운명을 지켜주었다니 다소 아픔이 줄어드는것만같았다.

승철에게 차를 권하며 경진은 용건을 터놓았다.

《선생님, 전 그분의 <간첩>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고싶습니다.》

《그러니 그의 명예회복을 할 결심이라는건가?!》

《예, 전 한생 불우한 운명을 살아오신 그분의 억울한 루명을 벗겨주고싶습니다.》

《임자는 참 좋은 사람이로구만!》

승철은 험겨로운 표정을 지었다. 자기가 못다한 일을 이어갈수 있는 젊을이를 만난것이 못내 기뻐다.

《현대 내가 알기에는 윤기옥녀성에 대한 사건기록철을 찾기가 조런치 않다는거네. 더우기 그 일은 1962년초에 일어난 사건이었지. ...》

한숨쉬인 승철의 말에 경진의 눈빛은 흐려졌다. 품고있던 기대가 허물어지는것같았다.

조승철은 그간 자기가 알아본 자료들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사건기록철들의 행처불명, 취급자들의 사망과 이주...

경진은 저도 모르게 침통한 기색을 지었다.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 그 당시 언론계를 법석 끓게 하였던 《윤기옥간첩사건》에 대한 심문 기록은 물론 재판기록조차 없다는것이...

《그럼 그후 그분이 <사회안전법>으로 재구속당하던 때의 일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전 그때 재판관으로 김연주라는 XX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나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승철은 그늘진 표정으로 아픔을 참는듯 신음소리를 냈다. 재판석에 앉아 윤기옥에게 유죄를 선언하던 연주의 모습이 되살아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그 일두 이젠 수십년전의 과거로 되어버렸지.》

흘러간 세월을 되새기는 그의 낯색은 피로움으로 질어갔다. 말마디들은 가슴을 찢어 비틀어짜내는듯한 비명같았다.

그를 지켜보는 경진의 심리는 복잡했다.

왜 그럴까? 윤기옥선생님에 대한 아픈 추억때문일까? 아니, 단순히 그것만같지는 않다. 그러면?...

《혹시 제가 선생님에게 묻지 말아야 할것을 물은게 아닙니까?》

경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승철은 한숨쉬인 소리로 대답했다.

《추억이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것은 아니지!...》

경진은 며칠전 법원앞에서 싸늘한 미소로 자기를 마주하던 연주의 얼굴을 상기했다.

《그러니 윤기옥선생님에게 유죄를 선언한 재판관이 그 판사라는 말이 정확하군요.》

승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자네두 알겠지만 <사회안전법>이란 사실상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2중적인 족쇄나 다름없었지. 허나 문제는 그때 그 녀자가 이 악법의 시행자로 나섰다느거네.》

윤경진은 고뇌에 질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였다.

《김연주!...》

그를 만나면 혹시 윤기옥에 대한 이전 공판내용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이때 승철의 손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아, 당신이요. 난 지금 대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차집에 있소.》

《무슨 간판을 달았어요?》

전화기에서는 중년여인의 살뜰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선뜻 대답을 찾지 못한 승철은 묻는듯한 시선으로 경진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사시절차집입니다.》

《사시절차집이라는구만.》

《그래요?!... 그럼 제 인차 가겠어요.》

《알겠소. 차들을 조심하오.》

경진은 전화내용을 흥미진진하게 듣고있었다. 다정한 정감이 오가는 대화였다. 한켠으로는 자기가 그들의 귀중한 저녁산보시간을 침범했다는 죄스러움이 들었다.

《선생님, 저때문에 정말 미안합니다.》

조승철은 어색한 표정으로 손사래질을 해댔다.

《그런 말 말게. 난 왜 그런지 이 좌석이 참 좋구만. 꼭 생존해계시는 윤기옥녀성을 보는것만같은게...》

그는 더없이 반가운 기색을 지으며 경진의 손을 꼭 잡았다.

《난, 임자가 내가 못다한 일을 꼭 성사시켜 그 불행한 녀인의 머리위에 드리운 검은구름을 가져주리라고 믿네.》

승철은 그에게 무엇인가 더 말하고싶었다. 허나 그만두었다. 윤기옥의 손에서 자란 젊은이가 어련하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이때 그들에게로 리선미가 다가왔다.

《아이, 내가 때아닌 때에 온게 아니예요?》

경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의자를 권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두분의 시간을...》

경진을 대하는 선미의 눈초리는 잠시 굳어졌다. 무엇인가 예리한 예감이 뇌리를 스치며 지나간것이다.

《내가 안됐소. 미리 전화로 알려주어야 했을걸...》

조승철은 굳어진듯 서있는 선미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혔다.

경진은 량해를 구하며 가방을 손에 잡았다.

《선생님, 오늘 참으로 귀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왜 벌써 일어서나? 좀더 있지 않구.》

승철이 만류했지만 그는 이미 식탁에서 한걸음 물러선 뒤였다.

《아, 아닙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며 자리를 떴다.

겸손한 경진의 행동이 왜서인지 선미의 망막에 소리없이 자리잡고있었다.

《누구예요?》

긴숨을 내그으며 승철은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러니 저 젊은이가 윤기옥녀성의 명예회복을?!...》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던 선미는 《그래, 무슨 일을 한다던가요?》 하고 물었다.

《윤경진이라구 기자로 일한다더군.》

《기자요?!...》

문쪽을 바라보는 선미의 눈가에는 깊은 시름이 어리고있었다.

《왜 그러오?》

승철의 물음에 선미는 눈길을 돌리며 어줍게 웃었다.

《아니, 그저 줌...》

...흐리터분한 달빛과 어둠이 서로 평화롭게 손잡아 한강수면우에 소리없이 내려앉는다.

한강대교를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고요를 바라는 유보도를 심술궂게 훑으며 결눈질한다. 그 서슬에 한가롭게 물우에 떠있던 물오리마저 수면을 차며 멀리 날아나버린다.

강변에는 아름답리나무들이 뿌리박고있어 구석진 곳을 찾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떠엄떠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집이 없는지 아니면 탈가했는지 알지 못할 사람들이 잔디밭에 아예 잠자리를 정하고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천태만상의 심중을 안고 모여드는 곳이었다.

조승철과 리선미는 나란히 걸어가고있었다. 천천히 내디디는 발길질에 어둠은 소리없이 부서졌다가는 다시 모여드는듯했다.

《전, 어쩐지 불안하군요. 가택수색, 검찰의 호출과 검사의 심문... 꼭 무서운 음모가 벌어지는것같은게...》

승철은 험거로운 태도를 취했다.

《원, 별걱정을 다하는구만. 우리가 그런걸 한두번만 겪었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재판장으로 연주가 선정되었다구 하더군요.》

《그렇다더구만.》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나오는게 어쩐지...》

승철은 평온한 기색으로 선미를 바라보았다.

《허, 이젠 나이를 먹더니 잔근심만 켜 늘었구만.》

닥쳐오는 일에 대해 무관심한 승철을 대할수록 선미의 가슴은 졸아드는것만같았다. 피고석에 앉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고있을 연주의 뻥뻥한 눈빛이 두려웠다.

녀자의 악담은 오뉴월의 서리보다 더 무섭다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의 표독스러운 언사를 이겨낼수 있을까?

선미는 조승철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대가 바르고 억센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강한 사나이일수록 여자들에게는 약한 법이다. 더우기 그와 연주의 관계는 레사로운 사이가 아니었다.

선미는 걸음을 멈추고 기슭을 어루만지는 물결에 눈길을 주었다. 고층 건물에서 비쳐오는 불빛이 수면우에서 반사되었다. 그우에 뻥뻥한 표정을 지은 연주가 자신을 쏘아보면서 찬서리를 내뿜고있었다.

《난,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구 꼭 복수할테야!》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군 한다. 여직 좋게만 보아온 그가 저렇듯 독한 여자였는가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할 정도였다.

눈앞에 어리는 그날의 환영은 지금도 가슴을 지극히 괴롭히고있다.

아무리 짙은안개도 때가 되면 걷혀지기마련이라구 혹시 연주도 이젠...

스쳐가는 바람처럼 밀려드는 생각에 선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 녀자는 결코 오뉴월의 감주처럼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니야!

흘러간 세월은 되돌아오는 법이란 없다. 그렇다고 인간의 과거사를 말끔히 씻어가는것도 아니다. 기억은 망각을 배제하며 지나간 시절을 다시 떠올릴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다. 문제는 당사자가 어떤 립지에서 해묵은 이끼를 벗겨내는가 하는것이다.

연주는 승철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사랑했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애인이기 전에 친부모, 친오빠였다. 바친 사랑이 클수록 배척당한

아픔도 큰것이다. 그것은 결코 시간의 흐름으로 지워버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쌓는 원동력으로 될뿐이다.

심술궂은 강바람이 선미의 산뜻한 옷차림을 질투하듯 검질기게 매여달리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슬픈 선물에서 깨나지 못하고있었다. 가끔 오른손을 휘휘 내저어 시끄럽게 달려드는 곤충들을 쫓을뿐이다.

조승철은 그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제는 어제날의 젊음을 잃어가는 나이이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가?!

이런 생각은 그로 하여금 선미에 대한 죄스러움을 더한층 쌓게 해주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자기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온 너인이다. 너성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자, 이젠 그만 돌아가는게 어떻소?》 하며 승철은 마른기침을 해댔다.

당황해난 선미는 그의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요즘 절기가 바뀌는 때인데 약을 제때에 잡수세요.》

기침이 멎자 승철은 길게 호흡하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희뿌연 달빛으로 흐리터분한 하늘가에는 별빛조차도 뿌연게 안겨왔다. 장막으로 뒤덮인 대기속엔 아무리 길게 손을 뻗어도 잡힐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실망과 고통만을 더해줄뿐이다. 아름답게 회억해볼만한 과거는 모두 저 암흑속에 묻혀버린듯싶었다.

리선미는 승철의 침침한 기색을 힐끔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제가 연주를 한번 찾아가보면 어떨가요?》

승철은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름그대로 악의관단 한점도 찾아볼수 없는 너인의 선한 모색이다. 또 마음은 어떠한가.

리선미의 사람됨에 대해 이젠 알대로 다 알고있는 승철이다. 그래서 그의 요구를 승낙할수 없었다. 더이상 그가 남들에게 모욕을 당하는것을 보고싶지 않았다. 자기가 남긴 상처도 깊은데 그의 아름다운 성정이 그릇된 인간들의 악담속에 찢기우는것을 용납할수 없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것을 의미하지!...》

길게 한숨을 내뿜고난 그는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내 견해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한 사랑은 오직 하나뿐 이라는거요. 그 이외의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결렬된 첫사랑의 아픔을 애써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거지!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리선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정으로 살고 정으로 죽는게 우리 녀자들에게요. 아무리 연주가 변했다한들 설마 옛정까지 잊었겠나요.》

《그러나 죽은 정은 하루에 천리를 달아난다는 말이 있지 않소.》

《제발 그런 억측은 마세요. 녀자가 정을 준 사람을 랭대하는건 그들 쉽게 잊을수 없기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클수록 증오도 크다고 하는게 아니겠나요.》

조승철의 기색은 쓸쓸했고 발걸음조차 무거워진듯싶었다.

《정신적공통성을 배제한 결합은 진실한 사랑을 낳을수 없소!》

리선미는 생각질은 눈길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래, 이 사람은 연주를 너무도 열렬하게 사랑했었다. 하지만 강렬한 진정의 화합이 일으키는 소용돌이속에서 자기와 상반되는 애인의 리념을 보지 못했다. 뒤늦게 알게 된 그때조차 그것을 바로잡아줄 기회가 없었다. 이제는 다시 옛시절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두사람은 오늘 서로 원수처럼 마주서게 되었다. 실련당한 아픔은 사랑이 틀고있던 가슴에 복수를 들어왔힌다는 말이 맞는것같다. 녀자쪽에서는 모름지기 시퍼런 칼을 갈고 있을것이다. 대립의 뿌리가 깊은 이 일이 장차 어떻게 어디로 아지를 뻗치며 흘러가겠는지. 연주가 지금껏 버려온 칼을 저 사람은 과연 어떤 방패로 막아낼가?

이런 생각에 선미는 자기가 그들에게 큰죄를 범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느닷없이 밀려드는 자책감에 잠겨있던 그 녀자는 그만 발을 헛디뎠다.

《아니, 조심하오.》

조승철이 그를 부촉했다.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선미의 눈가에 눈물이 핑하니 돌았다.

이 사람은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있다. 이제라도 사실을 터놓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더 괴로워할것이다. 그렇다고 영영 숨기고 살수야 없지 않는가.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들이 동교동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두명의 사나이가 앞을 막아나섰다.

《당신은 조승철변호사이지요?》

날카로운 눈초리와 목소리에는 살기가 배여있었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요?》

한 사나이가 증명서를 내보였다.

《경찰서에서 왔소!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야겠소.》

드디어 울것이 왔다는 생각에 승철은 태연스레 물었다.

《그러니 날 구류하는거요?》

사나이는 종이장을 내보이며 위엄을 돋구려고 목에 힘을 주었다.

《이러데면... 이건 당신에 대한 구속령장이요. 그러구 미리 경고하는데 지성인답게 처신하기를 바라오.》

저르기 긴장해있는 사복경찰들을 바라보며 승철은 쓰겁게 웃었다.

《걱정마오. 소동은 피우지 않을테니까.》

《그렇다면 자, 어서...》

사나이는 저쯤에 세워놓은 검은색승용차를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여러명의 경찰들이 이쪽을 주시하고있었다.

선미는 한순간 속이 통채로 내려앉는것만같았다.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 짐작 못한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당하고보니 눈앞이 새까맣졌다.

《안돼요. 이분은 지금 앓고있는 몸이에요. 그러니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만이라두...》

《우리한테 그런 사정이 통하지 않는다는걸 부인두 잘 알겠는데요.》

경찰은 자못 자중하는듯한 태도를 취했다. 옥신각신했댔자 저들에게 리로울것은 없었던것이다. 조승철에 대한 구속의 공개는 시간문제이기는 하지만 강압적인 방법이 도입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면 일은 그만큼 시끄러워질수 있었다.

선미는 막무가내였다. 승철의 팔을 꼭 부여잡고 놔주지 않았다.

《안돼요. 그래 앓고있는 환자를 구속하는 법이 어데 있어요?》

사나이는 딱한 기색을 지었다.

《그거야 알게 뵙니까. 우리야 지시를 집행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걸 부인두 아시겠는데…」

승철은 선미의 손을 꼭 잡고 안심시켰다.

《너무 걱정마오. 구류장에 들어가나 밖에 있으나 매한가지가 아니요. 단지 큰 감방에서 독감방으로 이감되는것으로 생각하면 될게 아니요.》

조승철을 태운 승용차의 불빛은 강안도로를 따라가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선미의 눈가에서는 눈물방울들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제 헤어지면 영영 다시 못만날것만같았다. 지금껏 의지해온 지랭점을 잃을수 있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듯했다.

다방에 돌아온 리선미는 기진한듯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래일 아침 경찰서로 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뻔했지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제일 근심스러운것은 조승철의 병이 재발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이제 다시 도지는 경우에는 정말 회복하기 힘들것이다. 그리고 장차 일이 어떻게 번져지겠는지도 가늠할수 없다.

접대부가 다가와 그에게 잡지를 내놓았다.

《주인님, 새로 나온 경제잡지입니다. 저—어, 그리구…》

심드렁해진 선미의 기색앞에 처녀는 소심하여 말끝을 흐렸다.

《뭔지 어서 말해요.》

《저녁식사를 드셔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없으니 차나 한잔 주세요.》

경제잡지의 구독자인 선미였지만 그것을 번질 기분이 나지 않았다. 눈앞에는 온통 병색질은 조승철의 모습뿐이다.

접대부가 내온 차를 조금씩 마시던 선미의 눈길은 잡지의 표지에 머물러있었다. 웬 늙은 녀인의 초상이 실렸는데 꼭 어데선가 본것같은 모상이다.

의혹의 실줄을 꿰어가던 그는 잡지를 손에 들었다. 대양을 배경으로 찍힌 모색속에 한 젊은 녀인의 모습이 비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선미는 잡지의 차례항목을 읽어갔다. 그러다가 오스트랄리아의 한 조선인관광업자를 소개한 기사를 펼쳤다.

어쩌면 이리도 신통할수 있단 말인가?

반디불같은 희망을 안고 글을 읽어가던 그의 눈앞은 금시 환해졌다. 시름속에 잠겨있던 마음은 조용히 파동을 일으키며 흥분되기 시작했다.

그래, 분명 그 녀인이다! 그러니 지금껏 시드니에서 살고있었던 말인가?!

의혹은 어느덧 확신으로 변했다.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번호를 돌렸다.

《여보세요. XX잡지사이지요?》

굵고 석싹한 중년사나이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으니까?》

선미는 입술을 감빨고나서 조금한 심정을 드러내보였다.

《저, 이번 호에 실린 기사때문에 그러합니다.》

《뭐, 잘못된것이라두 있는가요?》

《그런게 아니라 시드니에서 관광회사를 운영하는 박명희사장에 대한 기사를 쓴 기사를 만나려구요.》

《히, 이젠 퇴근하구 없겠는데...》

《그럼 전화번호라두 알려줄수 없을가요? 급한 일이여서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어디 찾아봅시다.》

무뚝뚝한 어조였지만 그래도 마음에 주름이 잡힌 사람같지 않았다.

잠시후 사나이는 한 녀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선미는 그에게 인사말을 남기고 제창 녀기자를 찾았다.

《실은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박사장의 주소를 알고싶어 그러합니다.》

《예, 그런가요? 아마 급히 만날 일이라두 있는 모양이군요.》

《그래요. 전 그 녀자의 주소를 오래전부터 알고싶었답니다.》

《아마, 자별한 관계인 모양이군요. 마침 박사장님은 지금 서울에 와 계신답니다. 고향방문으로 한주일전에 왔답니다.》

선미는 속으로 탄성을 올렸다. 수십년동안 막혀있던 대문이 오늘에야 빗장을 제낀것이다.

《그럼, 그의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만나려면 아마 서둘러야 할겁니다. 그분은 이틀후에 출국할 예정이니깐요.》

《알겠어요.》

리선미는 박명희사장의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받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 그었다.

이번 기회에 그애의 행처라도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허나 한가닥의 희망은 인차 안개처럼 사라졌다.

설사, 그 녀자가 아이를 맡긴 고아원을 찾는다 해도 그애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때로부터 이제 30년이 가까와오지 않는가.

급작스레 밀려드는 근심의 파도앞에 선미의 눈빛은 흐려졌다. 눈가에는 강보에 싸여 애처로운 울음을 터치던 어린 생명의 모습이 떠올랐다.

14

조승철은 구속된 다음날 담당검사의 호출을 받았다.

심술궂고 비웃음에 찬 눈길을 던지는 성삼은 첫마디부터 상대의 비위를 은근히 건드렸다.

《흥, 명망높은 변호사가 검찰의 취조를 다 받다니… 지금 자네의 꼴이 뭘 같은줄 아나?》

야-Jul거리는 빈정거림을 승철은 쓴웃음으로 물리쳤다.

《허, 내가 그렇게두 꼴불견인가? 그럼 어디 검사님의 비유를 들어보자구.》

리성삼은 사무실을 오락가락하며 회소가 어린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임잔 꼭 들판에 나와 동네개들에게 물리우는 호랑이갈네.》

그 소리에 승철이쪽에서 폭소가 터쳐나왔다.

《하하하, 호랑이라?!… 저 듣기가 영 거북하지는 았구만그래. 주인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리는 삽살개라는 말보다는 말일세.》

성삼은 불쾌감으로 한쪽볼편을 실룩거렸다.

《아무리 삽살개라도 어쨌든 랭대야 안받지.》

그는 자리에 앉으며 사건기록부를 책상우에 꺼내놓았다.

《오늘은 우리끼리니 톡 터놓구 말해보세. 그래 어찌다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나? 난 사건을 말할 때부터 눈앞이 다 아찔해지더군.》

승철은 전혀 흥심없는듯 묵묵부답이었다.

성삼은 금시 얼굴에 난 마마자국이 평하니 열릴듯 열을 올렸다.

《왜 말을 못하나? 변명이라두 좀 시원스럽게 하게. 그래야 내 맘두 좀 편할게 아닌가.》

승철은 그의 말에 증이 난듯 코웃음을 지었다.

《이보시오, 검사선생! 그렇게 족제비가 닭한테 세배하듯할 필요까지 있겠소?》

리성삼은 꺾꺾해졌던 눈살을 내리깔며 나무람했다.

《그 말은 좀 지나친데가 있구만. 아무리 궁지에 몰렸어도 동창생의 성의야 받아들일줄 알아야지.》

《허 그런가. 그럼 내가 피심자래두 차 한잔이야 대접할수 있지 않을까?》

어이가 없다는듯 성삼은 입을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자야 워낙 커피를 좋아하지 않나.》

커피잔을 받아들던 승철은 생각난듯 《그런데 검사님은 안마시오?》하고 물었다.

시답지 않은듯 성삼은 통명스럽게 내쏘았다.

《난 이미 마셨네.》

승철은 알만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앞에 놓인 사건기록철에 피땀 눈길을 주었다.

《하긴 이렇게 두툼한 기소문을 작성하느라 커피통을 오죽이나 요정냈겠나. 분명 어제 밤에두 잠을 제대로 못잔것같구만?》

리성삼은 그가 계속 시까스르는데 기분이 언짢았다.

《내 걱정은 말구 제 생각이나 좀 하라구.》

대답대신 조승철은 다시 커피잔을 들었다.

《커피맛이 그만하면 팬찮구만. 확실히 검사들은 생활수준이 높단 말이야.》

《이젠 그만 빈정거리구 이 증인자료들을 좀 보는데 어떤가?》

《보기나새나. 아무럼 <국정원>과 검찰이 이마를 맞대고 작성한건데 어련할라구. 그리구 내가 당신한테서 얼마나 심문을 받았나. 그러니 이젠 새끼고기가 빠질 틈도 없이 촌촌해졌을거야 뻔하지 않나.》

성삼은 잡도리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빼앗길수 있다는 위구

심으로 긴장해졌다.

《하긴 순순히 족쇄를 찰 사람이 어데 있겠나. 허나 이 증거들은 말장난으로는 결코 이길수 없는것들일세.》

커피잔을 놓으며 승철은 성삼을 땀히 바라봤다.

《이런 말이 있지. <돈있는 집에 시집갈수록 코대를 세우고 무서운 사람일수록 알잡아보라!>》

성삼은 쓰거운듯 코웃음을 날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배짱이 결코 만능통행증으로 되는건 아닐세.》

그러면서 그는 책상우에 있는 문건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강조했다.

《자, 이건 다 자네의 <리적행위>와 <간첩>혐의를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일세. 그래, 이 증거들앞에서 자신을 변호할수 있다구 생각하나?》

승철의 안색에는 알릴듯말듯 조소 같은것이 스쳤다. 눈앞에서 지분거리는 성삼에게 그는 권고하듯 말했다.

《검사님, 하찮은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하찮은 일에도 성을 잘 내는 법일세. 그리고 내 아까부터 하고싶던 말인데 오늘의 상면은 어디까지나 검사와 피심자의 담화인데 <자네>니, <임자>니 하는 말은 더이상 하지 말게.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던지 난 전혀 기억이 없구만. 그저 이전 심문때처럼 대해주게.》

나부대대한 성삼의 얼굴은 찬 기운으로 식어갔다.

《이보게, 너무 그렇게 비좁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내가 심문을 하면서 자네를 지내 팽대한것때문에 그러나?... 그때 일은 임자가 좀 리해해달라구. 옆에 서기가 딱 버티고 앉아있으니 별수 없지 않나.》

허나 승철은 여전히 화해의 빛을 드러내지 않았다.

《허, 내가 그만한 리해력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나. 하지만 오늘같은 심문은 처음 받아봐서 그러네.》

성삼은 갑자기 두손을 활활 내저었다.

《심문은 무슨 놈의 심문같은 소릴 하나. 난 형식적인 절차라두 만들어서 자네와 한담이나 하려구 부른거네. 그러구 이 방엔 도청장치도 없으니 안심하라구.》

조승철은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 자네한테 한가지 여담을 들려주려는데 일없겠나?》

《여담이라?!… 허, 거 퍽 호기심이 동하는구만.》

성삼은 여유있는 표정으로 의자에 잔등을 기댔다.

《자네 철면피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알고있나?》

리성삼은 그가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짐작되었다. 당장 걸어치우라고 성을 내고싶었지만 제 인격에 손상을 주는것같아 아리송한 태도를 취했다.

《글쎄, 어디서 피뜰 본것같기두 한데?…》

《그럼 내가 설명해주지. 옛날 어느 한 나라에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왕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는구만. 그런데 그는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라 권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불문하고 찾아가 아부아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어느날 술좌석에서 높은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자네를 때리고싶은데 맞아주겠나?> 하고 말했다는구만. 그러자 왕모는 <어르신의 매라면 기꺼이 맞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웃으며 매를 맞았지. 얼마후 친구가 <자네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수치를 못느끼느냐?> 하고 물었지. 그러자 왕모는 <그러나 그분한테 잘 보이면 나쁠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대꾸했네. 친구는 너무 기가 막혀 <너의 얼굴은 두껍기가 열겹의 철갑같다.>고 말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부터 철면피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구만.》

성삼의 얼굴은 화독처럼 달아올랐다. 피부거죽이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키고있었다.

그는 사납게 뺨뚨어진 심기를 겨우 가라앉히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나를 빗대고 하는 말 같은데 사람을 그렇게 하대할 필요까지 있을까? 난 자네가 상대를 너무 알잡아본탓에 꺼꾸러지는 패자가 될가봐 걱정이구만.》

리성삼은 만만치 않게 대들이해됐다. 허나 목소리는 당당하지 못했다.

《그건 임자의 말이 맞네. 내가 바람에 따라 돛을 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나. 그러나 잘 포장된 거짓도 종당에는 진실앞에 머리를 숙인다는건 법칙일세.》

승철의 말에 성삼은 허리를 펴며 쌀쌀하게 웃었다.

《먼 후날의 승자가 무슨 필요가 있나. 미래보다 중요한건 바로 현재일세.》

《역시 내가 잘못 보지는 않았구만. 아무리 봐두 리성삼이라는 인간한테는 눈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는 낫색이 이그러진 성삼을 결눈질하며 말을 이어갔다.

《사람한테 왜 눈이 두개인지 아나? 하긴 임자가 그걸 안다면 지금같이 <실용주의>에 인생을 맡겼을리 없지.》

승철은 여유작작하게 커피를 한모금 마시고나서 말을 이었다.

《명심하라구. 사람의 한쪽눈은 과거와 현재를 보라구 생긴것이구 다른 하나는 미래를 보라구 있는거네. 현재만을 보는자들이야말로 아직 인간으로 진화되지 못한 동물이나 같은거지.》

대답이 궁해진 성삼은 안타깝기라도 한듯 갑자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 임자는 자기의 범행이 다 미래를 위해서 강행된것이라는거겠구만?》

승철은 서글서글한 눈가에 생기를 띠우며 환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네. 나의 소원, 아니 우리 민족의 소원은 바로 통일이네.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쳐 전진하는 휘황한 모습이란 말일세. 자네와 같이 동강난 조국의 아픔을 두고 단 한번도 가슴을 치며 통탄해본적이 없는자들이 악을 쓰며 반대하는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시대가 바로 우리 민족의 래일이란 말일세.》

성삼의 피부거죽은 미세하게 떨리고있었다.

《!...》

승철은 당당한 목소리로 그루박았다.

《명심하라구. 민중의 의사와 념원을 대변하지 않는 정권은 독재에 불과한거야!》

빨이 꼬일대로 꼬인 성삼은 씹어뱉듯이 말했다.

《이제 보니 임잔 악질<빨갱이>가 다됐구만!》

승철은 안온한 어조로 대답했다.

《세상에 민족을 위한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매국의 길을 택하겠나. 현존하는 정치가 완전한 부정이라면 그것을 파괴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의 정의를 선택하는것으로 되는거야.》

성삼의 심리는 불안속에 허덕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나 그를 녹죽혀 순조롭게 재판으로 가려던 계획이 뒤틀러질것같았다. 피소자는 처음부터 자기의 주장을 확고한 논리로 풀어나가고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재판은 시작전부터 진퇴량난에 빠질수 있었다.

어제 저녁에도 부장검사는 이번 재판을 손색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야당을 이기자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색갈론》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리성삼은 대학시절부터 승철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아주 기민하고 박력이 있을뿐 아니라 예리한 성격과 능란한 표현력을 소유하고있었다. 또한 대중의 신망이 높고 그들을 조직동원하는 수완이 뛰어났으며 시야가 대단히 넓었다. 게다가 법학을 전공한것으로 하여 《법지식으로 무장한 피고》라고 할수 있다. 잡도리를 단단히 하지 않고 접어들었다가는 오히려 부메랑에 얻어맞는 꼴이 될수 있었다.

《이보라구. 그렇게 흥분할거야 없지 않나. 솔직히 나두 지금 당국이 벌리는 <색갈론>이 마음에 들지 않네.》

조승철은 호탕하게 웃어댔다.

《하하하... 이보라구, 두꺼비는 아무리 물로 씻어도 미끈해지지 않는 법일세.》

성삼의 낯색은 혈액이 모두 빠진듯 다시 새하얘졌다. 공포와 불안, 증오가 담긴 주름살이 더 늘어나는듯싶었다. 도저히 누가 검사이고 피심자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오늘 자기가 꼭 졸부로 되는듯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절대로 물러설수 없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사형선고를 청하는것이나 같았다.

그는 구겨진 종이장같은 얼굴을 다시 쳐들었다.

《임자가 정 나를 그렇게 본다니 더이상 할 소리가 없네. 그러나 이번에도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자넨 이미전에 구속되었어야 할 몸이었어.》

승철은 그의 너부죽한 얼굴을 던지시 바라보았다.

흥, 참새목에 굴레를 씌워 부러먹을 고약한 심보는 여전하군!

《그거 참, 고양이 죽음앞에 쥐눈물만큼이나 고맙구만. 하지만 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회의 악법에 구인된 몸일세.》

리성삼의 눈에서는 어설픈 미소마저 사라졌다. 얼굴색은 대뜸 표독스럽게 변해버렸다.

승철은 그런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말을 계속하였다.

《이보라구, 그렇다구 너무 실망하진 말라구. 기소장은 이미 법원에 넘어갔으니 재판이야 피할수 없지 않나. 아무렴, 사건조작에 이골난 당신네 두뇌진이 모여 나 같은 사람한테 <간첩>모자 하나 씌우지 못하겠나?!》

리성삼의 벌그스름해진 볼편은 알릴듯말듯 가볍게 떨렸다.

《그런 말은 하지 말게. 비록 실현하지 않았다 해도 계획하였던 범죄는 역시 범죄로 된다는거야 자네두 잘 알지 않나. 하물며 임자처럼 공공연하게 <보안법>을 어겼으니 이제야 피할수 없는 처지이지. 그러나 걱정할건 없네. 내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하든 자네한테 형벌이 덜 미치도록 노력해보지.》

조승철은 그를 외면한채 머리를 가로저었다.

불행한 인간을 보는것처럼 따분한 일은 없는 법이다. 자기가 어떤자들의 꼭두각시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사람처럼 가련한것은 없다.

《나한테는 그런 서퍽짜리 동정은 필요없네. 왜냐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사건의 뒤에는 항상 무서운 음모군이 숨어있는 법이니까!》

리성삼은 등골에 찬물을 부은것만같았다. 어색하지만 애써 표정단속을 하느라 노력했다.

《임자는 음모라는 말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게. 그리고 모든게 다 자네 생각처럼 되지는 않을걸세. 오죽하면 김연주까지 재판장으로 자진했겠는가 말이네.》

연주소리가 나오자 승철은 안색을 흐렸다. 물론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까지 그의 이름이 튀어나오는것이 불쾌했다.

리성삼은 그의 신색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주시하며 계속 칼질을 해댔다.

《임자가 아무리 능란한 변호로 발뺌을 하려 한다 해도 이젠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거네.》

도리어 성삼의 허바닥은 베아링처럼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진 말게. 아무리 진펄이래두 사람의 발이 닿을 곳은 있을게 아닌가.》

《뗏뗏하지 못한자들이나 진펄을 택하는 법이지.》

조승철은 더이상 그와 마주서고싶지 않았다.

《자, 검사님. 나한테 더 물을것이 있나?》

《허, 내가 임자의 시간을 많이 빼앗은것같구만.》

《나야 어디까지나 피소자가 아닌가. 그러니 의문되는게 있으면 아무때든 호출하게. 그러구 내가 사는 구치소에 찾아와두 좋구.》

살가운 태도로 돌변한 성삼은 속살거리듯 이야기했다.

《그런데 임잔 언제까지 홀아비생활을 할텐가? 이젠 나이도 어지간한데 옆에서 잔등이라두 긁어줄 녀자라두 있어야 하지 않겠나?》

승철은 자기의 아픈 곳을 은근히 긁어대는 그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왜, 중매라두 설셈인가?》

리성삼은 사람좋은 기색을 지으며 승철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허, 무슨 소릴… 자네결에야 항상 현숙하고 아름다운 봄빛다방 주인 리선미가 있지 않나!》

그는 상대의 얼굴을 뻔히 들여다보며 말을 계속했다.

《헌데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구만. 어째서 아직까지 두사람이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려 하지 않는지?... 물론 수십년동안 이어온 관계를 지금에 와서 공개하기가 무안할테지. 그렇다구 계속 뻔한 사실을 가지구 숨길 필요야 없지 않나.》

승철은 능글능글 웃는 그의 징그러운 상판을 마주보며 코웃음을 날렸다. 그는 지금 성삼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있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의 역스러운 심보를 후려치고싶었다.

《검사선생, 그래 뭐가 뻔하다는건가?》

《원 사람두, 아직두 아닌보살할텐가. 하긴 자네의 심정두 이해가 되네. 청렴결백성을 주장하는 임자들이야 저들의 사생활에 티가 없는것을 바라지 않을테니까. 그러구 절개라는 깨끗한 연막뒤에서 나누는 재미가 더 쾌락적일테지...》

제답답에 흥에 겨워 마구 지껄이는 성삼을 지켜보던 승철은 갑자기 앙천대소하듯 큰소리로 웃어댔다.

《하하하... 이것 보오 리검사, 아름답지 못한 공상은 이미 그 맛을 본자들만이 즐겨하는 법이요!》

뜻밖의 면박에 성삼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무렴, 자네야 항상 맑고 선명한 거울앞에 서있는 사람일테지.》

《거울에 뜨물을 끼얹는자들만 없다면야...》

《어쨌든 오늘 심문에 잘 응해주니 나로서는 더없이 고맙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길 준비를 잘하게.》

리성삼은 그 말속에 숨은 의미를 잘 알고있었다. 자기의 감정을 때에 맞게 잘 조절할줄 아는 그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두 자네가 이기길 하느님께 빌겠네.》

그들은 서로 속에 없는 웃음으로 헤어졌다.

리성삼은 경찰들의 호송하에 멀어져가는 승철의 잔등에 날카로운 시선을 박았다. 앞으로 있게 될 재판으로 하여 저도 모르게 온몸이 긴장해졌다. 이제는 김연주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만 했다.

검사와 재판장이 호흡을 잘 맞추면 아무리 강한 피소자라고 해도 한순간에 형틀에 묶어놓을수 있었다. 바로 이런 의도에서 성삼은 시작부터 연주가 재판장으로 나서게 해달라고 원영준에게 침을 놓은것이다.

가만, 지금 그 녀자는 기소장에 대한 심리를 한다구 했지. 아무래도 그의 옆구리를 좀 쑤셔놔야겠군. 고양이와 고양이를 물어뜯으면 쥐들이 보고 좋아한다고 했던가?!

리성삼은 앞으로 있게 될 일을 그려보며 속으로 통쾌한 웃음을 지었다.

15

김연주는 요새 머리쉽할 째도 없었다. 기소장에 대한 심리와 증인들의 진술, 검증물들의 재확인으로 거의 법원밖에서 생활하다싶이 했다.

장기철은 재판준비가 늦어지는데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검찰의 기소장을 믿어야 할게 아니요.》

《전, 국민들로부터 법이 돌아가다 외돌아가는 세상이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게 하자는겁니다.》

연주는 《법의 공정성》이라는 우산으로 머리위에 떨어지는 비방을들을 막아버렸다. 아무리 위법분자라 해도 범행의 정확한 파악이 없이 재판에 립할수는 없었다.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양상을 가진 재판인것으로 하여 더 절실했다.

검사가 제출한 기소장의 문구나 들여다봐서는 사건의 진상을 다 안다고 말할수 없다. 직접 증인들을 만나 진술을 확인해야만 재판정에서 자기의 견해를 뚜렷이 할수 있었다. 사전준비가 빈약하면 검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조소와 질타를 받기가 십상이다.

연주는 승철에게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싶지 않았다.

그는 증인들을 법원에 호출하기도 하고 또 현지에 나가 만나보며 진술내용을 재확인하였다.

제일 중요한것은 피소자가 외국에 나가서 북의 대표에게 비밀정보를 넘겨주었다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었다. 검찰에서는 여전히 그 검증물을 제출한 증인을 로출시키지 않았다.

보통국민이 아니라는 증인!... 그는 과연 누구인가? 검사도 그 문제를 두고 몹시 갑자르는데 보면 분명 그 어떤 특종한 인물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그 누구의 편역도 없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던 원영준의 혼시가 떠올랐다.

김연주는 증인들과 립회인들을 만나려고 어제 모교인 츠타대학교를 찾아갔다. 뜻하지 않게 조승철이 출연한 강연에서 현 《정권》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재확인한 그는 여러 교원들을 만나보았다. 법원에 불려 그들의 진술을 재확인할수 있었지만 옛 스승들과 선배들이 있는지라 레의없는 행동을 하고싶지 않았다.

대학시절의 옛 추억으로 애뜻한 감정을 불려일으켜주는 모교이다. 허나 석조건물들은 랭랭한 기색으로 그를 맞아주었다.

선배들은 물론 동창생들의 눈망울에서는 랭기가 흐르고있었다.

《김판사, 당신은 대체 뭘 확인하겠다는거요?》

마뜡지 않은 어조로 되묻는 로교수는 대학시절의 스승이었다.

《선생님, 기소장에는 피소자가 몇달전에 <보안법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초빙강의했다고 써워져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한주일전에 검사가 찾아와 확인을 요구했소. 그런데 거기에 뭐 잘못된 점이라도 있소?》

《검사측에서는 피소자가 그 강의에서 <보안법>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피로 생존하는 흠혈귀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한시바빠 해체되어야 할 악

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교수는 주름발이 깊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렇소. 당신두 알다싶이 지금 국민들은 그 악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소. 그런 민심을 대변한 강의가 그래 법에 저촉된다는거요?》

《그렇지만 그는 강연에서 복의 헌법에 대하여 찬양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젠 어디까지나 복에 대한 찬양, 고무로서 범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교수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상대가 무안할 정도로 바라봤다. 잠시 후 그는 속에서 끄집어내는듯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것 보오. 우린 학생들을 법학전문가로 키우는 교육자들이요. 이 사회의 법만이 아니라 법의 발생과 발전력사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의 법률에 대해서도 가르친단 말ियो. 그런데 강의에서 같은 민족이 살고있는 복의 헌법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한것도 <찬양고무죄>로 된다면 그거야말로 <보안법>이 제스스로 악법이라는것을 증명해보이는게 아니구 뭐가 말ियो?》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구 검찰에서는 조승철변호사가 강의에서 복에 대해 극구 찬양하면서 현 <정부>를 반대하는 발언도 거리낌없이 했다고 했소. 그래, 당신 보기에든 그가 술한 청강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오? 난 재판에서 검사측이 그 강연을 두고 계속 복에 대한 고무찬양이니 뭐니 하면서 피소자에게 유죄를 강요하려든다면 대학에 있는 록화테프를 반증자료로 제시할 결심ियो.》

결코 로교수만이 아니였다.

《연주판사, 솔직히 우린 함께 공부한 동창생들이요. 하지만 현실을 투시하는 눈은 서로 다르구만! 하긴 그야 피할수 없는노릇이지. 각자의 신념과 지적의식에는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같은 사건을 대하는 법전문가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을것이라구 생각하오.》

서두부터 은근히 자기에 대한 불만을 터놓는 말에 연주는 자존심이 꿈틀거렸다.

《그러니 철명씨도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한 그자체가 잘못되었다는건가요?》

김철명은 자기 견해에 대한 자부심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소. 오늘의 민심은 통일을 지향하며 또 그것을 사슬로 엮매고있는 <보안법> 그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있단 말이요. 시대를 떠난 법이란 있을수 없소. 난, 당신이 법의 조항이나 따지는 무미건조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볼줄 아는 인간이 되었으면 하오.》

박정하고 매정한 질타앞에 결코 머리를 숙일 연주가 아니였다. 자기에 대한 그릇된 평가가 납득되지 않았다.

《초록이 동색이라구 당신두 어마어마한 언사로 피소자를 은근히 비호하려드는군요. 난 법에 의해서만이 사회가 지켜질수 있다고 생각해요.》

철명은 랭소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봤다.

《물론 그 말이 옳을수도 있소. 하지만 어떤 법인가에 관계되는거요. 당신은 그래 파쑈악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녕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하오? 아니, 난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정의와 양심을 짓밟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가장 위험한 독소라고 보오.》

그는 격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당신도 알다싶이 그 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념원을 무참히 짓밟아왔소. 오늘날까지 <리적행위>라는 멍에를 씌워 탄압하는 구태를 반복하면서 말이요. 이견 어디까지나 파쑈악법의 반민주, 반인권성이란 폐해에 대해서는 수궁하면서도 복을 <주적>으로 락인하고 그 무슨 있지도 않는 <적화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안보기능론>을 내흔들며 저들의 잔명을 유지하려는 사대보수분자들의 지탱점이나 같은거요. 그들은 <좌경용공>퇴치라는 주술로 저들의 허접한 독재유지에 리용하면서도 겉으로는 <보안법>이 <간첩>이나 <반체제분자>에게만 불편할뿐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황당한 선동을 해대고있소.》

김연주는 아연감을 금할수 없었다. 그도 신통히 조승철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그 법이 일반국민들에게까지 상처를 준다는건가요?》

《그렇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악법의 피해자로 억울한 삶을 살고있소. 또 분렬의 고통으로 하여 피를 나눈 부모형제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 그래, 이 모든게 바로 분렬주의자들이 고안해낸 그 파쑈악법이 남긴 상처가 아니란 말이요?》

저이기 흥분되어있는 동창생을 바라보며 연주는 경멸조로 말했다.

《생활이란 언제나 그런것처럼 매 사람을 다 만족시켜주지는 못하지 않
나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당연하다는거겠구만?!》

철명은 낫색을 찡그렸다.

《인제 보니 연주판사, 당신두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하수인이 다됐구
만! 그러니 우린 더이상 말할 상대가 못되는것같소.》

그의 말마디들에는 차거운 랭기가 진하게 배어있었다. 눈길은 벌써 문
가로 향해져있었다. 마주할 필요가 없으니 어서 이 방에서 나갔으면 하
는 암시였다.

그렇다고 결코 조승철을 비호하는 사람들만 있는것도 아니었다.

《난 부장판사가 이번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옳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고 생각하요. 이진 우리 대학의 수치란 말이요. 어떻게 되어 그렇게 자
기의 행동이 <보안법>에 저촉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범
했는지 리해되지 않소. 그리고 또 현 <정권>에 대한 그의 도전적인 만용
은 어디까지나 가장 위험한 위법이요. 이진 순전히 <빨갱이>들만이 할수
있는 짓거리를 그대로 반복하고있단 말이요.》

그 교수는 조승철이가 한 《리적행위》들을 하나하나 켜거하면서 울분
을 금치 못해하였다.

《난 법학을 전문으로 배워주는 사람으로서 이 기회에 친북행위를 일
삼는자들에게 다시한번 엄한 경고를 울려야 한다고 보요.》

각이한 주장과 견해로 하여 연주의 머리는 더욱 무거웠다.

초인종소리가 울렸다.

누구일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연주는 선뜻 일어나지 않았다.

밖에서는 어지간히 신경이 돋았는지 문을 황황 두드리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녀자의 집에 찾아든 무례한 불청객의 행동이 부아를 돋구
었다.

연주는 겁기없이 다가가 문을 확 열었다.

《누구예요?!...》

칼날갈던 목청은 꼬리를 흐렸다.

뜻밖에도 초점이 흐려진 수일이가 서있었다. 입에서는 술내가 확 풍겼

으며 몸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다.

《히, 다행히두 집에 있군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추한 물골앞에 연주는 아연해졌다.

《너, 어떻게 된거니? 술을 너무 과한것같구나.》

대답대신 방안으로 들어선 수일은 심사가 꺾진 목소리로 말했다.

《난 오늘 누이와 담판을 좀 하자구 왔어요.》

동생은 옷옷을 벗어 침대우에 활 던지고는 그옆에 풀썩 주저앉았다.

연주는 무례한 그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다. 뭔가 언짢은 감정을 폭 발시키고싶은 자세였다.

《누이가 끝내 그 재판을 말았다는게 사실이에요?》

첫마디부터 거칠었다.

《그래, 그게 뭐 잘못됐니?》

연주의 목소리도 부드러워지는 않았다.

속이 답답한듯 수일은 넥타이를 풀어 내던졌다. 창백한 얼굴에는 이름 할수 없는 처량함과 피로움이 무드기 실려있었다.

《판사인 누이한테야 그릇될게 없지요. 하지만 그 후과에 대해서는 생 각해봤어요?》

아리송한 말에 연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넌 전번부터 그 재판에 퍽 관심이 많은것같은데. 그래, 원인이 뭐 니? 어째서 내가 그 재판에 나서지 말아야 하며 또 후과라는건 뭐냐?》

따지고드는듯한 그의 말에 수일은 그루박듯 대꾸했다.

《그건 피소자가 다름아닌 조승철이구 또...》

그는 도중에 말을 끊고 책상우에 있는 물병을 들어 꿀꺽꿀꺽 들이 컸다.

《그리구 또 뭐니?》

《바로 그 재판장이 내 누이라는데 있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었다. 도대체 뭘 말하려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피소자가 조승철이면 어떻구 또 아니면 어떻단 말이나. 그리구 그 재 판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니?》

수일의 어조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 실려있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구 하는줄 아세요. 누이가 지방법원의 원장이 되려구 사람잡이에 나섰다구들 해요. 제 대학선배도 안중에 없이 말이

예요.》

가슴속에 밀려드는 상실감으로 연주는 억이 막혔다.

《그래, 너두 그렇게 생각하니?》

수일은 여전히 시들한 기색이었다.

《어쨌든 난 누이가 이번 재판을 포기했으면 해요. 물론 나도 누이와 그 변호사와의 이전 관계에 대해선 어지간히 알고있어요. 그렇다구 재판을 통해서 꼭 복수해야 한다는…》

《그만해!》

김연주는 매몰스럽게 그의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내앞에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 그래, 네 눈에도 내가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인 일과 뒤섞는 사람으로 보이니?》

동생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반발적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감정이 없다면 어째서 이 재판에 자진했는가 말이에요?》

수일의 행동은 돌발적이었다. 목소리의 강약은 대조적인 차이를 두고 있었다.

《뭐, 내가 자진했다구?...》

《그럼, 뭐예요?》

김연주는 피로하게 두눈을 감았다. 창살같은 질문앞에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리성과 감성이라는 두 거울사이에 선 자신이 비쳐졌다. 감성은 자기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빨아들이고있었다. 불미스러운 과거에 뿌꼇을 씌우고 영원히 매장하고싶었지만 그것들은 자꾸만 되살아나 흉곽을 두드린다. 그러니 어찌 리성이라는 거울앞에 백지장처럼 나설수 있단 말인가.

《그만해라. 어쨌든 문제는 그 사람이 매우 위험한 범죄자로 기소되었다는데 있어. 그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징벌을 받는것은 생활의 리치야.》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꼭 누이가 그 재판을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나요.》

《누구든지 나서야 할게 아니냐.》

《그렇다면 만일 재판도중에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다시 반복되는 질문이다.

연주는 분명 동생한테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짐작했다. 전번에 류정이가 한 말을 놓고봐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경악하게 행동하는 그가 이상스러웠다.

《그래, 네가 말끝마다 반복하는 그 문제라는게 도대체 뭐냐? 어디 좀 속 시원히 말해봐라.》

《됐어요. 그건 더이상 논하지 말자요.》

안색이 찌뵃해서 자리에서 일어난 수일은 제 옷을 걸치며 문쪽으로 걸어나갔다.

후줄근한 그의 뒤모습이 연주의 가슴에 아프게 못박혀왔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 응?... 혹시 누구의 협박이라두 받은건 아니니?》

《협박?!... 글썄, 이전에 받았을수도 있구 또 앞으로 받을수도 있겠지요.》

아리송한 태도는 연주의 부아를 돋구었다.

《남자의 대답이 왜 그렇게 어정쩡하니?》

《됐어요. 누이야 뭐 걱정할게 있어요. 이번 재판만 잘하면 화려한 직위와 명예를 얻겠는데...》

동생이 남긴 싸늘한 바람은 연주의 고민과 한데 어울려 방안의 공기를 얼음점으로 떨구었다.

머리속에 마구 떠도는 의문들은 하나와 같이 뿌영기만 했다. ...

김연주에게 속에 있는 불만을 다소 털어놓기는 했지만 수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조승철에 대한 재판을 누이가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앞이 아득했다. 그만큼 만류했는데 스스로 선택하였다니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자신은 꼭 한오리의 실줄에 매달린 신세 같았다.

머칠전 공안당국은 언론을 통해 조승철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개하였다. 눈앞에 박두한 선거로 하여 목대를 세우던 정계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야당세력들은 이것은 명백하게 선거형세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현 《정권》의 《색갈론》으로 규정하고 배격해나섰다.

진보적인 사회단체들도 즉각 반발하였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30여개의

단체들은 서울 태평로에서 《국정원 <간첩>조작 규탄대책회의》의 출범을 알렸다. 그들은 이 사건은 현 당국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인사들을 숙청할 목적밑에 고안해낸 《북풍조작》이라고 규탄했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민심을 관망할수록 수일의 내심은 기름남비에 올려놓은듯했다. 장차 머리우에 어떤 비구름이 드리우겠는지 장담할수 없었다.

아, 내 일은 왜 이렇게 뻔뻔 꼬이기만 하는가?

두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그는 지금 번민속에 허덕이고있었다.

수일은 원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 《조선인구획》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있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배워온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살아갈수 있는 사회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집안의 명줄을 이어받아야만 하였다. 처음에는 좀 지뿌듯했지만 점차 마음을 붙이고 일하기 시작했다.

로스안젤스에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유흥업소는 한창 번성하여 수입도 꽤찼었다.

그런데 난데없는 돌개바람이 들이닥쳤다.

《조선인구획》의 봉사업체들이 호황기를 맞이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백인깡패들이 이곳으로 세력확장을 시도했다. 원래부터 재미교포들을 업수이여기며 귀찮게 굴던 미국인들이 드디어 속에 품었던 칼을 꺼내놓은 것이다.

이 과정에 조선인청년들과 미국인깡단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10여년전 흑인폭동을 겪으면서 그 와중에 자기 부모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재난의 참상을 새겨두고있던 젊은이들은 《조선인구획을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싸움에서 그들은 백인깡단이 운영하는 매춘업소 등을 요정내며 끝까지 자기들의 터전을 지켜냈다.

문제는 미국공안당국의 처사였다. 그들은 재미동포들이 미국인들을 모독하고 구타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들이 운영하는 업소까지 파괴했다는 죄목으로 여러명의 젊은이들을 구속했다. 이때 김수일은 주모자로 연루되었다.

김주성은 경찰서에 찾아가 《직업상 불량배들로부터 업소를 지키기 위해 몇명의 청년들과 친분관계를 맺었을뿐 그 어떤 폭력단체를 조직한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아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당국이 내놓은 문서는 너무도 황당했다. 구류된 조선청년들이 수일을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거야 그 젊은이들보다 우리 애가 나이두 우이구 또 오래전부터 이웃에서 살다나니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요?》

경찰에서는 그의 설명을 귀등으로 흘려보냈다. 그들은 《형님》이라는 표현은 폭력조직의 《우두머리》라고 강짜로 몰아붙이면서 수일이가 주모자라고 주장했다.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김주성은 술한 돈을 공안기관에 들이밀었다. 결국 수일이는 출옥되어 강제추방령으로 남조선에 쫓겨오게 되었다.

그래도 기대를 안고 왔지만 차례지는 것은 차디찬 령대뿐이었다. 원래 미국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인데다가 또 범죄자로 락인되었으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자칫하다가는 불법체류자로 될 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에서 멸시와 천대뿐이라 당장 한강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도 누이가 누이었다. 비록 이복형제이기기는 해도 뜨겁게 오가는 정감은 따듯했다.

몇달동안 안타깝게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연주가 이모부한테로 호적을 올린 주민등록증을 손에 들려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남조선에 발을 붙이게 되었으며 1년후에는 안해와 딸애를 미국에서 데려올 수 있었다.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마음껏 해보는가 했는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터졌다. 그것은 온몸을 칭칭 감아도는 코브라나 같은 것이었다. 풀어진지면 던질수록 목줄을 더 움아매며 허바닥을 날름거리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아, 나라는 인간은 종내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죽으라는 건가?!...

육신을 내려누르는 중압감에 짓눌려 집에 도착하니 근심이 잔뜩 실린 안해가 맞아주었다.

《누이네 집에 갔으면 그곳에서 쉬지 왜 밤늦게 다니세요.》

《그래, 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데?!...》

《그럼요. 한밤중에 떠난 당신을 두고 걱정하지 않을게 뭐예요.》

《흥, 누가 그런 걱정이나 하래.》

심사가 껴진 그의 말에 류정은 놀라워했다.

《아이, 누이한테 그게 무슨 말본새예요?》

안해의 지청구를 손으로 물리치며 방으로 들어서는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보세요. 또 전화가 오는걸.》

류정은 얼른 송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누이예요?》

그러던 그의 얼굴에는 안스러운 기색이 흘렀다.

《아이, 미안합니다. 난 또… 예, 방금 집에 들어서는 길이에요. 그럼 바꿔드리겠어요.》

류정은 남편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전화예요.》

수일은 송수화기를 받으며 습관적으로 번호판을 보았다. 갑자기 속이 후두둑 떨렸다. 꼭 뱀의 아가리와 마주선것같아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다.

《여보시오!》

상대방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그제서야 수일은 열결에 대답했다.

《아, 예… 전화받습니다.》

시들해진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상대방의 음정은 칼날같았다.

《왜 그래, 시끄러운가?》

김수일은 황급히 변명조로 말했다.

《아 아니, 그게 아닙니다. 방금 집에 도착하다나니…》

《허, 그런가! 다르게 아니구 이번 달은 <학교>측에서 게재건수 부족을 이유로 팀원들에 대한 원고료를 상당히 감안했네. 그런데 임자한테만은 특별히 은총을 베풀었더구만. 아마 구좌가 또 늘었을거네. 축하하네.》

수일은 썩 달가와하는 인상이 아니었다.

《거 고마운 일이군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니 그닥 반가운 기색이 아니군그래. 한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는건가?…》

《아, 아니 그럴리아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좋구!... 참, <학교>의 지시를 전자우편으로 보냈네. 어서 컴퓨터를 켜보라구. 그리고 내 한마디 첨부하네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명심하기를 바라네. 자 그럼...》

길게 한숨을 내그으며 수일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온몸은 물에서 행구다가 방금 꺼내놓은 명주천같았다.

《웬 일이세요?》

류정이의 걱정어린 목소리였다.

《오, 아무것도 아니요. 대학에서 또 일감이 있다누만.》

《그런데 왜 그렇게 피를 다 빨리운 자세예요?》

안해가 속을 뻘히 들여다보는것만같아 수일이는 억지로 표정을 밝게 했다.

《허, 당신은 괜한데 신경을 쓰는구만. 어서 들어가 자오.》

더이상 간참말라는듯 수일은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걸었다.

류정은 시들해진 남편의 행동이 이상스러웠다. 요즘은 꼭 못먹을것을 먹은듯한 인상이다. 무슨 일인가고 물으면 체컨에서 짜증을 내기가 일쑤였다. 시누이는 비록 전화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꼭 남매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것같았다.

풀이 죽은 수일은 스택스적 컴퓨터의 스위치를 넣었다. 그리고 인터넷망에 들어가 지적된 전자우편을 펼치고 암호를 입력하였다.

《팀원 여러분, 어제 오후 <학교>측 면담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활동은 실무자 A씨가 교장에게 직보하며 XXX XXX와 XXX들에게 보고됩니다. 모두 만족하고있답니다. <학교>측은 래일부터 진행할 사업내용을 지시했습니다. 게시글의 원고료는 이전대로 지불합니다. ...》

그러니 조회수를 올리는데 주의를 돌려주십시오. 그럼, 래일부터 진행할 작업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일은 시르죽은 기색으로 담배를 붙여물었다. 골깊은 한숨과 함께 흘러나온 연기는 방안으로 서서히 퍼져갔다. 음울한 표정은 더없이 괴괴하고 침침해보였다.

음식점은 서초동의 《노랑저고리》와 《흙친갈비》, 《남원추어탕》을 비롯한 식당들에 비해 초라했다. 흔히 볼수 있는 요란하고 물동적인 서양 음악은 들을수 없다. 단지 짙은 정서와 쓸쓸한 감정을 불러오는 아리랑 곡조가 자그마한 공간을 사색깊이 어루만지고있다.

첫눈에 벌써 수입이 시원치 않을것이라는감이 들었다. 번잡한 사람들속에 끼워 잡담과 소음으로 입맛을 잃지 않기에는 그저그만이였다.

한쪽구석에 놓인 식탁에 리선미가 한 늙은이와 마주앉아있었다. 늙은녀인은 선미가 경제잡지의 기사를 보고 찾아낸 박명희사장이였다.

예순을 훨씬 넘긴 외국풍의 박명희는 나이에 비해 펍 젊어보였다. 비록 해풍에 그슬린듯한감은 있었지만 살결은 처녀들도 무색할 정도였다. 아마 값진 화장품의 덕을 톡톡히 보는 모양이다. 비싼 천으로 몸에 맞게 해입은 옷은 실업가로서의 품위를 더 돋구어주었다.

그에 비해볼 때 선미의 차림새는 비록 단아하였지만 초라해보였다.

박사장은 처음 자기에게 걸려온 녀인의 전화를 따먹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사연을 이야기하는 선미앞에 차츰 주접이 들기 시작했다. 비록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지만 속에 찢리는것이 있어 이렇게 그가 지정한 식당에 끌려나온것이다.

등을 돌려대고 외면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후과가 두려웠다. 만일 수십년전의 일을 언론에 공개한다면 자기 회사의 명예가 손상될수도 있었다.

박사장은 속눈섭을 내리칸채 커피잔을 돌리며 중언부언했다.

《사실 나두 그애를 품에서 떼놓구싶지 않았어요. 몇달새에 정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들과 남편이 반대를 하니 어쩔수가 없더군요.》

선미는 아니꼬운 시선으로 녀인을 바라보았다.

《그애를 데려갈 때는 제 살점처럼 여기겠다고 맹세한 당신이 아니였나요. 그런데 그들이 반대한다고 마구 버릴수 있는가 말이에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두 매정할수 있나요?》

늙은이의 안색은 거뭇게 질려있었고 변명조차 도간도간 끊기였다.

《다... 당신의 말은 죄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서두 시집살이를 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녀자들이야 출가를 하면 시부모들과 남편에게 매인 몸이라느거야 잘 알지 않나요. 더우기 그애를 데려간 후 내가 인차 임신을 하게 되자 그들은 피줄이 다른 자식한테까지 돈을 퍼부을수 없다구 하면서...》

날카로운 선미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그만하세요. 그건 한갓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되면 그만이라는자들의 낙두리에 불과한거예요. 그래두 난 이 거치른 세상에 당신 처럼 남의 애를 말아 키우겠다는 사람이 있는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애도 분명 이 땅에 태를 묻고난 조선사람이에요. 물론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박복한 운명으로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귀하기로서니 어찌면 그렇게... 그래, 당신은 그애를 교아원정문앞에 버릴 때 두렵지 않던가요?》

두사람사이에는 잠시 차거운 침묵이 서리고있었다.

한동안 말없이 식탁만 내려다보던 박명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런데 난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어째서 거기서는 아무 인연도 없는 그애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는지?...》

그를 바라보며 선미는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물론 방심할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생명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관심할수 없었어요.》

박사장은 여전히 의문을 풀지 못한듯한 인상이다.

《난 듣고서도 이해할수 없군요. 솔직한 말로 지금 남의 집일에 그렇게 까지 관심을 두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나요? 제 자식두 키우기 힘들다구 목졸라 한강에 버리는것쯤은 레사로운 일로 여기는 판에...》

《물론 그건 정이 말라버린 이 사회의 전염병이나 같은거예요. 허나 사막에도 생명체는 존재하고있어요!》

단조롭게 울리는 말뜻을 새겨보듯 박명희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선미를 바라봤다. 꼭 미지의 세계에서 온 사람을 보는듯한 심정이다.

박사장은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다른 출로가 없었다. 말로는 이해

시킬수 없으니 서로 타협하는수밖엔.

그 녀자는 들고온 손가방에서 은행카드를 꺼내서 앞으로 내밀었다.

무심결에 그것을 들여다보던 선미는 놀라운 시선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요?》

박사장은 한참 주뭉그러다가 어쭙게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아이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시비나 가르다구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 량자가 다 리롭게...》

선미는 그의 의도가 짐작되었다.

《그러니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건가요?!》

박사장은 다시한번 용기를 내며 상대방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하소 같은것이 엿보였다.

《이거면 거기서 그동안 수고한 값을 치르고 남을거예요. 그리고 더이상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으면 고맙겠어요.》

박사장의 얼굴에는 의미어린 미소가 어색하게 걸려있었다.

선미는 역스러운 물건짜를 보는듯 그를 외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돈으로 한 인간의 운명을 살수 있다구 생각하는가요? 역시 금전으로 모든 가치를 계산하는 수전노의 행태 그대로이군요!》

짜늘한 그의 눈찌에 질린듯 박사장의 낯색은 하얗게 변하고있었다.

선미는 토박토박 힘을 주어 말했다.

《사장님은 지금 이 일로 해서 자기 회사에 루가 미칠가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마세요. 아무런 손해도 가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돈으로는 명예와 직위는 살수 있지만 인간의 량심만은 살수 없다는걸 새겨두길 바랍니다!》

그는 은행카드 같은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출입문쪽으로 향했다.

쾅해진 눈빛으로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박명희는 카드를 집어들며 뿔소를 날렸다.

흥, 량심!... 요즘같은 세월에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돈이 곧 정의이구 량심이란걸 모르는 비천한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훈시를 하는거야.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벗어난듯 마음은 가벼웠다.

인터넷서점은 서대문구에 자리잡고있었다. 2층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사람들이 흥성이고있었다. 대체로 10대부터 20대의 새파란 청년들이었다. 그들속에 머리희스한 학자풍의 중늙은이들도 띠엄띠엄 섞여있었다. 젊은이들은 거의나 망을 통한 오락을 하고있었다.

연주는 함께 간 처녀서기를 통해서 이들이 하는 오락은 순전히 도박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집에서는 부모의 잔소리에 체기받을 정도이니 이렇게 인터넷서점을 택한것이다.

《그러니 이곳 주인은 저들의 심리를 리용해서 돈벌이를 하겠군요?》

각양각색의 차림새들로 마치 천조박들이 널려있는것같은 서점안을 둘러보며 연주는 랭소를 금치 못했다.

철없는것들은 부모들의 피땀이 스민 돈을 흠쳐내여 도박에 들떠있고 또 서점주인이라는것은 그것을 리용해서 제 돈주머니를 불구고있는것이다. 이 사회는 어딜 가나 돈을 위한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었다.

조승철이 왜 이런 곳을 택했는지 짐작되었다. 삶의 지향과 목적없이 젊음을 허비하는 몽대한자들속에 끼워 북의 서적들을 보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을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등뒤에서 울리는 석심한 목소리가 그의 사색을 중단시켰다.

몸을 돌리니 반색하는 빛을 눈에 함뿍 담은 사나이가 서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보이는데 얼굴은 오이씨같아 미소를 담기에는 너무도 작아보였다. 몸은 비록 강대처럼 말랐지만 가뜩이나 작은 눈에 눈꼬리까지 올라간게 여간 록록치 않아보였다.

《제가 이곳 주인입니다. 그래, 인터넷을 봉사받으시렵니까?》

살가운 그의 태도에 곁에 있던 서기가 연주를 대신했다.

《이분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십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삼삼하던 사나이의 기색은 순간에 사라졌다. 대신 뜨아하니 정색해졌다.

《부장판사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가요?》

김연주는 명함장을 내보이며 《전 당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앞에서 한 진술내용을 재확인하려고 왔어요.》라고 말했다.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에서인지 주인은 달갑지 않은 기색을 지었다.

돈주머니를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역을 놀수 있는 인물이라는데서부터 오는 감정이었다.

보리알같은 눈알을 굴리며 한참 뭔가 생각하던 그는 내키지 않는듯 통명스레 말했다.

《그렇다면야 할수 없지요. 헌데 여긴 불편하니 제 방에 가서 이야기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요.》

주인이 손으로 사무실을 가리키는데 방금 들어선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와 꾸벅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주인의 혈색은 금시 밝아졌다.

《아, 기자선생이시군요! 그래 오늘두 그 자료들을 열람하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인은 연주에게 돌아서며 《미안하지만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이분은 귀한 사람이어서...》라며 양해를 구했다.

연주는 기분이 언짢았다. 먼저 찾아온 손님을 뒤전에 밀어내고 젊은 사람에게 아양을 떠는 주인의 처사가 심리를 자극한것이다.

헌데 놀라운것은 젊은이의 행동이었다. 자기들에게 눈길을 돌리던 그는 제편에서 먼저 반가운 기색을 드러내보였다.

《아니, 이거 부장판사님이 아니십니까?!》

자기의 직분을 정확히 부르는 청년을 연주는 의아한 눈길로 바라봤다. 시원스럽게 생긴 얼굴에 화색이 질은게 꼭 어디선가 본것같았다. 그러나 통 생각나지 않았다.

《며칠전 지방법원의 정문에서 만났던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가 튕겨주어서야 연주는 머리속의 안개발을 걷어버릴수 있었다.

《그러니 아이의 문제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두 판사님을 만나려구 했었는데 마침 잘 댔습니다.》

푸점종게 나오는 윤경진의 행동에 연주는 마음속빋장을 가로질러 놓았다. 기자들을 자주 만날수록 리로운것은 하나도 없다는 인식에 서였다.

《왜요. 또 그 어린애문제때문인가요?》

경진은 멋적은듯 오른손을 뒤통미에 가져갔다.

《아마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여직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 모양이시군요. 하지만 전 판사님이 광주지방법원에 계실 때 유죄를 선고했던 한 피고에 대해 알고싶어서 그러합니다.》

연주는 허리를 쪽 펴며 쌀쌀한 눈길로 청년을 바라봤다.

《이제 보니 당신은 재판에 썩 관심이 깊군요. 혹시 대학때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는가요?》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질시감이 느껴지는 어조였다.

경진이는 그런것쯤은 전혀 개의치 않는듯했다.

《미안하지만 전 법학이 아니라 의학을 선택하고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육체를 지켜주고싶었지요.》

《그럼 저의 짐작이 빗나갔군요. 그런데 이렇게 기자로 일하는걸 보면 문과를 전공한것같은데?..》

경진은 불깃한 두볼에 불샘을 뿜다.

《그렇습니다. 철들면서 보니 이 세상엔 의학적인 도움보다 정신적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뼈대있는 말에 연주는 입술을 웅다물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과 마주서야 론쟁밖엔 더 나을것이 없었다.

《그런데 참 미안하군요. 수많은 재판들을 더듬어 기자선생의 웅변술과 인식력을 넓혀주지 못하는게... 그리구 전 보다싶이 지금 공무집행중 이랍니다.》

그제서야 경진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실례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시간을 내주실수 있습니까?》

타박을 당하면서까지 바위처럼 웅크리고 앉아 물려설 기미가 아니었다.

《글쎄?... 나두 뭐라구 딱히 약속할수 없군요. 난 지금 재판준비때문에 몹시 바쁘니까요.》

경진의 서글서글한 눈동자는 실망이 아니라 진지한 빛으로 반짝이였다.

《그렇다면 제가 판사님의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한번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그는 떡심좋은 비위살을 남겨둔채 주인을 따라 서점안으로 들어갔다.

김연주는 비록 냉담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에게 관심이 쏠리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끼꺄한 젊은이의 겸손성과 강한 주견이 마음에 들었다. 물론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고집과 주장이 남다른것만은 사실이다. 하나 저 청년에게서는 그들과 동일한것같으면서도 류다른 성품이 었보였다.

다시 돌아온 주인의 얼굴에서는 방금전의 애교어린 빛이란 한점도 찾아볼수 없었다. 오히려 마뜩지 않은 인상으로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다.

《판사님, 난 이미 검사에게 할 소리는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달구지길처럼 단조롭지 못한 그의 음정에는 불만이 짙게 서려있었다.

연주는 반발심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겨우 참았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전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으로서 증인들의 진술을 재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한테는 우리의 요구에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구요!》

사나이는 별수 없다는듯 몸을 등받이에 기댔다. 물어볼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라는 태도였다.

김연주는 거만한 그의 행동거지가 눈에 거슬렸다.

《난, 당신의 증언에 자그마한 거짓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나이는 언짢은듯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실소했다.

《그런 말은 이제 귀에 못으로 박혔수다. 그러니 어서 물어보거나 하십시오. 그러지 않아두 당신들한테 많은 시간을 떼우고있는데...》

《그럼, 좋아요.》

연주는 문건철에서 승철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이 사람을 아는가요?》

주인은 보는등마는등하며 통명스레 대꾸했다.

《그렇수다. 그 사람은 변호사이구 지금은 범위반죄로 구속되었지요.》

《당신은 피소자가 이 서점에 드나들면서 인터넷과 접촉했다구 진술했는데 정확한가요?》

《그건 사실이우다. 난 이 자리에서 그의 인터넷가입주소까지 말할수 있지요.》

사나이가 줄줄 불러대는 주소를 서기가 기록하였다.

《그럼, 그가 인터넷에서 복의 도서들을 보았다는걸 인정하는가요?》

김연주는 증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야 인정합지요.》

《당신은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리적행위>라는걸 몰랐는가요?》

《내가 왜 그럴 모르겠소. <리적표현물취득위반죄>이지요.》

《그런데 왜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가요?》

서점주인은 작은 눈을 울롱하니 치뜨며 불만을 터뜨렸다.

《아니 그럼, 우리 서점에서 인터넷과 접속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위헌행위를 하였거나 할수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그래 그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몰아 구속하겠다는건가요?》

연주는 제켄에서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따지려드는 사나이가 리해되지 않았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 이 서점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북을 찬양하는 출판물들은 얼마든지 열람할수 있다는건가요?》

그제서야 주인은 뭔가 짐작된듯 해석은 웃음을 지었다.

《그러구보니 판사님은 아직 우리 서점에 대해 잘 모르시는군요. 여기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느 인터넷와도 다 접속할수 있단말이우다.》

그의 말은 연주의 기분을 흐리게 했다.

《그렇다구 북의 인터넷과 연결되었다는건 아니겠지요?》

《아무렴 그럴리야 있습니까?》

사나이의 야살스러운 행동에 연주는 부아가 치밀었다.

《내가 묻는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네 서점이 북과 접속되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피소자가 그들의 선전물을 볼수 있었는가 하는거예요?》

서점주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인상을 찌프렸다.

허, 이진 코구멍을 다 열어놓고두 답답한 너자로군!...

《거 리해하기 꽤나 힘들어하는것같은데 그럼 제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연주앞에 있는 컴퓨터의 스위치를 넣었다. 그리고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기의 주소를 입력했다. 그러자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인터넷망들이 다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로씨야 등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배열되었다.

《자 보시우. 이렇게 우리 서점은 다른 나라들의 인터넷와 직접

련결되어있습지요.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그 어디라도 다 접속할수 있지요. 그래, 이 술한 인터넷들속에 북의 출판물이나 또 그 나라에서 북의 제도를 찬양해서 쓴 도서들이 실려있지 않다구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말이우다.》

답답한 가슴을 헤쳐보이듯 주인은 어지간히 흥분되어있었다.

눈앞의 현실앞에 연주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렇다면 피소자에게 《리적표현물취득죄》를 씌운것은 좀 애매하지 않는가?!... 그러나 혹시 이 서점이 비법적으로 운영되는것일수도 있지 않을까?

연주는 구름덩이처럼 머리속에 떠도는 의문을 한시바삐 털어버리고싶었다.

《그래, 이 서점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았는가요?》

주인의 대답은 혼연하게 올랐다.

《그야 물론입지요. 5년전에 벌써 공안기관은 물론 시청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운영되구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리적표현물류포죄>를 씌우겠는데요!》

《그럼, 그 문건들을 보여줄수 있는가요?》

《그야 뭐 어렵지 않지요.》

주인은 벽면에 붙어있는 서류장에서 자그마한 철함을 꺼냈다. 그리고는 그속에서 여러장의 문서들을 꺼내놓았다.

《자, 이건 시청에서 발급한 문건이우다. 여기에 경찰청의 승인도장두 찍혀있구요.》

주인이 부류별로 갈라놓는 문건들은 연주의 가슴에 망돌처럼 얹혀있었다.

《이 문서들을 제가 가져가서 재확인해두 일없는가요?》

그의 말에 주인은 마뜩지 않은 눈찌를 날렸다.

《왜, 위조문건인가 해서요?!... 정 믿지 못하겠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우.》

사나이는 두툼한 장부책을 꺼내놓더니 문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연주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럼, 여기에 명함과 직분, 날자를 써놓구 수표를 하시우. 아무리 공

적인 일이라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등탈이 없지요. 비상한 기억력도 때로는 오동작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연주는 그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허나 심리는 복잡했다. 《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이 서점에서 마음만 먹으면 북을 찬양하는 출판물들은 얼마든지 볼수 있다. 과연 검찰이 이 점을 몰라서 조승철을 기소했겠는가 하는것이다.

《검찰에서두 이걸 알구있는가요?》

《그럼요. 그 리성삼이라구 하는 검사가 여러 사람을 데리구 와서 직접 확인했지요. 프랑스의 어느 명문대학의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올라있는 북의 도서까지 펼쳐보았는걸요. 그리구 이 물건들도 그들이 이미 확인한거우다.》

연주는 다른 질문을 할수 없었다. 무슨 말을 더 할수 있겠는가.

기소장에는 조승철이 북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고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는 책으로 《정부》가 부각시킨 《꽃파는 처녀》, 《피바다》를 비롯한 북의 대표적인 가극과 영화들을 시청한것으로 기록되어있었다.

그와 함께 검찰이 《리적표현물》로 제시한 10여권의 책들을 보면 《공산당선언》, 《자본론》과 같은 세계적인 인기도서는 물론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경제사학습》 등이였다.

연주는 이 책들은 1980년대이후 사회과학입문도서로 남조선에서 인기소개되거나 대중적으로 널리 읽혀진 책들이였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리적표현물》로 취급되고있었던것이다.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는 책들을...

연주는 뭐가 뭔지 통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보안법》상요구로 볼 때는 엄연하게 위법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능히 볼수 있는 도서들을 보았다는 이유로 위법으로 몰아붙이는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허나 그는 인차 복잡한 심경에서 해탈하려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오늘날의 현실이 어떻든지간에 피소자가 현존하는 법의 조항을 어긴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강남의 학동사거리에 있는 식당은 소음통을 방불케 했다. 꼭 지옥의 문어구이기라도 하듯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홀에서는 서양음악이 귀청을 자극한다.

퇴근시간이라 모여든 사람들은 대체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 젊은 층들이었다. 차림새에서부터 라태와 향락이 확 풍긴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기라도 한듯 누구라 할것없이 제 흥분을 그대로 로출시키고있다. 자전하는 지구중심에 서있기라도 한듯 비린청을 췌지르며 온몸을 뻗처럼 비틀어댄다. 인간으로 태어난데 대한 불만갈기도 하고 속에 고인 감정을 폭발시키지 못하는 모대김갈기도 했다.

춤을 춘다는 모양새도 다들 제각기이다. 룰동적인 음악에 맞춰 남녀가 서로 몸을 마주 비비고 꼬는 추잡인가 하면 박자에는 무관계하게 마치 두마리의 코브라가 엉켜돌아가듯 꼭 껴안고 애무하는 쌍들도 있다.

신성한 예술을 저들의 음심을 달래는 준비동작으로 모독하는 타락한 자들의 세계였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쪽에서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을 마치고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그릇세척을 하는 학생들, 돈을 절약하기 위해 토끼장같은 하숙방에서 하루 두끼로 살아가는 학생들은 또 얼마인가. 차디찬 도로바닥에 앉아 초불을 켜들고 등록금반대구호를 웨치다 못해 배움의 꿈을 목숨과 함께 끊어버리는 청년들은 또 그 얼마인가.

이곳은 그 세계와는 완전히 판판이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부모들의 돈주머니로 극도의 라태로 즐달음치는 인자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하긴 이런 광경은 부의 축적으로 비대해진자들이 모여사는 강남땅의 《풍경》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김연주는 더러운 벌레를 대하듯 대뜸 골살을 찡그렸다. 들어선지 1분도 되나마나했는데 벌써 눈앞이 어지러워지고 머리가 뻥해졌다.

연주는 며칠전부터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는 성삼의 청을 가볍게 거절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판장과 검사가 마주앉았댔자 좋은 소리가

나올수는 없었던것이다.

리성삼 역시 보통질군이 아니였다. 오늘은 자기네 검찰청의 한 직원을 시켜 승용차까지 끌고 나타나 퇴근길을 막아나서게 했다. 기자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기 대리인을 내세운 모양이다.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뱉는다고 우정 찾아온 사람을 더이상 외면할수도 없다.

직원을 따라 이곳에 오니 식당안에서 리성삼이 번죽대며 서있었다.

《당신을 한번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줄은 몰랐구만!》

《검사님, 우리야 한사건을 담당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러니...》

《허, 내가 그걸 알기때문에 우리 사람을 보낸게 아니겠소.》

김연주는 그를 흘겨보며 속에 있는 소리를 했다.

《그런데 검사님은 술에 취한 저 성성이들의 몰골이나 보여주려구 나를 청했는가요?》

리성삼은 어색하게 웃어보였다.

《아, 내가 당신의 취미를 미처...》

식당에 들어서자부터 음악에 맞춰 큰 호박이 매달린것같은 엉치를 흔들거리던 그였다.

연주의 불쾌한 감정이 폭발될가 두려운지 성삼은 얼른 식당주인을 찾았다.

별로 치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련하고 깨끗하게 생긴 젊은 녀주인은 손벽까지 치며 달려나왔다.

《아이, 인제야 오시는군요.》

그 녀자는 성삼의 팔을 끼며 교태를 부렸다.

연주는 그 정상을 보기가 면구스러워 머리를 돌렸다.

리성삼은 녀주인의 볼을 슬쩍 건드리며 연주쪽에 대고 눈짓했다.

그제서야 그 녀자는 고개를 까딱거리더니 아양어린 웃음을 지었다.

《부장판사님이 오신다는 전화를 받고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인이 안내한 곳은 뒤꼍방인데다 방음장치까지 되어있어 아늑하고 조용하였다.

식탁에는 값진 요리들이 준비되어있었다.

《돈을 많이 들였겠군요?》

《히, 이쯤한거야 뭐... 실은 언제부터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던 참이었소.》

리성삼은 잔을 들며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말했다.

《참, 우선 축하하오.》

연주는 무슨 뜻이냐는듯 그를 바라보았다.

《난, 축하받을만한 일을 한게 없는데요?》

《원, 무슨 말을... 연주씨가 지방법원의 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그자세가 경축할만한 일이 아니겠소.》

《선배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주시니 정말 고맙군요. 하지만 소문난 잔치상은 워낙 먹을게 없답니다.》

《허허, 너무 걱정마오. 우에서도 다 사람보는데가 있어서 당신을 선택했었는데 어련할라구.》

그들은 서로 잔을 찼었다.

연주는 다심한 표정으로 대해주는 그가 미심쩍었으나 어쨌든 고마웠다.

이들은 같은 대학을 졸업한 선후배관계였다. 비록 전공은 달랐지만 그들 관계는 레사로운 사이가 아니었다.

미국류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김연주를 비행장에까지 나와 맞아준 사람도 유독 리성삼뿐이었다.

그때에도 그에 대한 연주의 감정은 그닥 좋지 않았다. 몇년동안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 만난 성삼에게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옷에 묻은 머리카락을 털어준다, 짐을 들어준다 하며 살갑게 놀아대는 것은 이전 그대로였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다 무안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검사가 되었다는 말에 연주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법계와는 먼 상과졸업생이 검찰청에 들어가다니?...

《어제날엔 사회의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이 그 반대편에 서있다는게 전혀 믿어지지 않는군요.》

벗어진 성삼의 이마는 벌겋해졌다. 그러나 별로 탓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현자는 생활의 세파속에서도 자연히 제가 갈 굵을 찾아내는 법이지요.》

《그러니 이제 뽕전의 구름을 몰아오는 독수리로 변했다구 봐야겠군요.》

《이렇게면... 그런데 뽕전이라는 표현보다 사회의 안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것같은데...》

《아, 정말 그렇군요. 어쨌든 성삼씨의 선견지명에 감사를 드려요.》

《난 단지 어느 한 철학자가 한 말을 실천에 옮겼을뿐이요. 그는 성공과 노력은 쌍둥이형제와 같은것이다, 만약 세상에서 제일 큰 사과를 먹고싶다면 나무밑에 앉아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무에 올라가 자기가 바라는 사과를 따야 한다구 했소.》

연주의 눈초리는 그의 옆모습에 머물러있었다.

마음에 드는 처녀를 옆에 두고도 말 한마디 못하던 샌님이 이제 제법인데. 사람의 발전이란 정말 모르겠는걸!...

성삼은 한때 연주에게 남다른 정을 품은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열은 처녀의 심장을 빨아들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슭으로 밀어던지게 하였다.

《전, 제가 좋아하는 꽃을 앞에 놓고도 타산을 앞세우는 사내는 질색이랍니다. 누군가가 <점쟁이는 사랑의 감정을 가질수 없다. 사랑은 용감한 사람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한 말을 성삼씨두 잘 알겠는데요?!》

세월이란 결코 인간의 성격을 수정시켜줄 힘은 없는 모양이다. 주위의 눈길을 끄당기는 견인력은 없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한본새이다. 항상 주대가 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발라맞추며 가려운 곳을 골라가며 긁어주는 사람이였다.

김연주가 그를 알게 된것은 조승철이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던 시기였다. 그때 성삼은 그의 그림자나 다름없었다.

자기의 주장과 속대가 없이 삼복철의 옛가락같은 그한테는 항쟁의 거리가 격에 어울리지 않았다. 횡설수설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며 리속을 챙기는 장인바치가 제격이였다.

그래서 동창생들도 그를 썩 달가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의 후에》, 《애완용개》라며 질시하곤 했다.

워낙 주견이 없는자는 겁쟁이고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자는 건달군이며 가질수 없는자는 바보라고 했다.

연주는 리성삼을 그런 부류의 인간으로 치부했다. 허나 지금은 그 견해가 그릇되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사람은 결코 빼대없는 인간이 아니다. 제 운명의 배를 어느 파도에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하는지 잘 아는 로련한 선장이나 다름없다. 《실용주의》로 호흡하며 신경을 움직이는 인물이다. ...

그날의 단정으로부터 연주는 오늘의 이 좌석에도 그의 리기적인 타산과 목적이 깔려있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이야기는 주로 성삼이쪽에서 많이 했다.

침방울이 튀어나올 정도로 장광설을 늘어놓지만 쥐여짜면 들을만한 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어느 동창생은 대검찰청의 큰 인물이 되었다느니, 요즘 물건값이 너무 올라간다느니 하는따위였다.

연주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나중에는 질중스러워 눈가에 주름결을 깊이 냈다. 그의 어둡시그레한 속내를 번연히 알면서도 구태여 캐묻고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주는 그의 미묘한 행동이 언짢아졌다. 남자란 필요한 말만 해야 믿음이 가는 법이다.

비록 생활적인 말을 하는것같지만 리성삼의 속심은 탄데 있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상대가 거부감없이 자기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겠는가 하는데 머리를 굴리고있었다. 대상은 어제날 짝사랑에 빠져 늘 결눈질하던 그 처녀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온몸을 예리한 신경으로 감싼 지방법원의 무게있는 부장판사였다.

허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꼭 녹여놔야만 했다. 그래야 재판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며 피소자의 손발을 얹어낼수 있었다.

《참, 미국에 계시는 아버님은 건강하시오?》

연주의 잔에 포도주를 부으며 성삼은 넋지시 물었다.

《이젠 나이가 많으시다나니 종종 앓으신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말이요, 당신은 지내 부모님들을 홀시하는것같구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연주는 포도주잔을 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건 없소. 내 말은 이젠 부모님들의

년세도 어지간하겠는데 그들을 서울로 모셔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요.》

《선배님이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시니 정말 송구스럽군요.》

《우리야 서로 동업자라구 할수 있지 않소. 그러니 응당...》

성삼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선뜻 연주를 마주볼념을 못했다. 저가락으로 안주를 몇점 집더니 생각난듯 다시 물었다.

《참, 듣자니 인후염으로 몹시 고생한다던데 좀 어떻소?》

연주는 속이 불쾌했다. 자기의 신상에 초점을 모으는 그의 행동이 역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자기를 뒤조사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선배님은 혼자 사는 여자들한테는 늘 그렇게 관심을 두는가요?》

얼굴색이 불깃해진 성삼은 황황히 손사래질을 했다.

《뭘 그렇게까지 반응하면서 그러오.》

이때 성삼이가 벗어놓은 양복주머니에서 손전화기의 신호음이 울렸다.

《미안하오. 집사람의 전화로구만.》

성삼은 량해를 구하며 전화를 받았다.

《아, 당신이요?!》

전화기에서는 신경이 날카롭게 선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아니, 지금이 몇신데 아직두 들어오지 않아요?》

성삼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구석으로 갔다.

《아니 여보, 내 오늘 회의가 있어 늦어진다구 하지 않았소.》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나웠다.

《흥, 두꺼비는 물가에 앉아서도 하늘의 별을 덮쳐먹을 생각만 한다더니... 또 어떤 계집년을 옆에 끼구있는게 아니야?》

성삼의 얼굴은 마치 수수지짐을 들썩운듯했다.

《아무 소리나 탕탕... 아, 알겠소. 내 이제 인차 가지.》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꺼버리며 중얼거렸다.

《녀자들이란 늙어가면서 선입견만 늘어나는지 원...》

성삼은 손바닥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자리에 앉았다.

《김판사, 이거 미안하게 됐소. 요즘 일이 바빠 늘쌍 늦게 퇴근하니

집사람의 신경이 좀 날카로워진 모양이요.》

그의 변명속에서 어지러운 뒤생활을 보는것만같아 연주는 속으로 실소하였다.

《선배님, 시간두 어지간히 흐른것같은데 이젠 그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부인님이 보시면 질투하지 않겠나요.》

리성삼은 쓴웃음을 지으며 연주의 잔에 포도주를 채워주었다.

《질투?!... 아니, 그 녀자는 질투가 아니라 심술을 부릴거요. 자, 그러지 말구 조금만 더 앉아있지요.》

《검사님, 전 더이상 있구싶지 않군요.》

《이거 내 성의가 부족해서 실망한건 아니요?》

연주는 입가에 연한 미소를 지었다.

《성의는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전 속에 깼겨둔 말을 꺼내지 않는 선배님의 행동이 실망스러울뿐입니다.》

성삼은 애써 어색한 기색을 감추었다.

《역시?!... 사실 난, 내가 제출한 기소장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알고 싶구만.》

연주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성삼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것이다. 상대에게 어느 정도 동정을 주고 그 틈을 리용하여 그의 마음속에 틀고앉으려는 심보가 분명했다. 그 알은 수법은 이전이나 다름없었다. 변한게 있다면 단지 기름하고 말쑥하던 이마에 오션보표가 그려지고 귀밑머리가 희여진것뿐이다.

《전 기소장을 보면서 선배님의 높은 능력에 탄복했습니다.》

성삼은 그의 칭찬을 천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허, 서당개 삼년에 풍월을 짓는다는 말이 있지 않소.》

《아닙니다. 서당개는 풍월을 짓지만 선배님은 아마 7언시도 거침없이 지을겁니다.》

《허, 난 당신이 칭찬에 린색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구만.》

《남을 칭찬할줄 알아야 칭찬을 받을수 있다구 하더군요.》

성삼은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었다.

《대가를 바라구 남을 취울린다면 그건 너무 야박하지 않소?》

뭔가 암시하는듯한 그의 말에 연주는 시까스르는듯한 어조로 응대했다.

《그건 선배님의 기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리성삼은 갑자기 박장대소하였다.

《역시 당신의 취향은 현실적인데가 있거던!...》

《뭔가 오해를 하시는군요. 전 검사님이 뜬 그 조밀한 그물을 넘두로 한 말입니다.》

그제서야 성삼은 깨도가 되는듯 어줍게 웃었다.

《아, 그쯤한거야 뭐... 헌데 내가 알기엔 당신은 지금 재판준비를 간간히 한다던데?...》

연주는 포도주를 들이키며 상대의 인상을 살폈다. 비록 선한 표정이 떠돌고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역시 검찰의 눈은 속이지 못하겠군요. 그러나 그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구 생각하는데요?》

《아, 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요. 법이야 언제나 공정해야 하지... 난 단지 이번 재판에서 당신과 허물없이 호흡을 맞추고싶을뿐이요.》

연주는 선뜻 화해의 손을 내밀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말꼬리를 잡고 비틀어대기 시작했다.

《호흡이라?!... 말과 소를 한수레에 매여놓으면 둘 다 인차 지치고만 답니다.》

《허, 난 우리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맞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서로 승벽심이 강할뿐이지요!》

《그것 보오. 그것만으로도 난 우리가 서로 통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래서 검사님은 절 재판장으로 내세워달라구 여기저기 부탁했군요.》

《원,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난 전혀...》

성삼은 덴겁한 인상으로 아닌보살했다.

연주는 역겨운 물건을 보기라도 한듯 눈길을 내리깔며 쓰겁게 말했다.

《그런가요?!... 하지만 난 이번 재판을 자기의 그 어떤 상처나 치료하는 계기로 삼고싶지는 않아요. 판결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구보니 당신은 기소장에 의견이 있는게로구만.》

김연주는 혼연한 태도를 취했다.

《아직까진 별다른게 없어요. 그러니 피소자는 응당한 처분을 받을거예요.》

연주는 오늘 인터넷서점의 주인을 만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아직 설익은 견해를 피력하면 담당검사인 성삼이가 별의별 설명을 다 늘어놓을건 뻔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쭈서대며 복잡하게 돌아댈것을 바라지 않았다. 어쨌든 기소내용을 전면적으로 재확인할 필요성은 느끼고있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스러운게 있습니다.》

성삼은 태연스럽게 술잔을 들어올렸다.

《뭔지 기탄없이 말하오.》

《진, 피소자의 <간첩>혐의증거물로 록화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증인의 진술은 첨부되지 않았더군요.》

성삼의 눈빛은 잠시잠간 굳어졌다. 그것을 가리우려는듯 그는 술잔을 들어 한모금 마셨다. 여유있게 안주까지 집었다.

그러나 속은 연주에 대한 멀미감으로 꿈틀대고있었다.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붙이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였다. 그렇다고 모든것을 툭 털어놓고 말할수도 없는노릇이다.

《당신은 괜한데 신경을 쓰는것같구만. 그건 <국정원>에서 우리 검찰에 제시한 증거물이요. 그러구 록화물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조승철이라는것이 자명한데 구태여 재판전에 증인을 만나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거요.》

연주는 여전히 눈길을 내리간채 포도주잔을 뱅글뱅글 돌렸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이 우둔하다고 말탄 사람까지 우둔하다고 생각하는건 오산이 아닐가요?》

성삼은 길게 허리를 펴며 상대를 바라봤다.

《당신이 정 그렇게 나오니 할수 없구만. 그 증인은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오!》

《그러니 증인진술때나 볼수 있다는 말씀이겠군요?!》

성삼은 의미있게 한쪽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래야 할가 보오. 아직 나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연주의 뇌리로는 이상한 기운이 스쳐갔다. 《국정원》에서 제출한 검증물과 기소장에 첨부되지 않은 증인의 진술, 쉽게 얼굴을 드러낼수 없는 인물, 뭔가 알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로출시키지 않는 검사...

꼭 이번 사건이 재판장인 자기를 한구석에 밀어놓는것만같은 느낌이다.

잔조름한 주름발들을 모으며 생각에 잠긴 그에게 성삼은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이쯤하면 우리 서로의 공통점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리무중속에 가닥을 잡을수 없는 연주는 일단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전, 이번 재판이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잃지 않게 하자는거예요. 만일 백해무익한 조급성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빚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지 않아두 지금 국민들속에서는 <보안법>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지 않습니까.》

《허, 이제 보니 당신두 열주머니가 작구만! 그런 걱정은 마오. 백성들의 힘은 어디까지나 바위우에 떨어지는 비방울이나 같은거요. 까마귀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독수리로 될수 없는것처럼 말ियो.》

그러면서 리성삼은 서류가방에서 여러장의 사진을 꺼냈다.

《참, 내 보여줄게 있소.》

모란공원에 안장된 윤기옥의 봉분앞에 서있는 조승철과 리선미, 《민주렬사 윤기옥의 묘》라고 쓴 묘비를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츠타대학교정문에서 윤경진과 만나는 조승철의 모습이 찍힌 사진도 들어있었다.

《민주렬사라!...》

연주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녀자를 이렇게까지 내세워주는가?

인생의 락이란 한점도 없이 고독한 생을 마친 한 녀인이 더없이 가련하고 불쌍해보였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의미한 길에 자신을 서슴없이 내대는걸가? 부나비가 빗을 쫓다가 명을 마치는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자주니, 통일이니 하는것이 그래 그 어떤 신념과 의지에 의해 이룩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승철과 리선미의 모습에 눈이 더 시렸다. 그들은 수십년동안 한쌍의

런인처럼 나타나곤 했다.

저 선미는 내 상처우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서있는 여자이다. 하지만 실생활은 어떠한가. 비록 서로 리념의 공통성이라는 명목하에 한치의 간격도 없는것같지만 아직 이들은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있지 않는가. 일전에 리성삼이 말한것처럼 그들이 설사 부부처럼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하자. 허나 그것이 정말 행복한 생활이겠는가. 선미는 저희들이 《정의》라고 하는 길에서 첫 애인인 서영민을 잃었다. 조승철 이 사람도 아직 명예와 행복은커녕 변호사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장차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처지가 아닌가. 그래 이들이 걷는 길에 인생의 기쁨과 락이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현실을 떠나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리성삼은 《살줄 아는 인간》이다. 비록 아첨과 아부로 자존심은 꺾버렸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의 성공탑을 한단두단 쌓아가고있지 않는가.

괴로운 심사가 또 머리를 쳐드는것같아 그는 인차 다른 사진에 눈길을 돌렸다. 오늘 인터넷서점에서 보았던 젊은이의 모색이 비껴들었다.

그가 왜서 조승철과 만났는지, 어떤 관계인가 하는것도 의문스러웠다. 더우기 그 청년은 자기가 진행한 재판에 대해 무척 관심을 두고있었다. 서점주인의 말에 의하면 그는 1960년대의 《간첩》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다. 무심히 스쳐보낼 일이 아니였다. 그자신도 사람들의 정신적치료를 위해 기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혹시 이들이 윤기옥을 중심에 두고 련결되었다면?!...

《그래,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의미는 뭘니까?》

연주의 내심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성삼은 바투 다가앉았다.

《조승철이 뭇때문에 아직 이 늙은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있겠는가 하는거요. 그리구 이 젊은이는 진보적인 경향이 강하다는거요.》

연주는 그의 의중을 떠볼 심산으로 무심한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게 어쨌다는겁니까? 젊은이들이 주의와 주장을 가지는거야 자유가 아닙니까. 선배님이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검사로 있는것처럼 말입니다.》

성삼은 락심천만한 기색을 지었다.

《히, 잠자는 사람보다 자는척하는 사람을 깨우기가 더 힘들다 더니!...》

그는 술을 마시고나서 조롱하듯 이죽거렸다.

《난 당신의 운명에 이 윤기옥이라는 늙은이도 어지간히 끼워있는것으로 아는데?!... 혹시 세월이 흘렀다구 과거의 아픔을 다 지워버린건 아니요?》

《난 이미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린지 오래답니다.》

성삼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그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사람의 인생에는 꼭 잊을수 없는 사람과 일들이 남아있는 법이요!》

리성삼은 지금 보이지 않는 칼로 그의 상처를 마구 헤집고있었다.

그럴적마다 그 녀자는 강한 진통을 참으며 입술을 웅다물고있었다.

윤기옥!...

백발을 쓰고 굵은 주름발들이 열기설기 잡힌 그의 모색이 떠올랐다. 저도 모르게 등골로는 시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금시 심장이 얼어드는것만같았다.

지나친 흥분을 느낄 때마다 그런것처럼 길게 심호흡하고난 연주는 온몸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그의 안색은 창백하고 우울한 빛으로 물들고있었다.

피로운 추억이 되살아나자 연주는 눈길을 포도주잔에 떨구었다.

불그스레한 색을 띤 액체는 서서히 붉은 피로 변하고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속에서 흘러나오는 선혈이었다. 맥박이 빨라지고 혈관이 툭툭 파열되는것같았다.

괴롭게 두눈을 감으며 연주는 술을 쭉 들이켰다.

그 녀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성삼의 안면에는 여우웃음이 비끼고있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간다. 거리쪽에서 들려오던 소음도 점점 잦아들어가 고있다. 연약한 어린이의 앙증한 손바닥처럼 창문을 두드리던 바람소리도 기진한듯 서서히 멀어지고있다.

탁상등불빛에 비낀 그림자가 미동없이 벽체에 비껴있다. 아무 감각이나 감정도 없는 분신으로 여길 정도였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연주는 다시 윤기옥의 묘비가 찍힌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름을 되새길수록 망각을 배제하며 밀려드는 추억의 힘은 그를 세월을 거스르는 배전우에 실어놓고있었다. 흘러온 날들을 더듬는 그의 입가에서는 골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윤기옥!...

그 녀자는 연주의 삶에 비껴있던 행복의 꿈을 송두리채 날려보낸 무정하고 박정한 폭풍의 시원이나 같았다.

...연주는 드디어 아름답고 행복한 래일을 설계하게 되었다. 일찌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져 음달의 꽃처럼 시들어가던 눈물소녀, 어둠속에 묻힌 미래를 손더듬하며 몸부림치던 한 생명이 걱정과 환희속에 광명을 향해 두눈을 뜬것이다. 그 빛은 다름아닌 조승철과의 열렬한 사랑이었다.

만날적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 힘이 이렇듯 자신을 변모시킬줄 몰랐다. 그럴수록 그것을 꼭 지켜가고싶은 심정뿐이었다. ...

순결하고 영원한 애정의 결합은 그에게 또 다른 기쁨을 안겨주었다.

연주는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기운은 점차 온몸으로 뻗어갔다. 혹시나하는 어림짐작으로 병원에 가보니 임신 녀달이라는것이다.

찬물세례를 받듯 솜털마저 곤두서는듯했다. 불안은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마음은 파도우에 실린 가랑잎같아 도저히 진정할수 없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조승철은 미국 워싱턴대학의 대학원으로 가게

되어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항상 경찰들의 눈초리를 뒤에 달고다니는 조 승철을 미리 해외로 빼돌리려는 의도도 숨어있었다. 그때 연주도 함께 갈 결심이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돈주머니와 원영준의 연줄이 마련한 교섭이었다.

몇달전 부모들의 제사에 왔던 김주성은 딸을 뚫어엿히고 혼시켰다.

《연주야, 네 애인인지 뭔지 하는 녀석에게 단단히 일러라. 부정과 불의가 살판치는 이 땅에서 정의와 진리라는것은 한갓 새벽닭의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구… 그러구 난 너희들의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가 계속 민주이니, 통일이니 하는 운동주의자가 된다면 절대로 내 사위로 받아들일수 없다!》

《아버지, 그건?…》

《그만해라. 이젠 다 너를 위해서이다. 난 네가 불행해지는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일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연주는 아버지의 말뜻이 곡진하게 안져왔다.

그렇게 떠났고 며칠전엔 인편으로 미국류학준비를 잘하라는 소식을 보낸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모든것은 물거품으로 되고만다. 아버지한테도 그렇지만 원영준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는것으로 된다.

며칠동안 혼자서 끙끙거리며 속을 앓던 연주는 끝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했다.

내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더 하겠는가. 단지 승철오빠를 훌륭한 변호사로 내세우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 연주는 그저 그이의 착실한 안해로 남아있는것만으로도 행복해! 남편을 앞으로 떠밀어주지 못하는 안해는 반드시 그의 뒤다리를 잡아당긴다고 하지 않는가. 난 그이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테야!

이런 생각은 침침하고 꺼름한 걱정거리들을 피부밖으로 완전히 밀어냈다. 오히려 자기가 장차 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다.

선미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의 결심을 지지했다. 그리고 더이상 이 사실을 입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방정치 못한 여자라는 딱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것인지 그들도 잘 알고있었다.

김연주는 점점 료곽을 드러내는 배를 띠로 꼭 조이고 대학에 다녔다.

그의 뒤바라질은 항상 리선미가 담당했다.

자기의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있다는것을 감지하면서부터 승철에 대한 사랑은 더욱 짙어갔다. 허나 항상 경찰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그와 만나 달콤한 세계에 빠져본지도 드물다.

어느날 서영민이 불쑥 나타나 래일 피신해있는 조승철을 찾아가자고 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새벽기차를 타고 인천의 어느 한 포구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원래 폭이 100m 남짓한 물굽을 따라 바다물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해방전 일제가 화약제조원료인 별소금을 수탈할 목적밑에 협궤철도를 부설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해방후부터는 염전판에서 소금집을 저나르던 사람들이 범선이나 돛배를 타고 가까운 앞바다에서 새우나 물고기를 잡았다. 남정들이 잡아오는 수산물은 아낙네들이 인천시내는 물론 서울까지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곤 했다. 비록 번창한 부두처럼 큰 기중기와 배들은 보이지 않아도 그럴럭 살아가기에는 그저그만이였다.

몇년전부터는 이곳에서 나는 새우젓이 명물로 소문이 자자했다. 어물장사군들은 포구에 직접 찾아들어와 방금 건져낸 새우를 받아서는 소금과 그 자리에서 혼합하여 날라가곤 하였다. 김장철이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곤 하였다.

《야, 갈매기다!》

물결우에 실려 한가로이 떠도는 갈매기를 바라보는 처녀들의 심정은 풍선에 매달린듯했다. 공해속에 늪어가던 폐장이 한순간에 젊음을 되찾는듯한 기분이다. 확실히 자연은 예나 지금이나 사심과 편견이 없었다.

언제 만들었는지 바다물에 쫄대로 켜 통나무들과 해산물기름이 폭 배인 판자들이 부두라는 명색을 지켜내고있었다. 거기에 차그마한 범선들과 매생이들이 삭줄을 매고 떠있었다. 물고기의 비릿한 냄새가 해감내와 어울려 후각을 불쾌하게 자극한다.

하지만 두 처녀의 마음은 원족나온 어린애들마냥 노상 들떠있었다.

김연주는 애인을 보는 순간 소녀처럼 그의 목에 매달렸다.

《오빠!—》

해풍에 피부가 검실검실 탄 승철은 그를 꼭 그리안았다.

《그동안 잘 있었소?》

연주는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괴여올라 대답대신 눈물이 앞섰다.

청동빛으로 변한 승철의 얼굴은 펍 수척해졌다. 량불이 홀쭉 꺼져들 어간게 꼭 앓고난 사람같았다. 게다가 다른 어부들처럼 소금기가 꼭 내뻐 솜옷을 입은데다가 색안경까지 껴오니 꼭 생면부지같았다.

《그새 어떻게 지냈어요?》

《연주 생각을 하며 있었지.》

《피- 거짓말...》

련인들의 다정한 애무를 지켜보던 서영민이 주뭇하니 다가왔다.

《승철군, 장군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네. 더이상 지체하면 좋지 않을것 같구만!》

아침시간이면 부두에는 어김없이 어물장사군들이 모여들군 했다. 새벽 물때를 맞춰 들어온 배들에서 물 좋은 수산물을 넘겨받으려는것이다. 인천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주변에서 많이 날라가군 하였다.

승철은 영민의 의도를 선뜻 받아들였다.

《알겠네. 그럼, 배를 부두에서 뿔자구.》

이어 그는 연주에게 돌아서며 그의 손을 잡았다.

《자, 어서 배에 오르지요.》

《네, 그런데 이 손을 좀 놓으세요. 내가 혼자 타볼래요.》

세상에 나서 배라고는 처음 보는 연주로서는 일종의 호기심이 동했다. 그렇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범선은 잔파도에 실려 출렁이고있었다. 게다가 부두와의 차이가 일정하니 있어 움직임을 가늠해서 건너뛰기란 조련치 않았다.

이를 앓다물고 넘자고 마음먹었지만 정작 마지막대목에 와서는 눈만 감길뿐 몸이 굳어졌다.

《허, <사내번지기>가 오늘은 어떻게 된거요.》

조승철이 그를 닮은 안아올렸다.

《어마나!》

연주는 가벼운 비명과 함께 그의 목을 두팔로 꼭 그리안았다.

애인의 몸에서는 비린내가 확 풍겨왔다. 그러나 그 냄새가 좋기만 했다.

《허, 그새 몸이 꽤 무거워진것같다?!》

배의 갑판에 내려놓으며 하는 그의 말에 연주의 얼굴은 도마도처럼 빨개졌다.

《아이, 별말씀을 다...》

그러면서도 그가 자기의 임신을 눈치채지나 않았을가 하고 걱정했다.

다행히도 옆에서 리선미가 엉너리를 쳤다.

《왜 몸이 무겁지 않겠나요. 인제야 제 소원을 성취했으니 몸밖에 더 나겠나요. 이전엔 승철씨를 다른 처녀들에게 떼울가봐 얼마나 고민한줄 아세요. 옆에 있는 내가 다 무안할 정도였는데요 뭐.》

연주는 선미의 팔을 꼬집었다.

《넌 또 허튼소리를 하면서...》

승철의 어깨우에 손을 얹고 웃던 영민이 큰소리로 말했다.

《좌우간 오늘은 의의있는 날이 되도록 마음껏 즐겨봅시다.》

이윽고 조승철은 나이지숙한 로인에게 다가가 뭐라구 몇마디 했다.

로인은 손바닥채양으로 멀리 바다쪽을 바라보며 잠시 뭔가 가늠해보는 듯싶었다.

《방금 썰물이 시작되었으니 지금이 합당할것같네. 그러니 물살을 타구 저쪽 도래곶이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배머리를 저기 보이는 무인도쪽으로 돌리도록 하세.》

《알겠습니다.》

배사람들과 어울려 삭줄을 올리고 키를 잡아가는 승철은 꼭 오래동안 바다에 숙달된 배군을 방불케 했다.

범선은 한참만에야 무인도기슭에 닻을 내렸다.

배군들은 물이 찌고 감탕바닥이 드러나자 고무방수복을 입고 배에서 내렸다. 그들은 썰물을 따라 나가다가 섬주변에서 소라와 조개, 굴을 잡아 그물로 만든 망태기에 집어넣었다.

해변가에서 나서자란 리선미도 참지 못하고 그속에 끼워들었다.

《연주야, 너두 함께 가지 않겠니? 내가 해삼잡는 법을 배워줄게.》

배를 타고 오면서부터 잔뜩 겁에 질린 연주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신선한 공기를 배려해주는 바다는 좋았지만 한켠으로 두렵기도 했다. 꼭 푸른 물이 자기를 삼켜버릴것만같았다. 게다가 드리난 감탕판우로 마구 계바라다니는 갈게들은 꼭 큰 거미같은게 보기조차 끔찍했다.

《아니, 말팔랭이가 오늘 어떻게 된거니? 잔뜩 겁에 질려가지구.》

《앤 말두 말아. 난 팔랭이라두 땅에서나 팔랭이지 너처럼 물의 요정은 아니란 말이야.》

《피, 거짓말말아. 넌 오늘 별래졌어? 여느때는 모르겠는데 승철씨만 옆에 있으면 얌전해진단 말이야. 그를 나꿔채던 기질은 어디다 버렸니?》

《아니, 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들의 악의없는 통질을 흐뭇하니 바라보는 서영민에게 승철은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난 아무래두 오늘 밤차로 보성군으로 가야 할것같네. 그러니 날 대신해서 연주씨를 좀 봐주게. 숨막히는 시내바닥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바다구경을 나왔는데...》

《걱정말라구. 그런데 왜 갑자기 그곳으로 가겠다는건가?》

《일전에 말하지 않았나. 그곳엔 <간첩>루명을 쓰고 십여년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윤기옥이라는분이 계신다구... 그 녀성은 이전에 흥녀자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적이 있다는구만.》

그제서야 생각난듯 영민은 머리를 끄덕였다.

《아, 인제야 생각나는구만. 교원생활을 시작한지 1년도 못되어서 <간첩>으로 몰렸다구 했지!... 한번 만나보고싶네. 녀자의 몸으로 옥고를 치르자니 오죽했겠나. 그런데 언제 출옥했나?》

《몇년 잘 되었다더군. 헌데 고문의 후파로 한쪽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는구만.》

《뻔해. 교형리들한테서 사상전향을 강요당하며 야수적인 고문을 받았겠지!...》

《그런것같네. 전남대학교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그 녀인은 자기의 감옥생활을 담은 수기를 쓰고있다는거네. 비전향장기수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군사독재<정권>의 야수적인 고문행위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말이네.》

《정말 쉽지 않은 녀성이구만.》

《난 그 수기를 통해서 외세와 야합하여 이 땅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 쓰는 매국역적들의 죄상을 만천하에 발가놓자는거네.》

《그것 참 좋구만!》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영민이는 선미갑판쪽을 힐끔 바라봤다. 김연주는 해산물을 잡는 사람들의 모습에 홀린듯 이쪽은 감감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연주씨한테는 뭐라구 말하겠나?》

《아직은 내색하지 말자구. 내 점심식사후에 조용히 이야기하지. 아마 그도 두말없이 승낙할거네.》

《그렇다면야 별일이 없지. 어쨌든 자넨 녀자복이 있어.》

《정말 그럴가?... 참, 그런데 자넨 어떻게 할셈인가? 곁에 선미씨가 있는데...》

영민은 쑥스러운듯 손바닥으로 뒤통미를 쓸었다.

《물론 나한테야 그만한 녀자가 없지. 그런데 장가를 드는건 어렵지 않지만 남편구실을 하기가 너무 힘들것같아 이러지 않나.》

《원, 사람두... 둘이 서로 리상만 맞는다면야 그게 뭐 그리 어렵겠다구. 이것저것 재는새에 선미씨가 다른 곳으로 훌 날아가버리면 어쩔려구.》

서영민은 히죽 웃으며 눈을 끔벅거렸다.

《하긴 그 말도 맞네. 난 그럼 내 애인이 게한테 물리워가지 않나 가보겠네. 지금부터 남편구실을 착실하게 해야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의 머리속엔 잠시만이라도 두 련인이 조용한 곳에서 회포를 나누게 하고싶었다.

친구의 깊은 속궁냥을 뿌듯이 느끼며 승철은 애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 녀자는 무엇이 그리도 기쁜지 깔깔 웃기도 하고 선미에게 손을 흔들어보이기도 했다.

《그래, 기분이 어떻소?》

곁에 다가온 승철을 감지한 연주는 그의 품에 안겨들었다.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모든게 두렵기만 하더니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즐겁기만 한게...》

《그럼 며칠동안 선미씨랑 함께 바다바람을 더 쏘이다가 돌아가요. 요즘은 실습기간이어서 강의도 없겠는데...》

《오빠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더 있겠어요.》

연주는 쌍까풀 곱게 진 눈가에 그윽한 미소를 그려보였다. 그러다

생각난듯 심중한 표정을 지었다.

《참 오빠, 한가지 알려줄게 있어요.》

승철은 살며시 그를 껴안으며 물었다.

《뭔데?...》

연주는 입술을 감빨고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젠 대학도 졸업하게 됐는데 우리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게 어때요?
그렇게 되면 오빠는 지금처럼 숨어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살뜰한 애정이 넘실거리는 목소리였다.

하나 승철의 눈동자는 반쯤 커졌다.

《미국에?...》

《예, 실은 며칠전에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워싱턴대학
에서 법학공부를 하도록 다 수속을 해놨다구 말이에요.》

《연주씨의 아버님이?!...》

숨방망이에 머리를 맞은듯 승철은 한순간 어리벙벙했다. 지금 졸업생
들속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이름있는 대학에 류학가는것을 최상의 희
망으로 간주하고있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요즘도 류학생들은 사회적으
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있었다.

하나 승철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연주가 사전에 토의없이 벌
린 일이기도 했지만 류학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그
였다.

《그래, 승낙하시죠?》

연주는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 꿈꾸듯 살며시 그에게 몸을 기댔다. 얼굴
에는 행복이 한껏 서린 웃음이 호함진 꽃처럼 피어나고있었다.

승철은 자기 생각을 접어두었다. 애인의 몽상을 서둘러 깨고싶지 않
았다.

이때 그물망태기에 어물을 반쯤 짚어지고 선미와 함께 갑판에 올라온
영민이 그들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야!— 이거야말로 조물주도 빛을수 없는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행
복상이요. 자, 잠깐만 그 자세를 유지하오.》

그는 어느새 가방에서 사진기를 꺼내들었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화폭을 후세에 남기지 않으면 일생 한이 될
거요.》

《어마나!-》

예상밖의 일에 연주는 얼굴을 붉혔다.

하나 조승철이 꺼안은 팔을 풀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있소!》 하고 속삭였다.

영민이는 자기대로 희한한 화폭을 발견한 촬영가처럼 흥분에 겨워있었다.

《좋습니다. 자, 렌즈에 집중해주십시오. 예-에, 아주... 아주 좋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모습이 렌즈에 담아졌다.

해상에서의 즐거움은 점심식탁으로 이어졌다.

사내들이 어죽을 끓였으면 얼마나 맛있게 했겠는가 하고 주춤하던 선미와 연주였다. 그런데 한참후에는 남비바닥을 자기들의 손가락이 박박 긁고있다는것조차 감감히 잊어버리고있었다.

저녁식사는 생선국에 소라볶음이라는 영민의 말에 두 처녀는 박수를 치며 환성을 올렸다.

수면을 설레이게 하는 기쁨으로 시간은 소리없이 흐르고있었다.

미소를 함뱍 담고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연주의 모습에 승철은 저으기 흥그려왔다.

어머니의 사랑을 잃고 외롭게 지내던 어제날의 소녀였다. 이제는 더없이 귀중한 인생의 반려자로 되었으니 일생 기쁨만 안겨주고싶었다. 그런데 당장 헤어져야 하니 섭섭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조바심을 겨우 억제하며 그는 연주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오빠, 아까부터 무슨 생각에 잠겨있어요. 고민거리라도 생겼나요?》

잠시 갑자르던 승철은 드디어 속에 있던 말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연주, 사실 난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해.》

저으기 놀라운 표정으로 연주는 되물었다.

《왜요, 검정개들이 쫓아왔나요?》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전라도쪽에 다녀와야 할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한 그는 사연을 터놓았다. 억울하게 《간첩》루명을

쓰고 15년이라는 삶을 류치장에서 빼앗긴 윤기옥에 대하여, 또 그가 벌리고있는 일에 대하여...

《싫어요!》

첫마디부터 연주는 부정적인 립장이었다. 흥분에 겨웠던 기색을 말끔히 날려보낸 인상이다.

돌변적인 그의 태도는 승철에게 전혀 뜻밖이었다. 가뜩이나 바재이며 꺼낸 말이었는데 처음부터 타박당할줄 몰랐던것이다. 그래도 자기를 이해해주고 떠밀어줄줄 알았는데...

《연주, 나두 네 심정은 알아. 하지만 그 녀인이 십여년동안 당한 마음속상처를 조금이라도 가서줘야 할게 아니요.》

새초롬해진 연주는 도저히 양보할 태도가 아니었다.

《왜 꼭 오빠가 가야 하냐요? 그곳엔 전남대학교 학우들두 있다면서... 난 솔직히 오빠가 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그런 일은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회에 항거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에요. 그 녀자처럼 감옥살이밖엔 더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무모한 행동을 반대한다는것을 잘 알지 않냐요. 그리고 나도 이젠 오빠가 우리의 행복에 찬바람을 몰아오는것은 그만두었으면 해요!》

《?...》

승철은 놀라웠다. 단순히 석별의 슬픔때문에 막아서는 연주가 아니었다.

《제발 제 말대로 해주세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술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오빠의 류학길을 마련했겠어요.》

김연주는 물기 일렁이는 눈길로 애인을 바라보며 절절하게 호소했다.

《오빠두 잘 알지 않냐요. 내가 너무도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를 잃고 이붓어머니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 외롭게 살아왔다는걸 말이에요. 나한테는 이젠 오빠밖에 없어요. 정을 주고 사랑을 준 당신밖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빠마저 잃게 되면 난 누구한테 의지해서 어떻게 살라는거예요. 예?...》

난처한 처지에 빠진 승철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연주가 이렇게 나오면 천백마디의 말로도 리해시킬수 없다.

하지만 이 길은 지체할수 없는 길이었다. 단순히 그 한 녀인의 문제

만이 아니었다. 5.18광주용사들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였다.

지금 전남지역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여러 대학 학생회장들이 비밀리에 집결하고있었다. 그들은 군사독재《정권》과 광주학살의 원흉들을 심판하는 반과쏘민주화투쟁으로 청년학생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예비회의를 준비하고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는 승철이었다.

《연주, 나두 당신의 마음을 알고있소. 그러나 그 녀인은 <간첩>이라는 억울한 루명때문에 자기의 청춘을 짓밟혔소. 그런데 우리가 그의 불행에 대해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그리고 내가 이 길에서 물러선다면 이 땅에는 그 녀인과 같은 슬픔을 강요당하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생겨날거란 말이요.》

김연주는 막무가내였다. 량볼로 흘러내리는 그의 눈물은 애타게 호소하고있었다.

《난, 그런데는 신경을 쓰고싶지 않아요. 남들은 어떻게 우리 행복만은 잃고싶지 않단 말이에요!》

《뭐라구?!...》

승철의 심정은 지금 갑자기 찬물세례를 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인차 자기의 생각을 부정해버렸다.

아니, 나의 연주는 절대로 저 하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녀자가 아니야.

김연주는 끝내 곁에 다가온 선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을 터뜨렸다.

《진정해. 네가 이러면 승철씨의 마음이 어떻게겠니?》

선미가 조용히 속삭일수록 그의 울음소리는 더 높아졌다.

밀물을 타고 들어온 파도가 배전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 서슬에 범선은 금시 뒤집혀질듯 중심을 잃고 요동쳤다.

서영민이 다가와 한숨만 푹푹 내뿜는 승철에게 담배를 권했다.

두사람은 한동안 뿌연 연기만 내뿜었다.

이윽고 영민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승철군, 너무 새기지 말라구. 그도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겠지.》

조승철은 그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나두 그렇게 생각하네. 아마 좀 있으면 노여움을 풀거네. 그때 자네가 잘 말해주라구.》

서영민은 의미있는 눈빛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김연주는 멀어져가는 쪽배를 바라보며 입술을 웅다물었다. 애인을 태운 배가 멀어질수록 영영 자기 품에서 떨어져나가는것만같았다. 그럴수록 승철이가 찾아가는 녀인에 대한 원망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그날의 우려는 결국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바위에 난 틈새와 같아 잘 알리지 않았지만 후날에는 두사람을 영영 갈라놓는 발화점으로 돼버렸다.

19

《국정원》 원장은 며칠전부터 국내현안문제와 관련한 대책안들을 제출할것을 해당 부서 책임자들에게 요구하였다.

그 집은 의례히 차장들을 통과하여 국장들에게 고스란히 부여되었다.

원영준은 담당차장에게 제출할 보고서에서 6월에 시민단체들이 계획하고있는 통일행사들을 미연에 막기 위한 안을 제기하였다. 여기서도 변호사협회의 회원인 조승철의 재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였다. 일명 《종북》재판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국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친북경향과 평화통일의 인식을 완전히 지워버리자는데 목적을 둔것이였다.

문건을 훑어보고난 차장은 미적지근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국장님은 그래, 이 재판에서 정말 성과를 얻을수 있다구 보는가요?》

영준의 입가에는 언뜻 한줄기의 쓴웃음이 비졌다. 비록 상급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는 물론 복무년한에서도 젖먹이나 같은 차장이였다. 청와대와 굵직한 바줄로 련결된 인물이라 그런대로 비위를 맞춰왔지만 오늘날은 심사가 꺾졌다.

원래 그 차장자리는 원영준이 노리던 목표였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 고심하던 그는 몇년전 《대통령》선거때 리명박의 당선을 위해 막후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를 적극적으로 밀어준것은 미국대사관에서 일하는 친구인 피터 콘노스였다.

이 공적으로 하여 원영준은 그후 《실용정부》의 수립과 함께 차장으로 승진하게 되어있었다.

이제는 행운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의 배신 행위가 벌어졌다.

차장으로 다른 사람이 임명된것이다. 그것도 자기밑에서 일하던 젊은 작자였다. 그때부터 원영준은 그를 시답지 않게 여겼다.

《국정원》이 영향력을 발휘하는것은 《대통령》직속기관이라는데 있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원영준이 정년퇴직나이가 지나도록 이 자리에 든든히 영치를 붙이고있는것은 어디까지나 청와대의 입김때문이었다. 그래서 차장도 그를 허술히 대하지 못하고있었다.

《시작이 잘되면 절반은 성공한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차갑고 예리한 대답에 차장은 속으로 코웃음을 지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면야 얼마나 좋겠소. 난 단지 지금까지 벌려온 <종북>사건들이 민심의 공감은커녕 오히려 우리의 귀뺨을 후려친 일이 한 두번만이 아니라는 점을 녀두에 둔거요.》

나이젊은것이 늙은이에게 반말질해대는것이 기분나빴지만 어찌는수가 없었다. 허나새나 상관이고 자기는 하급인데다 또 고목이나 같은 존재가 아닌가.

원영준은 속에서 일어나는 반발을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크게 들이키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물론 나두 그걸 생각 못한건 아니지요. 허나 이 일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작한것만큼 확실한 결실을 맺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는겁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민심을 얻겠는가, 잃겠는가 하는것은 판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친북경향이 강한 피소자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우기 현 <정부>는 북과 합의한 선언문들을 파기하고 대결으로 나가는것을 <국책>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난 앞으로 예상되는 국내외의 반발을 막기 위한 방풍림을 만들자고 해두 이번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겁니다.》

차장은 어느 정도 수궁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 소가 길을 안다고 가끔 원영준의 일처리에서 고개를 숙이곤 하는 그였다.

《그 말에두 일리가 있다고 보오. 현시점에서 최우선적인 문제는 바로 친북세력을 숙청하는것이요. 이 사회가 그들이 뿌리는 빨간 물에 완전히 젖어든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소. 더우기 이번 <지자제>선거에서 승리, 이것은 장차 여당인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으로 된다는거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잘 알고있는 문제가 아닌가 말이요!》

모여앉은 국장들도 한결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자기의 제안이 인정받게 되자 원영준은 건기침을 하고나서 진중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차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태도였다.

《문제는 현재 재판장으로 내정된 김연주부장판사요. 그의 동향을 보면 중도적인 경향이 강하단 말이요. 난, 그게 어쩐지...》

차장은 묻는듯한 시선을 원영준에게 보냈다.

원영준은 속에서 참나무몽치 같은것이 울려뿔렸지만 혼연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저런 애송이가 차장자리에 앉아있으니...

《그건 괜한 걱정이라구 봅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나 또 그 녀자의 톤리로 보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현재 그가 우리의 요구대로 <보안법>의 시행자로 나섰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를 장차 잘 길들일수 있는 매로 본다는 소리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녀자를 내정하도록 법원에 이 야기한것은 바로 그 점을 보았기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인물이라면 민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제서야 머리속의 안개가 걷히는듯 차장의 안면근육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영준은 그한테서 아니꼬운 눈길을 떼지 않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단지 미타한건 그가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며 어떻게 하나 그것을 끝까지 내미는 장점을 가지고있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크게 기대하는것은 그가 다름아닌 피소자의 옛 애인이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소 놀라는듯한 기색이었다.

차장은 이미 알고있는듯 무심한 태도로 말했다.

《그거야 이미 지나간 옛일이 아니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우기 실련당한 녀자의 가슴속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상처입은 자존심은 용서를 모르는 법이지요!》

《허, 그러구보니 국장님은 그 모든걸 이미 다 내다봤다는 소리구만!》

원영준은 앞에 놓인 차를 한모금 들이키고나서 그루를 박았다.

《승패는 전투전에 결정되는 법이지요.》

차장은 시름이 해소된듯 만족한 인상으로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역시 원국장님은 아무 일에서나 세심하고 빈틈이 없구만.》

원영준은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발을 부드득 갈았다.

아직 젖비린내도 빠지지 않은 놈이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들겠대구?!... 가서 장독 서너독을 더 퍼먹고 와서 내게 혼시를 해도 해라!

원영준이 작성한 계획은 즉석에서 《국정원》 원장에게 보고되었다. 원장은 그 일을 선거전에 결속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기분이 흡족해진 원영준은 사무실로 돌아오자 피땀 시계를 보았다. 벌써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뒤였다.

잠시 뭔가 생각하던 그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리성삼검사를 찾아주오.》

예견했던대로 수다스러운 아낙네같은 성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국장님. 아직 퇴근하지 않으셨습니까?》

《음, 회의를 있어서...》

《야, 지금이 몇시인데?!... 제발 건강을 좀 돌보십시오. 그러다가 년로한 몸에 병이라두 만나면 어쩔려구 그러십니까?》

사창가의 계집년처럼 요사를 떠는 모양이 눈에 보이는듯 원영준은 인상을 찡그렸다.

《그러구보니 임자네 검사장두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구만?!》

성삼은 한순간 어리둥절했다. 혹시 이 두상이 지금 검사장방에 있으면서 자기를 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임자가 아직 사무실에 있으니 의례히 그 량반두 있을게 아닌가?》

《아니, 그건?...》

원영준은 꼭 짊어서 말할가 하다가 그만두었다.

요즘 리성삼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론이 향기롭지 못했다. 진종일 하는 일이란 없이 나가돌아다니다가도 퇴근시간만 되면 불을 환히 켜놓고 일하는척한다는것이다. 상급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처세술이라는 평이 태반이었다.

일을 하는데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오래동안 검찰에 있었다는 단 하나의 리유로 일정한 직제는 가지고있지만 실무가 낮아 아래사람들한테서 통을 맞기가 일쑤이다. 상전들에 대한 아침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여 젊은 세대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 어떤 사건을 하나 취급해도 항상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있다가 부장검사의 주장이라면 그것이 옳건그르건 상관없이 발라맞춘다는것이다.

원영준한테는 불쾌한 신소들이였다. 그래도 지금껏 제 손발노릇을 하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준 정을 생각해서 부장검사쯤으로 내세우려고 대검찰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할 생각이였다. 그런데 아래사람들의 평판이 깨끗하지 못하니 선뜻 결심하기가 두려웠다. 물론 친구에게 말해서 강압적인 인사단행을 하라고 할수도 있었다. 허나 이번 사건만 처리하고 은퇴하려는 자기의 얼굴에 먹물이 날아들것만같아 꺼림직했다.

《됐네, 뭐 깊이 생각할것두 없네. 그저 내 짐작이 그래서 말한결세.》

수화기로는 성삼의 긴 호흡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지금 뭘 하나?》

《예, 미진된 사건들을 처리하느라구...》

《수고가 많겠구만. 참, 그새 연주의 동향에서는 별다른 기미가 없나?》

원영준은 자기가 알고싶은 문제를 꺼냈다.

《예, 아직 재판준비에 전심한다는겁니다. 그런데 <간첩>혐의증거물을 제출한 증인을 만나겠다고 얼마나 보채는지 원...》

그의 말에 영준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고집스러운 연주의 행동이 저으기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너무 걱정마십시오. 제가 그 녀자의 고집을 꺾어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려는 성삼의 속심이 들여다보여 영준은 신경질적으로 송수화기를 놓았다.

연주가 아직두 재판준비를 한단 말이지?!... 하긴 그게 없으면 연주가 아니지!

눈을 습벅이던 영준은 연주가 미국에서 돌아오던 때의 일을 떠올렸다.

지금으로부터 수십여년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있던 원영준은 대학동창생인 김주성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미국에서 류학을 마친 연주가 돌아가니 잘 돌봐달라는 당부였다.

자기 딸은 절대로 법관을 시키지 않겠다던 주성을 겨우 설복하여 연주를 미국으로 보낸 영준이다. 그런데 벌써 수년세월이 흘러 그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돌아오는것이다.

흥분되는 내심을 억제하며 그는 리성삼을 인천비행장으로 내보냈었다.

얼마후 사무실에 들어선 연주는 《아저씨!》 하며 영준의 품에 무릅없이 안겼다.

《어이구, 이게 누구냐?! 우리 연주가 맞긴 맞느냐. 어디 보자. 어디...》

영준은 마치 친딸이라도 만난듯 연주의 모색을 간간히 훑어보았다.

처녀의 까만 눈동자는 예리하면서도 맑았다. 보면 볼수록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단아한 몸가짐에 리지적으로 빛나는 두눈, 양중한 입술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여간 자존심이 강하지 않은 녀자라는 것이 첫눈에 알렸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부령거리며 따라다니는 외국인류학생들을 보기 좋게 후려갈겼다는 기질을 그대로 읽을수 있었다.

《너희들은 아직 사랑이란게 뭔지두 모르는 풋내기들이야. 내가 너 같은것들한테 몸을 맡길것같으면 창녀가 된지 벌써 오랫동안게다!...》

말로만 들어왔는데 정작 만나고보니 톡톡치 않다는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각은 좋았다.

《그래, 아버지진 무고하시냐?》

《네. 아저씨한테 인사를 전하라구 몇번이나 당부했는지 모른답니다.》

영준은 연주에게 자리를 권하고 문옆에 주벚하니 서있는 성삼에게 고개를 돌렸다.

《나의 귀한 손님을 모셔오느라구 수고했는데 거기에 좀 앉아있으라구.》

어딘가 모르게 질시하는듯한 기운이 느껴지는 어조였다.

허나 성삼은 그것을 얼마나 황송하게 받아들이는지 허리까지 갑작거렸다.

영준은 그를 외면한채 연주와 마주앉았다.

《그러지 않아도 내 며칠후 미국에 가게 되는데 그때 꼭 들릴 생각이였다.》

연주의 얼굴에는 저르기 반색한 기운이 떠돌았다.

《그럼 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실거예요.》

원영준은 친구의 모색을 그려보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

《그가 그새 타향에서 고국이 얼마나 그리웠겠니? 혹시 이곳으로 다시 올 의향은 없더냐?》

연주는 낯색을 흐리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영준은 한숨을 길게 내그었다.

《하긴 네 아버지야 이 땅에 침을 뱉고 떠났지. 그만큼 마음속상처가 너무도 깊지...》

고뇌깊은 주름발을 태우며 창밖을 주시하는 그의 목소리는 비감에 젖어있었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그거야 다 지나간 일이 아니나요.》

《그래, 과거에 지나치게 매인 사람은 제앞을 보지 못한다고 했지. 하지만 난 어미없는 널 안고 무심한 세월을 절규하며 몸부림치던 네 아버지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것같지 못하구나.》

영준은 흐려진 눈굽을 스며버거리며 연주를 바라봤다.

《그런데 네가 이젠 어엿하게 자랐으니... 그렇게 농구보면 세월이라는 것두 영 무정한것같지는 않구나.》

《제가 이렇게 될수 있는건 다 아저씨의 도움이 있었기때문이에요.》

원영준은 황황히 한손을 내흔들었다.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말아. 참, 그런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생각이냐?》

잠시 입술을 움지락거리던 연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전, 전공분야에서 일했으면 합니다.》

《그래 결심을 잘했다.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이 <한국>에서는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존엄은 얼마든지 얻을수 있다. 지금 이 땅엔 범죄와 무질서가 너무 란무하단다. 이것들을 바로잡는데서 너처럼 법을 배운 젊은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원영준은 랑해를 구하며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아, 피터. 자네인가?!... 그 문제는 이미 처리했으니 너무 걱정말게. 모든게 임자의 뜻대로 될거네.》

자신만만한 태도와 호기있는 행동에서 연주는 그의 막중한 몸무게를 가늠할수 있었다.

《아, 고맙기야 뭘... 우리사이에 그런 말을 하면 호상 따분하지 않은가?》

영준은 걸걸한 목소리로 전화를 계속하였다.

《아니, 이제 말인가?》

그는 피뚝 벽시계에 눈길을 주었다. 저녁시간이 되어오고있었다.

《자네의 청이니 거절을 못하겠구만. 그런데 어쩐다. 나한텐 지금 귀한 손님이 왔는데...》

영준은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그런게 아니라 내 친구의 딸이 방금 미국에서 돌아왔네. 참, 자네 두 모르는는 않겠는데... 몇년전에 내가 류학문제때문에 임자를 찾아간적이 있지 않았나?》

그는 송수화기를 들고 연주에게 의미있는 시선을 보내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 이젠 당당한 법전문가가 되었네. 그야 뭐 여부가 있나. 그럼 오늘 자네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소개해주게.》

수화기를 놓은 원영준은 득의만만한 기색으로 연주에게 다가왔다.

《허, 그렇게 놓고보면 기회란 꼭 널 위해서 존재하는것같구나.》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미국대사관에 있는 내 친구이다. 네 류학문제를 해결해준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 저녁 생일연회에 우릴

초청하는구나. 청와대에서도 손님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널 소개해주겠다더라!》

연주보다 더 놀란것은 성삼이었다. 꾸어온 보리짚처럼 앉아있던 그는 부러움과 질투를 금치 못했다. 자기는 술한 돈을 섬겨바치며 겨우 지방검찰청에 발을 붙였다. 그러나 연주는 이 땅에 발을 디디기 바쁘게 품 한 자루 안들이고 막강한 세도줄을 잡지 않았는가.

분명 저 녀자의 앞길은 비로도를 깬 대통로일것이다. 미국류학이라는 경력에 원영준과 피터의 노력만 첨가된다면 한번 도약에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의 판사자리쯤은 문제없을것이다.

김연주는 영준을 바라보며 속생각을 조심히 터놓았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전 모든걸 제힘으로 개척하겠어요.》

영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혹시 날 믿지 못해서 그러는게 아니냐?》

그는 랑손을 펴보이며 의문을 표시했다.

《달리 생각지 마세요. 전 개인적인 문제로 부담을 끼치구싶지 않아서 그러는거예요!》

영준은 섭섭한듯 입을 다셨다.

《너 혹시, 날 남으로 여기는게 아니냐?》

연주는 미소를 남길거리며 영준의 팔에 매달렸다.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어리광부리듯 말했다.

《아이참, 아저씨두... 난 그래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남한테서 도움도 받고 또 배우기도 하는건 생활의 리치가 아니냐요. 하지만 자기의 앞길은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날 이해해주세요.》

방금 씻어낸듯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절절하게 말하는 처녀를 내려다보는 영준의 낯색은 다시 밝아졌다.

이때 리성삼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주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그래두 부장검사님은 당신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거절하면 레의가 아니지 않소.》

김연주는 불만스러운 눈길로 그를 뚱뚱히 바라보았다.

《실례이지만 선배님은 저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하는군요. 그래, 사적인 문제로 부담을 주는게 레의인가요?》

뜻밖의 공격에 성삼은 흠칫했다. 이렇게도 세상물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처음 보는것같았다.

원영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김연주가 썩 마음에 들었다. 연약한 여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완고하고 주견과 주장이 강했다. 꼭 알차게 여문 호두알을 보는것같은 심정이다. 무뎡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려는 이런 인간들은 장차 제손으로 성공탑을 쌓기마련이다.

그는 연주의 결심을 재확인해볼 심산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물론 네 말은 옳다. 하지만 생활이란 제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그리구 또 후날 네 아버지앞에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나서겠니.》

연주는 정색한 표정으로 자기 말에 힘을 주었다.

《아저씨, 저라구 왜 남의 힘을 빌어 앞길을 개척하면 편안하다는걸 모르겠나요. 하지만 전 결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살고싶지는 않아요. 쓰든달든 제손으로 지은 음식을 먹으며 제힘으로 모든것을 쟁취할 결심이에요. 그러니 절 이해해주세요.》

자그마한 고저도 없이 흐르는 유순한 그 말에서 영준은 실로 큰 충격을 받았다. 함부로 대할수 없는 여자라는 생각에 신경이 팽팽해지는듯했다. 역시 허줄하게 자라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짓어대기만 하는 사냥개는 포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바로 리성삼이 그러한 인물이다. 늘쌍 시끄러울 정도로 아부하군 하였다. 물론 그것이 싫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침군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하지만 인생의 지향과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남한테 제 운명을 함부로 맡기지 않는 법이다.

김연주는 지금 선미를 만날 심산으로 봄빛다방으로 차를 몰아가고있다. 제발로 찾아가자니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그를 보면 사사로운 감정과 질투로 하여 리성을 잃을것만같았다.

아닌게 아니라 다방을 가까이할수록 심장은 벌써 안정된 박자수를 잃고있었다. 몇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미 탕개가 풀어진 상태였다.

조승철이 구속된 후 연주는 선미가 자기를 찾아올것이라고 장담했다. 옛정을 꺼내들며 그의 무죄에 대해 입이 닳도록 설명할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 기대는 빗나간 화살이었다. 일이 어떻게 되었든 자기 같은것은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는것같아 기분이 언짢았다. 그렇다고 먼저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별수 없는 길이었다. 《리적표현물취득죄》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해명해야겠지만 문제는 조승철의 《간첩》행위를 보여주는 록화자료였다. 외국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가하여 북대표에게 극비자료를 넘겨주는 행동이 선명하게 찍혀있었던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리적행위》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는 동교동앞을 가로 지나간 철길너머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를 세웠다.

다방은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있었다. 비록 건물은 크지 않아도 아담하고 산뜻하게 꾸려졌다. 단지 불편한것이 있다면 앞쪽에 있는 철길로 오가는 기차들의 소음이 들리는것뿐이다.

몸매가 아련하고 곱게 생긴 처녀접대부가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녀자는 연주를 빈 식탁으로 안내하며 상냥한 어조로 물었다.

《뭘 드시겠습니까?》

연주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주인이 있는가요?》

《예, 제십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연주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는 우정 자기의 직분을 힘주어 강조했다.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왔음을 선미가 스스로 깨닫고 처신하기를 바래서였다.

접대부가 사라지자 연주는 다방을 둘러보며 의자에 앉았다.

손님은 별로 없었지만 외부와 어울리게 내부는 소박하면서도 정가로운 맛이 느껴졌다. 서울바닥에서 흔히 보는 서양식의 갓춤새는 찾아볼수 없었다. 건물의 간판에 어울리게 자연미가 질게 서리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광란적인 음악대신 은은하면서 정서적인 민요가락이 손님들의 마음을 차분히 어루만지고있다.

계절에 맞는 가벼운 차림새를 한 리선미가 나왔다. 가름한 얼굴의 랑볼에는 아직도 처녀들처럼 귀엽게 볼샘이 쟁글거려 나이보다 펍 젊어보였다.

《아니, 연주 네가?!...》

선미의 놀라움은 인차 반가운 인상으로 번져졌다.

김연주는 속에서 일렁이는 뜨거운 감정을 애써 짓누르며 자못 차거운 표정을 지었다.

온순하고 어진 마음씨가 외모에 그대로 어려있어 선미한테서는 더없는 현숙미가 풍기고있었다.

《혹시, 내가 불청객으로 날아든건 아니니?》

연주의 표정에는 여전히 얼음장같은 랭기가 떠돌고있었다.

처음부터 심사가 뒤틀린 그의 말투에 선미는 오히려 혼연한 태도를 보였다.

《원, 무슨 소릴... 여기에 있지 말구 안에 들어가지 않겠니?》

연주는 그가 가리키는 곳에 눈길을 주었다. 분명 살림방일것이라는 짐작에 등에서는 오한 같은것이 스쳐갔다.

《아니, 그 방에 들어가면 색다른 이성의 체취가 풍길것같아 그만두겠다.》

《넌 그새 마음만 이그러진게 아니라 질투심도 펍 늘었구나. 꼭 시앗싸움에 나서기라도 할것같구나.》

가슴을 보듬는듯한 선미의 음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흥, 천만에... 예로부터 시앗싸움에는 돌부처도 돌아앉는다고 했어. 내가 뭇때문에 아직까지 남의 가슴에 칼을 박은 그 사람한테 정을 두고

있겠니.》

《너두 역시 법관이랍시고 권리부터 행사하려드는구나. 자기가 버린 사랑이라구 그런 험투를 씌울 필요가 있을까?》

선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담담했다. 그러나 마디마디 박력이 흐르고 있었다.

연주도 그것을 육감적으로 느끼고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는거니?…》

이때 접대부가 다반에 차를 담아가지고 왔다.

연주는 차를 한켠으로 밀어놓았다.

《난, 더운걸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포도주나 있으면 한잔 주렴.》

《그새 넌 식성도 변했구나.》

《어쩌겠니. 남자복이 없는 녀자는 찬 음식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

리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대쪽으로 걸어갔다.

한손으로 턱을 고인 연주는 생각질은 눈매로 은근한 조명속에 안겨오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금의 선미는 자기 눈에 익숙된 모색인 동시에 너무도 생소한 자태이기도 했다. 품들여 가꾼 머리모양새와 아직 가치를 잃지 않은 미모에 절로 주눅이 드는것같았다.

외모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자기와는 대조적이다. 어찌 보면 더 총명하고 아름다우며 정결한 모습으로 보인다. 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위와 기만으로 분장하여 자기를 로출시키려는 경박함에서 오는것이라고 그는 단정해버렸다.

이윽고 선미가 포도주를 담은 잔을 들고 다가왔다.

《우리 다방은 보다실이 너무 협소하다나니 이런 녹거리밖엔 없구나. 혹시 네 입에 맞거나 하겠는지…》

연주는 술잔을 받아 한모금 마시고나서 나직하니 물었다.

《난, 네가 나한테 할 말이 많을거라구 생각하는데?…》

선미의 주름잡힌 눈가에는 미묘한 기색이 흘렀다. 그래, 언제이든 찾아가서 하많은 이야기를 하고싶었다. 수십년동안 멎든 가슴을 부여안고 랭혈인으로 살아가고있는 연주에게 숨을 불어넣고 피를 수혈해주고싶었다.

그는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속변화를 억누르며 유순한 눈으로 연주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게 있겠니. 옛시절의 연주였다면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을게다. 그러나 법원의 부장판사로 찾아왔으니 네 물음에 대답이나 해야 할 처지가 아니니!》

연주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봤다.

역시 어제날의 순후하던 선미가 아니었다. 거치른 생활이 다듬고다듬어 새롭게 빚어낸 신인간과 마주한 느낌이다.

그래, 난 옛 감정이나 론하자구 오진 않았지. 또 더이상 그런 감성에 매이지 말자구 결심했구. 더우기 이 녀자는 내 상처우에 제 행복을 창조한 무서운 녀자이다. 지금도 겉으로는 청결함을 보이려 하지만 내심에는 악의가 가득차있을것이다.

연주는 서류가방을 열고 두터운 문서철을 보란듯이 식탁우에 꺼내놓았다.

《그럼, 찾아온 용건을 말해주지. 난 다르게 아니라 피소자인 조승철 그 사람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자는거다.》

선미는 예견한듯 여전히 온화한 기색이었다.

그럴수록 연주의 속에서는 질투심이 더 꿈틀거렸다.

《난, 네가 진실만을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뭔지 어서 물어보렴.》

기소장을 번지며 연주는 은근히 목에 힘을 주었다.

《여기에는 피소자가 현 <정권>을 반대하고 복을 도와주는 <간첩>행위를 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네 견해를 듣고싶구나.》

선미는 차잔을 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바라지 않던 현실은 어린 가슴우에 묵중한것을 올려놓고있었다. 무엇인가 깨달아지는바도 없지 않았다.

허나 이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한단 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저 연주에게... 진실을 터놓는다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나는 지금 저 두터운 얼음벽에 구멍을 낼만한 그런 말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두려웠다. 모든것이 순식간에 닥쳐온것같았고 순식간에 시작되어 순식간에 끝나버릴것만같았다.

연주의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자리를 잡고있었다. 속을 바재이며 불안에 잠긴 상대의 모습은 꼭 피고석의 피소자를 보는듯한 심정이였다.

이윽고 선미는 빨간 혀끝으로 입술에 침을 바르고나서 나직하니 말했다.

《그럼, 내 한가지 물어도 일없겠지?》

《얼마든지…》

《너희들이 말하는 <보안법>위반과 <간첩>행위란 과연 어떤걸 의미하니?》

연주의 기색은 굳어졌다.

《그래, 네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니 아니면 법률적범위를 알고싶어 그러는거니?》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다. 단지 민중의 의사와 녀원을 무참히 짓밟는 현 <정부>를 규탄한것이 범위반으로 되고 또 같은 겨레인 북의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것이 <간첩>활동으로 된다는거겠지?…》

《그러니 너두 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거냐?》

《그래. 나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할거다. 예로부터 민중의 의지,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법률이라구 했어. 그런데 넌 지금 무엇을 재판하려고 하니?》

선미의 낯빛은 다소 흥분된듯 붉게 상기되었다.

《너도 지금껏 이 땅에서 살면서 제눈으로 직접 보았을게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형제들을 목놓아 찾고 부르며 피눈물을 뿌리다가 절명한 사람들이 그 얼마인가를… 그리고 겨레가 당하는 그 고통을 가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통일의 길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가 하는것두… 연주, 너두 분명 분렬의 비극을 안고있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겠지?》

연주는 선뜻 대꾸할수 없었다. 질문은 자기가 하였지만 오히려 대답도 제가 해야 할 처지였다.

《왜 말을 못하니? 그래, 우리 강도가 하나로 되기를 바랬다고 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법률적장애물의 철폐를 주장했다고 해서 피고로 되어야 한다면 누가 원고로 되어야 한다는거냐? 똑바로 명심해. 이 사회의 정치적불안정은 북에서부터 오는것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분렬주의자들때문이라는것을…》

리선미는 조용하나 힘있는 어조로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았다.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고있던 연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미, 관심이 어떤 요구로 된다면 그건 재판사업에 간섭하는것으로 되는거야.》

《그렇수도 있겠지. 그러나 주판의 뒤에는 항상 쓰디쓴 후회가 뒤따르는 법이다!》

연주는 서서히 허물어지는 자세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충고해줘서 고맙구나. 그러나 피소자와의 인간관계를 내세우며 그를 비호하는것은 어떻게 봐야 하니? 너는 비록 통일이라는 말로 그를 두둔하지만 이 기소장에 기록된 증인들의 진술과 증언은 그렇지 않다. 난 네가 법앞에 충실할것을 권고한다.》

선미의 입가에서는 차거운 입김이 흘러나왔다.

《똑바로 알아둬. 법률이란 사회가 부패하면 할수록 불어나는 법이야. 그래 너희가 내드는 법이란 과연 어떤거니? 너두 그걸 모르지는 않을텐데?... 만일 그 어떤 법이라고 해두 그것이 국민탄압의 수단으로 리용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악법으로 되는게 아닐가?》

김연주는 긴 눈섭을 쫓깃거리며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돌발적인 행동도 그러하지만 그의 말마디들은 자기의 리념에 심한 칼질을 해대고있었다.

《그만해. 난 오늘 네 혼시나 듣자구 온게 아니야.》

매정한 그의 말에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루박듯 말했다.

《혼시라는게 듣기는 싫어두 때로는 처신에 유익할 때두 있는거야!》

그 녀자는 살림방쪽으로 총총하니 걸어갔다.

연주는 그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접대부에게 포도주 한잔을 더 청했다.

왜서인지 자신이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느껴졌다. 랭대를 받아야 할 대상인 선미한테서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받고있는것이다. 인간생활에서 서서히 밀려나는듯한감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부정하면 할수록 그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고있었다.

이윽고 리선미는 CD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나왔다.

《자, 네가 이걸 보면 왜서 그가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지 알게 될게다. 그리구 명심해. 만일 그의 행동이 범위반으로 된다면 나 역시 공범자로 될거다!》

신랄한 그의 목소리에 연주는 놀란듯한 눈길로 바라봤다.

공범자!...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있는 네가 그런 말을 꺼리낌없이 내뱉다니?!...

《그게 진심이니?...》

《그래!》

연주는 그의 얼굴을 뻘히 바라보았다. 잔조롭한 주름발들이 연한 화장에 감춰진 모습은 이전의 애모쁜 미모를 그대로 간수하고있었다. 서로 무rap없이 룡질하며 속에 있는 말까지 터놓던 그때의 선미가 더없이 강직한 모양새로 성숙한듯싶었다.

불쑥 서유럽의 어느 책에서 본 구절이 떠올랐다.

《사람의 열정에는 세가지 원천이 있다. 감정과 리성 그리고 욕체이다. 감정은 우정을 낳고 리성은 존경심을 낳으며 욕체는 욕망을 낳는다. 이 세가지 열정을 합하여 사랑을 낳는다.》

지금 선미는 그 감정들을 초월하여 자아희생까지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과연 무엇이 저 순근하기 그지없던 녀자를 저렇게 똥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넌 지금 자기가 지내 흥분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리선미는 침착하고 여유있는 웃음을 지었다. 연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진실하고 깨끗한 천사의 미소였다.

《아마 너는 내 말을 리해할수 없을거다. 왜냐면 사랑이란 말의 진가를 아직 모르기때문이지. 사랑의 중요한 가치는 그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육체적결합의 만족에 있는게 아니라 남녀간에 정신적통일의 한 모멘트로 전환시키는데 있는거야. 진실한 사랑의 밑바탕에는 선에 대한 불타는 지향과 념원이 깔려있어!》

김연주는 랑소를 지으며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흘겼다.

《흥, 그래서 넌 옛친구의 아픔으로 제 상처를 치료하겠구나? 난, 너의...》

리선미는 낮으나 저력있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가로챘다.

《속단하지 말아!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네 눈에 비낀것처럼 그렇게 저속한것이 아니야. 남녀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서 기본은 그들 호상간의 정신적류사성과 리해, 리상의 공통성에 있는거다. 그러나 넌 제 애인의 가슴속에서 불타는 열렬한 지향과 의지를 보지 못했어. 제 민족

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지 못했던 말이야.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불구라고 해도 절대로 흉해보이지 않는거다. 그런데 너 그것을 배척하고 자기의 리익과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았니?》

연주는 그를 가소롭게 바라보았다.

《난, 그런 책문구같은 소린 듣고싶지 않다. 그러구 너 지금 내앞에서 사랑에 대한 철학을 론하는데 그럼 하나 묻자. 내가 보고 듣기에도 너희들사이가 오래동안 지속되었는데 왜 오늘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니?》

《뭘, 결혼?!...》

선미는 억이 막힌듯 말끝을 맺지 못했다.

《바로 그거다. 그렇게 농구보면 너희 두사람의 관계도 네가 방금 말한것처럼 그렇게 공고한것이 못된다는걸 의미하지 않니?》

선미는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겠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선입견과 의심이 많은 연주였다. 그리고 일단 옳다고 인식한것이면 쉽게 뒤집지 않는 성미이다. 바로 그 성격으로 하여 그는 이전에 조승철의 결을 스스로 떠나버렸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제나름의 분석과 해석으로 모든것을 평가하고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난 오늘 네가 나한테 뭐라구 말해도 탓하지 않겠다. 그건 너한테서 당연한 질투이고 양갓음일테니까. 그러나 명백히 알아뒀. 그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경박한 인간이 아니야! 난 이 자리에서 너한테 이것만은 꼭 말하구싶다. 사랑을 자로 채는 사람은 영원히 그 진가를 느낄수 없는 법이야. 난 네가 더이상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말살하는 교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선미는 괴롭기 그지없었다. 연주한테서 단 한점의 인간미도 느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사실 그는 몇번이고 그를 찾아가 속에 품고있던 말을 터놓고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기상조로, 오히려 그의 그릇된 자존심만 더 키워주는것으로 될수 있었다.

《그한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오. 사람의 그릇된 의식은 결코 요구한다구 해서 변하는게 아니지 않소!》

조승철은 항상 이런 말로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선미는 조금해나기만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에 찾아갔을 때 연주한테서 당한 랭대는 지금도 기억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옛친구의 심장이 이렇게까지 식어버렸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했지만 현실은 부정쪽으로 기울어지고있었다. 싸늘한 그의 몸에서는 인간다운 면이란 단 한점도 찾아볼수 없었다. 물기 하나 없는 강대처럼 메마르고 딱딱한 존재였다. 사람이 그릇된 길에 빠지기는 쉬워도 바른길에 들어서기는 참으로 힘든것이다. 뼈저린 체험과 충격적인 사실, 현실에 부닥쳐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기 전에는...

연주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소리치듯 언성을 높였다.

《뭘, 내가 교살자라구?!...》

선미는 침착한 표정으로 그의 항변을 받아주었다.

《그래, 넌 이미 오래전부터 네 육체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말끔히 증발시켜버린 너자가 아니냐?》

연주는 예리한 칼날에 찢리운듯 흠칫 놀랐다. 그러다가 인차 주눅이 든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니 넌 기어이 내 아픈 상처를 허비겠다는거니?!》

심한 동통을 느끼듯 머리를 고인채 괴로워하는 그를 보는 선미의 마음도 개운치 않았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수 있는 수렁에 빠진 그를 구원하자면 스스로 제 몸에 남긴 상처를 되새겨보게 해야 하는것이다. ...

연주는 자기가 어떻게 다방에서 나왔는지 알수 없었다. 결국 선미의 질타에 쫓겨난 신세가 되고만것이다.

뭘, 내가 사랑의 교살자라구?!...

보슬비가 그의 심정인양 소리없이 내리고있다.

한강의 수면을 바라보는 그 녀자의 눈빛은 변질된 물고기눈알처럼 흐리터분했다. 구슬픈 심연의 나락속에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귀전을 허비며 흘러든다.

연주는 두손바닥으로 량쪽귀를 덮었다.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절대로 그애를 버리지 않았어!

부정하면 할수록 수많은 바늘몽치들이 달려들어 심장을 마구 찢러대며 토설을 강박하고있었다. 망각이라는 《명약》으로 콕 덮어버렸던 상처는 독을 쓰며 성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에 일어난 광주인민들의 영웅적봉기는 군사과쏘독재《정권》의 기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으며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봉기는 비록 독재자들의 야수적인 살육전으로 진압당했지만 광주령혼들의 뜻을 이어 반과쏘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서울과 지방의 여러 도시들에서 그칠줄을 몰랐다.

이에 위기를 느낀 군사과쏘분자들은 이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미친듯이 발광하고있었다.

김연주는 지금 바늘방석에 앉아있는것만같았다. 승철은 여직 주소없는 편지를 인편으로 단 한번 보냈을뿐이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보았지만 그의 행처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서영민이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연주는 무작정 그를 붙들고 승철의 안부부터 물었다.

《너무 걱정마오. 승철군은 지금 인천에 있소.》

애인의 소식은 알았지만 연주의 속은 여전히 등잔심지처럼 타들어갔다. 그가 항쟁의 불길속에 뛰여든것만같은 위구심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더이상 위험한 길을 가게 할수 없었다.

이제 얼마 안있어 우리사이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가. 난 그를 아버지없는 아이로 만들고싶지 않다. 어머니없이 살아온 나의 불행을 우리 아기에게 유전인자처럼 넘겨줄수는 없어.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

더이상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는 인천에 내려갈 결심으로 이른새벽부터 옷을 주어입기 시작했다.

선잠에서 깨어난 선미는 그를 말리느라 아부재기를 쳤다.

《아니, 너 갑자기 왜 그러니? 그 몸으로 어딜 간다구 그래?...》

《날 막지 말아. 난 승철오빠를 만나야겠어.》

선미는 더이상 그의 고집을 꺾을수 없었다. 별수없이 함께 따라서야만 했다.

그들이 인천에 도착하니 역구내에는 대학생들로 립추의 여지도 없었다.

모두들 흥분으로 상기된것으로 보아 서울로 가려는 모양이었다.

이리저리 밀리우면서 두 녀자는 혹시나하는 생각으로 주위를 살폈다.

얼마 안있어 그들은 한쪽구석에서 여러명의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조승철을 발견할수 있었다.

선미가 먼저 달려가 그에게 사연을 이야기했다.

승철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함이 비껴들었다. 이윽고 그는 하던 일을 마저 하려는듯 고개를 돌리고 주위사람들에게 나직이 당부했다.

《경찰들이 다른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겠소. 꼭 서울에 참관가는것으로 보여야 한단 말이요.》

몸이 강단하면서 결기가 있어보이는 한 학생이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건 너무 걱정마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룽로로 한 2백명정도 먼저 조용히 뿔었소.》

《거참 잘했구만! 자 먼저 기차에 오르오. 내 인차 따라갈테니.》

그들이 열차쪽으로 향하자 그는 연주에게로 다가왔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와는 대조되게 연주의 어조는 싸늘하게 식어있었다.

《난 오늘 명백한 대답을 듣구싶어요.》

조승철의 얼굴에도 저으기 긴장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래, 오빠 우리 아버지의 호의를 끝내 거절하는건가요?》

승철은 내심을 애써 누르며 곡진하게 이야기했다.

《내 일전에두 말하지 않았소. 우리의 미국행은 결코 환영받을만한 일이 못된다구. 그러구 난...》

《그만하세요. 난, 다만 우리 관계에 대한 오빠의 립장을 알고싶어요.》

《난, 연주가 현실을 똑바로 보았으면 하오. 현 파쑈독재<정권>은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떨쳐나선 우리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였소. 그 래 광주의 용사들의 소원과 념원이 피의 바다로 되여 흐르고있는데 우리가 꼭 류학의 길을 선택해야 하겠는가 말이요. 그것은 바로 배신행위란 말이요.》

연주의 눈빛은 드디어 절망과 고독으로 흐려졌다. 갈가리 찢기여 흩어지는 꿈과 리상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오빠, 문제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껏 이 땅에서는 민주를 부르짖으며 얼마나 많은 시위와 투쟁이 벌어졌나요. 하지만 그때마다 류혈적인 탄압의 희생물로밖에 더되었나 말이에요.》

아연감으로 하여 승철의 눈빛은 드디어 흐려졌다. 저렬한 의식속에 빠진 애인을 보는것이 두려웠다. 이렇게까지 근시안적인 의식에 빠져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물론 연주는 어린시절부터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왔다. 때문에 자기 앞날에 대한 그의 갈망과 지향에 대해서는 이해할수 있었다. 그러나 저 하나만의 울타리를 쌓고 담너머에 있는 귀중한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 정말 괴로웠다.

연주 역시 석상처럼 굳어진 승철의 모습을 보는것이 두려웠다. 자기들 사이에 오가는 무거운 공기가 돌발적인 폭풍을 몰아올것만같았다. 몹시 흥분하고 긴장한탓인지 굵은 땀방울이 겨드랑이밑으로 흘러내리는것이 알렸다.

승철은 애인의 양어깨를 부여잡고 앞으로 끄당겨 품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타이르는듯 말했다.

《연주, 사람이 그릇된 의식으로 하여 선택을 잘못한다면 그건 제 일생을 망치는것이요. 인간으로 태어나 자기의 의사와 념원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존재로 된다면 그것은 짐승이나 다름바가 없는거요. 난 겨레의 념원을 실현하는 길에 우리의 사랑과 행복도 있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제발 내곁에 있어주오.》

연주는 침울한 표정으로 입을 웅다물고있었다. 자기를 껴안은 사나이가 낮설고 생소하게 여겨졌다. 마주한 승철의 가슴은 짜늘하게 식어가는 불찌나 같았다.

어째서 내 심정은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가? 왜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을가?

《난 무모한 길에 내 리상과 꿈을 바칠수 없어요. 그러니 인제라두 오빠가 마음을 돌려주세요. 예, 부탁이에요!》

연주의 목소리는 절절하였지만 승철에게는 그것이 천둥소리처럼 들려왔다.

어쩌면 이럴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연주가 이렇듯 천박한 인생관에 젖어있다니...

그의 손은 애인의 어깨에서 맥없이 풀리고있었다.

연주는 드디어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절망과 고통의 눈물이 끈땀어진 땀주알처럼 흘러내렸다.

아, 이것은 정녕 피할수도 없는 내 운명의 곡절인가. 아니, 아니야!... 뇌리치는 생각으로 그는 조승철에게 매달리며 간청했다.

《오빠,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리구 대답해주세요.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시겠다구 말이에요.》

《연주,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소? 폭정의 사슬에 얽매이고 동강나 몸부림치는 민족의 아픔을 누가 가서낼수 있겠는가 말ियो. 가장 진실한 사랑은 제 개인을 위한데 있는게 아니라 겨레를 위한데 있는거요. 난 그 길에서 절대로 물러설수 없소.》

승철의 목소리는 팽팽해진 선룰처럼 금시 끊어질것만같았다.

연주는 그 말이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퇴성처럼 여겨졌다. 더이상 돌려세울수 없는 사나이의 선언이었다.

무엇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남한테 나눠줘야 한단 말인가. 그래, 그렇게 산다고 누가 인정해주고 동정해줄것같은가? 오히려 그것은 사나운 칼날에 스스로 목을 내대는 자살행위와 뭐가 다른가.

상반되는 견해는 그들의 심장을 두 궤도선상으로 갈라놓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자기의 희망과 리상이 목살당하고 짓밟혔다고 생각한 연주는 참담한 심정을 주체할길 없어 입술을 짹 깨물었다.

《연주, 사고의 중심에서 제발 탈선되지 말아주오. 자기만의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라오.》

렬차의 기적소리는 그들의 작별을 재촉하듯 다급하게 울렸다.

《돌아가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오. 꼭!...》

승철은 선미에게 애인을 부탁하고 승강대로 다가갔다. ...

요즘 서울시내는 체포와 투옥의 살벌한 랭기가 무겁게 드리우고있었다. 어딜 가나 수갑소리만 울렸고 《용공분자》, 《빨갱이》이라는 말이 마구 램발되고있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아츠러운 경찰들의 호각소리와 앙칼진 옥설, 매질하는 소리가 사람들의 잠자리를 불안하게 한다.

살기가 어린 악척들이 사방에서 울리건만 밤은 제 흐름을 타고 깊어가고있었다. 이따금 개짖는 소리가 먼 메아리처럼 어둠을 헤가르고있었다. 그 울부짖음은 밤의 정적을 한층더 어수선하게 만들고있다.

인천역에서 승철이와 헤어진지도 벌써 한달이 넘었다. 하지만 돌아오마하고 기차에 올랐던 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렬차와 함께 영영 떠나버린것만같은 생각은 연주의 가슴에 불안과 조바심이라는 큼직한 짐을 얹혀놓았다.

이제나저제나하는 심정으로 연주는 창문밖에서 초조한 시선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한밤중의 바람소리조차 애인의 부름소리같아 깨어나기를 그 몇번인지 모른다.

꿈자리는 또 어떨가. 피투성이가 된채로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승철의 모색이 나타나는가 하면 들국화 만발한 언덕길로 다른 처녀와 함께 손목을 잡고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불미스러운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잠에 들수가 없다. 한가닥의 희망과 기대가 실린 눈길로 하숙집앞 골목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별빛이 흐르는 하늘에 시선을 둔채 오만가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허나 무섭게 밀려드는 잡념을 도저히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단 한문장 짜리 소식이라도 왔으면 좋으련만.

혹시 그이가 날 버리고 영영 떠나버리는건 아닐가? 아니, 그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이의 앞길을 막았어야 했는데...

벌써 몇번이나 되풀이하는 후회이다. 만일 이제 승철이가 오면 그한테 아기를 임신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그를 꼭 설복하리라 속다짐을 하는 그였다.

《연주야, 너 또 깨났니?》

리선미가 두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에서 임신부의 신경질과 잔심부름을 나무람없이 받아들이는 그였다.

연주는 호- 하니 한숨을 내그으며 선미에게 돌아앉았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뭘 말이니?》

《승철오빠가 정말 날 사랑할가?》

선미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임신부시절엔 의심과 짜증이 많아진다더니 넌 별생각을 다하는구나. 그러지 말구 어서 눈을 붙이렴. 네가 건강해야 아기의 영양도 좋을게 아니니.》

연주는 여전히 심드렁해있었다.

《난 왜 그런지 두려운 생각만 들어. 그가 나한테 진심이라면 어쩌서 나의 성의를 그렇게 무시할까?》

심각해진 친우의 표정을 보고서야 선미는 심중해졌다.

《연주,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데서 더 두터워지는 법이야. 그래서 난 네가 승철씨의 심정두 이해해주어야 한대구 생각해.》

《그건 나두 알고있어. 하지만 부부간의 사랑도 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게 아니니. 그러나 그이가 걷는 길은...》

전혀 받아들일수 없는 승철의 리념앞에 연주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리구 리해라는 측면에서두 같애. 남자라구 해서 여자한테 제 주장만을 강박하는것은 옳지 않다구 봐. 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가 좀 양보하면 안되는가 하는거야.》

선미의 마음은 괴로웠다. 승철에 대한 물리해를 한두마디로 풀어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연주, 그럼 넌 좁과 정이 마른 이 사회에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할수 있다구 생각하니? 척박한 땅에 묻힌 씨앗은 알찬 열매를 맺을수 없듯이 인간의 존엄과 지위가 무참히 유린당하는 이 땅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수 없어. 승철씨는 지금 너와 앞으로 태어날 어린 자식의 미래를 위해 그 길을 걷고있는거야. 그러니 이 문제에선 네가...》

연주는 선미의 설교에 짜증난듯 손사래질로 말허리를 끊었다.

《그만해라. 난 너희들의 그 말에 이젠 신물이 난다. 지금껏 이 땅에서는 민중의 의사와 념원이 실현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어. 무제한한 독재와 권력은 백성들의 요구를 탄압하는것을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삼아왔어. 그래서 난 돌에 박히려는 못으로 되느니 차라리 제 생활을 제손으로 가꾸는게 더 현실적이라구 생각해.》

《그러니 넌 여전히 무저항주의를 제창하는거니?!》

선미의 물음앞에 연주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반박했다.

《그럼 넌, 구호나 웨치고 주먹이나 흔드는것으로 민주화를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차레지는건 광주와 같은 참상뿐이란 말이야. 사람은 모든것을 현실적인 안목에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해. 제 능력의 제한성은 보지 못하구 무작정 달에 오르려는것은 철없는 아이들의 망상에 불과한거야.》

리선미는 연주의 고집스러운 론거앞에 더 반박하지 않았다.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두사람의 론쟁마당으로 변할것은 뻔했다. 가뜰이나 고집이 세고 또 요즘 심기가 좋지 않은 그의 기분을 더 흐려놓고싶지 않았다. 대신 그들 두사람사이에 난 엄청난 균열을 보는것이 무서웠다.

속에 있는 소리를 쏟아놓았지만 연주의 심리는 여전히 불안으로 조급해났다. 어떻게 하면 승철을 되돌려세우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다.

그는 승철이와 갈라지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지금껏 나뉘온 뜨거운 사랑을 중도에서 깨뜨린다는것은 제 인생에 침을 뱉는 행위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이제는 그의 아이까지 가진 몸이다.

하지만 승철을 어떻게 설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도무지 궁냥이 떠오르지 않고 오리무중에 빠진듯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저도 모르게 밀려드는 안타까움은 눈물로 이어지고있었다.

이 며칠동안 이렇게 이불속에서 울었다. 울고 또 울다가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드는듯싶었다. 눈물이 마르는것으로 가슴속의 불안과 괴로움이 함께 마를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

그러던 어느날 병원에 갔다오던 연주는 길바닥에서 우연히 리성삼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무작정 그의 손을 부여잡고 물었다.

《승철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목마름을 달래는 소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처녀의 눈길앞에 성삼은 안색을 흐렸다.

《저어...》

어두워진 기색으로 대답을 갑자르는 그의 태도는 연주의 심리를 조급하게 해주었다.

《왜 그러세요. 혹시 그이가 체포되기라도 했나요? 어서 말해주세요.》

주변을 살피며 주저하던 성삼은 그를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연주씨, 안심하십시오. 승철군은 지금 무사합니다.》

그제서야 연주는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그래, 그인 지금 어디 있나요?》

침을 삼키고난 리성삼은 낮은 소리로 귀뜸했다.

《그는 인천에 피신해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명수배령이 내려오니 할수 없지요.》

연주는 속이 철렁했다. 그가 수배대상이 되다니. 지금껏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로 닥쳐왔으니 눈앞이 아뜩했다.

《그이가 있는 곳을 대줄수 없나요?》

잠시 입술을 감빔하며 연주의 동정을 살피던 성삼은 결심한듯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이건 사실 누구도 알아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건 저두 알고있어요!》

리성삼은 할수 없다는듯 길게 숨을 내긋고나서 조승철의 거처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뒤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연주씨가 그곳에 가지 않는편이 더 나을것같군요.》

그 말속에 담겨진 미묘한 의미는 연주의 신경을 더 촉발시켰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찾아가면 그이의 신상에 위험이 생길수 있다는건가요?》

《꼭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곳에 가면 기분만 상할겁니다.》

뭔가 말할듯말듯하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는 성삼의 태도가 불만스러웠다.

《뭔지 나한테 속 시원히 말해줄수 없는가요?》

연주는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승철에 대한 문제라면 무엇이든 다 알고싶었다.

성삼은 바질바질 끓는 그의 속에 기름을 뿌리듯 침묵을 지켰다.

그럴수록 연주의 속은 더 상했다. 뭔가 알고있으면서도 야-Jul야-Jul거리는 그의 심사가 밍살스러웠다.

《좋아요. 정 말하기 싫다면 더 묻지 않겠어요. 그러나 난 꼭 그를 찾아가야겠어요.》

연주는 몸을 돌려 거리쪽으로 걸어갔다.

《연주씨-》

뒤에서 성삼의 목소리가 울리는듯하더니 그가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울대들 꿈틀거리고나서 나직하니 말했다.

《사실말이지 사내들이라구 해서 다 믿을만한것이 못되지요. 더우기 승철군이야 이전부터 처녀들속에서 인기가 높지 않았습니까?》

《그만하세요.》

연주는 저도 모르게 큰소리를 쳤다. 이미전부터 씨알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보아오던 리성삼한테서 애인에 대한 험담이 나오는것이 불쾌했다.

《그래, 당신이 그이를 알면 얼마나 안다구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거예요?》

분을 삭이지 못하고 대드는 그를 바라보며 성삼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이제 보니 연주씨두 순진하기 그지없구만. 그래 당신이 남자들의 속내를 알면 얼마나 안다구 그렇게까지 두둔해나서는거요. 물론 애인이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승철이 그 친구두 종당에는 남자라는것을 알아두는게 좋을거요!》

《뭐라고요. 그러니 당신은?!...》

성삼은 여유있는 태도를 취하며 담배를 꺼내 붙여물었다.

《글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연주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찌겠소. 까놓고 말해서 당신들은 비록 열렬히 사랑한다구는 하지만 그 기초가 과연 뭔가 말이요?》

《?...》

내놓고 자기들의 관계를 비웃는 성삼이가 역겨웠지만 연주는 선뜻 뭐라고 반박할수 없었다.

《보오. 말을 못할걸... 서로 다른 당신들의 주장과 리상이 그래, 연주씨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의 주추돌로 될수 있는가 하는거요.》

성삼은 담배를 맛스럽게 빨아들이고나서 분을 삭이지 못해 씹씹거리는 연주를 패심속에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나들이이란 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녀자를 그래 승철군이 계속 껴안고있겠다구 할것갈소? 그러지 않아도 그의 주변에는 뜻을 같이하며

일생을 함께 하자고 하는 처녀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면서 그는 승자연한 자세로 권고하듯 말했다.

《연주씨, 모래우에 세운 성곽은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다 해도 무의미한거란 말이요. 그러니 당신들의 사랑도 소꿉시절의 각시놀이에 지나지 않는거요.》

연주는 경멸에 찬 눈길로 그를 쏘아보았다.

《건어치워요. 당신이 아무리 뭐라구 해두 난 승철씨를 믿어요!》

성삼은 쓰겁게 입을 다셨다. 그리고는 입귀를 찡그리며 조소를 보내듯 쓴웃음을 지었다.

《정,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어디 제눈으로 확인해보오. 고집이 결코 현실을 바꿀수는 없을테니까.》

입술을 깨물며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연주는 그길로 인천행렬차에 올랐다. 모든것을 제눈으로 확인하고싶었다.

한편으로 보면 성삼의 말을 무턱대고 부정할수도 없었다. 서로 다른 인생관으로 하여 벌써 몇번이나 승철이와 다투었다. 그것이 결렬이라는 만회할수 없는 결실을 가져올수도 있었다. 그러나 승철을 믿고싶었다. …

조승철의 은신처는 사람들의 눈길이 덜 미치는 방죽길이 끝나는 곳에 있었다. 주변은 소택지와 갈숲으로 이루어져 피신처로 삼기에는 그저 그만이었다.

갈대들이 무성한 한복판에 고기잡이꾼들이 림시로 지어놓은 오두막이 있었다. 집앞에는 고기그물들이 걸려있었다.

평화롭게 마당에서 뛰놀던 갈게들이 불청객의 발자국소리에 재빨리 갈대사이와 구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오두막에 다가가니 인기척이 느껴졌다.

연주는 주인을 찾을가 하다가 그만두었다. 성삼의 말을 빌린다면 바로 여기서 조승철이가 한 처녀와 동거살이를 한다고 했다. 더이상 찾을 필요가 없을것같았다.

나무판자로 만든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연주는 성대가 굵은 승철의 중음을 제격 가려들을수 있었다. 허나 물먹은 목소리의 입자는 분명 젊은 녀자의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니?!...

리성삼의 말이 되살아나 귀전에서 맴돌았다. 온몸의 숨털이 금시 고슴도치가시로 되어버리는것같다.

조심스럽게 부엌과 방안사이의 출입구를 가리운 군용모포를 제끼던 연주는 대리석조각처럼 굳어졌다.

처녀의 체취가 한껏 어린 방안의 벽면에는 승철과 처녀의 옷이 걸려있었다.

잔등을 돌려댄 승철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녀자의 입가에 미음을 떠넣어주고있었다. 그야말로 한쌍의 다정한 연인을 방불케 했다.

사실이였구나!

등골로 찬 기운이 스치면서 몸에서 모든 힘이 순간에 빠져버렸다. 가까스로 자신을 지탱하며 연주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경순씨, 마지막술가락이니 마저 드오. 그래야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게 아니요.》

처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있었다.

《승철씨, 정말 고마워요. 난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세상을 하직하구말았을거예요.》

조승철은 손수건으로 처녀의 눈을 닦아주며 빙그레 웃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밤이 새면 새날이 밝아오기마련이요. 그러니 우리 이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기요.》

경순은 가슴속의 설음을 터치며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승철씨!—》

연주는 드디어 리성의 뜻을 허물어버렸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같은 것은 귀에 들려오지도 않았다. 참을수 없는 수치와 모욕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지금껏 자기가 속히워 살아왔다는 생각에 속에서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울분을 한바탕 쏟고싶었으나 욕설은 목구멍에서만 맴돌았다. 대신 새파래진 입술은 파들파들 떨리고있었다.

더이상 자신을 지탱하기 힘들어 그는 《흑!—》 하고 흐느끼며 문을 뚫하니 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했다. 이때까지 한 사내의 감미로운 언사에 속혀왔다는 후회가 온몸을 칭칭 휘감았다.

그러니 지금껏 그가 웨치던 말들은 다 허위였던 말인가! 아, 정녕 나의

진정이 저 사람한테는 한푼의 가치도 없는 녹거리였던 말인가. 사내들의 사랑이란 동전의 양면이나 같다더니!...

《연주!—》

언제 달려나왔는지 승철이가 앞을 막아섰다.

연주는 그가 너무도 생소한 사람처럼 여겨졌다. 자기의 깨끗한 순정의 침탈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발을 꼭 앵다물고 노려보던 그는 승철의 귀썹을 후려갈겼다.

《위선자!...》

연주는 어안이 빙빙해있는 그를 밀치며 앞으로 걸어갔다.

승철은 너무도 뜻밖의 봉변앞에 억이 막혔다. 이 순간 무슨 말로 그를 달래야 할지 아무 궁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해하지 마오. 사실은...》

연주는 다시 앞을 막아서는 그를 오연한 기상으로 쏘아봤다.

《사실이구 구실이구 난 그따위 변명은 듣고싶지 않아요. 그러구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 당신의 연주는 더이상 없다는것을 말이에요.》

랭랭한 기색으로 그 녀자는 갈숲으로 난 길을 따라 달려갔다.

《연주, 가지 말구 내 말을 좀 듣소.》

등뒤에서는 승철의 절절한 목소리가 따라서고있었다.

이때 언제 나타났는지 서영민이 그의 팔을 잡았다.

《승철군, 야단났네.》

얼굴색이 거뭇게 죽은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더듬듯 말을 이었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지금 경찰들이 여기로 오고있네. 그러니 경순씨를 데리고 빨리 몸을 피해야겠네.》

승철은 그의 말을 스쳐보내며 연주가 사라지는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연주가 지금...》

서영민은 한순간 뻔했다. 얼굴을 싸쥐고 방죽길로 뛰어가는 연주와 낯색이 거뭇게 질린 승철을 보면 그들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있는게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정황이 너무도 긴박한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길쪽에서 경찰들의 호각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이제 당장 이곳에 들이닥칠 판이었다.

《난 그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선 몸부터 피신해야 하네.》

허나 승철은 여전히 박힌 못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연주는 오늘 일을 쉽게 리해하려 하지 않을거네.》

영민은 너무도 속상하여 그의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었다.

《그럼 어찌겠다는건가?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경순씨를 생각해야 할 게 아닌가!》

그제서야 승철은 찬물벼락을 뒤집어쓴듯 정신을 버쩍 차렸다.

그래, 경순씨마저 경찰에 잡히면!...

이제는 경찰들의 고함소리를 가려들을 정도였다.

속이 새까매진 영민은 승철의 팔을 무작정 잡아끌었다.

《자, 내가 저 갈숲너머에 매생이를 대놓았으니 그걸 타구 빠지자구. 어서...》

드디어 제정신을 차린 승철은 방안으로 들어가 경순이를 안고 갈밭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이 사라진쪽으로 여러명의 경찰들이 허둥지둥 따라서고있었다. ...

연주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발길이 닿는대로 내쳐 걷기만 했다.

지금 그에게는 옛시절의 달콤하고도 즐거운 감정은 조금도 없고 열물을 마신것같은 고통뿐이다. 승철에 대한 원망은 독사처럼 그의 심장을 물어뜯으며 참기 어려운 아픔에 시달리게 하였다. 인생의 희열과 랑만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독과 절망이 자리를 정하고있다. 강한 혐오와 충격이 부풀어오르는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지금껏 품고있던 애뜻한 감정은 서서히 증발하고있었다.

어떻게 바다가로 달려왔는지 알수 없다.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된 미래에 대한 꿈을 실어오던 어제날의 파도는 사나운 역풍으로 변해 부두가를 세차게 후려갈기고있었다.

그 녀자는 품속에서 한장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인생의 설계도우에 한 페이지로 기록될 그날, 이 인천앞바다우에서의 행복상을 화폭으로 새긴 사진이다.

크나큰 행복앞에 수집음도 잊고 밝게 웃는 처녀와 그를 꼭 껴안은 름름한 사나이의 모습.

사진을 들여다보는 연주는 입술을 실그려뜨리며 쓰겁게 웃었다. 이어 그의 손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지는 쏘박들이 가랑잎처럼 흩날리며 수면 위에 떨어지고있었다.

얼어든 눈망울로 그것을 내려다보며 그 녀자는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연주!...》

결으로 다가선 리선미가 조용히 불렀지만 그는 아무런 응대도 없었다.

측량할수 없는 절망적인 기색이 연주의 얼굴에 절통과 비애로 새겨져있었다. 슬프게 숙어진 이마와 눈으로부터 약간 홍조를 띤 두볼우에 흘러내리다 마른 눈물자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표정은 마치 《나에겐 사랑이란 없다!》고 선언하는듯하였다.

22

...언제 떠올랐는지 모를 그믐달이 밤하늘에 비스듬히 걸려있었다. 밤마다 스스로의 몸을 조금씩조금씩 깎아내고있는 달빛은 민망스러울 정도로 흐렸다. 빛은 어둠을 제대로 사르지 못했고 어둠은 달빛을 마음대로 물리치지 못하고있다. 서로 반반씩 뒤섞여 묶은 안개가 자욱히 퍼진것같은 미명을 만들어내고있었다.

아슴푸레한 속으로 갈밭이 아득히 뻗어있었다. 바다기슭을 따라 이어진 방죽우의 길은 희끄무레하니 뻗어있다. 그 끝머리에 포구마을이 잠들고있었다. 그 너머 들녘이나 염전도 짙은 어둠에 가리워 형체조차 보이지 않았다.

끼룩, 끼룩...

문득 기러기떼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파문을 일구었다. 제법 대형을 이루며 동쪽으로 날아가고있었다.

포구마을갈살에서 날아오른 모양이다. 어느 사냥군의 위험을 피해서인지 아니면 밤고기사냥군들의 노젓는 소리에 놀라 다급히 피난길에 올랐는지도 모른다.

청맑고 투명한 기러기떼의 음향이 울리는 속에 어디선가 터벅거리는 발길질소리가 잡음처럼 울린다.

땅바닥을 칠칠 끄는듯한 걸음소리는 방죽길우에서 들려오고있었다.

비칠걸음으로 한동안 걸어오던 처녀는 장막이 질게 드리운 바다가를 절망적으로 바라보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화염처럼 이글거리는 태양을 바라보며 환희에 찬 일을 그려보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상반되는 막막한 구름발이 온몸을 휘감고있다.

아무 감각도 없었다. 분노도 없고 증오도 없고 자기에 대한 가련함도 없었다. 대뇌는 절대적인 공허감으로 몽롱해지고말았다. 정서는 이미 얼음점으로 떨어져있었다.

《와아-》

갈숲의 설레임과 함께 습하고 찬 공기가 얼굴을 확 덮쳐들었다.

그 녀자는 드디어 용단을 내린듯 바다쪽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한걸음, 두걸음...

그는 갑자기 자기의 몸이 허공에 뜨는감을 느끼며 인차 《침병!-》 하는 소리를 들었다. 차거운 바다물로 하여 숨이 가슴속에 매달리는듯싶더니 이어 목구멍이 킁 막혔다.

물은 목언저리에 이르고있었다. 처녀는 살속을 파고드는 추위를 참으며 한치두치 용단이 배인 걸음을 내짚었다.

방풍림처럼 막아선 갈대들을 헤치며 물속을 걸어가면 갈수록 숨쉬기가 더 힘들었다. 팔다리는 점점 마비되는듯했고 찼물은 입술언저리에서 찰랑거린다. 밀려드는 물결이 얼굴에 부딪칠 때마다 찻찻한 물이 목구멍으로 튀어들었다.

이 모든것은 이미 각오한것이였다. 허나 직접 당하고보니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번민과 고통속에 몸부림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는것이 옳은 처사라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조금만 더...

순간적으로 온몸이 바닥에 빨려들어가는듯한감을 느꼈다.

이어 수면우에는 무성한 갈대만이 보일뿐 처녀의 모습은 머리칼 한오리 찾아볼수 없었다.

《연주, 연주야!-》

서서히 자취를 드러내는 방죽길을 따라 한 처녀가 뛰어오고있었다.

그 녀자는 갈대들이 넘실거리는 바다쪽을 바라보며 두손을 모아 입에

대고 소리친다.

《너 어디 있니?—》

허나 파도소리와 갈숲의 설레임만이 그의 목소리에 화답하고있었다.
불길한 예감으로 어두워진 표정에는 불안감과 초조감이 질게 서려있었다.

어데로 갔을가? 혹시!...

그 녀자는 물안개를 걷어차며 큼직큼직한 걸음을 내디뎠다.

얼마쯤 뛰어가다가는 다시 《연주야!—》 하고 소리쳐부른다. 그러다가 또 귀를 강구며 주변의 잡음을 음미해보기도 한다.

앞쪽에서 물을 헤가르는 소리가 났다. 큼직한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수면을 치는 소리인듯싶었다.

가만히 음미해보니 분명 사람이 헤엄치는 소리였다.

처녀는 바람방향을 가늠하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아닌 게 아니라 갈대들이 움직이더니 방죽우로 기여오르는 검은 형체가 보였다.

그는 주저없이 그쪽으로 달렸다. 물에 흠뻑 젖은 연주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있었다.

잠시 멈춰서서 반가움과 야속함을 한데 어울려 의혹의 실타래를 엮던 선미는 성큼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너 이게 무슨짓이야? 그래 넌, 네가 홀몸이 아니라는걸 잊었니, 잊었는가 말이야?》

멀뚱한 시선으로 선미를 바라보던 연주는 와락 그의 품에 안겼다.

《선미야!...》

그래, 난 죽을수 없는 몸이다. 또 죽어서는 안돼.

김연주는 죽음의 몇초를 앞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렸다.

너는 왜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가? 오늘의 불행은 네스스로 가져온것이 아니냐.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는지나, 누구를?...

태아의 질척은 피줄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들었으며 뇌리를 세차게 두드렸다.

눈물로 선미의 어깨를 적시던 그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피기 한점 없이 질려있었고 어느새 가는 피발이 저서 우묵하게 꺼져들어간 눈에서는 푸른 린광 같은것이 번쩍일뿐 눈물은 없었다.

《뭐라구? 내가 죽는다구!... 내가 왜 죽는단 말이야, 왜?...》

얼퍼름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던 선미가 어깨를 잡아흔들었다.

《너 왜 그러니? 정신차려라. 응...》

연주는 그를 쏘아보더니 확 밀어버렸다.

《난,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구 꼭 복수할테야!》

연주는 비칠걸음으로 방죽길을 따라 걸어갔다. 바다물을 실컷 빨아들인 옷은 피부에 딱 달라붙었다. 아닌게 아니라 몇걸음 못가서 폴짝 주저앉으며 랑손으로 몸을 감쌌다. 거뭇게 색이 죽은 입술과 온몸은 한데 어울려 파들파들 떨고있었다.

리선미는 제 코트를 벗어 그에게 씌워주었다.

《어서 가자. 이러다간 독감에 걸리겠다. 자 어서...》

방금전과 달리 연주는 그를 순한 양처럼 따랐다. 얼굴에는 눈물인지 바다물인지 알수 없는것이 흘러내리고있었다. ...

청량리역근방에 있는 2층짜리 개인병원의 가리운 창문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집주인부부가 운영하는 자그마한 병원이었는데 웃층은 살림방이고 아래층은 치료실로 리용되고있다. 치료실이라야 낡은 침대 하나와 청진기와 혈압계를 비롯한 치료도구들이 놓인 책상과 약장뿐이다. 장안에는 극상해야 침통과 주사기통 그리고 대장병과 소화장애때 쓰는 흔해빠진 약들이 듬성듬성 놓여있다.

복도의 너비는 겨우 1.5미터정도였는데 긴 나무의자가 놓여있어 다니기가 몹시 불편했다. 웃층과 아래층, 마당을 련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복도에는 초조한 눈길로 치료실을 들여다보는 두 녀인이 앉아있었다. 값진 옷을 입고 보석목걸이를 걸친것으로 보아 집살림이 여유있는 사람들이라는게 알렸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항상 걱정이라는 그림자가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법이다. 이들은 결혼한지 십년이 되여오도록 아이가 없는 녀자들이였다. 시부모들과 남편에게 죄스러움을 안고 사는 그들이다. 그런 연고로 방구석에 박혀있으면서도 밖에서 나도는 풍설에 귀가 넓어 어디에서 사생아들이 태어난다는 소식만을 잘 걸어들이군 한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미혼의 녀성들이 남자들과 관계하여 낳은 아이

들을 마구 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루밤 자고나면 이런 소식들이 자식없는 녀인들의 귀구멍을 간지럽히곤 한다. 그렇다고 아무 아이나 섣뚱 데려올수도 없는노릇이다.

이들은 임신한 처녀들이 찾는 개인병원의 의사들과 미리 선통하여 해산하려는 녀자가 어떤 부류인가를 알아보곤 한다. 이를테면 사내들에게 몸을 파는 녀자인가, 인물이 고운가. ...

두 녀인은 오늘 인물잡고 대학공부를 하는 처녀가 해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새날이 밝아오도록 때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가 딸을 낳을지 사내애를 낳을지는 하느님이나 알 일이다.

《우리 시부모들은 아들이라면 영 질색이라니까요.》

얼굴이 오이씨처럼 갱끗한 녀인이 하는 말이었다.

옆에 있던 녀인이 머리를 끄덕이며 심드렁한 어조로 말했다.

《그 집은 우리하군 판판이군요. 우리 집에선 사내애든 처녀애든 관계없이 데려오라구 하더군요.》

치료실에서는 해산의 진통을 참는 산모의 신음소리가 간간이 흘러나왔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지르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녀의사의 부드러운 소리가 울린다.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산모의 아츠러운 비명소리가 더 발작적으로 들려온다.

녀인들은 마치 그 진통을 자기들이 겪기라도 하듯 온몸을 떨었다. 하긴 여직 나이 서른이 넘도록 아이낳이를 해보지 못한 이 녀성들이 그런 아픔을 느껴보았을리는 만무한것이다.

해산의 진통은 산모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것이다. 그러나 이 시각은 녀성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제일 어려운 순간이지만 최대의 행복을 맛보는 때이기도 하다. 어머니로 되는 순간인것이다.

안에서는 산모의 비명소리가 계속 울리었다.

맑고 쉿쉿한 처녀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연주, 조금만 참아라. 응...》라며 산모를 달래는 목소리는 절절하면서도 깊은 동정으로 젖어있었다.

드디어 《으앙!-》 하는 새 생명의 고고성이 복도에까지 흘러나왔다.

두 녀인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며 문가로 다가섰다.

한참후에 문이 열리더니 녀의사가 나왔다. 얼굴엔 피로가 한껏 어렸으나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이 비껴있었다. 순산이라는 현실이 가져다준 감정이였다.

《사내애예요!》

너인들의 눈길은 치료실안으로 쏠렸다.

침대우에는 모포를 반쯤 가리운 산모가 실신한듯이 누워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처녀가 어린 생명을 하얀 천에 감싸안고 연주에게 보여주고있다.

《이것 봐, 남자애야. 꼭 널 닮은것같기도 하구 또...》

리선미는 무엇인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러면서 어린애의 볼에 입술을 가져다댔다.

두 너인은 의사를 따라 옆방으로 갔다.

《그런데 저 처녀가 아이를 순순히 내놓을가요?》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를 받아가겠다던 너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이다.

《글쎄?...》

너의사는 소독수에 손을 씻고는 위생복을 벗었다.

옆에 서있던 너인은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며 탄식조로 말하였다.

《에이, 난 잠을 밀지면서 괜히 기다렸어. 그러니 거기서 저 처녀와 잘 의논해봐요. 산모를 보니 방탕한 여자같진 않군요.》

《그렇긴 한데, 본인의 의향이 어떨는지...》

《아유, 걱정두 팔자다. 아무렴, 체네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것같아요. 그러지 말구 잘 설복해보라니까요.》

하지만 너인은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의사만 바라보았다. 그가 산모를 설복시켰으면 하는 눈치였다.

의사는 의자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방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한참 지나서야 의사가 눈을 가볍게 뜨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상태에서 그런 말은 산모의 건강을 해칠뿐이에요. 그러니 그와 함께 온 처녀에게 먼저 물어보는데 좋을것같아요. 산모가 이미전에 어떤 결심을 했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너인은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어요!》

선미는 너인을 노려보며 두부모자르듯 단호하게 내쏘았다.

당황해난것은 의사였다. 아이를 얻을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조건하에서 이미 선돈을 받았던것이다. 그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인차 남에게 줄 것이라고 타산한것이다. 그런데 본인한테 말도 비쳐보기 전에 그의 동행자가 요지부동으로 나오는것이다. 일이 이쯤되면 뒤일은 불보듯 뻔했다.

너인은 선미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봐요. 체네의 몸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운다구 그래요? 옆사람들의 눈총과 험담은 또 어떻게 받구... 내가 친자식처럼 키울테니 좀 잘 말해 줘요.》

선미는 그의 손을 획 뿌리쳤다. 쌍까풀진 두눈에는 물기가 번뜩이었다. 이어 그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 불쌍한 연주야... 어쩌면 세월은 이다지도 너를 괴롭히는거냐.》

그의 흐느낌소리는 방안의 서늘한 공기를 더욱 질게 해주었다.

옆에 서있는 너인과 의사는 몹시 당황해하였다.

잠시후 눈물을 닦고난 선미는 그들에게 돌아섰다.

얼굴은 언제 눈물을 흘렸던가싶었다. 오히려 단호하고 굳은 결심을 품은듯 표정은 자못 엄숙했다. 입술은 고집스레 다물어졌고 볼우물이 패여 있었으며 두눈에서는 정기가 흘러나오고있었다.

《안돼요. 저애는 비록 사생아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남한테는 절대로 줄수가 없어요. 산모가 키우기 어렵다면 내가 키우겠어요. 맞갖지 않으면 제 친자식도 걸레짝처럼 내버리는 이 사회에서는 누구도 믿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자기 말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리선미는 방을 나와 치료실로 들어섰다.

침대에 누워 아기를 들여다보던 연주가 애써 미소를 띠우며 그를 맞이했다.

《선미야, 정말 고마워!》

《넌 별소리 다 하는구나.》

연주는 옆에 앉은 선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내 한가지 부탁해두 일없겠니?》

《원 참 애두, 오늘은 별스럽게 노누나. 뭔지 어서 말해.》

선미는 아기의 볼을 살짝 건드렸다.

《요 귀염둥이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뭘들 못하겠니.》

연주는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 아주머닐 나한테 데려다줄수 없겠니?》

선미는 깜짝 놀랐다. 모든 일을 알고있는게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아
닌보살하였다.

《그 아주머니라는건?...》

《내 다 들었다. 그러니 판전을 부리지 말구 어서 그를 데려다줘.》

선미의 낯색은 새파랗게 변했다.

《난 그 부탁만은 들어주지 못하겠다. 넌 지금 무서운 생각을 하구있
어.》

《선미, 너야 누구보다 내 심정을 잘 알지 않니. 그러니 제발 나를 도
와주렴.》

김연주는 애원하듯 간청했다.

선미는 더이상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돌아앉았다.

《아니, 난 모르겠다. 네가 어쩌면 제 자식을 남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는지... 그래,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복수라구 생각하니. 그건 네스스
로가 자신을 해치는 행위란 말이야. 또 승철씨는 너를 버리고 다른 처녀
에게 마음을 줄 그런 남자가 아니야.》

연주는 괴롭게 한숨을 내그었다.

《물론 나두 너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리선미는 머리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아니, 넌 지금 무서운 오해를 하고있어. 그리고 난 너의 이번 부탁
만은 절대로 들어주지 못하겠다.》

그는 단호하게 잘라매며 몸을 돌렸다.

이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섰다.

구원자를 만난듯 연주는 그에게 얼굴을 돌렸다.

《의사선생님, 그 여인을 저한테 데려다주세요.》

뜻밖의 말에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었던 모양이다.

《저의 아기를 그 아주머니에게...》

연주가 재차 말해서야 의사는 이해가 되는듯 엉거주춤했다.

《그럼?!...》

《아니, 안돼!...》

야무진 목청과 함께 선미가 문밖으로 나서려는 의사의 앞을 막아섰다.

《선미야, 넌 상관말아! 이젠 내 일이니 더 빠치지 말아.》

선미는 아연한 표정으로 굳어졌다.

이윽고 녀인이 치료실에 들어섰다.

김연주는 그에게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이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주머니가 이애를...》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그의 말에는 자그마한 잔향도 없었다.

녀인의 얼굴에는 기쁨과 불안이 엇갈렸다.

옆에 서있던 리선미가 연주의 앞을 막아섰다.

《너 무슨 말을 하는거야?》

《넌 참견말라구 하지 않니. 내 일은 내가 처리할테니 상관말아.》

연주의 눈망울에서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날카로운 빛이 뿜어져나왔다. 무엇이랴도 금시 태워버릴듯 무섭게 이글거리고있었다. 마치 정상사고를 벗어난 인간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그러한것이였다.

녀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녀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작 연주가 자기 아이를 내놓겠다고 나서니 어떤 립장을 취해야 할지 몰랐다. 더우기 이 산모의 눈빛과 행동으로 보아 무엇이랴고 표현할수 없는 고충과 아픔을 안고있는게 분명했다.

연주는 다시한번 녀인에게 간청하듯 말했다.

《아주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저를 대신해서 이애의 친어머니가 되주세요. 그러면 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리선미는 입술을 깨물며 연주를 쏘아보기만 했다.

네가 어쩌면 이렇게 변할수 있니!

녀인은 산모의 손을 꼭 잡았다.

《이것 보세요. 저두 인정이 영 없는 녀자는 아니랍니다. 그러니 이애를 친자식처럼 여기고 잘 키우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김연주는 강보에 싸인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갓 떨어져나온 피덩이를 영원히 기억하려는듯 그는 한참동안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토양에

떨어진 새싹에 불과한 존재였다. 태어나서부터 불우한 운명을 세레받아야 하는 불쌍한 생명체였다.

정작 품에서 제살불이를 떼여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가에서는 피눈물이 피어올랐다. 그렇지만 그것을 애써 감당해내야만 하는 그였다. 언제든지 오늘의 이 아픔을 웃으며 추억할 날이 있을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날을 위해서 이 피로운 순간을 이겨내야만 하는것이다.

아가야, 이 엄마를 부디 용서해다오. 난 너에게 아버지없는 설움은 절대로 줄수 없구나.

자기 운명을 두고 어떤 도박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어린 생명은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참고참았던 오열이 피어오르는것을 느낀 연주는 얼굴을 베개에 묻었다. 도저히 참을수 없는 애절하고 서글픈 눈물이 샘줄기처럼 흘러나왔다.

리선미는 그를 달랠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면부지를 대하듯 랭담한 기색으로 서있었다.

《난 네가 승철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망녕된짓은 하지 않을거라구 봐.》

그의 말에 연주는 역증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사람 말은 이제 입밖에도 꺼내지 말아. 난 결코 녹거리인정에 몸을 팔아 그의 씨나 받아주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선미의 눈동자는 반쯤 커졌다. 연주의 입에서 이런 험한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것이다.

《그럼, 하나 묻자. 그날 왜 역전에서 승철씨에게 임신했다는걸 터놓구 말하지 못했니? 그러면 그가 생각을 돌릴수도 있지 않는가 말이다.》

연주는 차거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실소했다.

《뭐-어, 그가 돌아선다구?!》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싸늘하게 식어든 목소리로 말했다.

《나두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경순이라는 처녀는 어떻게 봐야 하니?... 난, 옷갈아입듯 여자들을 갈아대는 그런 남자들을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야. 그러구 나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치 않는다. 난, 한번 배반당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미련도 다시 품지 않는 여자란 말이야.》

랭돌바닥같이 온몸이 식어든 그는 씹어뻗듯 말했다.

선미는 등골로 찬물줄기가 흘러내리는것같았다.

《그게 네 진심이니?》

연주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대꾸했다.

《그래, 난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구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서지 않을거구.》

리선미는 자기앞에 전혀 딴 사람이 있는것만같았다. 너무도 낮이 설었다.

《이제 보니 넌 정말 무서운 녀자였구나. 난 네 가슴에 이렇게까지 차거운 얼음덩이가 들어있는줄은 몰랐다!》

한마디한마디가 쇠망치로 정수리를 내려치는것같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아, 사람이 이다지도 고독해질수 있을까. 이 세상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구나!

김연주는 눈물로 범벅이된 얼굴을 쳐들었다. 온몸은 미이라처럼 굳어지고있었다. 그 누구의 동정도 도움도 용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였다.

23

김연주는 지금 몇시간째 록화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선미가 넘겨준 CD판들이었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환희를 안고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한나산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진행된 대화와 협상, 기념축제와 행사들을 수록한것이였다.

그중에서도 평양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서 울리던 시구절이 그의 이목을 끌었다.

이 세상 이 하늘아래 오직 단 하나의 갈라진 땅
갈라진 아리랑민족이 있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세월에 백발이 된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조차 알아볼길 없고

헤어진 아들이 젖을 먹여 키워준
어머니마저 몰라보게 된 이 비극의 땅

예로부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떼같이 갈라져
남남이 되어가는 이 땅
세계의 량심이어 대답해보라
외세가 가져다준 이 비극으로 하여
우리 아리랑민족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라져 살아야 하는가

구절구절들을 음미해보노라니 왜서인지 마음이 쓸쓸해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 열었다. 시원하게 불어드는 바람이 그의 상반신을 확 덮쳤다. 하지만 마음속의 번거로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어제 선미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조승철의 의로운 행동이 정말 《리적행위》라면 자기도 그 형벌을 달게 받겠다고 자처했다. 일시적인 충동이나 흥분으로 오는것이 아닐것이다.

물론 조승철의 선택은 그의 주장대로 민족과 겨레를 위한 길일수도 있다. 방금 저 화면들이 보여주듯 하나의 언어, 하나의 피줄을 나눈 사람들의 만남은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목표로 달리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 않는가. 꼭 그렇게 《보안법》의 철퇴를 요구해야만 하는가. 이걸 그야말로 우직스러운 황소가 헛뿔질해대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무슨 일이나 힘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떠나 미래를 볼수 없는것처럼 여러가지의 경험들을 참작하여 선택을 옳게 해야 한다. 아무리 정의로운 길이라고 해도 방법이 그릇된것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법행위로밖에는 달리 될수 없는것이다. 지금 그 사람은 자기의 정의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장기철이 들어섰다.

그의 낫색에는 랭기가 흐르고있었다.

연주는 짐작되는 점이 있었으나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철은 첫마디에서부터 볼멘 소리로 내쏘았다.

《안녕치 못하오.》

분명 재판을 늦잡는데 대한 불만에서부터 오는 감정일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원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알을 희번득거렸다.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집이 센줄은 몰랐구만!》

《이건 고집이 아니라 본분을 다하는 길입니다.》

너서기가 커피잔을 담은 다반을 들고 들어서는통에 그들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다.

장기철은 몹시 화가 동한듯 커피에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다. 서기가 문을 닫고 나서자 그는 다시 기름진 얼굴에 먹구름을 실으며 푸르락거리기 시작했다.

《본분이라는것도 다 현 <정권>의 리익에 부합되어야 하는거요. 그때, 당신은 이번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모른단 말이요? 믿어주고 내세워주면 보답이 따라야 할게 아니요. 지금 국민들속에서는 조승철의 공판을 늦잡는데 대해 항의가 대단하오. 오늘만 해도 수백명이나 자기의 견해를 인터넷에 피력했소. 이렇게 되면 장차 당신한테 리로울게 없지 않소!》

《원장님, 그러나 록화물을 제시한 증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서는...》

기철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참 답답하구만! 당신두 판사로 살아온 몸인데 아직도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고 설명해줘야 하겠소.》

그는 답답한듯 커피를 한모금 마시고나서 말을 이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에서도 매우 관심하는거란 말이요. 당신을 원장후임으로 추천한 내 립장두 생각해야 할게 아니요. 이불깃을 보구 발을 퍼랬다구 지금 자기가 어떤 저울대우에 올라섰는가를 자각할줄도 알아야지!》

기철의 강박에 실린 무게를 가늠할수록 연주는 파분하기 그지없었다.

《원장님, 그렇다구 재판절차를 어길수야 없지 않습니까? 더우기 판결에서 오유를 범한다면 사람들이 장차 우리 법원을 두고 뭐라구 하겠습니까?》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두려워하는 농군이란 없소. 료리사가 어떤 료리든지 만들수 있는것처럼 법도 때로는 료리를 할줄 알아야 하는거요!》

김연주의 두눈은 화등잔만해졌다.

《그럼?!...》

장기철은 자기의 실언을 느낀듯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인차 넉넉한 웃음을 띠웠다.

《하긴 아무래두 알게 될 일을 더 숨길 필요야 없지. <종북>세력들을 숙청하지 않는다면 장차 이 사회가 적색화되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요. 그래서 청와대의 어르신도 수단과 방법을 다해 친북세력들을 숙청하구있는게 아니겠소.》

《그러니 우리 법원이 오로지 현 <정권>의 야심을 실현하는 도구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철은 딱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글쎄, 꼭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는 <종북>숙청이 초미의 문제요. <보안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며 나중에는 그것의 철폐를 주장하는 그들을 그냥 놔둔다면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यो. 하나의 적색마당으로 변할게 아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구 바로 우리 법관들이 있는게 아니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연주에게 다가왔다. 목소리는 전에없이 부드러웠다.

《난 당신이 모든것을 리성적으로 대하고 선택하길 바라요.》

《원장님, 하지만 법이 자기의 사명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허, 법이란 항상 정치에 복종되어왔소!》

연주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한개 법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로골적으로 나올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사람들속에서 《보안법》에 대한 불신이 어느때없이 높아진 오늘날에 와서...

이런 생각은 그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그 어떤 인물들의 꼭두각시가 되는듯한감이 들게 하였다.

만일 원장의 말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의문점들이 배태되어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주는 자기의 속생각을 숨기고싶지 않았다.

《원장님, 그러니 <간첩>혐의는?…》

장기철은 어색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허, 당신은 내 말을 잘못 이해하는것같구만. <국정원>에서는 조승철의 <간첩>혐의에 대해 정확히 증언할수 있는 증인을 가지고있소. 때문에 난 당신이 이 재판을 더이상 지체시키지 않았으면 하오.》

연주는 온몸에서 기운이 쏙 빠진듯한 감정이였다. 자기가 꼭 그 어떤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는것같은감이 들었다. 《종북》사건이 터질것같다던 류정의 말이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마?…

연주는 그 사냥터가 이번 재판이라고 단정하고싶지는 않았다.

장기철이 방에서 나갔지만 연주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어떤 사고와 의식도 없이 머리가 텅 비어있는듯했다. 아직까지 원장이 한 말의 진의도를 파악할수 없었다. 개인적인 화풀이에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범우에 또 다른 법을 제창하는 사람들의 말인지…

생각 같아서는 이제라도 재판을 포기하고싶었다. 아무리 명예가 중하다해도 이번 일을 통해서 그 어떤 정치적리득을 얻으려는자들의 하수인으로는 되고싶지 않았다.

한참후에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의 스위치를 넣었다. 자기의 결심을 확정하기 전에 원장이 말하던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싶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상에는 각이한 글들이 떠올랐다. 여당과 야당들에 대한 제나름식의 견해와 판단이 수록되였다.

선거와 관련한 글에는 그닥 흥심이 없던 연주는 《<종북빨갱이> 조승철의 재판은 어째서 지연되는가?》라는 제목에 눈길을 주었다.

정말 백여명의 사람들이 조승철의 재판에 대한 제 견해들을 밝혔다.

《한시바빠 <빨갱이>의 정체를 발가놓아야 하지 않나요.》

《과연 누가 재판장인가. 혹시 <종북>인물이 아닌지?》

《법의 칼날이 이제 다 몽드러졌나? 그럼 내가 날을 좀 세워줄까요.》

원장의 말은 결코 헛소리가 아니였다. 이번 재판이 조련치 않을것같았다. 여야가 다같이 관심을 두는 사건이다. 벌써부터 인터넷가 저렇게

끊고있으니 앞으로 진보와 보수간의 대결로 변할수 있었다.

그 모든 중압이 장차 자기의 어깨에 실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켜 막히는듯싶었다.

조승철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있는지 몰랐다. 원장의 말이나 인터넷가입자들의 여론을 놓고보면 단순히 《보안법》위반에 대한 재판으로만 볼수 없었다.

가닥없이 밀려드는 불안과 초조감에 그는 마음을 종잡을수가 없었다. 방금전에 생각한것처럼 도중에 재판을 포기하자니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만일 이것이 그 어떤 정치적음모를 안은 재판이라면 어찌랴 하는 위구심이 들었다.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방안을 오락가락하는 그의 사색을 전화종소리가 깨웠다.

상대방은 다름아닌 원영준이었다.

《아저씨, 그새 건강하셨어요?》

구원의 손길이라도 만난듯 연주의 목소리는 활기가 넘쳤다.

수화기에서는 듣기 좋은 중음의 원영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 별일이 없다. 그런데 네가 요새 몹시 바쁜게로구나. 전화 한 통 없으니 말이다.》

그의 질책에 연주는 긴 한숨을 내그었다.

《아저씨, 난 이번 재판이 이렇게까지 힘든줄은 몰랐어요.》

《그래?!... 하긴 너야 그런 재판에선 초학도나 다름없지. 그러니 어떻게 떡덕듯 쉽게 되겠느냐. 하지만 네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니? 공정한 판사로, 또 그 어떤 색깔에 물들지 않은 너만이 옳은 판결로 이 사회의 <법치주의>를 증명할수 있다.》

《그렇게 믿어주니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왜 그런지 이번 일이 꼭...》

연주는 자기의 속생각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허, 그새 네 신경이 썩 예민해진것같구나. 하긴 누구나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처음 나서면 다 그런 법이지.》

언제나와 같이 리해력이 넓은 원영준다운 소리였다.

《정말 그럴가요?》

《사람이 한가지 일에만 너무 몰두있으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거다. 참, 그런데 요즘 수일이가 집에 오느냐?》

느닷없이 흘러나오는 동생소리에 연주는 긴장되었다.

《머칠전에 한번...》

수화기에서는 상대방의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뇌리를 치는 불길한 예감에 연주는 다급히 물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혹시 그애가?...》

원영준의 어조는 침통한 무게에 실린듯하였다.

《글쎄, 아직 정확한것은 모르겠지만 그한테 일이 좀 생긴것같다.》

연주는 금시 심장이 멎어버리는듯했다. 이미전에 의심했던 일이 화면으로 펼쳐질것만같아 두려웠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해주세요.》

《뭐 다르게 아니구 수일이가 네가 맡은 사건에 연관되어있는것같더라.》

《아니 그럼 피소자와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연주는 전기에 감전되기라도 한듯 흠칫 놀랐다.

《너무 략심하진 말아. 아직 검찰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걸 봐선 증거가 부족한것같은데...》

《아저씨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수 없을가요?》

《물론 그래야지. 현대 이건 내 사적용무이니 로골적으로 알아볼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좀 시간이 걸릴것같다.》

김연주는 순간적으로 조승철에 대한 기소문을 되새겨보았다. 물론 그곳에는 동생 수일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그렇다면?...

단지 원영준의 말이 거짓이기만을 빌었다. 허나 지금껏 수일이가 한 행동을 보면 부정보다 긍정에 무게가 더 실렸다.

《아저씨, 어쩌면 좋을가요?》

《너무 상심하지 말아. 어쨌든 네가 재판장이니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인다. 만일 일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대로 흐르지 않는다면 네 단계에서 동생문제를 처리할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일이에 대해서는 내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비록 송수화기를 놓았지만 연주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수일이가 이 사건의 런루자라면 그를 자기가 공판해야만 했다. 포기할 생각조차 할수 없게 된다. 그럴수록 그는 자기가 이번 재판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것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

때이른 퇴근길에 올랐으나 장마당같이 복잡한 머리속은 연주를 지극히 괴롭혔다. 번열로 하여 속이 답답하고 트직해났다. 어디 가서 시원한 뽕수라도 한사발 들이키고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지하철도안의 회박한 공기와 소음은 그의 고통을 더해주고있었다.

연주는 더 참지 못하고 전동차에서 내려 지상으로 나왔다. 대기의 공기를 한껏 들이키다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목적지는 집이었는데 몸은 지금 을지로역밖에 있지 않는가. 이제 집으로 가자면 다시 지하철도를 리용해야만 했다.

망연한 기색으로 잠시 숨을 돌리던 연주는 문득 치미는 생각에 눈길을 돌렸다. 이왕 여기까지 왔던김에 답답한 숨길도 열겹 맥주를 마시고픈 충동이 떠오른것이다.

작년 여름 류정의 손에 끌려 이곳 을지로골목에 있는 맥주집에 들렀던 기억이 났다.

골목에 위치한 맥주집을 중심으로 술한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비좁은 길가에 식탁과 의자를 내놓고 맥주를 봉사하고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곳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조성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었다.

남이야 어떻든 제 돈주머니를 불구는데 능먹은 주인이 구청과 굵직한 돈줄을 이어놓았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면 돌부처도 웃게 하는 곳이라 법과 규정이나 주민들의 편의 같은것은 안중에 있을리 만무했다.

어쨌든 모여온 사람들은 그런것은 상관없다는듯 시원한 맥주로 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있었다.

김연주도 한쪽구석의 빈 의자에 앉아 맥주를 청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오늘 오전 의사가 한 말이 되살아난것이다.

《판사님,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 해도 주류는 좀 삼가해주십시오. 치료를 시작한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차도도 없지 않습니까? 판사님처럼 그렇게 제 몸을 홀시하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참지 못한다면 어떻게 병이 낫겠나요.》

그는 민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나서 다시 강조했다.

《인후염을 빨리 고칠 생각이 정말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술과 맥주

같은것은 당분간만이라도 멀리해주세요!》

연주는 의사의 충고를 되새기며 맥주대신 시원한 청량음료를 청했다. 이
왕 자리에 앉은 이상 그냥 일어선다는것도 멋적은 일이었다.

설마 청량음료나 한고뿌 마신다구 상처가 더해질가?

지금껏 지속해온 고질적인 습관은 또다시 그의 결심을 헛클어놓
았다.

주위사람들은 다들 한잔씩 들이킨 상태라 얼굴색들이 맥주와 동일
해서 소란스럽게 범석거리고있다. 아마 목청겨루기에 나온듯한 기분들
이다.

얇은 숨을 들이키고나서 쓸쓸하게 음료를 마시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꿀목길을 덮쳤다. 그통에 바닥에 있던 먼지들과 오물들이 손님들을 고스
란히 덮었다.

여기저기서 신경질과 짜증섞인 목소리들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한순간이다.

방금전의 불만이 언제이런가싶이 다시금 웃고 떠들며 꿀목이 떠나갈듯
고아대고있었다.

저도 모르는 수치감에 연주는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언제부터 자기가
이렇게 천박스러운 곳에서 먼지섞인 음료를 축내는 존재로 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실소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녀자는 창피한 생각이 들어 주변을 살피보았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자기의 이런 물골을 보면 어찌랴 하는 위구심에서였다. 그러다 우연히 방
금 꿀목으로 들어서는 한 중년남자한테서 시선을 멈췄다.

검은색안경에 중절모를 쓰고 까만 연회색양복을 걸친 사나이였다. 차림
새로 보아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같았다. 그런데 행동거지는 너무 대조적
이다. 꼭 삼복철의 호박잎처럼 폭 치진 모습이다.

선뜻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관절없는 사람처럼 터벌터벌 걷는
게 꼭 눈에 익은 걸음새이다. 옆모습은 물론 뒤모양새를 보니 영악없는
수일이였다.

혹시나하는 생각에 다시 여겨봤지만 틀림없었다.

어떻게 여기로 왔을가? 지나가다가 맥주생각이 나서 온게 아닐가? 그런
데 얼굴은 왜 저렇게 가리웠을가?

가뜩이나 동생에 대해 의문점이 많은 찰나에 그의 이상쩍은 행동을 보

니 신경이 팽팽해졌다.

그는 손을 들어 수일을 찾으려다 그만두었다. 대신 퇴색된 그림을 보는것만같아 슬그머니 속이 저러났다. 선입견은 놀랄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직감으로 작용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절망감이 느껴졌다.

김수일은 반대편구석에 있는 식탁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맥주 한고뿌를 단숨에 들이켰다. 속이 어지간하게 달았던 모양이다.

안주 같은것은 보지도 않고 구겨진 팩에서 담배를 꺼냈다. 긴 한숨과 함께 담배연기를 내뿜는 그의 기색은 몹시 창백해보였다. 이따금 물건을 훑치려는 도적처럼 주위사람들을 힐끔힐끔 훑쳐보는 눈초리조차 몹시 날카로웠다. 꼭 무슨 시달림에 쫓기우는것같은감을 준다. 어느모로 보나 삶의 보폭과 생기를 잃은 방랑객을 방불케 한다.

연주는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원영준의 권고도 있고 해서 오늘은 모든걸 속시원히 따지고싶었다.

결심을 품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그 녀자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수일에게 한사람이 다가왔는데 그는 다름아닌 리성삼이었다.

연주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검사가 동생을 만난다는 그자체가 두려운일이였다.

야릇하게 밀려드는 의문을 안고 연주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머리속엔 오만가지 생각이 거미줄처럼 엉켜돌아갔다.

저 사람이 왜 수일을 만나는걸까? 만일 조승철의 재판과 관련되어있는게 아닐까?

못먹을것을 먹은것처럼 속이 깨름했다. 그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확실히 수일은 성삼에게 덤미를 잡힌 꼴이였다.

늘쌍 그러하듯 리성삼은 음흉한 웃음발을 날리며 동생에게 맥주를 권하고 잔등을 두드려준다 하며 시살스럽게 놀아댔다.

그럴수록 수일은 바늘에 찔리우기라도 하듯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저애가 혹시 검찰이 그토록 드러내놓기 싫어하는 증인이 아닐까?...

가슴을 겨누 예리한 칼을 보는것같은 섬찳한 짐작에 소름이 끼쳤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수일은 승철의 유죄를 증명할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다.

생활은 상상밖의 일을 꺼안고 흐른다. 어제날의 벗이 원수로 되는 때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문제점을 이렇게 놓고 이어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럴 확률이 높았다.

최근 동생의 언행을 보면 잘 알수 있었다. 수입에 맞지 않는 지출과 부유한 생활, 여느때없이 시르죽은 기색으로 재판에 대해 캐묻고 한사코 재판장으로 나서는것을 막아나서던 그였다. 레사롭게 스쳐보낼수 없는 일들이다.

수일이가 자기 리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공안당국과 협조해나선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유약한 동생을 보게 될줄은 몰랐다.

아니, 그럴수 없어. 저애는 제가 하는 일을 두고 얼마나 활기에 차있었던가.

물론 연주는 이미전부터 동생이 그 어떤 단체나 운동에 가담하는것을 반대해왔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일한 가훈이기도 했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동생이 미국에서 추방되어온 후 어떤 단체에 말려드는것을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수일은 어느 시민단체에 몸을 담그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향하는 리상과 목적이 있는것이라 더이상 말리지 못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삼의 손아귀에서 동생을 구원하고싶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가 없이 경거망동한것을 할수 없었다.

이윽고 리성삼은 수일에게 심중한 기색으로 몇마디 하고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생도 마지못해 그를 따라섰다.

확실히 뭔가 코에 껴인듯한 표정이다.

김연주는 그들이 떠난 후 식탁에서 일어나 지하철도역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머리속에는 온통 동생에 대한 의문만이 가득차있었다.

자정이 거의 되어서야 기차는 강릉역을 출발하였다.

승객들은 자리를 잡은지 얼마 안되어 벌써 잠을 청하고있었다.

리선미는 발바닥으로부터 오는 진통을 참느라 입술을 웅다물었다. 진종일 수습리길을 걸은 그의 발바닥은 두꺼비잔등처럼 물집천지였다. 강릉역에서 교아원으로, 교아원에서 산골마을로, 또 그곳에서 역으로 분주히 걸었다. 몇년전 조승철과 함께 윤기옥을 만나려고 오던 때와는 달랐다.

지칠대로 지친 몸을 열차에 실으니 온몸에서는 기운이 쑥 빠져버리는 듯했다.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코고는 소리가 귀를 자극했다.

허나 리선미는 머리속에서 맴도는 생각으로 정신을 흐릴수 없었다.

검은 천을 씌워놓은것같은 차창으로 한 청년의 얼굴이 비껴온다.

그럼 지금껏 그애를 윤기옥녀인이 키웠단 말인가?!

《오래전에 잃은 어린애의 행처를 찾겠다구 예까지 왔단 말이우?!》

늙은 녀인은 아래목에서 겨우 허리를 펴며 물었다.

선미는 박명희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터놓았다.

《수십년전의 일이구만?!...》

늙은이는 말라든 배처럼 쭈글쭈글한 이마살을 잔뜩 찌프렸다.

《그때는 내가 교아원의 원장을 하던 시절이었네. 그러니 그렇게 들어온 애들을 내가 모를리는 없겠는데...》

뭔가 생각에 잠긴듯하던 그는 다시 물었다.

《이자 포단에 이름을 쓴 종이장을 끼워놨다구 했던가?》

《예, 경진이라구...》

한가닥의 희망을 실은 선미는 어린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경진이, 경진이란 말이지?!...》

이름을 되뇌이던 늙은 녀인의 주름발이 차츰 펴지기 시작했다.

《그래, 그런 애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 사내녀석이었는데 어찌나 별쨌던지... 몇번이나 제 엄마를 찾겠다구 교아원을 뛰쳐나갔는지 모르네.

그래서 벌을 많이도 받았지.》

《그럼, 그애의 행처를 아시겠군요?!》

한가닥의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는데 선미는 제격 되물었다.
늙은이는 말라버린 무우같은 목을 꿈틀거리며 침을 삼켰다.

《난, 그후 그녀석을 단 한번밖엔 보지 못했네.》

선미는 속에 무엇인가 철렁 내려앉는것같았다.

《그게 언제입니까?》

목이 마른지 늙은이는 방바닥에 놓인 그릇을 쳐들고 물을 꿀꺽꿀꺽 마셨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입술을 닦았다.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구 인사하러 왔더구만. 얼마나 의젓하게 자랐던지...》

《그러니 그애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살았는가요?》

선미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다우쳐물었다.

《그렇게 됐네. 하느님이 그녀석한테 친어머니를 보내주셨지.》

리선미는 도무지 리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경진에게 친어머니가 찾아올수 있단 말인가?

《그게 아마 그애가 열살을 넘긴 겨울이었던것같네. 어느날 내 나이쯤 돼보이는 녀인이 그녀석의 손목을 잡고 나타났네. 자기가 그애를 맡아 키우겠다구 하면서...》

선미는 그제서야 의문이 차츰 풀리는듯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다구 말할수 있지!》

조급한 마음은 선미로 하여금 침착성을 잃게 했다.

《혹시 그 녀인의 주소를 아직 기억하구계십니까?》

《기억하구말구가 있나. 바로 저 뒤산을 넘어 사오리쫓 되는 곳에 있는 산골마을에서 살던 녀자였네. 그곳엔 살기가 척박해서 주민수도 그리 많지 않았지.》

선미는 정기어린 두눈을 한벌 더 크게 폈다. 그가 지금 말하는 마을은 한해전까지 조승철을 따라 몇번 찾아간적이 있던 곳이다.

《그렇다면 혹시 이름이 윤기옥이라구 하지 않던가요?》

선미는 속에 짊이는바가 있어 직접 들이댔다.

늙은 녀인도 시누런 이발을 드러내보이며 《임자가 어떻게 그를 알구

있나?》 하고 물었다.

《예,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그때 그들이 윤기옥을 찾아갔을 때 그 녀자는 다 허물어져가는 오막살이같은 집에서 홀로 살고있었다. 본인자신도 다른 사람 이야기는 일체 입에 올리지 않았었다.

리선미는 그길로 윤기옥이가 살던 마을을 찾아갔다. 동네 늙은이들을 통해서 알아본데 의하면 모든게 사실이었다. 아들인지 제자인지 알수 없는 아이를 키워 대학에 보냈다는것이다. 이름은 윤경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한다는것이였다.

윤경진!...

꼭 어디선가 들은적이 있었다.

강릉역으로 걸어나오면서 지나간 날들을 더듬던 그는 뇌리를 치는 생각에 걸음을 멈추었다.

조승철이 구속되던 날 차집에서 만났던 젊은 기자의 생각이 난것이다.

그때 승철은 그를 소개하면서 윤기옥의 시신을 안장한 청년이라며 몹시 미더워하는 눈치였다.

물론 경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둘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그가 윤기옥의 마지막길을 배워주었다면 분명 그 경진일것이다.

아, 정말 그 기자가 내가 지금껏 찾던 그애라면?...

흐리터분하던 날씨는 그대로 별빛 한점 없는 검은 장막을 드리워놓았다. 가물가물 창가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이 간신히 생명의 존재를 알리고있다. 눈뿌리를 찌르던 네온등의 광채는 어둠을 밀어내느라 가쁜숨을 몰아쉬고있다.

창밖을 내다보는 원영준의 입가에서는 맥빠진 한숨이 가늘게 새어나왔다. 쇠진해가는 자기의 육신이 그 빛들에 어린것만같았다.

그는 사람들을 불려놓은것도 잊은듯 담배 두대를 거쳐 피웠다. 그러나 마음속의 불안은 샘줄기와도 같았다.

허, 이젠 나두 늙었는가?!...

김연주가 재판준비를 여느때없이 오래동안 지속하는게 깨렷했다. 물론 공판전까지는 아직 일정한 시일이 남아있다.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그가 기소장에서 의문점들을 발견한것같다고들

한다. 그렇다고 그에게 물어볼수도 없는노릇이다.

이번 재판에서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차장은 어제도 재삼 강조했다. 그의 조급한 요구는 집권여당에 밀려드는 비구름을 막을 방패를 세울 심산에서 오는것이였다.

수많은 진보단체들은 이해 정초부터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를 사대매국《정권》을 심판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사를 로골적으로 표명해나섰다.

전 지역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반《정부》기운은 로환으로 혈떡거리는 원영준의 심장을 옥죄이고있었다.

지금 이 땅에서 통일열망이 높아간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였다. 리념과 주장, 주의를 놓고 서로 반목과 질시를 하던 각 당파, 단체들이 서로 뭉쳐지고있었다.

하다면 그 리념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다! 이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 《남한》사회에서 보수세력의 존재는 영영 지워지게 된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될수는 없다. 어떻게 하든 이번 재판을 통해 친북세력들에게 타격을 주어야 한다. 설사 그것이 호수가에 던진 작은 돌이라 해도 전반적인 민심에 큰 파동으로 번져지게 해야 한다.

원영준은 이 재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종북》숙청으로 몸과 마음에 주름발이 잡혀온 그였다. 공안계통을 거쳐 정보분야에로의 인생길은 그만큼 순탄치 않았다.

이 사회에서 권력에로 가는 길은 깨끗치 못하다. 금전과 안면, 아부와 아침의 계단들로 이루어졌다. 지어는 타인들의 주검과 피로 쌓아지기도 했다.

그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말아나선것은 그대로의 타산이 있어서였다.

요즘 젊은것들은 흔히 은퇴나이가 지난 사람들을 다 늙은 소처럼 여긴다. 특히 자기와 같이 일흔을 넘겼지만 집의 아래목이 아니라 국장자리에 계속 틀고앉아있으니 누가 곱다고 하겠는가. 빨리 젊은것들에게 넘겨주거나 할것이지 하면서...

하지만 사람의 심리란 참으로 이상하다. 눈치는 뻔하면서 선뜻 자리를 내놓고싶지 않았다. 육체가 쇠퇴해질수록 더욱 왕성해지는것은 권력의

식인것같다.

그런데로부터 제가 쌓은 《공적》들을 들추어 몸무게를 올려보려 했지만 객관은 코웃음으로 날려버린다. 어제날에는 비록 큰 보습을 끌었어도 오늘날엔 작은 후치날도 제대로 끌지 못할 비루먹은 소처럼 취급한다. 정보사업은 육체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교훈으로 이루어지는 두뇌전임에도 불구하고...

영준은 잔뜩 걸멋이 들어 물건너가는 개처럼 대가리를 뺏뺏이 쳐드는 것들에게 본때를 보이고싶었다.

마침 몇달전 청와대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종북》사건을 조작할 데 대한 비밀지령을 《국정원》에 하달하였다.

영준은 속으로 패재를 올리며 자진해나섰다. 오래동안 전문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라 책임자로 자칭한 그였다. 머리속에는 이미 사건의 주인공과 줄거리가 완성되어있었다. 그만큼 그의 피부는 물론 인체의 모든 세포들은 음모와 모살에 숙달되어있었다.

조승철!...

이 인물을 사건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비록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언제 자기의 뒀잔등에 화살을 날릴지 모르는 시한탄같은 존재이다.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오래동안 쌓아온 공적이 한순간에 동네개들이 물고뜯다 버린 엉마자루신세가 될 수 있었다.

요즘은 수십년전의 일이 자주 되살아나며 식은땀으로 등골을 적시곤 한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은 지금은 악몽으로 바뀌어 잠자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때의 선택으로 하여 오늘의 원영준이 있는것이다.

헌데 몇해전부터 조승철이 그 사건의 내막을 조사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때에야 비로소 원영준은 얼음구멍에서 나온듯 정신을 번쩍 차렸다. 결코 향락에 취해서 오늘이 좋다 하고 노래가락이나 부를 때가 아니였다.

그는 측근들을 내세워 비밀리에 조승철을 조사하게 하였다. 신발에 들어간 가시같은 존재를 한시바빠 제거해야만 했다.

들어온 소식에 영준은 패재를 올렸다.

조승철은 친북경향이 강한 인물로 진보단체와 통일인사들에 대한 재판

에서 그들을 적극 변호한다고 한다. 또한 《보안법》의 폐지와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며 민족이 하나로 되자면 북의 통일방안을 인정해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보수단체들에서는 이미 그를 《친북인명사전》에 올릴 인물로 선정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흐름을 리용하여 그를 《용공분자》로 만들어 이번 사건의 희생물로 만들 결심을 한 것이다. 한개의 돌로 두마리의 새를 잡자는 계략이었다.

그런데 얼음판에 박밀듯하던 일은 김연주의 손에 넘어간 후 지체되고 있었다.

물론 다른 일은 없겠지만 왜 그런지 속이 개운치 않았다.

내가 그애를 재판장으로 내정한게 실수였는가? 아니, 십년공사가 그렇게 쉽게 헛공사로 될수야 없지!...

그는 이번 사건을 설계하면서부터 이미 연주를 지목하고있었다. 그를 자기 일에 가담시킨다면 앞으로 그가 키워준 은혜를 모른다고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타산한 것이다.

그런데 생뚱같이 검사인 리성삼이 그를 재판장으로 내세웠으면 하는 의향을 내비쳤다. 그야말로 가려운 잔등을 긁어주는 기특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노리는 목적은 달랐지만 공통된 답을 찾았다는것이 기뻐다. 그래서 아닌보살하며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헌데 연주가 재판준비를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할줄은 몰랐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신세가 될가봐 두려웠다.

속에서 봄싹처럼 내미는 불안을 감지하며 그는 늙은 자라목처럼 주름이 골깊은 목대를 꿈틀거렸다. 그리고나서 누구에게라 없이 뜨직뜨직한 어조로 그루박았다.

《오늘날의 무지한 국민들이라는건 평화통일이라는 꿈에서 깨나지 못하고있소. 솔직히 말해서 현 <정권>이 집권해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통일단체들을 비롯한 진보세력들과 해봤소? 하지만 민심은 여전히 북의 통일정책에 눈길을 돌리고있단 말이요.》

늦은저녁 급작스레 이곳에 불리워온 장기철과 리성삼은 늙은이의 흐려진 심기를 긴장해서 바라보고있었다.

이들은 한시간전에 주위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하며 여기 원영준의 뒤꼍 방에 20분간격으로 도착했다. 이 비밀회합이 언론계나 어느 민주단체의 귀에 들어갔다가는 저들이 공들여 만드는 《음식》에 난데없는 양재물벼락이 떨어질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들의 머리속에 지배하고있는 복에 대한 동경심을 제거하는데서 이번 재판은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있소. 문제는 우리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놓친것이 없겠는가 하는거요.》

약삭바른 리성삼은 두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두려운 생각이 앞섰던 것이다. 자기보다 직급상 높은 사람들이라 이번 공판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이 자기 정수리에 떨어질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따분한 정숙이 못마땅한듯 원영준은 생기침을 해댔다.

《리검사, 당신이야 이 사건에 처음부터 관여했는데 어디 말 좀 해보오. 그래, 판사가 재판준비과정에 발견할수 있는 허점들이 뭇것갈소?》

그의 심각해진 표정을 읽고있던 성삼은 주뿔주뿔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어물어물거리며 입을 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였다. 그 추궁은 혹독한 대가를 요구할것이다.

이 순간 그의 두뇌는 팽이처럼 돌아갔다. 잘못은 남에게, 성과는 자기에게로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그는 시원스럽게 입을 열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지내 로파심에 빠져있지 않는가 하는겁니다.》

《로파심!... 리유는?...》

성삼은 기름바른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재판준비라는건 어디까지나 재판장이 기소장에 기록된 피소자의 범죄사건과 또 증인진술, 물증들의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는 자기 말에 대한 장기철의 태도를 훑쳐보듯 슬쩍 흘려보았다.

《때문에 그 문제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구 봅니다. 더우기 우리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은 어디까지나 <국정원>에서 내려보낸 자료들에 철저히 의거한것들입니다.》

리성삼은 마지막말마디에 력점을 주었다.

원영준은 불쾌했다. 그는 선감을 씹은듯 꿀살을 찌프리며 성삼을 노려봤다.

《그러니 당신은 후날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우리 <국정원>이 져야 한다는거겠소?!》

정곡을 찢리우자 성삼은 헛식은 웃음을 지었다.

《국장님, 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기소장에 제시된 피소자의 범행과 증인들의 진술, 물증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는것을 재확인하려고 했을뿐입니다.》

영준의 꾀꾀한 눈살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래, 당신은 우리가 넘겨준 자료에 전적으로 의거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연주판사의 재판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거요. 담당검사인 당신이 사건수사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다면 말이요.》

리성삼은 목을 움츠리고말았다. 령감의 예민한 반응이 두려웠다. 그는 자기에게 날아올 화살을 미리 예견하고 시초부터 그것을 되돌려세울 준비를 하고있었다. 더이상 었나갔다가는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리는 격이 될수 있었다.

《저-어, 그건...》

영준은 듣기 싫은듯 손가락으로 귀구멍을 쑤시며 잘라냈다.

《당신은 언제 봐야 뭐든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아니거던... 이젠 막 역스럼구만!》

멀시조로 말하고난 그는 제 생각에만 움해있는 장기철에게 눈길을 돌렸다.

《원장님은 왜 말씀이 없습니까? 혹시...》

장기철은 너부죽한 얼굴에 어둑어둑한 그늘을 몰아오더니 황소숨을 내그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연주부장판사한테 준비기일을 앞당기라구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두 아시다싶이 그 녀자의 고집이야 어디...》

《허허... 그러니 원장님두 이젠 제 부하를 다스리기 힘들어지셨다는 말씀이군요?!》

비양조가 어린 영준의 말에 장기철은 손사래를 저었다.

《국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자는것은 그 녀자가 기소장에서 일련의 부족점을 발견한것만은 사실이라는겁니다.》

바빠난것은 리성삼이었다. 그의 두눈은 벌써 덩들해지고있었다. 의혹과 불안이 한데 어울려 낯색은 질려가고있다.

《아니 원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린 구체적인 수사에 립각해서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또 피소자는 물론 증인들을 직접 만나...》

얼굴에 피를 모으며 증언부언하는 그에게 영준은 꾸짖듯 말했다.

《당신은 좀 가만있소. 다르게 없다면서 뭇때문에 그리 안달아하는거요?》

그는 계속 이야기하라는듯 장기철에게 눈길을 돌렸다.

기철은 성삼을 힐끔 쏘아보고나서 입을 열었다.

《다 아시다싶이 저는 광주지방법원에서부터 그 녀자와 오래동안 일해서 그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지요. 그는 자그마한 빈틈이라도 보이면 마지막까지 파고드는 성미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의 방에 들어가니 책상위에 놓인 종이장에는 피소자의 <리적표현물취득죄>라는 문구에 의문부호가 여러개 그려져있었습니다. 이걸 그가 서대문구에 있는 인터넷서점주인을 만나보는 과정에 이상한것을 발견하였다는걸 증명해주고있습니다.》

《인터넷서점주인?!...》

원영준은 수수지집짝같은 표정을 한 성삼에게 눈길을 던졌다.

《리검사, 그 사람두 이번 재판에 나설 증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피소자는 그곳 서점의 인터넷을 리용하여 복의 서적들과 접촉했습니다. 증인도 그에 대해서는 진술했습니다.》

원영준은 손으로 이마를 쓸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도고하고 고집스러운 연주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는 거적눈을 스프르 감았다.

역시!...

《원장님, 계속하십시오.》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한 장기철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는 피소자의 <간첩>혐의로 제시한 록화물을 내놓은 증인을 만날것을 제기하군 합니다. 그 증인은 재판과정에서나 만날수 있는 특별한 인물이라구 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난 그는 원영준의 안색을 살피며 속삭이듯 말했다.

《국장님, 전 우리가 재판장을 잘못 선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쏘파에 몸을 묻은 원영준은 미간을 찌프렸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불통그러진 소리로 내쏘았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릴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려던 기본문제는 바로 이거요! 기소장이나 재판과정에 나타날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대책을 세우자는거란 말이요.》

그는 성삼에게 눈길을 돌렸다.

《보오, 기소장의 허물은 첫시작부터 판사에게 걸려들었소. 그러면 한 뉘 법전문가로서 술한 재판에서 <종북>인사들을 변호해온 피소자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것같소?》

그의 질문에 성삼은 고개를 떨구었다. 늙은이의 속셈이 짐작되었다.

《시작이 불패하면 끝도 불패한 법이요. 난 리검사가 남북통일실천연합을 <종북>단체로 몰아붙일 때처럼 불미스러운 재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오!》

《국장님의 의도를 알만합니다. 제가 확실히...》

성삼은 성근하게 잘못을 받아들이며 뒤덜미를 쓸었다. 확실히 늙은 여우가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기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깔려있었다.

《국장님, 그건 그렇다쳐두 증인문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증거물인 록화물자료가 있으니 그것을 제출한 증인이야 꼭 있기마련인데...》

《원장님, 그건 너무 걱정마십시오. 이미 차장님과 합의를 봤습니다.》

영준은 이 일로 하여 오늘 출근하는 길로 차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었다.

차장은 처음부터 끝살을 찌프리며 못마땅해하였다.

《그러니 그 증인이란 다름아닌 우리 <알파팀>에 소속된 성원이라는 거요?》

차거운 시선을 느끼며 영준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미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러니 원국장은?!...》

그제서야 차장은 이마살을 펴며 반색하였다.

영준은 포만한 자세를 취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재판의 전 과정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이미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차장은 손사래질로 만류했다.

《아니 팬찮소. 그러구 나두 그 계획에는 찬성이요. 단지 아쉬운것이 있다면 꼭 <알파팀>의 성원이라는게… 당신두 알다싶이 우리가 그것을 꾸리느라구 오죽이나 품을 들였소.》

《차장님,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고기 한두마리가 없다구 양어장이 없어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을 한참 음미해보던 차장은 희색이 만면했다.

《하긴 사냥개야 짐승을 잡자구 필요하지!…》

25

점심부터 내리던 비는 저녁무렵에 이르러 바람과 합세하여 더 영악을 부렸다. 하수도들은 물을 삼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해버렸다. 그통에 도로는 온통 구정물천지였다. 불합리한 오수망체계의 후과였다.

택시는 어지러운 흙탕물을 헤치며 달리고있었다. 비물들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경진은 스산하기 그지없는 바깥세계와는 무관한듯 의자에 기댄채 깊은 상념에 잠겨있었다.

지금 그의 머리속에는 며칠동안 인터넷망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비구름처럼 떠돌고있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가로챈 박정희는 자기한테로 날아오는 민심의 화살을 돌릴 방도를 고안해냈다. 그것이 바로 《북으로부터의 위협》이었다. 그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을 총동원하여 남조선에서 《북파간첩사건》들을 조작해내는 방법으로 정치적위기에서 탈출해보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1961년 7월에 《반공법》이라는 파썸악법을 제정하였다.

중앙정보부는 《정보의 독점과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 및 규제 등 국내

외정치에서 실질적인 비밀경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기관은 감시, 미행, 도청, 우편물검열 등 갖은 수단과 방법들을 다 리용하였다. 일반민중의 불만과 억압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저항을 진압하는데 공권력을 총발동시켰다.

이들은 시국관련수배자의 추적을 리유로 대학생들을 체포하여 가족뒤조사, 구속, 고문위협 등으로 압박하여 저들의 끄나불로 활동할것을 강요하였다. 특히 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련행하여 군복을 입히고 며칠동안 공포분위기속에서 강압조사하고 석방한 후 공공연히 미행하며 협박하였다. 가혹한 고문으로 언제나 죽음의 공포를 공기처럼 들이켜야 했던 대학생들은 악마의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허위고발을 하기 시작했다. 제 목숨을 위해 대학의 교수들과 선생들을 마구 주어섬기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무고한 지식인들이 《간첩》이라는 루명을 쓰고 철창속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윤경진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웅다물었다. 물론 그때의 상황에 대해 여러번 들어왔지만 이렇게까지 협박할줄은 몰랐다.

통일을 갈망하였다는 죄 아닌 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재의 희생물이 되었는가.

오늘도 이 땅에는 원한에 찬 그들의 피절은 절규가 흐르고있지 않는가. 윤기옥선생님도 수기에서 흥녀자대학교에서 교원을 하던중 영문모를 《불온서적》으로 하여 파쑈악법의 희생물로 되었다고 썼다.

《윤기옥간첩사건》의 내막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어떤 방법으로 꾸며진 모략인가 하는 료판이 어렵듯이 안겨왔다.

어제 아침 신문사에 출근하니 명필이가 다짜고짜로 자기 방으로 잡아끌었다.

영문을 모르고 따라 들어가니 그는 마치 꿈을 잡은 포수같았다.

《허, 임자 어제 밤에 좋은 꿈이라두 꼰 모양이구만.》

《그렇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생시일세.》

《그럼 뭇지 어서 말하게. 남의 간을 말리지 말구.》

경진이가 재촉하자 명필은 서랍에서 한통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어제 통영에서 우리 친구들이 보내온걸세.》

편지에는 청년통일실천협회 성원들이 1960년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중 한 처녀대학생을 탐문하게 되었다고 적혀있었다.

리유는 그의 집에 할아버지가 쓴 참회록이 있다는것이다. 그 로인으로 말하면 중앙정보부가 갓 조직되었을 때부터 서울지부에서 요원으로 활동한 사람이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말 안기부에서 쫓겨나 고향에 내려왔다.

그는 인생말년까지 집식구들 몰래 자기가 한 행위들을 참회하는 글을 쓰다가 몇해전에 사망했다.

《그래, 어쩐가? 난 그 참회록을 손에 넣으면 윤기옥선생님의 <간첩>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힐 실마리를 쫓을 수 있다구 생각되네.》

명필은 여전히 자기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심중한 기색으로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던 경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참회록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네. 군사독재<정권>하에서 감행된 음모와 모살행위들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게 하는데 큰 작용을 할게 아닌가.》

《그래서 내 그곳 친구들에게 한시바삐 그걸 손에 넣으라구 말했네. 이젠 시간문제이거던.》

윤경진은 김연주를 만나는 일을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온 윤기옥을 다시 《사회안전법》으로 재수감하였으니 이전 사건기록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있을것만같았다. ...

《젊은이, 이젠 더이상 못가겠네.》

운전사의 목소리에 경진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차창을 내리고 밖을 보던 그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여긴 동자동이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어찌겠나. 오늘같은 날씨에 이런 차로는 쪽방촌까지 갈수 없다는거야 임자두 잘 알겠는데?!...》

변덕스러운 날씨를 저주하듯 하늘을 피뚝 올려다보고난 경진은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다.

동자동은 남대문과 영등포의 쪽방촌,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과 더불어 서울바닥에서 제일 최하층 주민들이 거주하고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콩나물시루처럼 째없이 들어박힌 토벽집들은 코깎에도 홀 날아가 버릴것같았다. 여느때도 그렇지만 오늘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그야말로 살풍경이다.

경진은 단층주택이 비좁게 들어앉은 구역으로 접어들었다. 질러갈 심산이었는데 역시 예견했던 그대로 걸어가기가 몹시 불편했다.

골목길은 온통 물천지로 변했고 길바닥이 미끄러워 걷기조차 힘들었다. 게다가 키낮은 지붕우에 올려놓은 철판들과 스프레트기와들이 무질서하게 들쭉날쭉하여 우산을 높이 쳐들고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지와 구두는 이미 흙탕물을 포만하게 들이킨 상태였다.

단층집들은 쑥서놓은 벌둥지같았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천정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느라 총동원되었다. 저마다 문을 활 열어놓고 부엌바닥에서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에 여념이 없다.

경진이는 벌써 몇번씩이나 눈먼 물벼락을 맞았는지 모른다.

《여보, 이제라도 지붕우에 다시 올라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괜한짓이요. 아까 수리했는데두 갈구같은걸 보구려.》

《아버지, 내가 올라갈게요.》

《이녀석, 관둬라. 괜히 물먹은 기와를 더 깨버리거나 말구.》

《철판을 썩은 곳들만 골라서 뺏지요 뭐.》

《그거라구 뭐 온전하겠니. 이젠 녹이 쓸대로 쓸어서 사람발이 닿으면 더 큰 우환거리가 될게다. 게다가 전기줄까지 낮추 늘어졌는데 사고라도 치면 어떡할려구 그래?》

《에이, 오늘 밤은 또 잠을 다 잤구나!》

《별수 있니, 그릇이란 그릇들을 다 동원하는수밖엔!...》

심술이 고약한 자연조차 고된 로동에 지친 사람들의 잠자리를 겨냥하고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하루하루가 지겹기 그지없는데 당국에서는 또 그 《보금자리》마저 빼앗으려 하니 사람들에게는 악밖엔 남은것이 없다. 쪽방촌의 눈물겨운 참상이었다.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건만 세상은 사람들의 등급을 이미 구분해놓았다. 로동벌처럼 고지식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가난과 불행이 더 차례지는것이 바로 이 사회였다.

자그마한 권세를 가진자들은 그것을 빚대고 사람들의 등껍질을 벗기기에 성수가 났다. 그들은 평백성들을 제 집안의 결레짝보다 더 하찮게 여긴다. 앞에서는 억지웃음으로 로동의 근면성을 부르짖지만 저들은 폭신한 안락의자에 앉아 고급술이나 마시면서 재부축적에 눈이 시뻘개 있었다. 민생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다가도 일자리이니, 생활

개선이니 하면서 웨쳐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심을 낚기 위한 개나 말에 불과했다.

부익부와 빈익빈의 훌륭한 모델이 바로 이 사회라고 할수 있었다. 한강너머의 변화가에 세워진 우중충한 아파트들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탕진 한자들이 부귀와 안락, 사치의 세계에 빠져있을 때 백성들은 온전한 잠자리조차 없어 이밤도 지겨운 세상살이로 하여 피눈물을 퍼내고있었다.

윤경진의 집은 미로같은 골목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언덕 위에 있었다. 다닥다닥 허물들이 난 아파트의 우명한 창문들, 낡은 기와 장을 씌운 지붕위로 수십개의 전기선들이 열기설기 지나가고있다.

위장복처럼 얼룩덜룩한 건물에 이르러 잠시 숨을 고르고난 경진은 맨 옆에 있는 현관으로 들어섰다.

쪽방촌이라고 누가 이름을 달아놓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야말로 적중한 표현이었다. 건물들은 대체로 3층으로 되었는데 살림집들이 배좁게 들어앉았다. 매 층에는 복도를 마주하여 량면에 각각 5개의 방이 있었다. 가뜩이나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좁은 복도에 매 집에서 열어놓은 10개의 출입문으로 하여 그속을 지난다는것은 참으로 불편했다. 적중한 비유를 빌린다면 영낙없는 하모니카집이었다.

복도는 대낮에도 항상 먹통처럼 어두워있었다. 더워서 문을 열어놓은 집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의 도움이 없다면 손더듬을 해야 할 형편이다.

이제는 너무 익숙되었는지라 경진은 걸음짐작으로 자기 집을 찾을수 있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들고 문을 열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저절로 문이 열렸던것이다.

바삭 정신이 긴장해진 그는 잣은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방안에서는 한 째은 남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혹시 다른 집에 들어온게 아닐가?

경진은 본능적으로 집안을 살펴보았다. 모든 물건들은 다 자기의 손때가 묻은것들이었다. 그렇다면 방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젠 그 친구가 올 시간이 다됐습니다.》

목소리에 귀를 강구던 경진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분명 굵고 무게있는 중음소리는 귀익은 목소리였다.

윤경진은 인기척을 내며 방문을 열었다. 좁은 방에는 명필이가 한 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명필은 그를 보자 《자, 보십시오. 내가 온다구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녀인에게 말했다.

경진은 녀인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며칠전 조승철을 만나던 차집에서 본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니, 어떻게?...》

그의 눈가에는 반가움과 의혹이 짙게 서렸다.

리선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밤늦게 찾아와서 정말 안됐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루?...》

명필은 그의 의문을 풀어주듯 사연을 이야기했다.

《사실 이분은 오후내껏 자네를 만나겠다고 신문사에서 기다리고 있었네. 그런데 본인이 나타나야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모셔왔네.》

그제서야 경진은 마음의 탕개를 늦추었다.

《그럼, 전화라도 할것이지. 다리도 편히 펴수 없는 이런 방이 얼마나 불편하겠나.》

《손전화기로 연락을 하려 했지만 축전지가 다 방전된통에 그만...》

윤경진은 친구의 구실을 귀등으로 흘리고나서 선미에게 머리를 숙였다.

《제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내가 갑자기 왔으니 오히려 그쪽에서 더 따분할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습기가 있으니 이 방석을 깔고 앉으십시오.》

리선미는 그의 성의를 사양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길만은 경진의 얼굴에서 떼지 못했다.

지금 와서 보면 꼭 조승철의 젊은 시절을 보는것만같았다. 역실역실한 두눈과 날이 두드러진 코, 콧술콧술한 반고수머리는 신통히도 같았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앙다물린 입술은 영낙없는 연주의것이였다.

이 젊은이가 정말 그때의 그 어린것이라면...

찬찬히 바라보는 선미의 눈길에 경진은 저으기 어색해왔다.

《어서 차를 드십시오.》

방금 끓인듯 룯차가 든 차잔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있었다.

《고맙네.》

차를 한모금 마신 선미는 속에 웅쳐두고있던 생각을 터놓았다.

《사실 내가 임자를 만나려는건 자네가 윤기옥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심한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일세. 조승철변호사도 그날 충분한 자료를 넘겨주지 못해 몹시 미안해하더구만.》

《아닙니다. 변호사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 그런데 그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걱정어린 그의 어조에 선미는 긴 한숨을 내그었다.

《구치소가 집보다야 편할수 없지!》

수척해진 승철의 모색을 떠올리는 그의 기색은 어두워졌다.

그를 바라보는 경진의 마음도 좋지 않았다. 괜히 그의 아픈 곳을 찔렀다는 생각에 죄스러웠다.

《참, 그러지 않아도 저두 한번 만나보고싶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선미의 눈망울은 커졌다.

《날 말인가?》

《예, 전 그날 변호사선생님한테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경진은 좀 주뭇해하는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글쎄, 이걸 제 억측인지는 모르겠지만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속통이 시원스럽게 열린 경진을 대하는 선미는 기분이 좋았다.

《어서 말하라구.》

울대를 꿈틀거리며 침을 삼키고난 경진은 다시 말문을 열었다.

《그때 그분은 수십년전 자기가 윤기옥선생님을 변호하시던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장으로는 지금 XX지방법원에 있는 김연주부장판사가 나섰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선미는 긴장해졌다. 혹시 이 젊은이가 연주와 승철의 이전관계를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에서였다.

《그런데 그 일을 되새기는 변호사선생님의 안색은 몹시 흐려져있었습니다. 꼭 남한테 선뜻 꺼내고싶지 않은 과거사를 이야기하는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걸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전 왜 그런지 그들사이에는 이미전부터 서로 좋지 않은 마찰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선미는 그를 무안하다 할 정도로 바라봤다. 리지적으로 불타는 젊은이의 눈동자에서 뿔어나오는 빛은 자기의 속을 투시하는것만같았다. 첫인상부터 보통청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짐작 그대로였다.

이 젊은이가 정말 내가 여직껏 찾던 그 경진이라면 더이상 숨길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러나 만일?...

이윽고 선미는 신중한 기색을 지었다.

《물론 임자의 짐작이 틀리지 않을수도 있네. 하지만 내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한가지 물어봐도 일없겠나? 이를테면 오늘 내가 찾아온 목적이라구 할가...》

경진과 명필은 자못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젊은 호기심이 어린 경진의의 대답이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가?

한참 생각을 고르던 선미는 천천히 말꼭지를 뺐다.

《사실 난 어제 강릉에 있는 교아원에 다녀왔네. 오래전에 잃은 어린아이의 행처를 알아보려구...》

뜻밖에 강릉교아원소리가 나오자 경진은 저도 모르게 긴장해졌다.

《난 그곳에서 이전에 원장을 하던분을 만나봤네. 이젠 삶의 막바지에 서있는 늙은이지만 기억력은 참 좋더구만.》

《그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부지불식간 경진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였다.

선미는 그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자네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있나?》

《실은 저도 그곳 강릉교아원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답니다.》

선미는 자기가 면바로 찾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이었다.

《난, 그한테서 수십년전 어느날 저녁 교아원의 정문앞에 놓여있던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네. 둘도 채 되지 않은 아기를 감싼 포단에는 경진이라는 이름을 쓴 종이쪽지만 놓여있었다구 하더군. 그때부터 교아원에서 자란 그 불쌍한 운명을 어느해인가 한 녀인이 양자로 데려갔다고 했네.》

경진의 안면근육은 점점 굳어지고있었다. 어린시절의 아픈 추억이 지극히 괴롭히고있었다.

《그때 교아원에는 경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다섯명이나 있었답니다.》

리선미는 진지한 태도를 허물지 않았다.

《그렇다구 윤기옥이라는 녀성이 데려다 키운 윤경진이야 한사람이겠지?...》

《아니, 그럼?!...》

경진은 흠칫 놀랐다. 분명 자기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이 순간 선미의 온순한 얼굴에 비낀 홍조를 바라보는 경진이는 두려웠다.

그렇다면 이 녀인이 혹시?!...

그는 속에 뭔가 툭렁 떨어지는듯한감을 느꼈다. 이어 세찬 물결이 홍박을 세차게 후려치고있다.

아니, 그럴수 없다. 나한테는 부모가 없다. 있다면 오직 윤기옥, 그분 밖에는...

그렇다. 경진이는 나이 서른이 돼오도록 친부모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는 그들이 없다고 단정했다. 물론 어떤 녀성의 몸에서 태어난것은 틀림없으련만 자기를 버린 량친을 영원히 잊어버리기로 결심한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녀인의 출현은 지금껏 바위처럼 굳혀온 견해에 착암기를 들이대고있다.

그는 분명 보고있었다. 리선미에게는 찬란히 빛나는 금강석의 광채가 있었다. 그 빛은 거짓과 가식이 없는 맑은 두눈에서 내뿜는것이였다. 검은 가장자리에 에워싸인 고달픈듯하면서도 동시에 정열적인 눈은 진실한 빛을 담고있었다.

오직 윤기옥한테서만 느끼곤 하던 그런 감정이였다.

하다면 혹시 이 녀자가 나를 낳은 친어머니?!...

코마루가 시큰해지면서 속으로는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었다.

경진은 흥분되는 심정을 억제하였다. 선뜻 믿을수 없는 사실앞에 쉽게 마음을 열어놓을수 없었다.

진실은 어디까지나 수수께끼같은 안개속에 휩싸여있지 않는가.

《그럼 지금껏 저를 찾아 고생하신 리유는 뭘니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기대로 하여 가늘게 떨렸다.

오랜 세월 이 한순간만을 기다려온 선미였지만 현실은 꼭 꿈속에서 벌어지는것만같았다. 곁에 있는 경진이를 찾아 얼마나 먼길을 헤맸던가. 결코 하늘도 무심하지는 않았다.

선미는 경진에게 바투 다가왔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젊은이의 따스한 온기가 마음속에 쌓이고쌓였던 시름을 한순간에 녹여주고있었다. 눈앞은 이미 뿌옇게 흐려져있었다.

《경진아!-》

뜨거운 정과 사랑을 담아 부르고싶던 이름이었다. 허나 입안에서만 맴돌뿐 끝내 메아리로 울리지 못했다.

조승철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직 자기에게 자식이 있다는것조차 모르고있는 그였다. 이제 이렇듯 어엿하게 자란 아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어 얼음장같은 표정으로 찬서리를 내뿜던 연주가 눈에 보였다. 어린 아기를 남한테 넘겨주던 그의 뻥뻥스러운 행동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선미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그었다. 지금껏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란 경진에게 또다시 아픈 못을 박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렸다. 하지만 그는 응당 모든 사연을 알아야 하며 그럴 권리가 있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을 두드리다가 흘러내리는 비발속으로 두 련인이 남긴 비극사가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그 사연에 대해 말하자면 어차피 임자가 나한테 한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할것같구만.》

괴롭게 말쑥지를 뻔 선미는 승철과 연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더이상 력사의 이끼속에 묻어버릴수가 없었다.

그들의 유년시절과 대학시절에 대하여, 하숙방에서 맺어진 사랑, 서로 다른 리념과 오해로 결렬된 모든 이야기들을...

《아니, 그럼?!...》

윤경진이와 명필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애뜻한 사랑과 정을 나눈 련인들이 윤기옥을 가운데 두고 서로 판사와 변호사로 만난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또 옛 애인을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김연주가 나선것이다.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단 말인가? 아니,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수 없었다. 정의와 진리를 말살하고 저들의 그릇된 의사를 강제로 주입시키려는 보수집단이 존재하는한 이러한 비극은 이 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필연이다.

선미는 심각해진 그의 표정을 일별하며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러다나니 그들사이에는 어린애까지 생기게 되었지. 연주는 애인에 대한 원망을 안고 그애를 남의 집 양자로 넘겨주었지.》

갓난아이를 낳모르는 녀인에게 넘겨준 김연주는 드디어 미국행을 결심했다. 비행장에서 그는 선미에게 승철과의 결별을 재확인하고 떠났다.

허나 선미의 가슴속에는 항상 그가 자리잡고있었다. 언제인가는 애인을 리해하고 다시 돌아올것이라고 믿었다. 한견으로는 제 자식까지 버린 그가 경멸스럽고 저주스러웠다.

연주, 넌 누구든지 악을 저지르면 그 결과는 자신이 맛보게 된다는걸 모르고있구나!

대신 그의 품에서 떨어지던 아기의 애처로운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애한테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제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모성애라는 가장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까지 서슴없이 켜버리다니. 아, 승철씨가 이 일을 안다면...

불행은 쌍으로 온다고 그날 미국으로 떠나는 연주를 막으려고 비행장으로 나오던 조승철은 그만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때 인천에 있는 피신처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던 조승철과 서영민은 서울에 다시 돌아와 은신처에 거처하고있었다. 그러던중 연주가 미국으로 류학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승철은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장으로 향했다. 그와 함께 동행했던 서영민도 그날 거리에 나가자마자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구치소로 련행되었다.

리선미는 면회하는 기회에 영민에게 그사이 연주의 신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터놓았다.

차디찬 철창에 이마를 기대고있던 영민은 머리를 쳐들었다.

《사실 그때 승철군과 같이 있던 경순씨는 우리와 함께 싸우던 동철군의 안해였소. 결혼한지 열흘만에 시위장에서 무장경찰들이 쏘아대는 최루탄에 맞아 남편이 무참히 희생되었으니 그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소. 게다가 경찰은 경순씨까지 수배자로 지목하고 사냥개처럼 돌아치는 형편이었소. 그런데 그를 간호하던 승철군을 보고 연주씨가 그런 억측을 하게 되었으니...》

그제서야 사실여부에 대해 알게 된 선미는 안타까웠다. 조승철에 대한 원망을 안고 미국으로 간 연주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는것이 속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할수 없는것은 그날 어떻게 되어 연주씨는 물론 경찰들까지 우리가 있던 피신처를 알았는가 하는거요. 그 장소는 서너명밖엔 모르고있었는데...》

말없이 서있던 선미는 뭔가 생각난듯 말했다.

《연주는 거리에서 만난 성삼씨한테서 들었다구 했어요.》

영민은 놀라운 눈길로 되물었다.

《성삼군한테서 말이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영민은 선미를 바라보며 심중한 기색을 지었다.

《그렇게 농구보면 그가 좀 미타한 생각이 드오. 연주씨한테 승철군에 대한 헛소리를 한것을 봐도 그렇구 우리의 피신처가 경찰들한테 드러난것두 꼭 그와 연관된것같은 느낌이 드는구만.》

《설마?!...》

반신반의하는 선미에게 영민은 선언적으로 말했다.

《글쎄, 그건 앞으로 더 알아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그도 그 장소를 알고있었소. 그리고 그는 워낙 버들가지처럼 속대가 연한 사람이요. 더우기는 경찰서에 잡혔던 그가 이틀만에 출옥한것을 보면 어딘가 미심쩍은데가 있단 말이요. 좌우간 이 문제는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인차 알아보도록 하겠소.》

이어 그는 밝은 기색으로 선미를 바라봤다.

《참, 그 아이의 행처는 알고있소?》

《예, 그 녀자가 연주에게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는것을 기억해두었어요.》

영민은 병색이 짙은 눈가에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럼, 됐구만! 우리가 있으면서 어떻게 그앨 남한테 말기겠소. 불행할 때 돕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소.》

《그러니?!...》

그제서야 긴장으로 졸아있던 선미의 마음은 다림발처럼 퍼졌다. 속에 품고있으면서도 선뜻 터놓지 못하던 말을 그가 먼저 꺼내니 고맙기 그지 없었다.

《제 리속을 따지면서 사귄 벗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애를 말아안기요. 아기는 비록 어머니의 버림을 받았지만 그한테는 아버지가 있지 않소.》

영민의 서글서글한 목소리는 처녀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영민씨가 그렇게 말하니 저두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선미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다.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애기를 이제 와서 되돌려달라고 할수는 없는노릇이다. 더우기 선미자신도 아직 아이를 낳아본적도, 키워본적도 없는 처녀였다. 또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애를 키운다는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사생아를 낳아키운다는 뒤소리를 달고다니기 십상이다.

한동안 골머리를 앓고있던 영민은 고개를 쳐들었다.

《그럼 선미씨가 그 집결으로 하숙집을 옮기고 그애가 바로 자라도록 도와주는게 어떻소?》

듣고보니 정말 그럴듯한 소리였다.

며칠후 선미는 중구 태평로에 하숙방을 옮겼다. 하숙집 맞은켠에 아기를 받아간 여인이 살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일은 참 별나게 번져갔다. 그 여인이 몇달만에 임신을 하게 된것이다. 아이가 없는 여자는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면 아이를 뺏다는 옛사람들의 말을 증명한듯싶었다.

선미의 속은 기름가마처럼 바질바질 타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혹시 연주의 아들을 버리지 않을까?

옆친데 들친 격으로 어머니가 급병을 앓는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리선미는 그새 별다른 일이 없기를 빌며 고향으로 내려갔다.

간난신고하며 어머니의 병구완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온것은 녀달만이였다.

도착하는 길로 하숙집주인에게 아이의 소식부터 물었다. 그의 말에 의

하면 그 녀인은 데려다 키우던 애를 어느 고아원에 보냈다는것이다. 친자식이 생겼으니 남의 자식은 필요없다고 하면서.

선미는 치미는 분노를 금할수 없었다. 친엄마의 품에서 아이를 떼낼 때는 입거죽이 한벌 벗겨지도록 감언리설을 늘어놓던 녀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병든 강아지 내버리듯했으니 이게 어디 사람이 할짓이란 말인가.

허나 선미로서도 이렇다할 방도가 없었다. 학비도 제대로 물수 없는 형편에서 무작정 고아원에 간 아이를 찾아올수도 없었다. 오히려 젖먹이에게 화를 가져올수 있었다. 그렇다고 강건너 볼보듯할수도 없는노릇이다.

속을 바재이던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교형리들의 가혹한 고문으로 서영민이 중퇴에 빠진것이다.

학우들의 투쟁으로 며칠만에 겨우 병보석으로 출옥한 그는 이미 이승과 저승의 량극단에서 헤매고있었다.

가물가물 꺼져가는 의식속에서도 영민은 애인에게 자기의 진정을 터놓았다.

《선미, 이렇게 꺾이는것이 정말 한스럽구만.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소. 암흑같은 이 땅에 광명을 불러오는 성스러운 길에 잠시나마 서있었다는것만으로도 난 정말 행복하오. 그리고 또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않았소.》

선미는 억이 막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건잡을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그의 심중을 대신하고있을뿐이다.

영민은 혼신의 힘을 모아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내가 죽으면 아마 승철이의 가슴엔 큰 웅덩이가 생길거요. 가뜩이나 속에 아픈 상처를 안고있는데… 난, 선미씨가 날 대신해서 그를 잘 도와 주기를 바라오. 나는 그가 이 사회의 민주화를 성취하는 길에서 물러서는것을 바라지 않소. 그러니…》

서영민은 이렇게 애젊은 나이에 한많은 세상을 하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리선미는 눈앞이 아득했다. 중압적으로 내려누르는 심리적고통과 압박감으로 당장이라도 애인의 저승길을 동무해주고싶었다. 허나 영민의 당부가 어깨우에 실려있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애인의 장례를 마친 선미는 몇달어간에 받은 정신육체적인 타격으로 한

달동안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퇴원하는 길로 그는 연주의 아이를 맡아 키울 결심으로 그 집을 찾아갔다.

허나 일은 맹랑하게 되었다. 이미 해산하여 아들을 낳은 그 녀인은 오스트랄리아에서 기업을 경영하고있는 남편한테로 이주해간것이다.

선미는 이웃들에게 그 녀자가 아이를 맡긴 고아원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있었다.

억이 막힌 선미는 장밤을 눈물로 새웠다. 무정하고 각박한 이 세상을 저주하며 울었고 어린 생명의 앞에 가로놓인 검은구름을 원망하며 울었다.

그후에도 어린애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그 이름모를 녀인의 친인척을 찾는다는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였다. 그렇다고 주소도 모르는 그를 찾아 무작정 오스트랄리아로 갈수도 없는노릇이었다.

그렇게 3년세월이 흘렀다.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승철을 맞이하는 순간에조차 선미는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차마 할수 없었다.

그럴 형편도 못되었다. 출옥한 승철은 감옥에서 당한 고문의 후파로 폐결핵에 걸린 상태였던것이다.

각혈을 하는 그를 보는 순간 선미는 온몸이 한줌으로 줄어드는듯했다. 서영민에 이어 조승철마저 잃을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스스로 그의 간호원으로 되었다. ...

윤경진은 이 시각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박복한 제 운명앞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어린 생명을 놓고 사람들은 이다지도 모질수 있단 말인가?!

수십년세월 윤기옥의 애뜻한 사랑만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며 자기를 헌신짝처럼 쥔버린 부모들을 원망하며 살아온 그였다.

오늘날에 와서야 그는 비로소 불행한 자기 운명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인 해명이 필요했다. 허나 그는 현실을 부정할 능력을 잃고있었다. 모든것이 회오리같이 일어났고 폭풍같이 날아버린것만 같았다.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 알수 없었다.

내리는 비줄기는 그를 세차게 후려치고있었다. 한순간에 물주머니로 변했다. 허나 온몸을 감싸안은 번민의 고통은 조금도 씻겨지지 않았다.

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심신을 무섭게 달구는 번뇌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듯 그는 얼굴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무수한 비방울들이 얼굴을 향해 마구 쏟아지 고있었다.

이윽고 배에 힘을 가하며 경진은 《아!—》 하고 긴소리를 목청껏 뽑았다. 수십년동안 가슴속에 고이고고인 아픔을 한순간에 토해버리고싶었다. 이 단 하나의 고통소리로 그 피덩이들을 말끔히 가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잡피잡을수 없는 모태김숙에도 구원의 손길인양 떠오르는 모습은 다름 아닌 윤기옥이다.

선생님! 이럴 때는 어쩌면 종단 말입니까, 예?...

허나 오매에도 그리던 그의 얼굴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두손을 마구 내흔들며 정신없는듯 헤뎌버도 잡힐것같지 않았다.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비줄처럼 흘러내리고있었다.

아, 나의 친부모들은 과연 누구란 말이나?!

원망과 저주의 대명사로 새겨안았던 그들은 다름아닌 김연주와 조승철이다. 그러나 두사람은 이미 량대안의 기슭에서 마주서있었다. 더우기 김연주는 제 자식을 키워주고 내세워준 윤기옥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녀인이다. 오늘은 옛 애인이었던 조승철을 파쑈악법으로 판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미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경진이가 이 모든것을 어떻게 감수하겠는지 알수 없다. 허나 믿고싶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윤기옥의 손에서 자란 애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경진의 마음속에 연주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는지 걱정되었다.

연주, 네가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네 아들의 저 모습을 본다면!...

요즘 날씨는 말그대로 변덕스러운 아낙네를 닮은것같다. 때없이 비가 내리고 까닭없이 개였다가 또 흐리곤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였다. 분명 어제는 저녁노을이 한강수면에 피빛같은 비단을 늘어놓았다.

래일은 해를 구경할수 있겠군!

허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오전부터 재빛구름을 밀어오며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더니 오후부터는 굵은 비발을 뿌리고있었다.

지금은 하루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붐비는 저녁시간이다. 자연의 심술 앞에 행인들의 걸음걸이는 빨라졌다. 각이하게 빗어진 낮색들에는 날씨에 대한 불만도 제각기로 표현되고있었다.

거리는 그대로 한산하기 그지없다. 수채통을 타고 흘러내린 비물은 하수도에서 넘쳐나 인도로로 마구 흘러들었다.

행인들은 왁새다리가 되어 비물이 덜한 곳을 찾아 요리조리 교예사처럼 걸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우산은 서로 부딪쳤고 나중에는 신경돈친 목청들이 산발적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날에는 의례히 운전사들의 몸값이 금값으로 된다. 저마다 택시를 세우느라 실랑이를 벌리는가 하면 지나가는 승용차를 마구 세우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비를 그을만한 곳을 찾아 병아리들처럼 오구구 모여들어 행어나 하는 기대를 담은 눈길로 하늘을 쳐다본다.

성미급한 한때의 젊은이들이 들판에 나온 노루처럼 길손들의 사이를 비집으며 쩡쨍쨍 뛰어간다.

그통에 우산을 쓰고 가던 사람들속에서 소동이 일어난다.

《아이, 저 망종같은 놈의 자식!...》

《흙탕물을 튕겨놓으면 어쩌라는거야?...》

인충이 밀집된 서울에서는 이런 날이면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신문매점들에서는 석간신문을 사느라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된 조승철변호사에 대한 1차공판 다음주에

예견. 검사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리성삼, 재판장에 XX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연주.》

여기저기서 기사에 대한 반향이 튀어나왔다.

《흥, 또 선거가 다가오는줄 아는 모양이군. 그 <종북>사냥인지 <마녀사냥>인지 하는것때문에 또 세상이 복잡해지겠군!...》

《아니, 이 변호사는 지난해에 있는 <종북>재판에서 남북통일실천연합의 간부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아니요?!》

《보나마나 공안기관이 그때 당한 수치를 뱉풀이하자는거겠지요!》

《취박이가 선거에서 이겨보려구 별의별 지랄을 다 부리기 시작했군!》

《아, 반통일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있는 작자들이 그 악습을 남한테 때주겠소.》

입가진 사람들은 저저마다 한마디씩 해댔다. 재판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되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연주는 비록 우산을 썼다고는 하지만 방향없이 날아드는 비풍에 아래도리는 이미 흠뻑 젖어있었다.

며칠전부터 그는 승용차를 리용하지 못했다. 낱아빠진 기관은 천식환자처럼 켜켜켜 된 기침을 해대더니 아예 덜컹 해버리고말았다.

택시를 리용할수도 있었지만 왜 그런지 걸어가고싶었다. 심란한 마음을 좁처럼 달랠수 없었던것이다.

그가 삼청동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갑자기 여러대의 경찰차들이 마주 달려와 떼어섰다. 터진 자루에서 쏟아나오는 콩알들같이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청와대출입기자실인 춘추관쪽으로 가는 도로에 차단물들을 설치하느라 분주탕을 피웠다.

웬 일인가싶어 수제비집앞을 지나는데 금융연수원쪽에서 군중들의 격앙된 목청들이 바람결을 타고 들려왔다. 시위대렬이 도로를 메우고 밀물처럼 밀려오고있었다. 아마 그들의 목적지는 청와대인것같았다.

삼청동은 청와대와 린접한 구역이라 이런 현상은 다반사였다.

시위자들은 우산과 비옷을 착용하였는데 얼굴들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빛들은 분노로 이글거리는듯싶었다. 앞가슴들에는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해체!》라고 쓴 표어들이 걸려있었다.

수백명의 시위자들은 총리공관과 청수정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멈춰 섰다.

청와대로 들어가려다가 진압경찰들에 의해 막힌 모양이다.

토막키에 갇히고 가무잡잡한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입이 뻐뻐어지게 한껏 벌리고 손을 휘두르며 갈린 목소리로 목청껏 웨쳤다.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라!》

온 대오가 일제히 주먹으로 허공을 찌르며 거리가 떠나가게 받아웨쳤다.

《해체하라!》

《남북관계를 개선하라!》

《개선하라!》

군중의 함성은 비물에 젖어든 거리를 뒤흔들며 퇴성으로 울려가고있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분렬의 장벽을 넘나들며 통일의 기분에 젖어있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몇해사이에 그날의 환희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있는 형국을 두고 국민들은 저마다 분노를 표출하고있었다.

그 모습들은 마치 올려다볼수록 커진다는 어둡서니처럼 연주의 가슴에 불안을 덧쌓아주고있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그 녀자는 머리를 푹 숙였다. 아는 사람들을 마주치는것이 두려웠다. 신문내용을 꺼들면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하자고 하는 축들의 단련이 지겨웠다.

그들은 대체로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직접고의와 간접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거물과 증인들의 진술앞에 다른 말을 못한다.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신문지상에 공개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사상범》딱지를 붙였을 때에는 그것이 《전북행위죄》인가, 《회합통신죄》인가, 《찬양고무죄》인가, 복의 출판물을 《소지, 보관 및 류포죄》인가, 《간첩단련루사건》인가 등을 시시콜콜히 캐묻곤 한다. 그러면서 제 나름의 분석과 견해로 《여론재판》을 벌리며 자기식의 판결을 내리곤 한다.

만일 판사들이 이런 일에 말려들면 발을 뽑기 조련치 않다. 시간이 아까운줄 모르는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줄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정한 법적조항이나 형벌적용범위까지 깊이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면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난 더이상 말할수 없어요. 재판이 모든걸 증명해줄거예요.》라는 말로 배척할수도 없었다.

다행히 비가 오는 덕에 행인들이 드물었다.

추녀낮은 처마들이 어깨를 스치는 좁은 골목을 지나 아파트앞에 이른 김연주는 안도의 숨을 내그으며 집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실명당한 사람의 우멍눈같은 두개의 검은 창문이 차갑게 안겨들었다. 빗을 잃고 쓸쓸한게 바라보기조차 괴로웠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공원에 홀로 앉아 고독한 마음을 달래고싶었다. 수십년세월 애뒀한 정을 안고 집에 들어선적은 극히 드물었다. 할수없이 하루밤을 보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고적한 곳이다. 이 전에도 그랬지만 나이 먹으면서 더해지는 감정이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곤 한다. 설사 집은 없다 해도 제 가족과 함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행복할것이라고...

비록 보금자리는 있어도 웃음소리, 노래소리 한점 없는 침침하고 어둑시근한 골간같은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신은 꼭 구석에 버려진 짝잃은 외토리신발이나 같은 존재였다.

그가 집앞에 이르렀는데 복도에서 웬 젊은이가 서성거리고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연주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다름아닌 윤경진이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저의 면회를 거절하시니 별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전에두 말하지 않았습니까. 판사님의 바쁜 시간을 축내지 않겠다구 말입니다.》

연주는 반신반의하며 되물었다.

《그러니 나를 만나려구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소린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주는 쓰겁게 웃었다. 이렇게 집에까지 찾아온걸 보면 여간내기같지 않았다.

《그래 공적인가요 아니면 사적인가요?》

연주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무미건조했다. 그의 방문이 썩 달갑지 않았다. 분명 재판때문에 찾아왔을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참, 흥미가 있군요. 대체로 사람들은 법관과 만나는걸 두려워하는데...》

연주는 경진의 속심을 떠볼 심산으로 물었다.

《그야 뒤가 어지러운자들이나 그러겠지요.》

《?!...》

연주는 경진이를 유심히 바라봤다. 청년의 얼굴은 말할수 없는 위압을 뽐고있는것같았다. 어린애볼같이 살이 오른 둥그런 두볼, 도톰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을 이룬 코, 희지도 검지도 붉지도 않는 침착하고 지적인 얼굴빛, 그보다도 한번 다시 쳐다보게 되는 그런듯 진지하고 선명한 눈썹, 번듯한 이마 그리고 눈썹밑으로 알맞게 큰 눈에서는 정기가 막 쏟아져나오는것같았다.

현저로운 태도에는 속빈 소리로 남을 감흥시켜 제 리속을 차리려는 빛은 한점도 없었다. 오히려 담박하고 투명해보였다.

《그런데 판사님, 아무리 반갑지 않다한들 허나새나 찾아온 손님인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시렵니까?》

허, 이것 봐라. 비위살이 보통아닌걸!...

그가 처음부터 자기의 마음을 서서히 그러안는듯한감이 들었다.

《난, 원래 파악없는 사람은 집에 들여놓지 않는 성미예요.》

《뭔가 속에 켜기는게 있는 모양이군요?》

비록 룡담처럼 울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리한것이 배어있는듯했다.

허나 이 젊은이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리지적이며 진취적인게 허술히 대할 인물같지 않았다.

《신경이 꽤 예민한편이구만. 늙은이가 잘못하면 로망으로 치고 젊은이가 잘못하면 철이 없다구 하지요!》

《판사님, 벌써부터 자기를 고목으로 묘사하는데 그건 스스로 명을 줄이는 행동이랍니다.》

연주는 늑늑하게 생긴 경진이의 역습에 선웃음을 지었다. 자기의 충고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온것이다.

《임잔 역시 기자로구만!》

《제 말이 불쾌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도 결코 심지가 없는 사람은 아니랍니다.》

허, 보통 룡룩치 않은걸!

연주는 늘쌍 그러하듯 억지로 마음의 틈을 조이며 큼직한 자물쇠를 채우려고 했다. 허나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빗장이 뿔아지는 듯한 느낌이다.

법관으로 지금까지 각이한 업종에 종사하는 여러 성격의 소유자들을 대상해온 그였다. 그들은 대체로 선속에 악을, 웃음속에 야심이라는 칼을 숨기고있었다. 생존경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사유와 활동을 자기라는 축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다나니 모두 결과 속을 알수 없는 광대같이 여겨졌다.

경진이는 그들과 전혀 다른 생신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아직 이지러진 세상의 구정물에 손 한번 잠그지 않은것처럼 보였다. 나이에 비해 너무 천진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어쨌든 백지장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연주는 집의 열쇠를 열고 경진이를 안내했다.

《혹시, 집안이 루추하다구 신문에 내지야 않겠지요?》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젊은이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맛이 서려있었다. 그속에서 풍겨오는 정감은 연주의 얼어든 가슴우에 놓인 숯불과도 같았다.

자기의 눈길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경진이의 전인력앞에 그 녀자는 수십년세월 팽팽하게 당겨졌던 신경줄이 늦춰지는듯한감을 느꼈다.

내가 오늘은 왜 이렇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다. 그 어떤 마술에 걸린것처럼 내심은 풍선에 매달린것같았다.

《그래 날 만나자는 리유는 뭐예요. 혹시 또 어린애문제는 아니겠지요?》

옷을 갈아입고 경진이와 마주앉은 연주는 곧장 질문을 던졌다.

젊은이는 어색하게 웃어보였다.

《판사님은 벌써부터 건망증이 심하신 모양이시군요. 제가 인터넷서점에서 한 말을 잊으신걸 보니 말입니다.》

《그때 뭐라구 말했던가요?》라며 잠시 생각에 잠겼던 연주는 얼른 기억력을 회복했다.

《아 참, 오래전에 있는 재판에 대해 물었던것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구보니 당신은 역시 재판에 몹시 흥미를 가지는군요?》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방에서 한장의 사진을 꺼내서 그에게 내밀었다.
연주는 순간적으로 인상을 흐렸다. 윤기옥의 사진이었던것이다.

《이분이 기억나십니까?》

경진의 물음에 그 녀자는 눈초리를 들었다.

《그래요, 아직 잊지 않고있어요.》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통명스러워졌다. 지금껏 후더운 봄바람이 일렁이던 속으로는 하늬바람이 밀려들고있었다.

경진의 낮색도 저으기 심중해있었다.

《그러니 오래전에 있던 이분에 대한 재판도 기억하시겠군요?》

김연주는 갑자기 기분이 불쾌해났다. 회억하기조차 싫은 그때의 일을 다시 돌이켜보는것이 싫었던것이다.

《어느 정도!...》

그의 심리와는 반대로 경진은 진지한 태도로 나왔다.

《전 판사님이 이분에게 판결을 내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연주는 드디어 잡고있던 연줄의 꼬트머리를 놔주었다. 인상 좋게 가슴에 들어왔던 경진에 대한 모색이 완전히 생면부지로 뒤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더이상 리성적인 사고를 유지할수 없었다. 옛시절의 괴로움에 삽날을 박는 경진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내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경진은 도고하고 당당한 연주의 눈빛을 마주보기가 괴로워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 며칠동안 한가닥의 희망으로 실을 꼬아 매달아놓았던 기대가 드디어 끊어져버린것이다.

나는 장차 이 녀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나를 낳은 녀인이고 또 한쪽으로는 내 운명의 은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장본인이다.

윤경진은 리성의 곱을 깊이 파기 시작했다.

《판사님, 제가 그 사건을 묻는것은 결코 다른 의도에서가 아닙니다. 전 단지 피고의 범행이 과연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960년대초에 있는 <윤기옥간첩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의 내막을 파고싶단 말이겠군요?!》

신경질적인 눈초리가 이마를 파고들었지만 경진은 인상 하나 찌프리지 않았다. 오히려 심중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상대를 진정시키고있었다.

《판사님, 사실 저는 고아입니다.》

《?!...》

연주는 숨방망이에 맞은듯 흠칫했다. 밝고 명랑한 이 청년의 가슴속에 그런 아픔이 있을줄이야...

안면근육은 느슨하게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처럼 가시밭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왔다는데서 오는 연민에서였다.

《아마 부모님들이 일찌기 돌아가신 모양이군요?》

동정어린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경진은 입술을 짓씹으며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차라리 그랬다면 이 가슴이 지금처럼 아프지는 않을겁니다.》

연주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그럼 살아있으면서두 제 자식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진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봤다.

이자 방금 울린 목소리는 분명 이 녀인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분명한가?! 사람이 이렇게도 철면피할수도 있는가?...

그는 입술을 피나도록 깨물었다.

아니, 너무 속단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로 온건 잃어버린 친 어머니의 정을 구걸하자는것이 아니지 않는가. 나한테는 오직 단 한분의 어머니가 있을뿐이다. 난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전에는 사사로운 감정에 빠질수 없는 몸이다.

경진이는 울기를 억누르며 씩쓰레한 기색을 지었다.

《이 사회에서야 그런것쯤은 레사로운 일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양부모님들의 손에서 자랐겠군요?》

젊은이의 한쪽입귀는 쓰겁게 이그러졌다.

《아닙니다. 그 녀인도 임신하게 되자 돌도 채 되지 않은 저를 고아원의 정문앞에 버렸답니다.》

연주는 다감하고 열정적인 이 청년이 그렇듯 가슴아픈 상처를 안고 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기의 과거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눈곱이 찌릿해왔다.

《그거 참, 안됐군요. 그렇게 모진 녀자를 어머니로 만났으니...》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에 연주는 소스라쳐 놀라며 중동무이었다. 느닷없이 자기의 과거사가 떠올라 속이 뜨끔했다.

경진은 그의 표정변화에서 리선미가 한 이야기의 진실을 읽을수 있었다.

《판사님, 인간은 겉모습으로 알수 없고 사회는 화려한 언사로 치장할수 없지요. 바다의 숨결은 파도이고 인간생활의 숨결은 정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나 이 사회는 즙이 없는 메마른 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지러운 공기를 마시며 자란 사람들이 어찌 박정하지 않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차잔에 손을 가져갔으나 연주는 선뜻 그것을 들지 못했다. 꼭 자기를 빗대고 하는 소리같았다.

《그러니 고아원에서 자랐겠군요?》

경진은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구배가 심한 제 운명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 윤기옥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녀인의 속내를 직접 재보고싶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자랐지요. 하지만 그후 저를 키워주신분은 다름 아닌 윤기옥선생님이시랍니다.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였고 또 스승이었으며 할머니나 같은분이었지요.》

그제서야 연주는 그가 자기를 찾아온 목적이 이해되었다.

《그러니 그 녀인이 거기를 키웠다는 소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의 억울한 루명을 제손으로 벗겨드리고싶었습니다. 그가 왜서 자기 가족들을 억울하게 잃고 오래동안 수인번호로 불리우면서 아름다운 청춘시절을 략탈당했어야 했는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판사님이 또다시 유죄를 선언했는지를 말입니다.》

윤경진의 낯색은 이미 변하고있었다. 그것은 온순한 마음으로 엮은 선량한 빛이 아니였다. 대문처럼 굳게 닫긴 그의 두툼한 입술과 구리빛으로 굳어진 얼굴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감돌고있었다.

찌르는듯한 그의 눈빛에 도전하듯 연주는 본래의 자세를 되찾았다. 목소리조차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차거웠다.

《그러니 당신은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건가요?!》

연주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가고있었다. 속에 얼음버께가 쌓이고 그것은 점점 굳어지고있다.

윤기옥!...

그 녀자는 《간첩》으로 처리되었던 인물이다. 물론 그가 고아인 이 젊은이를 키운것은 미덕이라고 할수도 있다. 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릇되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죄의식에서 오는 행동으로밖엔 달리 볼수 없지 않는가. 아무런 사심도 없이 남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뻗치는 사람이 이 사회에 있거나 한가?...

《헌데 지금 와서 그게 필요할가요?》

《물론 판사님한테야 그럴것지요. 그분과 아무런 인연도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살아온 인간의 삶은 사후에도 아름답게 남아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누가 먹칠을 한다고 해도 옥은 어디까지나 옥이지요.》

경진의 진지한 목소리는 연주의 얼어든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있었다. 허나 그 녀자의 심장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그러니 그는 옥이였는데 우리 법관들이 먹칠을 했다는 소리겠군요?! 하긴 당신들이 <민주렬사>라고 괴여올린 인물이니 어련하겠나요.》

김연주는 윤기옥의 삶에 대해 로골적으로 비꼬았다.

경진의 심장도 서서히 식어가고있었다.

그래도 자기를 낳은 녀인이라는데로부터 저열적인 심장의 박동이라도 느끼리라고 생각해왔다. 허나 기대는 여지없이 허물어지고있었다. 오히려 반발심만이 솟구치고있었다.

당신이 감히 그분을 모욕할 체면이나 있는가요?

허나 리성은 그의 감성을 꼭 부여잡고 놔주지 않았다.

《판사님, 남에 대한 그릇된 평가가 나중에는 제 얼굴에 침으로 날아들수도 있습니다.》

연주는 그의 충고를 코김으로 날려보냈다.

《하긴 고인을 놓구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건 레의가 아니지요.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해줄수 있는것은 그의 <간첩>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는거예요. 그리구 솔직히 말해서 난 그가 처음 기소되었던 1962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김연주는 두부모자르듯 잘라뒀다.

《판사님, 이미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료해도 없이 그에게 또다시 새 형벌을 적용했다면 그건 법적요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격앙된 경진이의 흥분을 연주는 여유있는 태도로 받아들이었다.

《하지만 내가 재판을 맡았던 당시 그는 자기의 사상을 전향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얼마든지 <사회안전법>으로 재구속할수 있었어요. 난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뿐이에요.》

《그러니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소린가요?!... 그래 판사님은 그게 옳은 판결이라구 생각하는가요?》

연주는 씩쓰레한 미소를 지었다.

《난, 법조항의 요구대로 했을뿐이에요. 그리구 내 한마디 충고하건대 아무리 생명의 은인일지라도 그의 비법을 무작정 비호한다면 그건 법에 대한 침해로 된다는거예요. 워낙 속에 검은 때가 많이 낀자들일수록 <자선>이라는 명분앞에 충실한척하는거예요. 왜냐면 저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이지요.》

윤경진은 어금이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이것은 깨끗한 인간에 대한 멸시였다. 남을 위해 제 머리카락 한오리 준적이 없을 녀인의 악담속에 참된 인간의 사랑이 마구 도륙당하고있었다. 그것도 제 친자식을 헌신짝처럼 켜버린 매정스러운 이 여자한테서...

아,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낳은 친어머니란 말인가?! 그래도 난 저 차디찬 심장속에서 자그마한 사랑의 불씨라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흥분되는 심정을 억누르며 경진은 마디마디 힘주어 말했다.

《난 판사님이 남에게 어떤 성정을 베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법관이라면 응당 진상을 보기 전에 마음속생각을 먼저 봐야 한다는것만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악인으로 낙인하려드는군요! 당신이나 그에게 <간첩>이라는 모자를 씌워 인생을 파괴해버린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그분은 나의 심장속에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겨져있습니다. 나를 버린 친어머니라는 여자와는 감히 대비도 할수 없는분이지요.

그는 분별의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는 이 땅의 수천만 생명들과 그들

의 념원을 사랑했다는 단 하나의 리유로 교형리들에게 자기의 삶을 갈기갈기 찢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듯 깨끗한 인간이 왜서 범인이 되어야 합니까?》

채찍처럼 후려치는 질타였지만 연주의 기색은 여전히 표리부동했다.

《그러니 내가 너무도 메마르고 무정하다는거겠군요?!》

《그렇습니다. 판사님도 법관이기 전에 심장을 가진 인간이구 녀성이겠지요. 전 판사님한테서 사랑이라는 그 언어자체를 읽을수 없는게 유감스럽군요.》

김연주는 손에 쥔 차잔을 내려다보며 그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했다.

《난 오늘 여기로 오면서 <법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판사님한테서 그 어떤 미온적인 열기라도 느낄수 있을거라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간을 보기 전에 법이라는 칼자루를 먼저 찾는 팽혈인이었군요!》

연주의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드디어 젊은이가 자기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다.

제가 인생세파를 겪었으면 얼마나 겪었다구...

즉흥과 일시적인 충동이 가져오는 후과에 눈이 어두운 이 청년에게 나이많은 사람으로서 충고를 주고싶었다.

《젊은 사람치구 불만이 지내 많군요. 허나 명심해요. 법에는 인정과 사사로운 감정이 통하지 않는다는걸 말이에요.》

그들사이에는 한동안 차거운 시선이 오고갔다. 리해와 인식의 불일치는 호젓하던 방안공기를 얼구어놓았다. 이윽고 경진이 침울한 어조로 침묵을 깨쳤다.

《그러나 법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연주는 속이 뜨끔했다. 아직 이렇게까지 로골적인 질타를 받아보지 못한 그였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에서 내쫓고싶었다. 하지만 자식벌 되는 아래사람한테 그런 무지스러운 행동을 하고싶지 않았다.

경진이 역시 더없는 실망으로 가슴이 저려들었다. 오늘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될줄은 몰랐던것이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그으며 말했다.

《역시, 우린 의사소통이 어렵겠군요!》

《기자선생, 그럴수밖에 없지요. 난 법을 존중하고 실행하는 사람이구 당신을 덮어놓고 그 법을 비방증상하려는 사람이니까!》

연주는 이해되지 않았다. 자기는 나타난 현상과 견해를 말했을 뿐이다. 현대 경진이가 이렇게까지 흥분할줄은 몰랐다. 물론 윤기옥은 부모없는 그를 키워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범죄 사실을 심리하고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렸다. 법관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한것인데 이 젊은이는 무엇때문에 이토록 적의를 품고 대하려는걸까? 자기를 키워준 은인이랴구?... 결코 그것만 같지는 않았다.

그 녀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즉흥적으로 오가는 감정의 마찰음이 아니라 리념의 차이로부터 산생되는 대립의 불꽃이라고 생각하였다.

《기자선생, 지나친 억지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되는거예요. 그러구 난 민족이란 어디까지나 한 지역에 분포된 종족이라는 개념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그 장래와 미래가 어떻든지간에 인간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가요!》

《뭐라구요?!...》

경진의 눈동자는 마치 얼음덩이로 빚어놓은듯싶었다.

당신은 제 명예와 리익을 위해 애인은 물론 피덩이같은 자식을 거리낌 없이 버린 녀자가 아닌가요.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이 튀어나올것만같아 그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리선미가 한 당부가 귀전을 친것이다.

《경진아, 제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랬든저랬든 그는 너를 낳은 친어머니가 아니냐!...》

그는 애써 자신을 가다듬으며 선언조로 말했다.

《세상에는 풀지 못할 매듭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이에는 영원히 풀수 없는 매듭이 놓여있군요.》

연주는 갈래없는 의혹을 가다듬으려고 정신을 모았다. 록록치 않은 언행에는 꼭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불만이 깔려있는듯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늘 나를 찾아온 목적이 과연 뭐예요? 그래 정 말 윤기옥의 문제때문인가요, 아니면 나한테 품은 그 어떤 원한에 대한 분풀이때문인가요?》

윤경진은 그 녀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럴수록 북받치는

설음을 금할수 없었다. 한가닥의 희망마저 여지없이 짓밟혔다는 의식으로 그는 분별을 서서히 허물기 시작했다.

《터놓고 말해서 전 오늘 판사님에게서 법관이 아닌 한 여성의 진모를 보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게 되는군요!》

경진은 숨길이 껍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허나 입술만은 파들과들 떨리고있었다. 이윽고 숨을 고르고난 그는 나직하나 진중한 어조로 말했다.

《판사님은 지금 자기의 행위를 법이라는 옷자락으로 감싸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고하건대 당신은 량심이라는 심판대우에 올라선 제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마십시오. 그 부름은 판사님과 같이 제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요.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앞에 당신들이 지은 죄과는 아마 수천년이 흐른다 해도 영원히 지워질수 없을겁니다. 아마 판사님은 이 순간부터 그것으로 하여 남은 여생을 후회와 절망, 고통속에 몸부림칠겁니다.》

그 어떤 신의 계시라도 전한듯 윤경진은 싸늘한 바람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다.

《?!...》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신에게 홀리웠다 깨어난듯 온몸은 더운 김을 쏘인 부루잇같았다. 아무런 의식도 없었다. 꼭 돌풍속에 빨려들었다가 나온 기분이다. 경진이가 남긴 말마디들은 여전히 뇌리속에 구름처럼 떠돈다.

저 짧은이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이란 자기가 지닌 리념에 매인 존재나 다름없다. 그것은 마약이나 아편보다 더 무섭고 질기다. 눈에 보이지도, 줌안에 잡히지도 않지만 정신과 육체를 엮매여놓는 사슬이나 같은것이다. 엇갈린 주장과 주의의 대결은 무서운것이다. 대립과 반목, 질시의 원인으로, 때로는 정쟁과 골육상쟁의 근원으로 되기도 한다.

이 시각 그 녀자는 자기가 그 중심에 서있다는 의식에 머리를 쳐들었다. 여직 품고있던 리념의 훈시를 받은것이다.

아, 난 지금껏 그 어떤 인정과 동정에 유혹되어 《법의 공정성》을

흐려본적이 없지 않는가?!

문득 윤기옥을 재판하던 때의 일이 떠오른다.

27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것이다. 처녀시절 자기의 소중한 꿈을 심고 가꿔오던 화원에 뛰어든 염소나 같은 윤기옥의 재판을 맡게 될 줄이야. 더구나 그의 변호사로 조승철이 나선다니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피할수 없는 운명이라고밖엔...

워싱턴대학을 졸업하였을 때의 심정은 어린 새가 창공을 향해 나래를 활짝 편듯한 기분이었다. 가슴속에서 북받치는 흥분과 걱정은 잠시도 진정되지 않았다. 드디어 법관예로의 넓은 길이 열린것이다.

실련의 아픔을 안고 미국으로 온 때로부터 수년세월, 그 기간은 연주에게 있어서 복잡다단하고 거치른 세상살이와 인간생활을 어떻게 헤쳐야 하는가 하는 자기식의 견해를 굳히게 한 날들이었다. 야성을 부르짖으며 네가 아니면 나라는 식의 사고방식, 남을 이겨야만 자기가 살수 있다는 미국사회의 생존철학에 담을 쌓고 스스로 인생의 침로를 정해왔다. 운명이라는 배를 몰아 란폭하게 덮쳐드는 파도를 헤쳐갈수 있는 자기식의 키를 가지게 한 날들이었다. 비록 연약한 여자이지만 생명력을 가진 인간이라는 자각을 안고 악취풍기는 사회에서 숨을 쉴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왔다.

고르롭지 못한 운명,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숙명적으로 안고있던 날들은 영영 잊어버렸다. 언어와 풍습, 생활방식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혐오스러운 눈총들을 자존심이라는 방패로 막아가며 티슬터슬한 대학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마치 숨막히는 감옥에서 해방된 기분이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내 생활의 새로운 선을 그어갈것이다. 사내들의 품에 안겨 서식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나의 생명력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될테다. 세월의 사나운 파도에 부대끼는 존재가 아니라 파감히 헤쳐가는 신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할테다!

그런데 첫걸음에서부터 조승철과 마주치게 되었다.

과연 이런것을 두고 피할수 없는 숙명이라고 하는지...

광주지방법원에 판사로 임명된 후 말은 첫 단독재판이라 마음은 악기선처럼 팽팽해졌다.

피소자는 다름아닌 40대의 녀인 윤기옥이었다. 흥녀자대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북의 《간첩》으로 락인되어 15년간의 형기를 치른 《사상범》이다. 출소후 그는 감옥에서 겪은 일들을 책으로 쓰면서 젊은 학생들을 은근히 반《정부》투쟁으로 추동하고있었다.

검찰에서는 그를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기소한것이다.

피고도 그렇지만 변호사로 조승철이 나선다니 신경이 더 예민해졌다. 그사이 자기가 미국에서 돌아온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곳으로 몇번 씩이나 찾아온 그였다.

하지만 그 녀자는 그를 랑정하게 뿌리쳤다. 그는 어제날의 연주가 아니였다.

생활은 그로 하여금 평범하고 순박한 녀인으로 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시적인 충동과 감정으로 택한 길은 제 운명에 던진 돌이며 즉흥은 자신을 해치는 독약이라는것을 뼈에 새겨안게 하였다.

류학을 마치고 남조선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을 때 눈앞은 칠칠야밤 이였다. 단 한점의 초불조차 그를 반겨 빛을 뿌려주지 않았다. 비록 아버지는 자기의 대학동창이었던 원영준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남의 도움을 바라고싶지 않았다.

오직 자기밖에 없는 《남한》땅은 장차 인생의 동반자가 없이 걸어가야 할 기슭이 보이지 않는 대양이나 다름없었다. 동서남북이 어데인지도 모를 암흑천지를 손더듬하며 찬비뿌리는 대지에 표적없는 걸음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주인없는 집처럼 음침하기만 했다.

살갑게 맞아줄 부모는 물론 친척 하나없는 곳이다. 자기의 태를 영양소로 흡수한 땅이지만 태어난 첫날부터 차디찬 랑기만 뿜어주었다. 사랑에 눈이 트고 마음 열어젖힌 그 행복이라는 순간도 저녁노을처럼 너무도 짧았다.

칼로 남긴 상처는 피부에 흠집을 남기지만 사랑이 남긴 상처는 심장에 흠집을 남기는 법이다.

너무도 큰 정신적타격앞에 스스로 자기를 위한 독감방을 짓고 서리꽃

으로 피어있을 그였다.

누가 말했던가? 《사랑과 증오는 종이장차이》라고!...

이러한 생각은 그의 혈액을 서서히 얼음점으로 몰아갔다. 메마르고 딱딱하며 물인정한 김연주의 출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헌데 운명의 희롱이라고 할가. 오늘 이렇게 조승철과 대결하지 않는가.

김연주의 흥팩으로는 그에 대한 복수심이 서서히 차오르고있었다.

법복을 입고 위엄에 찬 자세로 법정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하늘에 떠있는 연과 같았다. 어제날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 울고 애인에게 배반당한 상처를 부여안고 이승을 하직하려던 불우한 운명은 드디어 자기의 첫 걸음을 뗄것이다. 눈물이 없는 삶, 당당하고 떳떳한 생을 위해 줄달음치려는 욕망으로 발걸음조차 더없이 가벼웠다.

재판석의 등받이가 긴 의자에 앉아서도 허리를 쭉 펴고 피고와 변호사에게 경멸에 찬 시선을 보냈다. 성공한 인생으로 실패한자의 몰골을 대하는듯한 심정이다.

난 법의 이름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거예요!...

검사는 기소장에서 전과자인 피고 윤기옥이 출옥후 몇년동안 쓴 수기 《옥중에서 찾은 출로》라는데서 당국자들의 중세기적인 고문만행과 사상 전향강요에 대해 날조하여 술한 국민들에게 반《정부》감정을 고취하려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피고가 독재와 파쑈가 란무하는 이 사회를 개조하는 명처방은 반파쑈, 민주화이며 한시바삐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것이 주되는 범죄행위라고 렇거했다.

계속하여 검사는 이것을 《사회안전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락인하면서 피고를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에 대한 변호사의 반론은 그에 못지 않게 논리정연하였다.

조승철은 우선 피고로 기소된 윤기옥이 1962년에 억울하게 《간첩》루명을 쓰게 되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인 고문을 받는데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수치와 모욕, 비인간적인 만행에 대해 세상에 공개하려고 한것이 어떻게 《사회안전법》에 저촉되는가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를 주장하고 동경한것이 왜서 범죄로 되는가고 하면서 피고의 무죄를 요구했다.

《저는 오늘 이 재판에서 론하는 <사회안전법> 그자체를 부정합니다. 그 법은 민중의 의사와 요구를 묵살한 박정희군사파쑈독재가 비

법적으로 조작한 반인륜적인 악법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나는 변호인이기 전에 이 사회의 한 국민으로서 그 악법의 발생과 악랄성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상기시키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회안전법>이란 사실상 지난 시기 정치적리유로 <형벌>을 받은적이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범죄사실이 없어도 마음대로 잡아가둘수 있게 규정한 반인륜적인 악법입니다.

그럼 이 법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겁니다? 그것은 일제식민지 통치시기 조선의 <사상범>들에 대한 <보호관찰령>의 보호관찰제도와 <치안유지법>의 예방구금제도를 고스란히 계승하여 만들어졌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사파쇼독재자들은 1975년 5월 <유신체제>강화를 위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동하고 두달후인 7월 <국회> 회기 만료직전인 새벽 3시에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날치기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사상을 바꾸지 않았다는 리유로 그들의 생존권과 존엄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악법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시사해주고있습니다.

...

더우기 피고는 이미전에 <간첩>이라는 억울한 루명을 쓴 무고한 량민으로서 사실상 <사회안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는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것을 재판관님께 정식 제기합니다.》

김연주는 그의 변론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귀담아 청취했다. 확실히 그의 말은 방청객들의 심금을 울리고있었다. 헤여진 그 몇해동안 변한것이 있다면 어제날 혈기를 내뿜으며 포석우로 달리던 열혈의 청년이 아니라 로숙과 세련미를 겸비한 지성인의 모습이라는것이다.

증인들과 방청객들은 변호사의 말에 공감하며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살며시 눈을 내리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연주는 드디어 머리를 쳐들었다.

《변호인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놀란듯하던 승철은 점차 여유를 찾고있었다.

《변호측에서는 시작부터 일관하게 피고가 오래전에 받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변호인은 그것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피고가 <간첩>이 아니라 평범한 량민이라는것을 보증하는 증인, 더 좋기는 그것을 인정한 문서 같은것이 있는가 하는겁니다.》

승철은 뜻밖의 질문이라 잠시 주춤거렸다. 그러나 주접이 들지 않은 그의 목소리가 재판정에 울렸다.

《물론 재판관님이 요구한 그런 문건이나 증인은 없습니다. 왜냐면 피고는 그때 당시 영문도 모르게 압송되었으며 또 변호사는 물론 방청인조차 전혀 없는 텅 빈 재판정에서 독단치기로 내리는 판결을 받았기때문입니다.》

연주의 입귀로는 랭소가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정말 곤난하군요. 그 당시 사법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수 없으니 말이에요. 더우기 변호사나 피고의 말재주보다 과학적인 증거물과 증인들의 진술을 중시하는것이 재판정이라는걸 변호사님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연주는 야릇한 미소가 어린 시선으로 이죽거리듯 말했다.

승철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물론 이에 대해 예견하고 그에 대한 자료들과 증인들을 확보하느라고 며칠밤을 꼬박 밝힌 그였다. 하지만 윤기옥의 무죄를 납득시킬만한 과학적인 자료는 너무도 빈약했다. 급작스럽게 일어난 체포였고 날치기로 통과된 재판과 판결이었던것이다. 있다면 단지 윤기옥의 증언밖엔 없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난, 피고의 량심을 믿습니다.》

《량심?!... 유감스럽지만 난 피고한테도 량심이 있는가고 묻고싶군요. 그래, 깨끗한 마음을 지닌 국민이라면 출옥후 젊은 학생들을 반<정부>시위로 추동하는 글을 썼겠는가 하는거예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피고한테는 이미전부터 우리 사회에 대한 반감이 질게 깔려있었다는것을 시사해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얼음장같이 차갑고 야비한 연사에 승철은 억이 막혔다.

당신은 그새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구만! 나에 대한 복수는 얼마든지 리해할수 있소. 그러나 피고에 대한 모욕만은 참을수가 없소. 그래

당신이 부르짖는 량심이란 도대체 뭐요, 뭔가 말이요?

하고싶은 말, 터치고싶은 울분은 가슴에 짝 차올라 분화구를 찾고있었다. 허나 이 장소는 어디까지나 재판정이었다.

연주도 이 순간 그의 차거운 눈초리를 감축했다. 다치면 금시 퍼런빛이 뿜어져나올것만같았다. 지금껏 처음 보는 모습이다. 지어 결별의 그 순간에조차 전혀 느낄수 없었던 그런것이였다.

그 녀자는 그를 외면하고 피고에게 눈길을 돌렸다.

《피고, 할 말이 있는가?》

담담한 기색으로, 그러면서도 태연한 자세로 피고탁에 나선 윤기옥은 방청석으로부터 검사석과 재판석을 온화한 눈빛으로 둘러보았다. 이어 유순하면서도 차분한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재판정에 울렸다.

《난 이 사회의 평범한 백성으로서 당신들에게 묻고싶습니다. 나는 어제도 그렇구 오늘도 억울하게 죄인이라는 오명을 쓴 사람입니다. 어촌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들이 보태주는 학비를 쪼개가며 공부해서 교원으로 된 저에게 <간첩>이란 뭐고 <사회안전법>이란 또 웬 말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것처럼 죄가 있다면 단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당국의 요구대로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것뿐입니다. 그리고 15년간의 옥고속에서 파쑈와 독재, 반통일세력이 란무하는 이 남조선이야말로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들도 자기의 꿈과 리상을 피울수 없는 불모의 땅이라는것을 절감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옥후 같은 민족이 사는 땅, 사람의 운명을 중시하는 복을 동경하였던것입니다.

재판관님,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부러워하고 겨레의 소원인 통일을 주장한것이 유죄라면 무죄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주장하는데 있다는것입니까?》

재판정은 침묵으로 침침해있었다. 누구의 숨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있다면 오히려 땅으로 잦아든것같았다.

윤기옥은 눈길을 들어 재판석에 앉아있는 김연주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하고싶은것은 법관인 당신들이 죄없는 한 인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사회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겁니다. 사대매국노들과 반통일분자들이 득세하는 이 남조선이 어떤 사회인가를 말입니다.》

낮으나 저력있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떠박질리우듯 자리에서 일어난 연주는 판결문을 작성할 때까지 잠시 휴정을 선언하였다. ...

잠시후 다시 재판석에 오른 김연주는 변호사석에 앉아있는 조승철에게 눈길을 주었다.

오늘의 판결은 조승철, 당신에 대한 나의 대답이나 같다는걸 명심하세요!

그는 랭소를 머금고 판결문을 랑독하였다. 내용은 피고를 《사회안전법》에 의해 재구류한다는 것이었다.

방청석에서 가벼운 소요가 일어났다. 그들의 반발은 폐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윤기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던 시기는 이미 남조선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회안전법》을 파쑈악법으로 낙인하고 그것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던 때였다.

연주는 방청객들의 지탄을 누르며 폐정을 선언하고 서둘러 퇴정하였다.

그날 법원의 정문에서 만난 조승철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있었다.

《연주, 당신은 무서운 녀자로 변했소. 파쑈악법의 독소로 하여 두 눈을 실명당한 사람으로 되었던 말이요.》

김연주는 예리하고 차거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야즐거렸다.

《변호사님, 법은 언제나 공정하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법의 조항대로 모든것을 결론했을뿐이에요.》

승철은 자신을 겨우 자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주선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너무도 생소한 인간으로 둔갑하였던 것이다.

《그래, 당신이 말하는 <공정성>이란 과연 뭐요? 누구를 위한 <공정성>인가 말이요. 너자를 아름답게 하는것은 올바른 행동이지 결코 값비싼 장식물이 아니라고 했소. 그런데 당신은 법이라는 칼을 란폭하게 휘둘러 죄없는 사람을 철창속에 처넣었소. 법관으로서의 첫걸음부터 제 법복을 피로 물들게 했단 말이요.》

《그만하세요. 난 나의 신성한 법복을 제 명예처럼 간주할거예요.》

《흥, 오산하지 마오. 정의와 진리를 가려보지 못하는 법복, 그건 어디까지나 죄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은 살인자의 칼이나 같은거요!》

김연주는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러니 당신은 자기 행동만이 정당한것이구 남의 행동은 다 그르다는건가요? 내가 보기에는 이자 그 말은 나한테가 아니라 당신한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말에 승철의 기색은 굳어졌다. 무엇이라고 대꾸할것처럼 움찔거리던 두툼한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왜, 대답을 못하는가요? 한 녀성의 가슴에 찬물을 부어넣을 때조차 사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있었을 그 기상은 어데 갔는가요?》

《당신은 뭔가 오해를 하고있소. 사실 그때...》

연주는 칼날과 같은 어조로 그의 말을 뭉청 잘라버렸다.

《그만하세요. 난 그따위 변명은 듣기조차 싫어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난 당신을 난생처음 보는 사람이며 또 당신도 나라는 인간을 모르는 사람이예요. 어제도 그렇구 앞으로도 영원히 말이예요!》

웅다문 입술에 힘을 가하며 연주는 총총한 걸음을 옮겼다.

인간생활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마련이다. 허나 나는 패배를 모르는 승자로 살것이다. ...

28

김수일은 요즘 육신을 옥죄이는 사슬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수 없는 압박감에 온몸이 한줌으로 줄아드는것만 같았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기색은 시르죽어가고있었다.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시세요?》

안해의 푸념에 그는 손을 활 내저었다.

《이게 없으면 누가 내 피로움을 달래주겠소. 누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거예요? 속시원히 말이라두 좀 하세요.》

류정은 애원하듯 말했다.

안해의 간청을 귀등으로 흘리며 수일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더는 참지 못한 류정은 술잔을 가로챘다.

《여보, 이제 술을 작작 마시세요. 제발 빌어요.》

흐리터분한 눈가에 어린 안해를 보는 수일의 입귀로는 뺨소가 흘렀다.

뭐, 술을 작작 마시라구?! 왜, 왜서 이걸 작작 마신단 말이야. 술을 안먹으면 정신이 말뚱해질텐데... 눈이 흐리지 않으면 온통 꼴보기 싫은 작자들만 보이는데 내 신경이 지금처럼 온전할것같은가. 이것이 없다면 괴로움으로 응축된 이 심장은 이전에 벌써 폭발하고말았을것이다. 살기 위해서 이미 량심을 먹통속에 담그어버린 내가 아닌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코가 꿰여 흙탕이건 산판이건 마구 끌려다니는 기구한 인생을 술이 아니면 그래, 누가 보듬어준단 말인가. 술에 취해 하늘과 땅이 서로 껴안고 돌아가는 꼴을 감상하는게 이젠 나한테선 하나의 락으로 되었다. 그걸 보면 한탄과 한숨만이 새어나오던 이 주둥이에서는 음치라도 노래같은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는가. 그래, 숨길 하나 열어놓지 않고 목을 옥죄이는 이 개같은 놈의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것은 이 술밖에 더 없다. 이 술병이야말로 내 생의 빛이고 생명수란 말이야.

《애정이 아버지, 당신은 요즘 너무도 변했어요. 꼭 타락한 사람같은게...》

멀리서 울려오는 메아리같았다.

돌아보니 눈물이 가랑가랑 맺힌 안해의 얼굴이 보인다. 비록 남들처럼 뼈여지게 잘나지는 못했어도 수십년세월 내리막길이면 내리막길, 올리막길이면 올리막길을 꾸념없이 따라온 너자이다.

사람의 정은 갈수록 깊어지는 법이다.

그럴수록 그는 가족들앞에 지닌 의무감을 자각하곤 하였다. 결혼을 하고 행복하려면 땀흘리는 고생을 씁없이 해야 하듯 그것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었다.

그러나 한번 헛짚은 걸음으로 그 귀중한 보석이 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될줄은 몰랐다. 남편이 바보짓을 하면 집 절반이 불탄다는 말처럼...

이 불쌍하고 가련한 녀편네와 딸녀에게 가슴속의 번뇌와 괴로움을 어떻게 다 말한단 말인가. 내 목을 조이던 사슬이 장차 이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수 있단 말인가.

진저리가 난듯 그는 술병을 들어 꿀꺽꿀꺽 들이켰다. 뼈저린 후회로 가슴이 답답했다. 벗어날 방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안해와 딸을 마주 볼 기운이 없었다.

그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우에 벌렁 누웠다. 도저히 취기가 오르지 않는다. 오늘만은 왜서인지 술조차 그의 타는듯한 가슴을 마취시켜

주지 못한다.

하긴 술독에 빠진다한들 속에 낀 때를 씻을수야 없지 않는가.

《수일씨, 물론 우리두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지는것을 바라지 않았소. 하지만 상급의 요구이니 다른 방도가 없구만. 그러나 이번 결과에 따라 당신은 물론 가족들의 운명도 결정된다는걸 명심하오!》

이것은 일종의 협박이었다.

그러나 거절할 기운이 없었다. 발을 뽐기에는 너무도 진득진득한 진탕이었다. 별수없이 동고동락하는수밖에는 땀 도리가 없었다.

아, 그때 그 미치광이같은 미국경찰들만 아니였더라면 내 이 땅에 오지조차 않았을텐데...

그는 피로하게 두눈을 감았다. 나사처럼 조여드는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모지름을 썼지만 허사였다. 무서운 악몽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고있었다.

1년전 어느 겨울밤이었다.

김수일은 자기가 속한 시민단체의 모임에 참가하고 초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서초구의 한 약국에 들렀다. 딸애가 감기에 걸렸으니 약을 사가지고 오라는 안해의 전화를 받은것이다.

약방에서 나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검은색중형승용차 한대가 인도로에 바투 불더니 옆에서 멈춰섰다.

누가 내리겠지 하는 무심한 생각으로 수일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차안에서 두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랑쪽겨드랑이에 팔을 끼며 제압하는것이였다.

《아니, 이건 무슨짓이요?!》

김수일은 당황하여 겁에 질린 소리를 질렀다.

《이 새끼, 아가릴 달지 못해!》

면상을 후려치는듯한 날카로운 어조에 그는 그만 주눅이 들고말았다.

뒤좌석으로 그를 끌어들인 사나이들은 눈가리개를 씌웠다. 차안에는 랑옆에 앉은 사나이들과 운전사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자까지 모두 4명이였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야가, 아직두 주둥일 나풀거려!》

이 소리와 함께 수일은 오른쪽옆구리에서 심한 아픔을 느꼈다.

승용차는 시내를 통과하는지 여러번 멈춰섰다가 다시 달리곤 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수일은 아무 항변도 할수 없었다. 단지 무엇때문에 이 피한들이 나를 랍치할가 하는 생각뿐이다.

돈때문일까. 아니면?...

얼마후 차가 멈춰서더니 사나이들이 그를 끌어내리웠다.

여전히 눈을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건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내리계단을 통과해서야 두눈을 해방시켜주었다.

방은 서너평방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의자 두개가 마주놓여있을뿐이다.

이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어쨌든 공간기관인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뭇때문에 나를 끌고 왔을까? 나야 이들에게 잡혀올만한 죄를 진것도 없지 않는가. ...

수일은 그 방에 24시간동안 갇혀있었다.

그러나 잠은 잘수 없게 만들었다. 20~30분간격으로 검은 솜옷을 입고 안경까지 낀 사나이가 들어와 깨우곤 했다.

피땀 잠에 들면 흰옷을 입은 유령들이 주위에 모여들곤 한다. 그들은 알수 없는 언어로 뭐라고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는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곳은 지옥이며 아는것은 깡그리 털어놔야 한다는것은 명백했다. 미국 로스안젤스의 경찰서에서 이런 일을 몇번 당한 그였다.

결박당한 상태로 앉아있는 의자조차 바늘방석을 깔아놓은듯 엉치를 콕 콕 찌서댔다. 앞으로 당해야 할 모욕과 고통은 몇십배로 증가되며 신경계통들을 심히 자극시키고있다. 아직 살아있다는 이 하나의 감각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심장의 박동은 교회당의 종소리처럼 둔중하면서도 예민한 칼날처럼 온몸을 파고든다.

자그마한 뿔창조차 없어 우주의 광선은 볼수 없다. 단지 축수높은 전등빛에 눈이 부시다 못해 쓰러기까지 했다.

하루가 지나자 감때사납게 생긴 수사관이 나타나 심문을 시작했다.

두억시니처럼 몸집이 우람차고 생김새가 거친 그는 첫마디부터 반말질을 해댔다.

《야 이 새끼야, 넌 미국에나 그냥 자빠져있을게지 뭐 먹을게 있다구 여기루 게바라왔어?》

《제가 태어난 고향에 찾아온것두 죄가 되오?》

《이 새끼, 어디다 대구 대구질이야.》

그자는 눈알을 부라리더니 구두발로 명치끝을 올려쳤다.

《헉!》 하며 수일은 맥없이 의자와 함께 바닥에 자빠졌다. 참기 힘든 통증과 함께 숨이 킁 막혔다.

《임마, 네 누이가 판사질이나 한다구 그렇게 건방져?》

수일은 이들이 자기 래력을 잘 알고있다고 짐작했다. 모름지기 사전료해를 한 상태에서 랍치했을것이라는 예감에 오금이 저렸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수일의 최근 행동에 대해 손금보듯하고있었다. 랍치되기 전날 친구와 어느 식당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술을 마셨으며 또 무슨 내용으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가 하는것까지 죄다 알고있었다.

이들이 가지고있는 정보력에 탄복할 정도였다.

그자는 수일이가 속한 시민단체를 친북단체라고 하면서 조직의 구성과 인원수에 대해 요구했다.

그들은 2시간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심문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큰 검은 색안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타나곤 했다. 말마디들은 차거운 기운이 한껏 배여있었다.

《넌 친북단체에 가담했으니 틀림없는 <빨갱이>란 말이야!》

이런 올라미를 걸어놓으니 빠지기 쉽지 않을것같았다.

긴장을 풀어보려 했지만 속은 여전히 활랑거렸고 이제는 손발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두손으로 무릎을 꼭 잡았지만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다.

《똑바루 명심해. 네가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그자는 메마른 어조로 씹어뱉듯 말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네가 가담한 단체의 조직구성과 인원이지 너 같은 허재비같은건 필요 없어. 그러구 둘째, 수사관이 하나를 원하면 열을 넘겨줬고 말하라. 셋째, 우리와 거래하는 경우이다. 우리에게 줄것은 주고 얻을것은 얻으면서 말아야!》

수일은 《여기서 살아나갈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수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이였다.

이들의 제의가 자기를 옹아멜 미끼라는것을 알면서도 그는 생존을 위한 축수를 본능적으로 내밀었다.

세가지 방법중에 내게 해당되는것은 어느것일까? 지금 이자들은 나를 《빨갱이》로 규정해놓고있지 않는가. 자기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내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도록 협박하고 매질을 할것이다.

공안기관에 한번 잡혀들어가면 성한채로 나오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또 미국에서 체험한적이 있었다. 살아나자니 덧인줄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에 길들여지는 길밖엔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간파한듯 수사관은 올라미를 더 바투 조이기 시작했다.

《이봐, 법에도 인정은 있는거야. 네가 이런데서 귀신모르게 죽으면 그래, 네 녀편네와 딸넌은 어떻게 살것갈애. 보아하니 딸두 아주 귀엽게 생긴것같은데... 그들이 불쌍하지 않아?》

슬픔에 찬 수일의 얼굴은 무너지고 오열이 터져나왔다. 생기를 잃은 불에서는 눈물이 실새없이 흘러내렸다. 드디어 그들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몸이 뻘뻘 마르고 올빼미눈초리를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상급인듯한 그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몹시 유쾌한 기분이였고 눈동자도 반들반들거렸다.

《당신은 정말 옳게 처신했소. 대세의 흐름을 볼줄 안단 말이요.》

수일은 고심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나이는 신사인척하며 혼시했다.

《이봐, <참여정부>라는 해는 이제 완전히 꺼져버렸어. 대신 <실용정부>라는 해가 떠오르고있지. 너희들이 목갈리게 웨쳐대던 평화통일이라는 언어들은 다 과거의 상용문자처럼 되어버리는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 대세의 흐름을 따를줄도 알아야지!》

수일은 눈길을 내리깔았다. 가만 음미해보면 그의 말이 영 틀리지 않는것같기도 했다.

뭇때문에 불필요한데 목숨을 내대겠는가. 너 좋고 나 좋은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면 그만인 아닌가. 죽은 정승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모나게 살다가 정대에 맞을 필요야 없지 않는가?!

그의 이런 심리를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사나이는 의자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다.

《임잔 컴퓨터에선 귀신이라면서?...》

《예, 좀 알구있습니다.》

《그럼, 우리와 손잡구 일할수 있겠구만!》

《?!...》

그는 가방에서 한장의 사진을 꺼내 수일에게 보였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알겠지?》

수일은 흐리터분한 눈길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낯색은 거뭇게 질려갔다.

《알구있나 묻지 않는가?》

독촉에 그는 와뜰 놀라며 《예!》 하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좋구. 앞으로 넌 이 사람의 곁에 진드기처럼 붙어있어야 해. 알겠지?》

그가 보인 사진의 주인은 바로 조승철이었다. 초대학교에서 컴퓨터망을 관리하는 수일은 대학에 자주 와서 강연을 하는 그와 면식이 있었던 것이다.

《왜 거미알을 먹은 놈처럼 놀아. 아직 결심이 덜 선게 아니야?》

《아, 아닙니다. 그저 좀...》

사나이의 날카로운 눈초리에는 비웃음이 실렸다. 주대없는자들을 수없이 대상해본 경험에서 오는 쾌락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넌 정식 우리 <국정원> X과의 첩자라는것을 명심해.》

수일은 황망히 두손을 내흔들었다.

《아니, 전 그런 일만은 못합니다. 제발...》

《흥, 그러니 거절하겠다는거야! 하지만 이젠 늦었어. 네가 우리에게 털어놓은것만으로도 넌 네 동료들로부터 배반당할 신세이니까.》

《아!-》

수일은 두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미궁인줄 알면서 들어놓은 결음이건만 이렇게까지 깊숙이 빠져들줄은 몰랐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를 내려다보던 사나이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다.

《현 <정권>과 엮서는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너두 잘 알겠는데...》

이보라구 쌤님, 생활이라느건 누가 누구를 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야.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나를 짓밟을수 있다는것을 철리로 여겨야 해. 잘 다듬어진 그림이라구 해도 거기에는 필시 결함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구 해도 속에는 검은것이 잠재해있는거야. 깨끗하고 청백한 삶이란 이전에두 없었고 또 앞으로두 없단 말이야. 세상만물이란 뭐나 다 상대적이거든.》

수일은 번민속에서 헤어나올수 없었다. 그 말은 얼핏 듣기에도 그른데 없는것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밀정질을 하면서 사람잡이를 할수 있단 말인가. 정말이지 사회란 모두 한틀에서 뽑아낸것같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미국이나 이 《남한》사회나 뭐가 다르단 말인가.

승낙하자니 남들의 눈총이 두려웠고 거절하자니 귀신도 모르게 죽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번의 그릇된 선택으로 일생을 후회하며 살수 있다는 압박감에 머리가 터질것만같았다. 그렇다고 칼을 입에 물고 뱀뱀기를 할수도 없는노릇이다.

수일은 별수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좋아, 팬찮아!》

사나이는 흡족한 기색으로 종이장을 내놓았다.

《자 이걸 읽어보고 수표를 하라.》

경련이 일어나는듯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수일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일종의 선서나 같은것이였다.

《종북》숙청이 머리를 쳐드는 현시점에서 내가 더이상 거기에 발을 붙일수 없다. 이젠 나두 살아가는 묘리를 터득해야 하지 않는가.

수일은 드디어 결심을 내리고 지장을 찍었다.

《좋소.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오. 연락수단과 방법은 수사관이 들어와서 알려줄거요. 문제는 이제 당신이 배속되는 단체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엄수해야 한다는거요. 만일 그게 루설되면 어떤 후과가 차레지리라는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거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나이는 자리에 앉으며 다시 오금을 박았다.

《수일씨, 당신은 우리가 주는 임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것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내용과 지시를 주었다.

그가 나간 후 수사관이 다시 들어와 여러가지 훈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수일은 《국정원》에서 조직한 심리전단의 한 성원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이란 초등학교 컴퓨터망은 물론 여러 계통의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었다.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에 비해 대가는 충분했다.

《국정원》에서는 이미 몇해전부터 비밀리에 인터넷망을 통해 전문적으로 여론전을 벌이는 《알파팀》이라는 단체를 조직운영하고있었다. 이들의 활동과 장악은 《국정원》 원장이 직접 들어쥐고 진행했다. 임무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단을 내세우기 위한 여론조작에 있었다.

자동입력프로그램을 통하여 100개이상의 가입자이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진보세력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올려 열람자들의 지지회수를 조작하였다. 또한 《종북》인사들과 단체에 대한 조작글을 써서 그것을 여론화하여 그들의 인기를 깎아내리는 일들을 전문으로 하고있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접속자가 자신의 IP주소를 숨길수 있었던것이다. 특정한 싸이트에 접속할 때 직접 접속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조종기구를 거쳐 접속할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인터넷망에 올릴 글을 쓸 때 자기의 정체를 숨길수 있다.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들은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있었다.

보수집권자들은 몇년전에 이미 그 덕을 톡톡히 보았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출마에 내세운 저들의 후보자를 비호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 열람자들의 지지회수를 부쩍 올리도록 조작하였던것이다. 그 경험을 살려 《국정원》에 이 단체를 내오도록 한것이다.

이전에 김수일이가 받은 지령문에 씌워진 《학교》라는 표현은 바로 《국정원》을 의미하며 《교장》이라는 말은 이 단체를 조직지휘하는 《국정원》 원장의 대호였다.

이때부터 수일은 《알파팀》의 성원으로 술한 여론조작에 관여하였다. 최근에는 조승철의 《간첩》혐의를 강조하는 글을 실었고 대글형식으로 그것을 긍정하는 인원수가 늘어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니 인터넷가입자들속에서는 조승철에 대한 류언비어가 진실처럼 느껴지게 되었던것이다. ...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며칠전부터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뒤문으로 불리워들어가곤 했다. 지금껏 두려워했던 문제가 드디어 터졌던 것이다.

검사가 칭칭 동여맨 동아줄을 벗어던질 힘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

흐리멍텅한 눈으로 거울에 비긴 제모습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밤송이같이 마구 형클어진 머리칼들은 제것이 아닌 남의것, 자기를 향해 날아드는 비수와의 같은 것이었다.

아,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참담하고 비참한 몰골은 수렁창에 빠져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가련하기 그지없었다.

29

윤경진은 진종일 아무 일도 할수 없었다. 삼점불처럼 영켜돌아가는 모순적인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것만 같았다.

나는 왜 꼭 그 너자의 자식이여야만 했는가?! 물론 사람은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수는 없다. 하지만 나를 낳은 어머니는 왜서 그 너자여야만 하는가?...

미몽같은 현실을 부정해버리고싶었다.

윤기옥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 오직 그를 어머니로 간주해온 그였다. 현대 리선미의 출현과 그의 이야기는 사막의 모래폭풍을 불러왔다. 의식은 망연하고 가슴은 답답하여 무어라 아픔을 호소하기 어려웠다.

이전처럼 자기한테는 친부모가 없을것이라는 인식으로 있는것이 더 편했다. 그렇다고 수십년세월 자기를 찾아 고생한 리선미를 탓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친어머니를 대신하여 속썩여온 그의 은혜에 보답의 길을 찾아야만 했다.

어머니를 찾은 나의 가슴속에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한결과 울분으로 꼭 차오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당장이라도 김연주를 찾아가 그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싶었다.

그는 오늘 그 심정으로 컴퓨터화면에 펼쳐진 사진과 마주앉아 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범선우에서 꼭 껴안고 바다를 배경으로 서있는

조승철과 김연주의 행복상이다.

잠시라도 떨어지면 못살것같은 당신들은 어찌서 결렬이라는 계선을 넘어섰는가요?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을 불태웠던 두사람이 어찌하여 결렬이라는 비극을 연출했는가요? 남녀간의 애정은 공통된 지향과 행로에서 생겨나야 하지 않는가요. 그것이 탈선된 사랑은 곧 불행의 서곡을 불러온다는것을 그래 당신들은 정말 몰랐단 말인가요. 그 비운이 자신들의 후대 즉 이 경진이라는 불행아를 낳을수 있다는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는가 말이에요?...

애인의 가슴속에 잠재하고있는 열렬하고 뜨거운 민족애를 순수 개인의 부귀와 안락만을 위한 사랑으로 바꿀것을 요구한 김연주였다. 하기에 그는 제 몸에서 떨어진 피덩이를 버리는것으로 실련의 아픔을 치료하려 하였다.

세상에서 마르지 않는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했지만 그는 제 장래를 위해 한점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조승철변호사는 어떠한가. 그는 아직도 내가 자기의 아들이라는것을 모르고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엔 사리나 공명이 아니라 겨레의 아픔만이 자리잡고있었다. 대를 이어지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목숨도 서슴지 않고있다. 바로 윤기옥선생님도 그런분이다. 이들은 설사 《보안법》이라는 칼날에 육체가 동강난다 해도 그 피로 저 원한의 분계선을 지워버리려 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미래를 선명한 화폭으로 새겨안은 사람들만이 걸을수 있는 길이다. 고생도 락으로 여기며 지어 목숨조차 초불처럼 태울수 있는 참된 인간들의 선택이다. 화강석이 굳고 윤택이 나는것은 돌비늘과 석영, 장석이 어울린 조화라면 인간이 굳세고 빛나는것은 량심과 신념, 의지가 어울린 조화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나를 낳은 너인은?!... 아, 어찌하여 단란한 한가정의 행복에 취해있어야 할 우리는 이렇게 대결이라는 대명사를 명패처럼 달고있어야 하는가?...

비감에 잠긴 표정은 불꺼진 난로처럼 싸늘하게 식어가고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얼굴과 목덜미에 땀기운이 확 내뻗 명필이가 그의 곁에 다가왔다.

《경진군, 자넨 또 이 녀자에 대한 생각인가?!》

바닥깊은 상념에서 깨어난 경진의 얼굴에는 구슬픈 기색이 어리고있었다.

명필은 두눈을 지릅뜨며 따지듯 물었다.

《똑바로 명심하라구. 그 녀잔 윤기옥선생님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했네. 그러구 지금은 자기의 옛 애인이었구 또 자네의 아버지인 조승철변호사의 목에 파쑈악법의 칼날을 내대고있단 말이네.》

그는 제견에서 분한듯 황소처럼 거친 숨을 확확 내뿜었다. 속에서 끓어번지는 울화를 터치지 못해 씹씹거리며 탁자우에 놓인 물병을 병채로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리고는 다시 경진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자네의 처지에 놓여있다면 그 부장판사라는 여자한테 찾아가서 그가 지은 죄상을 까밝혀놓구말겠네. 제 자식도 마구 내던지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재판석에 앉아 <법의 공정성>을 력설하는가구 말이네.》

의자에 풀썩 주저앉은 그는 손수건으로 목덜미의 땀을 닦으며 체풀에 한숨을 내그었다.

《하긴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변질된다구...》

무엇인가 들이받을 그의 기상은 경진에게 불안의 구름을 던져주고있었다.

《자네 왜 남의 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견에서 격해서 그러나. 혹시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닌가?》

근심어린 그의 물음에 명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에익, 뒤구명은 쭈실수록 구린내가 난다더니...》

격앙된 분을 삭이지 못해 한참동안 투덜대던 그는 책상우에 훌 던져버린 취재가방을 신경질적으로 끄당겼다.

《경진군, 난 오늘에야 이 사회의 권력정치라는건 음모와 모살이라는 쌍기둥으로 유지해왔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네.》

명필은 가방에서 두툼한 책 한권을 꺼내 경진이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가?》

《일전에 말하던 통영의 한 늙은이가 운명을 앞두고 제 손녀에게 내놓았다는 그 책일세. 일명 죄많은 한생에 대한 참회록이라는거지...》

그는 어이가 없다는듯 코웃음을 날리며 말을 이었다.

《흥, 지금껏 상상할수 없는 모살행위로 술한 사람들을 파리잡듯하고서 <참회>라는 명분으로 제 죄를 감소시켜보려는 어리석은 수작일세. 이승

에서 범한 잘못을 저승에서라도 무죄판결을 받으려던 심산이었던가보네.》

《아니 그럼, 이게 바로?!...》

잘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껏 《윤기옥간첩사건》의 진상을 헤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걸음을 했던가.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푹 떨어지듯 나타났다...

갈증을 느끼던 사람이 물그릇을 받아안듯 경진은 성급히 책을 펼쳐들었다. 몇글자를 읽어내려가던 그의 두눈은 보석처럼 빛났다.

《허, 이제 보니 자네의 재간이 보통이 아니구만!》

그제서야 명필은 안면근육을 이완시키며 말했다.

《이제 내 재간일게 뭐가. 통영에 있는 친구들이 노력한걸세. 그들도 윤기옥선생님의 억울한 루명을 벗겨주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다구...》

그러면서 그는 책이 자기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경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통영에 있는 협회성원들은 참회록을 쓰고 운명한 늙은이의 손녀를 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접근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설사 가까운 벗으로 다가선다고 해도 그가 자기 집안의 허물을 쉽게 내놓을리 만무하였다. 그러던중 그의 애인을 찾게 되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심중히 받아들이고나서 선뜻 도와나서겠다고 자청했다. 사랑의 불길속에 휘말려 죽자살자하는 사이라 처녀는 총각이 몇번이나 설복해서야 그 책을 내놓았던것이다.

윤경진은 집에 돌아와 밤을 패면서 그것을 읽었다. 한장두장 번지면 번질수록 명필이가 왜 그토록 격해있었는지 짐작되었다.

도저히 참을수 없는 울분은 심장의 박동을 고조시켰다. 무엇이랴 표현할수 없는 분노는 분출구를 찾지 못해 흉곽을 안타깝게 두드리고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두손으로 책을 꼭 움켜잡았다. 지렁이같은 팔뚝의 힘줄들이 금시 터질것만같았다. 충혈된 두눈에서는 금방이라도 퍼런 불줄기가 뿜어져나올것같았다.

역스러운 생을 살아온 한 운명의 한탄과 죄의식이 그의 심중에 무겁게 쌓이고있었다.

《인생이란 너무도 짧다. 더우기 나처럼 인간이라는 신성한 부름앞에 감히 세워놓을수 없는 권력의 시정배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걸음마다

치욕과 동족의 붉은 피가 고였으니 내 어찌 이 글에 <량심선언>이라는 표제를 달수 있겠는가. 제 민족을 배반한 내가 어이 량심을 론할수 있단 말인가.

사대와 독재의 권력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직 개인이라는 터발에 출세와 공명, 부귀의 씨앗을 심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생명수로 뿌리며 그들의 죽음을 부식으로 삼아온것이 나의 전 생애이다.

저승의 문턱을 앞두고 지나온 삶을 되새겨보니 나와 같은 음모군들에 의해 무고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의 피절은 절규가 심장을 아프게 한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량심으로서 피절은 과거사를 참회해보지 않을수가 없다.

나야말로 반통일분자들의 하수인이 아니였던 말인가. 후회와 한탄의 눈물을 짓씹으며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두무릎과 두손바닥이 닳도록 빈다고 한들 무고한 령혼들과 후대들 앞에 어찌 낫을 들수 있단 말인가. 지옥의 기름가마에 담근다고 전생에 지은 죄를 어이 다 씻을수 있으랴. 산은 산대로 모이고 사람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했거늘 모략과 음모, 모살자들의 무리속에 몸을 담그고 독재<정권>을 위해 사람잡이로 허기진 욕망을 달래왔으니 내 늦게나마 이승에 남기고싶은 말을 적어 억울한 혼백들앞에 속죄하고싶은 심정이다. …》

저자는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서 오래동안 복무하던 백남수라는 로인이었다. 그는 통영에서 살다가 몇년전에 사망하였다.

고향에 내려와 남은 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자고 했지만 오히려 심리적인 고통으로 번민속의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시발점은 그가 본 신문에 실린 기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글에는 지난 시기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의 비참상과 그 자손들의 억울한 하소연이 실려있었다. 기사는 이미 돌처럼 굳어진 그의 겹은 심장을 조용히 든장질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자기가 직접 가담하여 조작한 《간첩》사건의 피해자가 남긴 아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백남수에게 우리 아버지가 정말 《간첩》이였는가, 아니면 무엇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사회적인 압박과 구속에 얹매여있어야 하는가고 하면서 진상을 요구했다.

때없이 되풀이되는 그때의 일은 악몽으로 현시되면서 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있었다. 그때에 저지른 일들이 오랜 세월속에 씻겨지지 않고 이렇게 질책의 채찍으로 후려칠줄은 몰랐다. 무덤속으로 그대로 안고갈수 없는 일들이었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지옥에서조차 그들의 피라는 저주와 규탄을 피할수 없을것같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자기가 감행한 지난날의 죄행을 공개하여 조금이나마 죄많은 인생을 참회할 결심을 하였던것이다.

백남수는 자기의 글에서 박정희군사독재《정권》시기부터 1980년대말까지 남조선의 정보기관들이 벌린 모략극들을 털거하였다.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북파간첩》, 《잠북간첩》 등 남조극들을 조작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보안법》의 칼로 동강낸 사건들이 서술되었다.

그는 자기가 1962년 중앙정보부의 서울지부에서 일하면서 한 대학졸업을 흡수하여 만들어낸 《윤기옥간첩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썼다.

바로 이것이었다. 조승철이 수십년동안을 찾았고 또 윤경진이 그토록 알고싶어하던 흑막속에 묻혀있던 진실이었다.

반공을 《국책》으로 삼은 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어 죄없는 윤기옥을 《간첩》으로 몰아붙인 극악한 음모군의 이름을 끄집는 그의 표정은 무섭게 이그러지고있었다.

내 네놈의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기어이 윤기옥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야말테다!

근엄한 기색으로 두손을 짝 틀어잡은 경진의 가슴은 용암마냥 끓고있었다. 분화구를 찾아 화염을 토하며 동족상쟁에 혈안이 된 살인마들을 민중의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싶은 심정이다.

윤경진은 화독처럼 달아오른 육체를 식히려고 공원으로 나왔다.

이른새벽의 대기는 습하고 찬 공기로 그를 한껏 감싸안았다. 하지만 좀처럼 흥분된 심정을 식힐수 없는 그였다.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형리들의 총칼에 쓰러져 한줌의 흙으로 사라졌는가!...

피비린내가 확확 풍기는 참회록의 글줄을 더듬으며 걸어가던 그는 룡감적으로 느껴지는바가 있어 눈길을 돌렸다.

새벽녘의 습기가 차분하게 내려앉은 나무의자에 온몸을 고슴도치처럼 웅송그린 어린 소년이 누워있었다. 이제는 방랑생활과 야외숙박에 습관이

된듯 마대짝 같은것으로 몸을 반쯤 가리운채 혼곤히 잠들어있었다.

저도 모르게 피어나는 동정심으로 경진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맥이 진한 희미한 가로등불빛에 내려다보니 일곱살정도의 어린애였다. 고아인지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는지 알수 없다.

어찌 알랴. 혹시 이애의 부모들도 억울하게 파쇼악법의 희생물로 되었는지...

여러곳에 현대딱지가 앓은 아이는 꼭 탄구덩이에서 나온것같았다. 목욕이라는것을 아는지 마는지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풍겼다.

경진은 돈지갑안에 있는 얼마 안되는 돈을 모두 꺼내어 소년의 머리말에 놓았다. 그리고는 입고 나온 코트를 벗어 씌워주었다.

철들기 전부터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린 불쌍한 생명이다. 꼭 어린시절 제모습을 보는것만같았다.

상록수들은 쓸쓸하고 괴로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에게 윤기옥의 모습을 실어다주었다.

《어머니!-》

조용히 불리보는 부름에 코마루는 시큰해오고 눈곱이 찌릿해진다. 일평생 잊을수 없는 은인의 모습은 언제 봐도 인자하고 자비하기만 했다.

...고아원은 강릉의 바다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앞에는 동해바다가 눈뿌리 아프게 펼쳐져있었다. 뒤에는 높고낮은 산들이 열기설기 병풍처럼 둘러있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반농반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었다. 몇년전부터 살기가 힘들다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다나니 마을은 늙은이들과 아이들만 사는 고장으로 돼버리고말았다.

경진이는 키높은 담장으로 둘러막힌 고아원생활이 싫증나기 시작했다.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들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였다. 설사 바위썸에서 뻐어져나왔다 해도 끝이들어야 할 신세이다.

철이 들면서부터 그는 자기에게도 어머니가 있다는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단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모를뿐이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쪽구석에는 꼭 어머니가 자기를 찾으러 올것만 같았다. 함께 생활하던 아이들도 그렇게 고아원의 문밖으로 벗어났다.

어제도 한 젊은 녀자가 와서 옆자리에서 자던 광민이에게 이모라고 하면서 데리고 갔다.

제포래 아이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경진은 자연히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자기가 정말 《알짜고아》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는수밖에 없을것 같았다.

나한테는 정말 엄마가 없을까? 있다면 어째서 날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원장처럼 무섭게 생겼을까? 아니야, 광민이 이모처럼 곱게 생겼을거야!

꼭 담장밖에 엄마가 찾아올것만같아 밖을 내다보며 흘린 눈물은 얼마인지 모른다. 꼭 자기가 여기 고아원에 있다는걸 엄마가 모르는것같았다.

그래서 여러번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원장한테 끌리워가 회초리찜질을 당하고 키보다 더 큰 비자루를 들고 앞마당을 청소해야만 했다.

엄마, 엄마는 지금 어디 있나요? 날 이렇게 버릴바엔 왜 저를 낳았나요!

북받치는 설음과 눈물은 그의 가슴속에 모성에 대한 그리움을 더 간절하게 해주었다.

내 기어이 우리 엄마를 찾을테야!

눈이 내린 어느날 새벽 경진이는 드디어 담장을 넘는데 성공했다.

바깥세상에 나와보니 가슴이 넓어지는것같았다. 마주치는 녀인들은 모두 제 어머니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길은 너무도 싸늘했다. 비루먹은 강아지를 보듯.

두렵지 않았다.

엄마만 찾으면 새옷도 해주고 품에 꼭 껴안아줄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의 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흥분은 서서히 식어갔다. 어머니가 어디에서 사는지 또 살아있는지조차 알수 없다.

세상에 엄마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미처 몰랐다.

길손들의 손을 잡으며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나요?》 하고 물었다. 그때마다 그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내곤 했다.

몇끼를 건네고보니 배가 고팠다. 더이상 걸을 기운도 없었다. 그렇다고 고아원으로 되돌아갈수도 없는노릇이다. 노상 먹이를 찾는 독사같은 원장이 무서웠다. 이번에는 아예 종아리를 분질러놓을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배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더 크게 울렸고 온몸이 추워났다.

경진이는 드디어 뼈만 남은 사지를 움크리며 몸을 떨기 시작했다. 슬픔과 두려움은 그의 육신에 침습하여 혼백을 앗아가더니 눈판우에 쓰러뜨리고말았다.

혼미해지는 정신을 헤집으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꼭 광민이 이모처럼 생겼다.

《엄마!-》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다. 오히려 더 좋았다.

어느 애가 말하기를 죽으면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선 부모들을 만날수 있다고 했다.

나도 우리 엄마를 만날수 있을거야!

경진이는 봉오리같은 꿈을 피어올리며 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잔등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운 액체가 입을 통해 흘러들었다. 달작지근한게 참 좋았다.

여기가 지옥이라는덴가?... 이곳에는 따스한 아래목도 있구 또 맛있는 것두 먹여주는가?!

어린 심장은 급작스레 밀려드는 흥분으로 격동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우리 엄마두 여기에 있겠구나?!

살그머니 눈까풀을 들어올렸다. 아닌게 아니라 뿌연 연무속에 한 녀인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는게 아닌가.

경진은 다시 눈을 감았다.

내가 교아원에 도로 끌려왔는가? 아니야, 그곳에선 이렇게 맛있는것을 주지 않아. 그리고 방금 본 사람은 원장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럼 누구일까? 그래, 분명 우리 엄마야!

《엄마!-》

무슨 힘으로 몸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되어 녀인의 품에 안겼는지 알수 없다. 이 어머니야말로 자기를 보호해줄수 있는 아늑하고 절대적인 보금자리로 여겨졌다.

《엄마야!-》

어린 소년은 녀인의 포근한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쳤다.

《오냐, 내가 네 엄마다.》

뜨거운 정감이 흐르는 목소리는 수년세월 얼어붙었던 어린 마음을 한 순간에 녹여버렸다.

어머니를 찾으니 참으로 좋았다. 맛있는 음식은 물론 새옷까지 해주니 부러운것이 없었다. 비좁게만 여겨진 이 세상이 드넓어보였다. 자기는 꼭 고우에서 한껏 나래를 펼친 어린 새갈았다.

고아원에서 나온지 5일째 되는 날 아침 어머니는 경진에게 새 솜옷을 입혀주었다.

《오늘은 나와 함께 고아원으로 가자!》

경진은 대번에 뽀로통해서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절망과 두려움이 느껴졌다. 모든것을 잃는 듯한 허탈감이 온몸을 휩쌌다.

《난 가지 않을래. 엄마와 같이 있을래요.》

녀인은 빙그레 웃음을 띠우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 헤어지지 말자꾸나.》

그러면서도 굳이 손목을 잡고 고아원정문으로 끌고 들어갔다.

원장은 땀금처럼 노려보았다. 험상궂게 생긴 얼굴에 비끼는 살기와 질투가 섞인 묘한것이였다. 마주보면 볼수록 섬뜩한 공포감을 준다.

소년은 녀인의 치마자락을 꼭 잡은채 그의 뒤에 숨었다.

《원장선생님, 이애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입양수속을 해주세요.》

녀인이 내미는 주민등록증을 보는 원장의 얼굴은 여전히 벌레집은 상이였다.

《윤기옥이라?!... 그런데 이애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윤기옥은 며칠전 읍에 갔다오던 길에 눈판에 쓰러진 경진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온 사실을 설명해주었다.

《흥, 저녀석은 그래두 목숨이 질기군!》

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이죽거리듯 말했다.

《그런데 <보안관찰대상>이군요?!... 그런 몸으로 아이를 꽤 키울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알수는 없었지만 경진은 더럭 겁이 났다. 어머니의 얼굴색이 거뭇게 죽어가고 터갈라진 입술이 열리지 않으니 두렵기만

했다. 자기를 다시 이 고아원울타리안에 남겨둘것만같았다.

말없이 경진의 머리를 쓰다듬던 윤기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사실 나두 그것때문에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수십년전에 저세상으로 간 제 남편과 아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더군요.》

원장의 낯색은 굳어졌다. 그의 마음속아픔을 짐작하는것같았다.

사실 윤기옥이가 경진이를 양자로 받아들일 결심을 하기까지는 매우 힘들었다. 《보안관찰대상》으로 항상 경찰들의 시야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였다. 그러한 그가 비록 고아라도 자기 호적에 올려놓으면 그 아이는 장차 전과자의 자식으로 낙인되어 앞길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부모없는 어린것을 다시 고아원으로 보낼수는 없었다. 메마르고 척박한 이 땅에서 거칠게 자랄 한 생명의 앞날이 걱정되었다.

그래, 비바람이 세차다고 어린나무에 버팀목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구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거야 자연의 리치가 아닌가!

그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감옥으로 이송되었을 때 남편은 안해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들과 맞섰다. 그때 그는 그자들에 의하여 심한 구타를 당했으며 나중에는 병으로 돌아갔다. 졸지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다섯살 난 어린 아들은 방랑생활을 하였다.

그애마저 7살 잡히던 어느해 겨울 다리밑에서 웅송그리고 자다가 영영 깨나지 못했다는 비참한 소식을 감옥에서 전해들었다.

너무도 억이 막힌 윤기옥은 눈물조차 흘릴수 없었다. 박정하고 무정한 이 세상에서는 가슴찢어지는 아픔과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데도 없었다.

출옥후 그는 고향인 보성군을 떠나 광주로, 그곳에서 또다시 3년간의 형기를 마친 후 이곳 강릉으로 자리를 옮겼다. 허나 그의 걸음걸음은 항상 경찰들의 감시속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5일전에도 강릉경찰서에 불리워가 그간 생활을 이야기하고 돌아오던 길에 다 죽어가는 경진이를 만나게 되었던것이다. 꼭 제 친자식을 보는것만같았다. 자기의 몸에 붙은 딱지가 두려워 이 어린것을 외면한다면 비명에 죽은 아들에게 두번다시 죄를 짓는것만같았다. 이리하여 그는

경진이를 말아 키울 생각으로 이렇게 원장앞에 나선것이다.

이날 경진이는 윤기옥이도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돌도 채 되지 않은 자기를 고아원의 정문에서 얻었다는것이다. 포단에는 성씨도 없는 《경진》이라는 이름을 써놓은 쪽지만 달랑 있었다고 한다. 결국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생명, 오직 그 두 글자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불행아였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윤기옥이 그 품을 대신해주었다. 온 우주를 통채로 얻은 기분이다. 엄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나이지숙한 녀인, 꼭 할머니벌이 되었지만 그 한테는 친어머니나 같았다.

그때 경진의 나이는 11살이었다.

윤기옥의 요구는 너무도 엄격했다. 자기를 어머니가 아니라 꼭 선생님이 라고 부르게 했다. 밖에서나 집에서나 그 요구는 변함이 없었다.

대학으로 떠나는 날 기옥은 이렇게 당부를 하였다.

《난 너의 선택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훈시하지 않겠다. 그러나 명심할것은 학문을 배우기 전에 먼저 선과 악을 잘 알아야 한다는것이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착한것은 장려하고 악한것은 징벌해야 한다. 이 사회란 하나의 가면무도장이나 같은 곳이다. 난 네가 정의앞에 머리 숙이고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을 체현한다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다.》

윤경진은 그날의 그 훈시를 지금껏 생활의 철리로 간직하고있었다.

30

창문을 열고 시원한 새벽공기를 한껏 들이켰지만 머리는 여전히 흐리터분했다. 간밤의 설친 잠으로 눈거죽조차 무거웠다.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실컷 잠을 자고싶은 생각밖엔 없었다.

허나 연주는 제 어깨우에 실린 법관이라는 의무를 더 크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시작되고 반복되는것이 그의 하루일과이다.

하지만 오늘은 여느때와는 달랐다.

경대앞에 오래 앉아있는 법이 없는 그였지만 별스럽게 시간을 지체하고있다.

그 녀자는 거울에 비친 제모습을 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볼수록 사람들의 분석이 그르는데 없는것같다.

고집스럽게 생긴 입술, 길쭉하고 뻣뻣 마른 얼굴, 매섭게 그려진 눈썹, 인정과 좁이란 한점 없는 팽팽한 표정, 추세의 공기라고는 단 한번도 빨아보지 못한 옷차림...

사람들이 말하듯 나는 인정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딱딱하고 메마른 여자이다. 그래, 난 아직 그 어떤 관용을 베풀만한 의지를 가지고있지 못하다. 법에 선의와 용서라는 문구가 없는것처럼...

눈앞에는 피고석에 앉은 조승철의 모습이 비껴들었다. 그와의 심리적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자이고 패자가 되겠는가 하는것은 단정할수 없다. 그만큼 이번 재판은 그에게 너무도 큰 정신육체적부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재판준비과정이 심화될수록 연주는 가끔 자기가 그 어떤 요지경속에 빠져드는듯한감을 느끼곤 하였다. 아니아니할수록 우악스러운 손이 끌어당기고있었다. 그렇다고 뭔가 선명하게 안져오는것도 아니다. 정신을 가다듬으면 들수록 묘연한 연무만이 눈앞을 가리울뿐이다.

이런 증상은 그가 기소장의 허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타났다.

정신을 흐리는 생각에서 해탈하고싶어 그는 몇해어간에 진행된 이런 양상의 재판문건들을 료해해보았다. 얻은 결과는 놀랍기도 하고 어처구니없기도 했다.

거의 모든 재판이 하나의 형타로 찍어낸것같았다. 피고들의 걸음걸음 지어 손짓 하나, 말 한마디도 모두 《보안법》이라는 틀에 맞추어놓은듯한감이 들었다.

지금껏 주로 강력범을 비롯한 일반범죄만 취급해온 그였지만 이런 약점들이 장차 재판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잘 알고있었다.

지난해 대법원이 《종북》단체로 락인하고 강제해산시킨 남북통일실천연합과 그 간부들에 대한 공판이 바로 그 실례라고 할수 있었다.

검찰이 그들을 《보안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원인은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와 남북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와 선언들을 존중하고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물었으며 피고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변호사로 나섰던 조승철은 변호인단의 명의로 즉시 대법원과 《정부》를 상대로 항의문을 제기하고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이에 각계각층의 진보단체들과 시민들이 호응해나섰다. 공판 그 자체가 이 단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강제해산하려는 조작극이라는 것이었다.

공안당국은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종당에는 강압과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항의를 묵살해버렸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서 제시한 조승철에 대한 기소장도 그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데 있었다. 북의 통일정책에 대한 존중, 미군의 철수와 《보안법》의 철폐, 북의 《출판물소지 및 취득죄》 등 이러루한것들이다. 색다른것이 있다면 그의 《간첩》혐의를 보여주는 록화자료뿐이다.

연주는 재판준비과정에 자기가 지금껏 집착해온 《보안법》이 가지고있는 모순점들을 피부로 감각하기 시작했다.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어떤 마술의 힘에 의해서인지 검질긴 의문을 물리칠수 없었다.

기소장에 지적된 《리적표현물취득죄》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연주가 찾아갔던 서대문구는 물론 서울의 여러곳에 그러한 서점들이 많았다. 모두 공안기관의 승인밑에 세계 여러 나라 인터넷과 연결되어있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의 봉사계통을 통하여 북의 출판물과 자료들을 얼마든지 볼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인터넷체계는 《정부》청사들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에도 설치되어 리용되고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한쪽에서는 인터넷의 봉사를 승인해주고 또 다른쪽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북의 출판물을 보았다는 죄명을 들썩우니 이거야말로 애매한 문제가 아닌가?!

또 다른 측면을 보자. 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에는 북과 남의 동포들이 서울과 평양으로 수없이 오가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그 기간 많은 사람들이 북을 방문하고 그곳 주민들과 접촉을 하였다.

만일 북의 사람과 만난것을 《회합》, 《통신죄》로 취급하게 되어있는 《보안법》의 조항대로라면 평양에 가서 그곳 시민들과 만난 그들도 모두 《간첩》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자기 사고가 한계점을 넘어서자 스스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애써 그것을 부정해버렸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건 그렇다쳐도 피소자가 이웃나라에 가서 북측대표에게 비밀자료를 제공한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물론 그 록화물을 제공한 증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설사 어느 정보기관의 성원이라 할지라도 그 증거물이 사실이라면 조승철, 그 사람은 결코 《간첩》행위에서 벗어날수 없다.

연주는 그 록화물을 몇번이나 보았다. 피소자의 《간첩》혐의를 적라라 하게 보여주는 생신한 자료였다.

조승철은 지난해 가을 이웃나라에서 진행된 북과 남, 해외의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어느 한 모임에 참가하였었다.

엄중한것은 조승철이 북의 대표단 성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남북이 채택한 합의서에 의하여 진행된 쌍방간의 교류와 접촉에 대한 문제, 각 단체들의 동향과 반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데 있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였다.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게다가 그가 북의 대표에게 비밀자료를 넘겨주었다는 내용까지 첨부되었다.

록화물에는 조승철이 면담실에서 북의 대표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다. 한창 담소를 나누던중 피소자는 북의 대표에게 담배를 권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 제 주머니에 넣고 대신 자기 담배곽을 꺼냈다.

검찰은 북의 대표단 성원이 넘겨받은 담배를 문제거리로 삼았다.

무엇때문에 그가 그 담배를 피우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는가? 분명 여기에는 그 어떤 비밀자료들이 들어있을것이다. 친북경향이 강하고 북측대표에게 민간단체의 동향에 대해서까지 서슴없이 이야기할 정도의 피소자이고보면 얼마든지 중요한 군사비밀을 그들에게 제공할수 있는 근원적인 기초가 성립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그들은 기소장에서 조승철이 넘겨준 담배에는 군사기밀들을 찍은 축소필림이 들어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젠 재판날자도 박두하여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을 보낸 상태였다. 그에 대한 그의 견해가 어떤가 하는것은 알수 없다. 분명 자기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할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그는 컴퓨터의 스위치를 넣었다. 그 록화자료를 다시 보고싶었다.

펼쳐진 화면을 응시하던 연주의 눈빛은 굳어졌다. 전자우편물이 떠있었던것이다.

《진실》이라는 가입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있었다. 시간상으로 보면 어제 저녁에 보낸것이었다.

누구일까?

《진실》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생소했다.

지금까지 그가 컴퓨터의 망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껏해야 법원의 직원들과 몇명의 법학전문가들뿐이다.

어쨌든 자기한테 온 우편물이라 호기심이 동했다.

전자우편을 읽어가는 연주의 낯색은 대리석처럼 변해가고있었다.

《부장판사님! 당신에 대한 존칭을 이렇게밖에 달리 부를수 없는 한 불행한 인간이 묻고싶습니다. 판사님은 그래, 언제 한번 제자신에게 양심의 판결을 내려본적이 있습니까? 법전과 법복속에 가리워진 제 얼굴에 어떤 때가 켜는지 돌이켜본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는가를 말입니다. 방청객들과 피고인들앞에 거연한 자세로 나설 때 자신의 육체속에 뿌리박은 흑점을 돌이켜본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제 진속부터 먼저 봐야 할 사람들이 바로 법관들이 아닌가요.

난 도저히 리해할수 없군요. 정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란 단 한점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법정앞에 나서서 법이라는 칼날을 내흔드는지...

나의 망막속에 비낀 당신을 한마디로 평한다면 두뇌는 물론 심장까지 남한테서 이식받은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는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할 당신을 이렇듯 증오스럽게 경멸해야 하는 저는 이미 육체의 형체조차 잃은 몸이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악한 미인이 아니라 선한 불구자였다더라면 가슴은 이처럼 찢어지지 않을겁니다. 일생을 바쳐 존경하고 모실거란 말이예요!

하나 미덕은 걸어서 가고 악덕은 말을 타고 가듯이 저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놀랍게도 악인이라는데 있습니다.

강력범들에 의해 일찌기 어머니의 사랑을 잃은 한 인간이 어떻게 열혈의 심장들을 칼질하는 폭력배로 변신했는지 알수 없군요. 하긴 달리 될수 없겠지요.

이미 수십년전 어느 마가을 밤, 청량리역근방의 개인병원에서 피덩이와 같은 어린 자식을 남한테 꺼리낌없이 넘겨준 당신이 아니었던가요. 그날부터 판사님은 모성애라는 무거운 짐대신 오직 자기만이라는 가벼운 짐을 선택하지 않았는가요.

그래, 당신은 제 몸에서 떨어져나온 어린 아기의 운명에 드리우게 될 검은구름에 대해 생각이나 해봤는가요? 단 한순간이나마 기구한 목숨을 간신히 지탱하며 어머니를 목매여 찾는 어린 생명의 피절은 울음소리에 귀기울여본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 그 대가로 얻은 명예와 부귀로 자기의 악행을 메워버릴수 있다구 생각했는가 말이에요.

판사님, 명심하세요. 당신은 민족이라는 그 이름을 배척한 순간부터 인간의 사랑은 물론 어머니라는 그 신성한 부름을 영원히 잃어버린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행위를 두고 일생 뼈저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아, 장차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끝나겠는지 저는 가늠할수가 없군요. 차라리 김연주라는 인간을 몰랐다면 지금처럼 괴롭지 않을겁니다!...》

마디마디 창살처럼 가슴의 예리한 곳을 허비는 글줄들이었다.

곱씹어 읽으면 읽을수록 사정없는 채찍이 온몸을 칭칭 감아돈다. 그럴수록 피부가 아니라 심장이 조각조각 사방으로 휘뿌려진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모든것을 자상히 알까? 과연 나한테서 바라는데는 뭔가?...

겹쳐드는 질문들은 홍팩속에 의문의 탑을 쌓아올리고있다.

흠빛으로 굳어진 연주의 표정에서는 한점의 피기도 찾아볼수 없다. 한 인간의 절규가 그의 넋을 통채로 앗아간것이다.

일종의 위협적인 언사로 상대의 약점을 마구 헤집고 란도질하고있다. 한편으로는 그 어떤 애타는 심정의 토로이기도 했다.

판사가 형을 언도받은 피고의 가족들이나 출소자들에게서 여러 형태의 보복을 당하는것은 다반사이다.

한동안 이사람저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던 그는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분명 그밖에는 없다! 저 내용들은 선미와 나밖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아닌가. 그럼, 선미 네가?!...

온몸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의문의 파도에 휘청거리던 그는 한점을 응시한채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래, 분명 그 젊은이다. 그만이 지금껏 나한테 이런 투로 말해왔다. 며칠전 집에 찾아왔던 윤경진의 모색이 비로소 떠오른것이다.

윤경진! 당신은 도대체 누군가요?

이 물음에 대답할 사람은 오직 리선미밖엔 없었다. ...

택시를 탄 연주는 번거로운 생각에 속은 조바심으로 끓었다.

추억은 언제나 아름다운것은 아니다. 갈피갈피 번져지는 회오속에 감미로운것과 불미스러운것이 서로 엇갈려놓여있군 한다. 물론 세월은 인간에게서 많은것을 앗아간다. 그러나 기쁨과 분노의 흔적만은 깡그리 지워버리지 못하는것이 시간의 무능력이다.

허나 입술을 짓씹으며 그날의 아픔을 스스로 잊어버리며 살아온 연주였다. 그렇게 흘러온 날들은 어느덧 수십년이라는 년륜을 새겼다.

그런데 그 상처가 뜻밖에 《진실》이라는 사람이 보낸 글줄들에서 다시 환원되지 않았는가.

이제 선미를 만나면 모든것이 까밝혀질것같았다.

한쪽으로는 두려웠다. 윤경진이라는 젊은이와 아무런 인연이 없기를 빌었다.

오직 선미가 꾸며낸 조작이라면 좋으련만... 혹시 경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생각할수록 오금저리는 일이었다.

가마는 금이 가면 뺄수 있지만 명예는 훼손되면 회복하기 힘들다.

《제 자식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재판석우에 앉아있는가?》

《범죄자가 재판을 집행하다니?!...》

비발처럼 날아들 비난을 상상하며 그는 골깊은 한숨을 내그었다.

그가 다방에 들어서니 리선미는 한 중년남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앉아있었다. 사나이는 다름아닌 얼마전 츠대학교에서 만났던 김철명이라는 동창생이었다.

두사람은 상기된 기색으로 나타난 연주를 보자 한순간 어리둥절했다.

연주의 행동은 꼭 원시림에서 길잃은 사람같았다. 그는 철명에게 랑해도 없이 다짜고짜로 한쪽구석으로 선미를 데리고 갔다.

《솔직히 말해봐. 그래, 윤경진이라는 젊은이는 도대체 누구냐?》

선미는 그제서야 그가 왜 선불맞은 짐승처럼 헤덤비는지 짐작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인가구?... 넌 아직도 모르는척할셈이냐?》

연주는 서슬푸른 인상으로 가방에서 종이장을 꺼내 식탁우에 놓았다. 그것은 《진실》로부터 받은 전자우편물을 인쇄한것이였다.

글줄들을 훑어가던 선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게 뭐 잘못되였다는거냐? 그는 자기 심정을 그대로 터놓았는데...》

자그마한 거리낌도 없는 그의 대답에 연주의 눈빛은 더욱 표독스러웠다.

《흥, 그것두 말이라구 하니? 그래, 기자한테 이 사실을 공개해서 얻자는게 뭐냐? 이젠 어디까지나 조승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 얼굴에 먹칠하는 비렬한 행위로밖엔 달리 될수 없는거야!》

리선미는 침착한 자세를 형클지 않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주, 넌 지금 너무 흥분한것같구나. 자리에 앉아 마음이 진정된 다음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지 않겠니?》

《아니, 난 네가 뭇때문에 이런것까지 서슴지 않는지 그 원인을 알고싶다. 그래, 이런 험박이나 받는다구 내가 재판의 <공정성>을 흐릴것갈니?》

도저히 성미를 가라앉히지 않을 그의 언행에 선미는 잠시 주저했다. 허나 그것도 일순간이였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모든것을 까밝히는 길밖에 없었다.

이윽고 그는 침착하면서도 나직한 어조로 그루박듯 말했다.

《연주, 똑바로 새겨둬라. 경진이는 바로 다름아닌 네 아들이야!》

《뭐, 뭐라구?!...》

순간 연주는 예리한 물체에 급소를 맞은듯 입을 벌린채 굳어졌다. 머리가 뻥하고 눈앞이 흐려졌다. 단지 귀전에는 선미의 말이 공명처럼

울리고있다.

《네 아들이다!—》

아니아니하던 현실이 그대로 닥쳐든것이다. 그는 식탁을 부여잡고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세찬 박동으로 고동치고있었으나 낮색은 이미 백지장으로 질려있었다. 령정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기운도 없었다.

겨우 입술을 비집고 흘러나오는 소리조차 박력을 잃고 잦아들었다.

《그러니 그애가?!...》

무작정 부정하고싶었다.

아니야. 절대로 그럴수 없어! 그는 지금 시드니에 있지 않는가. ...

솔직히 김연주는 자기 자식에 대해 영 무관심한것은 아니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그가 제일먼저 찾아간것은 아이를 넘겨준 녀인의 집이었다. 비록 온몸은 얼음덩이로 화했지만 아들에 대한 애정만은 한줄기의 실오리로 남아있었던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동안 몰라보게 자랐을 아들을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싶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이 땅에 없는 존재였다.

이웃들에게 알아보니 그 녀인은 남편을 따라 오스트랄리아로 이주해갔다는것이다.

그후 자기가 잘 아는 경찰에게 의뢰하여 아들의 행방을 부탁했다. 경찰은 그애는 시드니에 있는 어느 한 관광회사 사장의 외아들로 잘 있다고 했다.

연주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비록 이붓어머니의 손에서 자라지만 풍파없는 생활을 한다니 마음이 놓였다.

헌데 어떻게 되어 그애가 윤경진으로 뒤바뀌었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의문을 터놓고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눈가에 새겨진 경진의 모색이 조승철의 얼굴로 뒤바뀌는것을 어쩔수가 없다.

흰칠한 키에 갱뿔한 얼굴, 광채를 뿜으며 옆으로 길게 치째진듯한 두눈, 넓은 이마우에서 보기 좋게 잔물결을 일으키는 반고수머리...

제 아버지의 유전적인 인자야 어찌 부인할수 있으랴.

당혹과 두려움으로 갈래없는 속생각을 씻어버리듯 연주는 식탁우에 놓인 물고뿌를 비웠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형언할수 없는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경진이가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그의 말대로 장차 모자간의 관계가 상상할수 없는 대립을 불러온다면!...

무서웠다. 이 모든 일의 장본인인 리선미가 더없이 민망스럽고 증오스러웠다. 남의 허점을 리용하여 제 리익을 얻으려는 행위로밖엔 달리 볼수 없었다.

김연주는 쏘는듯한 눈길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설사 네 말대로 경진이가 내 아들이라고 하자. 그래 넌 그애를 리용해서 얻자는게 뭐니. 뭔가 말이야?》

선미의 눈빛은 흐려졌다. 극한점에 달한 연주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보고있었다.

《오해하지 말아. 난 늦게나마 그애한테 친부모들을 찾아주고싶었다. 그동안 인생고초를 다 겪어온 그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아주고싶었던 말이다. 그리고 너한테 모성애를 되찾아주어 그것으로 얼어든 네 가슴을 녹여주고싶었다.》

철명은 저쯤 떨어진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물론 두 녀인을 멀리하고있었지만 그의 귀전으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흘러들고있었다. 그래서인지 낮빛은 침통하게 이그러져있었다.

두 녀자는 이미 그에 대해서는 감감히 잊고있었다.

연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넌 지금 날 우롱하고있어.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헤집어 피롭히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유치하게 보이니?》

《그래, 넌 무서운 여자야. 제 리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할 사람이란 말이야!》

돌변적인 꾸짖음앞에 선미는 억이 막혀 말을 할수 없었다. 연주가 이렇게까지 변했을줄은 몰랐다.

두사람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로가 눈길을 마주한채 힘겨루기를 하는듯했다.

여전히 가쁜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리던 연주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남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제 목을 추기다 못해 이젠 그애까지 내세워 내 가슴에 칼을 박는게 네가 녀불처럼 외위대는 미덕이라는 거냐, 응?》

《?!...》

모욕감을 애써 참듯 리선미는 입을 꼭 다물었다. 수십년세월 그들의 상봉을 위해 기울여온 성의가 이렇게 모욕당할줄은 몰랐다. 분하고 억울했다. 얼어붙었던 피가 대변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당장 한곳을 뚫고 무섭게 뿔어나올것만같았다.

하나 단 한마디도 할수 없었다. 그가 지금 가까스로 입술을 다물고있는것은 한계를 넘어선 분노가 폭풍처럼 들이닥친데도 있지만 오매에도 더듬어보던 희망과 노력이 산산이 흩어지고있다는데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해보일 길이 없었고 또 그렇게 하고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슬픈 마음만은 진정할수 없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연주가 아직도 현실과 결핍된 어제날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 안타까웠다.

물리해로 굳어진 연주의 사고를 무슨 말로 바로잡아준단 말인가?...

《연주판사, 미덕이란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지요!》

지금껏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김철명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다가왔다.

《철명씨, 이건 우리사이의 일이니 거긴 상관하지 마세요.》

연주는 쏘는듯한 눈찌를 던지며 말했다.

철명은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지금 자기가 어떤 극한점에 달했는지 모를거요. 사람이 뜻밖의 충격앞에 리성을 잃어버린다면 뭐가 되겠소?》

《뭐예요. 그러니 당신은 내가?!...》

연주는 말끝을 흐렸다. 현실을 그제서야 감지한것이다. 확실히 지금 자기는 리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있었다.

《연주판사, 그 어떤 모욕으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대가로 자기는 피눈물을 흘릴수 있다는것을 생각해본적이 있소?》

김연주는 그제서야 정신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뜻밖에 나타난 아들앞에, 그가 보낸 경멸의 채찍앞에 너무 흥분했던 자신이였다. 그러나 리선미의 행동은 여전히 밍살스러웠고 지어 증오스럽기까지 했다.

《우리 나가서 바람이나 좀 쏘이지 않겠소?》

철명의 권고앞에 연주는 머리를 끄덕였다.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픈 심정일뿐이다.

이 며칠동안 리성삼은 심장을 옥죄이며 긴장해있었다. 한것은 김연주의 재판준비가 어느때없이 늦어진다는데로부터 오는 불안이었다.

원영준이나 장기철이 말한것처럼 그가 기소문에서 허점들을 발견한게 분명했다.

만일 자기가 작성한 기소내용들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상할수 없는 후과가 돌아올것이다. 큰 고기들은 다 빠지고 말단검사에 불과한 자기에겐 책임추궁이 돌아올것은 너무도 명백했다.

그렇다고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었다. 이 사회의 재판력사를 거슬러보면 《사상범》들을 다루는 재판들에서는 피고에게 무죄판결을 선언하는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1심에서 패하면 2심에 상소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유죄를 선언하고야말았다.

그러나 리성삼은 일이 그렇게 번져지는것을 원치 않았다. 재판은 설사 이긴다 해도 추궁은 제 머리에 떨어지며 출세의 길에 장애가 놓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원영준에 대한 고까움이 솟불처럼 이글거린다.

쌍놈의 두상태기, 어쩌서 연주년한테 그토록 미련을 가지는지... 계집들이야 삼복철의 어물처럼 쉽게 변한다는걸 그래 모른단 말인가. 재판이 구 뭐구 대법원에서 내려먹여서라도 감옥에 콕 처넣으면 그만일텐데... 백성놈들의 항의가 아무리 높다구 한들 나는 새를 떨어뜨릴수야 없지 않는가. 아마 그 령감은 그 무지렁이같은것들을 천궁을 소란시킨 손오공쯤으로 여기는게 아니야. 왕년의 기상은 다 어느 구멍에 처박았는지 원... 하긴 이젠 기운빠진 승냥이나 다름이 없지!

이런 감정은 성삼이로 하여금 원영준이도 더 기댈수 없는 언덕이라고 단정하게 하였다. 장차 부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까지 나서자면 새롭고 더 굵직한 바줄을 찾아야만 하였다.

요즘 《국정원》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도 그의 결심을 사촉하고있었다. 《국정원》 원장과 차장은 다 늙어빠진 원영준을 탐탐하게 보지 않는다는것이다. 비록 청와대와 연줄이 있어 다치기를 싫어하지만 대신 그를

외뿔으로 몰아붙이는 경향들이 엇보인다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 더이상 명줄을 맡길수야 없지 않는가!

일찌감치 집으로 퇴근한 그는 옷상의를 말코지에 걸고 담배를 찾아 입에 물었다. 같이 있으면 바가지를 굶는데 습관된 안해가 보기 싫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항상 밤늦게 퇴근하는데 습관된 그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구실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한해에 한번밖에 없는 안해의 생일인것이다.

처녀때는 그래도 무용이라는걸 했답시구 몸매가 매출한게 구미를 돋구었다. 현대 시집와서부터는 방안구석에만 처박혀 이리 굴고 저리 굴더니 아예 몸이 목통같이 되고말았다.

워낙 무용하는 여자들이란 척 보기에는 엉치가 가볍고 빨랑빨랑할것 같은데 안해는 집에 들어오면 영 오금을 놀리기 싫어한다. 이젠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밤이면 곁에 가기가 오싹해진다.

그래서 사창가를 드나들며 겨우 미화라고 하는 애된 계집을 얻어놓았는데 언제 눈치챘는지 그것을 빌미로 목을 조이니 그야말로 고통스럽기만 했다. 당장 리혼신청서를 내고싶어도 어쩔수 없었다. 아직까지 불룩한 장인의 돈주머니가 그래도 온몸에 영양소를 보충해주고있었다.

《아니, 집에 들어온지가 언제인데 아직 여기에 처박혀있어요?》

드디어 눈살이 창끝처럼 시퍼래진 안해가 방안에 들어서며 가슴을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다.

《아유, 이 담배연기... 그래 당신은 그 담배가 미화년의 젓꼭지처럼 그렇게두 달콤한가요?》

이런 일에 습관이 된지라 성삼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담배만 계속 빨았다.

랑쪽어깨가 떨어질 정도로 음식감들을 사들고 집에 들어섰건만 차례지는 인사말이란 이런 앙탈질뿐이다.

안해는 그의 침묵에 더 꼴이 난듯 손에 들고있던 앞치마를 던지며 계속 종알거렸다.

《흥, 난 당신처럼 제 집사람일에 그렇게 무관심한 인간은 처음 봐요. 아무리 정부년의 몸통이가 화끈하기로서니 오늘같은 날이야 날 위해 바치면 못쓰대요?》

처의 지청구에 신경이 곤두섰지만 성삼은 꼭 참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다가는 또 아빠트가 떠나갈듯 고아델것은 뻔했다.

그 녀자가 뿔을 구부린 양처럼 되는 때는 오직 잠자리에서 부부정을 나눌 때뿐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성삼에게 있어서는 야만적인 고문으로밖엔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시살스럽기 그지없었다.

어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구 이런 악어같은 년하구 사는지 원. ... 그렇다구 이걸 빨리 뉘이지두 않으니 내 참...

별수없이 담배를 비벼꾼 성삼은 앞치마를 걷어쥐고 부엌으로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좀 진정할수 없소? 그래 오늘같은 날까지 신경질을 부려야 하겠는가 말이요? 그래두 당신의 생일이여서 없는 시간을 내가지구 시장에 까지 들렀다가 왔는데...》

허나 안해의 낯색은 여전히 흐려있었다.

《흥, 알게 뭐야. 그새 또 미화년한테 가서 배놀이를 하다가 왔는지 냄새를 맡구 알겠어.》

리성삼은 한대 쉼박아주려다가 그만두었다.

이젠 나이도 어지간한데 안해의 질투는 날을 따라 더해만 갔다.

언제인가는 성삼이와 함께 팔을 끼고 거리를 걸어가는 미화에게 다가와 몸매를 한참동안 들여다보다가 나중에는 그의 얼굴을 허버놓은적도 있었다. 행인들의 눈초리 같은것은 상관하지도 않았다. 그가 걸을 때면 꼭 비게덩이가 움직이는것같았고 성을 낼 때면 투우경기에 나선 황소를 망불케 했다.

이런 성미를 잘 알고있는 성삼은 오늘 받게 될 단련이 끔찍해서 어제 밤에 먼저 선손을 찼다.

《여보, 래일은 당신이 태어난지 꼭 신둑이 되는 뜻깊은 날이구만!》

그 소리에 감격해서인지 안해의 두툼한 입술은 갑자기 합지처럼 벌어졌다. 밤손님을 맞아들인 창녀처럼 애간장을 태우는 소리를 내며 배개통같은 몸을 비꼬아댔다.

《아유, 당신 오늘 어떻게 된 일이세요? 내 생일을 다 기억하구...》

그 녀자는 전에 없는 교태를 부리며 남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허나 하루종일 소박당한 계집년같은 인상으로 울빼미눈을 굴리는 녀자

한테 무슨 정이 가겠는가. 설사 마지못해 응한다 해도 그것은 말그대로 고육이나 갈았다.

성삼은 역스러운 물건짝이 피부에 닿는듯한감이 들었으나 뿌리치지는 못했다.

《그래, 당신은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안해의 간살거리는 물음에 그는 우정 상대방의 호감을 자아내려고 배속에서부터 뽑아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래일을 의의깊게 보내려구 하오.》

《그 의의란 어떤거예요?》

《삼청공원의 야외식당에 훌륭한 연회를 주문해놔소.》

말을 마치기 바쁘게 성삼은 가슴이 지끈하더니 숨이 킁 막혔다.

떡메같은 안해의 주먹이 어느새 흉곽으로 날아들었던것이다. 이어 생천을 찢는듯한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아니, 뭐야?!...》

고함소리에 놀란듯 성삼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년이 환장을 했어? 갑자기 돼지먹따는 소리는 왜 지르는 거야?》

안해도 지지 않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진 낯짝을 바투 가져다대며 해봤다.

《환장을 했으면 어때?... 넌 또 작년처럼 녹거리음식따위를 잔뜩 차려놓고 날 망신시키려고 그러지?》

성삼은 얼굴에 마구 날아와 묻은 안해의 침방울을 닦으며 씹씹거렸다. 생각 같아서는 한바탕 족쳐서라도 남편의 기강을 세우고싶었다.

하지만 단념하지 않을수 없었다. 주먹찜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찔떡처럼 더 질겨지는 녀편네였다. 별수없이 미운 놈 사랑 한알 더 주는 식으로 얼리는수밖엔 없었다.

그는 속에 없는 웃음을 지으며 곰살궂게 말했다.

《아, 내가 당신을 망신시키다니?... 같은 값이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내 이번에는 그때 봉창까지 다하려구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세웠다구!...》

어린애를 달래듯 감미로운 언사를 썼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안해는 침대에서 발딱 일어서면서 도끼로 내려찍듯 그루박았다.

《난 식당에서 생일을 쇠지 않겠어요!》

혹을 떼려다가 더 붙이는 격이 되고말았다.

때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설복하는 길밖엔 별도리가 없었다.

《여보, 그럼 한지에서 쇠겠다는거요? 난 솔직히 당신의 이번 생일날만은 정말 즐겁게 보내자구 일년 내내 고심했던 말이요. 그런데 그 성의를 그렇게 뿌리치면 난 뭐가 되오. 그러지 말구 우리...》

안해는 여전히 독을 쓰며 매몰스럽게 잘라버렸다.

《그만하세요. 난 생일을 이 집에서 쇠겠어요!》

덴갑하여 성삼은 그의 손을 잡았다. 집에서 하는 날에는 진종일 부엌 데기신세를 면치 못해야만 했다. 게다가 손님들이 란장판을 만들어놓고 간 다음 그 청소는 갈데 없는 자기 몫이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처가권이거나 안해의 친구들이라 성삼은 접대나 하는 꼴이 되어야 했다.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소름이 끼쳤다. 그래도 허나새나 검찰청의 검사인데 체면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여보, 마음을 가라앉히구 다시 좀 잘 생각해보오. 아, 요즘이야 너나없이 식당에서 생일상을 차리는데 하필 집에서 하겠다는건 또 뭐요? 남들이 보면 뭐라구 하겠소.》

《흥,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는걸 몰라요?》

성삼은 찬물벼락을 뒤집어쓴듯 정신을 번쩍 차렸다. 두눈이 소눈알처럼 커지더니 순간적으로 온순해졌다.

《장인두 오시겠단오?》

갑자기 코가 꺾인 송아지처럼 주눅이 든 남편을 내려다보며 안해는 으시대듯 말했다.

《그래요. 동생들두 함께 온다는데 우리가 식당에 아버지를 모시면 뭐라구 하겠어요? 괜히 노엽혔다가 돈줄 잘릴 생각은 말구 힘들어두 집에서 하자요.》

성삼은 입안에 큰 고기덩이를 문 개처럼 끄끙거릴뿐 아무 대꾸도 못했다.

부산에서 수십척의 고기배를 운영하는 장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봄빛이나 같은 존재였다. 나이가 일흔이 넘었지만 아직 혈기가 왕성한 로인은 자식들이 때없이 식당이니 뭐니 하면서 흥청망청하는것을 제일 질색

하였다. 한푼의 돈을 놓고도 그 가치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였다.

래일은 별수없이 있는 재간, 없는 재간을 발휘하며 부엌일을 하는수밖엔 없었다.

《그럼, 원영준국장님두 집에 청해야 하겠구만?!》

원영준의 고향도 부산이였다. 그와 장인은 송아지시절부터 막역한 관계였다. 그런 리유로 안해는 서울에서 무용공부를 하면서부터 그에게 자주 찾아다녔다.

까마귀라도 제 고향의 까마귀는 정답듯이 영준은 그를 친딸처럼 대해주었다. 오죽했으면 그들사이에 치정관계가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겠는가.

전후사연이 이랬든저랬든간에 성삼은 그 덕을 톡톡히 입었다.

물에 빠지면 제일먼저 뜰 빈 주머니밖에 없던 그는 영준의 소개로 돈많은 집의 딸을 안해로 맞게 되었다. 또 그 인연으로 《국정원》에 든든한 연줄을 가지게 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뒤배경이 탄탄한 인물로 인정받고있었다.

남편의 입에서 원영준에 대한 말이 나오자 안해는 종알거리듯 말했다.

《누가 당신더러 그런 걱정을 하래요. 그분은 당신처럼 그렇게 좁쌀같은 사람이 아니예요.》

《아무렴, <국정원>에서 무시할수 없는 존재인데 나한테 비하면야 안되지.》

성삼은 은근히 심지를 심으며 말했다.

안해도 그 말뜻의 의미를 짐작한듯 발끈했다.

《괜한 트집말아요. 그래두 그가 우리의 뒤를 봐주길래망정이지 당신 주제에 검사자리두 유지할것갈애?!》

듣기만 해도 울화를 치미게 하는 말장단이 시끄러워 성삼은 손사래질을 해댔다.

《웁소, 웁소. 내가 너편네 하나만은 잘 얻었지. 인물곱고 몸매 또한 아름다운 당신의 덕에 내 팔자가 늘어졌지.》

비꼬는 소리인줄 뻔히 알면서도 안해는 지쳤는지 분을 삭이며 침대에 주저앉았다.

《괜히 그한테 잘못 보였다가 꼭지 떨어진 조롱박신세가 되지 말구 그가 시키는 일이나 착실하게 하라요.》

성삼은 속에서 꿈틀거리는 원영준에 대한 원망을 묵새기며 마지못해 응수했다.

《알겠소이다. 우리 집안에서 당신의 어명을 감히 누가 어기겠소이까.》

그는 속으로 울컥거리는 분을 가까스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땀든 끈든 안해의 덕에 자기가 허리를 펴고있다는것을 그도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

이렇게 되어 리성삼은 오늘 사슬에 목이 매인 갱신세가 되고만 것이다.

《그래, 요즘 그 <종복>재판이라는건 어떻게 돼가나요?》

음식감들을 손질하는 성삼에게 다가왔으며 안해가 던지시 묻는 말이였다.

재판소리에 성삼은 한숨을 내그으며 어물쩍해버리려 했다.

《그럭저럭... 헌데 어떻게 된 일이요? 내 일에 관심을 다 두고...》

《흥, 언젠 뭐 무관심했나 뭐.》

《글쎄, 내 기억에는 처음인것같구만.》

통명스럽게 대꾸하는 남편을 보며 안해는 또다시 발작적으로 나왔다.

《아유, 말하는 꼬락서니를 좀 보지... 그래, 내가 아니면 당신이 부장검사로 추천이나 댔을것같아서 그래?》

성삼은 두눈을 치뜨며 물었다.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오?》

안해는 시뚛해서 대꾸했다.

《흥, 그래두 내가 곁에 있으니 당신이 남들한테 축잡히지 않는줄이나 알라요. 내가 영준아저씨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런 꿈이나 꿔을것같은 말이예요?!》

성삼은 안해의 말이 심상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다.

혹시, 저년의 몸뚱아리에 그 늙다리의 손때가 잔뜩 계발린게 아니야?...

남편의 이런 심리는 상관없다는듯 그 녀자는 오금박듯 말했다.

《그러니 이번 재판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길 생각이나 하세요. 그렇지 않다가는 출세구 뭐구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이예요. 그리구 지금부터

라두 몸가짐이랑 좀 위신있게 하구요. 앞으로 부장검사가 되어서두 아래것들한테서 빼대없는 속물이라느니, 아침군이라느니 하는 소릴 들으며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감정을 지극히 자극하는 마누라의 지청구를 흘려보내는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전화번호를 보니 뜻밖에도 원영준이었다.

범이 제 소리하면 나타난다더니 이 두상이 왜 전화를 하는거야?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아, 리검사인가?!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일ियो. 일찌감치 퇴근을 다하구?...》

흥, 이 늙다리가 모르쇠할줄을 다 알구!...

《국장님, 그러지 않아두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나한테 말인가. 그래 무슨 골치거리라두 생겼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실은 오늘이 저희 집사람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장인두 오신다기에...》

《아닌게 아니라 오늘 아침 자네 장인한테서 전화가 왔댔네. 이제 보니 자넨 둘도 없는 애처가로구만. 집사람 생일을 위해서 그렇게 극성이니 말일세.》

뜻밖의 칭찬에 머쓱한듯 성삼은 뒤덜미를 쓸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저희 집사람을?...》

《아닐세. 저녁에 가서 만나게 될텐데 뭐... 다르게 아니구 자네 이제 당장 검찰청으로 나가야겠네.》

성삼은 살길이라도 만난듯 속으로 무등 기뻐하며 말했다.

《검찰청에 말입니까?》

《그렇네. 나가면 자네네 부장검사가 지시를 줄거네.》

《예, 알았습니다. 제 곧 나가겠습니다.》

너무도 반가운 소식에 전화기에 대고 절을 하는데 심중해진 원영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보면 알겠지만 자네 이번 주패장을 잘 리용해야 하네. 조승철, 그자를 단칼에 베버릴수 있는 보검으로 버려야 한단 말일세. 알겠나?》

리성삼은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받쳐들고 척추없는 사람처럼 놀아댔다.

지금껏 구실을 대고 집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생기기를 기다리던중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구…》

뭔가 말하려던 성삼은 갑자기 인상을 찡그렸다. 자기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화기에서는 빙-빙- 소음소리가 울려나왔다. 저쪽에서 이미 송수화기를 놓은것이다.

《아니, 이진 나살이나 처먹었다는게 아직 전화질두 제대로 못해!…》

신경질적으로 투덜거리는데 등뒤에서 안해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유, 허나새나 검사라는 량반이 아무 사람한테나 그렇게 빼없는 고기처럼 갑작갑작거려서야 어디다 쓰겠어요.》

은근히 부아를 건드리는 녀두리에 성삼은 끝내 참지 못했다.

《야, 네가 뭘 안다구 주둥이질이야.》

진한 화장으로 해사하던 안해의 뺨에서는 삽시에 피기가 증발되었다. 이어 새파래서 앙앙불락대기 시작했다.

《뭘야?… 아유, 말하는 꼴을 좀 보지. 그래 내가 주둥이질을 한다구!…》

도람통같은 허리에 통나무를 대충 다듬은것같은 량손을 척 올려놓고 따벌처럼 달려드는품이 쉽게 수그러들것같지 않았다. 연지를 두텁게 바른 입술은 찢어진 창호지나 다름없었다.

리성삼이도 속에서 불이 이글거렸지만 별수 없었다. 오늘같은 날 티각태각하면 리로운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장인에게 모든 사실을 고자질하면 그야말로 한강에 떠다니는 누데기신세가 되고만다.

《됐소, 잘못했소. 그런데 당신은 방금 내가 누구하고 전화를 한줄 알거나 하구 그렇게 아무 소리나 탕탕 해대는거요?》

《누구진 누구겠어. 두다리 달리구 대가리가 붙어있는 놈이겠지. 무슨 하느님이라두 되길래 그렇게 제 녀편네를 곤충대하듯하면서 그래…》

성삼은 그의 입에서 더한 악담이 쏟아질가봐 두려웠다. 그는 안해의 잔등을 슬슬 쓸어주며 달랬다.

《비록 하느님은 아니래두 그의 사촌쫘 되는 원영준국장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 허리에 키브스를 한 몸이라두 굽혀야 할게 아니요. 그래야 당신의 그 너그러운 아저씨님께서도 좋아할게구…》

알망곳은 남편의 아량에 안해는 성을 가라앉히며 메마른 소리로 내쏘았다.

《흥, 그런데 왜 나한테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어? 분명 나를 찾았겠는데...》

성삼은 증기뿔같은 안해의 잔등에 손을 얹으며 속살거리듯 말했다.

《아무리 당신을 친딸처럼 여기는분이라두 그는 공과 사는 명백히 가를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래, 무슨 일이라요?》

《아무래두 내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빨리 오라는구만.》

그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그 녀자는 덩석 받아물었다.

《흥, 노상 뒤편에 개 불려대듯하면서두 부장검사자리 하나 주지 않는 다구 눈먼 욕질을 하더니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야?》

성삼은 여전히 살가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 보오. 그래서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그리구 당신들의 관계를 봐서도 내가 엇드레질을 하면 안되지. 당신 말마따나 나두 꼭 지 떨어진 조롱박이 되구싶지는 않단 말이요.》

안해는 락심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오늘 생일은 또 개판이 됐어요. 나가서 식당 주방칸에서 어물거리는 녀를 하나 데려다놓든가 해야지...》

성삼은 내심을 가리우고 아쉬운 기색을 지었다.

《정말 미안하오. 오늘만은 내 당신을 기쁘게 해주자구 했는데...》

속에 없는 말을 하며 그는 옷을 주어입었다. 한시바삐 드살찬 녀편네의 시야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안해는 그가 복도에 나서도록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

그랬지만 마음은 홀가분한게 기분이 좋았다. 꼭 감옥문을 나서는 심정이었다.

연주는 말없이 철명의 뒤를 따랐다. 어스름이 밀려드는 호젓한 강변을 걸어가느라니 방금전 흥분도 서서히 앙금으로 변하고있었다.

하지만 심리는 여전히 복잡했다. 이 사람이 무엇때문에 자기를 불려냈을가 하는 의문에서였다.

녀자들의 아귀다툼을 보기가 따분해서인가 아니면 선미의 행동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을 위해서인가?...

철명은 한참동안 걸었지만 한마디도 없었다.

그렇수록 연주의 속은 불안했다. 또 그 어떤 돌발적인 일이 벌어질것 같아 걸음이 서슴어졌다.

《철명씨, 우린 지금 어디로 가는가요?》

철명은 그를 낚시지 바라보았다. 강한것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چه 연약한 녀인이었다. 사람이란 역시 자기의 본색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무엇이 이렇듯 어제날의 쾌활하고 활달하던 성격을 얼구어놓았는지 알수 없다.

《이제 가보면 알게 될거요.》

무뚝뚝한 어조는 연주의 조바심을 더 불려일으켰다.

《미안하지만 난 그들에 대한 일이라면 더 가지 않겠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철명은 어이없는 기색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어린애처럼 그러지 마오. 설사 그렇다 해도 당신이야 자기대로의 견해가 있는 사람인데 뭐가 걱정돼서 그러오. 자, 어서 가지요. 거의다 왔소.》

이어 그는 연주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려는듯 말을 이었다.

《참, 연주판사는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뭔지 아오?》

느닷없는 질문이었지만 연주는 그 의미를 넘겨짚었다.

《당신은 지금 나한테 선미라는 녀성에 대해 설명해주고싶겠지요?》

철명은 어줍게 웃으며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소. 인간을 안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 당신두 잘 알게요. 솔직히 말해서 난 오래전부터 조승철선배님에 대해 이야기해주려구 했소. 하지만 선미씨가 반대하더구만.》

《선미가요?!...》

연주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불만이 깔려있었다.

하긴 그가 무엇때문에 그걸 허용하겠는가. 그도 인간이고 또 녀자가 아닌가. 내가 자기들사이에 다시 끼여드는것을 바라지 않을것이다. 리성삼이도 말했듯이 그들은 비록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뿐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소! 그는 진실이란 결코 귀동냥으로 이해하는것은 아니라고 했소. 그러면서 당신이 어느때든 제스스로 리해의 문턱을 넘어설것이라구 말했소. 나도 그의 말에 공감을 했소. 모든것은 제눈으로, 제 심장으로 느껴야만 받아들이는 감정도 열렬해지는거요. 진리의 터득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것이요. 때로는 뼈저린 후회와 아픔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며 깨닫는 때도 있지!》

연주는 그의 충고를 코웃음으로 날려버렸다.

《오해는 당신들이 하고있군요. 우리의 결별은 서로 각자가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어요. 그러니 그릇된 억측은 앞세우지 않는게 좋겠어요.》

실망한듯 한숨을 내뿜던 철명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억측이라?!...》

드디어 그들은 서강대교앞 신수동의 어느 한 아파트에 이르렀다.

오래된 건물의 7층에 이른 철명은 어느 한 집의 문을 열쇠로 열었다.

《자, 어서 들어가지요.》

연주는 여전히 의문점들을 풀지 못했다.

누구의 집인가? 혹시 이 사람의 집이라면 무엇때문에 날 여기로 데려올가. 이야기는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을텐데...

그러다 문득 짙이는 생각에 더없이 긴장해졌다.

만일 여기서 경진이가 살고있다면?!...

두려웠다. 그는 지금 경진이와 마주설만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주뒹거리며 집안에 들어선 그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나갔다. 젊은이의 체취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주인의 부지런하고 알뜰한 솜씨를 보여주듯 집안은 정가로왔고 질서가 있었다. 비록 값진 가구와 물건들은 없었지만 모든것이 구색에 어울렸다.

자기 집과는 전혀 대조적이었다.

《여긴, 철명씨의 집인가요?》

철명은 대답대신 빙그레 웃어보이며 서재로 리용하는듯한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책장들에는 책들이 빼곡하게 차있었다.

서재를 둘러보던 연주는 전기에 감전된듯 흠칫하며 눈길을 멈추었다. 돌아서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벽면에 걸려있는 한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휘여잡은것이다.

《그러니 이 집이?!...》

그는 괴롭게 두눈을 감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럼소. 바로 조승철변호사선생의 집이요. 수십년세월 당신을 가슴속에 품고 온 선배님의 체취가 어린 집이란 말이요!》

《그럼?!...》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가 지금껏 저 사진을 전사하고있었다는것이... 인천앞바다에서 서로 다정하게 껴안고 웃는 한쌍의 연인! 그 주인공은 다름아닌 승철과 자신이었다.

연주는 이미 오래전에 그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 파도우에 실려보냈지만 승철은 그것을 지금까지 고이 간직하고있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무엇이라 형언할수 없는 충격으로 더이상 서있기가 피로웠다.

《전, 이만 가겠어요.》

그가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등뒤에서는 《연주판사!-》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연주는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추었다.

지금껏 호인다운 모습으로 있던 철명의 낯색은 거뭇게 흐려져있었다.

《자기를 칼로 찢어보고 아프지 않으면 남을 찌르라는 말이 있소. 난 당신의 가슴이 이렇게까지 랭돌일줄은 몰랐구만! 팔수에 배긴 감정이 아무리 검질기다한들 자기에게 바친 진정앞에서까지 랭담할수 있는가 말이요.》

준절한 질책앞에 연주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물론 당신은 저 사진은 스쳐보낼수 있을거요. 하지만 이 옷만은 외면할수 없다고 보오.》

철명은 사진옆에 걸려있는 양복을 가리켰다. 시세에 뒤흔어진 옷이라 누구 하나 덜 관심을 돌릴 그런것이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마치 귀한 물건이라도 되는듯 투명한 비닐로 만든 씩우개속에 간수하고있었다.

흐려지는 눈가로 확대되어 안겨오는 물건앞에 연주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짹 깨물었다.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수십여년전 대학으로 떠나는 승철에게 자기가 준 양복이였다. 영원히 친오빠로 따르려는 진정을 담은 옷이였다.

그렇듯 티없이 깨끗하고 맑은 추억을 연주는 스스로 잊어버렸다. 허나 조승철은 사진과 양복을 벽면에 걸어놓고 여전히 옛시절을 부여안고 되새기고있었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였다. 무거운 물체에 짓눌린 것같은감이 들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껏 그를 오해하고있었던 말인가?...

예리한 감정으로 살점을 허비며 피어오르는 의식앞에 연주는 정신을 버쩍 차렸다. 떠오르는 공상의 뒹배를 붙살라버리고싶었다. 그렇듯 그날의 리별에는 가슴을 찢는 통곡이 배여있었다.

아니, 아니야. 그는 나의 진정을 배척한 사람이야! 그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닌가...

입술을 사려물고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눈에 보이는 물건은 여전히 그의 심신에 풍구질을 해대고있었다. 허위라고 보기에는 모든 배경과 지어 철명의 연기마저 너무 진실했다.

수많은 자문자답으로 의문들을 헤쳐보던 연주는 갑자기 쓰거운 미소로 입귀를 이그러뜨렸다.

《그래,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요. 혹시 옛 감정으로 연약한 녀인의 가슴을 휘저어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려는건 아니겠지요?》

돌발적인 질문이였지만 철명은 담박한 기색이였다. 마치 철없는 소녀의 투정질을 대하듯.

《오해하지 마오. 난 당신의 심리를 든장질하여 재판에 리용할 생각은 없소. 그러구 그 누구의 리념에 대해서도 론하지 않겠소. 왜냐면 그것은 각자의 인생관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러나 연주판사가 지금껏 품고있는 그릇된 인식만은 스쳐보낼수가 없구만.》

《걱정해주어 고맙군요. 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동정이 필요없어요.》
철명은 연주에게 의자를 권하고나서 자리에 앉았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충고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시절 당신들 두사람은 얼마나 열렬하게 사랑을 했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지. 그런 두사람이 아직까지 화해를 못하고있다니 정말 이해되지 않는구만.》

연주는 역시 그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에 반발적으로 두눈을 흘렸다.

《너자에게 있어서 제일 아프고 잊혀지지 않는것이 뭔지 아세요. 그건 자기가 순정을 바친 사나이한테서 배반을 당한 아픔이에요. 난 지금도 그때 당한 수치와 모멸을 잊을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엔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는거예요.》

《그건 옳소. 허나 그릇된 선택으로 하여 인생을 허물게 되는 때도 있는거요. 더우기 젊은 시절에 즉흥적인 감정으로 하여 한번 잘못 내디딘 걸음은 일생을 두고 후회해도 되돌려세울수는 없단 말ियो. 때문에 실패한 삶과 성공한 삶으로 구분되는게 아니겠소.》

철명은 담배를 붙여물었다. 답답한 마음을 진정하느라 하는 행동이었지만 연기에 눈이 쓰린지 실눈으로 상대를 바라봤다.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 이해와 화합의 손을 내민다면 풀지 못할 매듭이란 없는거요. 그리고 내 동창생으로 확인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김연주라는 한 여성밖엔 없었다는거요.》

진지한 철명의 설명앞에 연주의 고집은 서서히 무너지고있었다.

《그러니 선미와의 관계도?!...》

《그렇소! 누구한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요. 오히려 더없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라고 봐야 할거요.》

철명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끄고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검은 장막이 드리운 밤하늘가에는 방금 누가 새겨놓은듯한 보름달이 투명하게 안겨왔다. 아마 그것도 어둠이 있어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하는듯하였다.

《연주판사, 가장 아름다운 꽃은 꽃밭이 아니라 깊은 산중에서 피어나는 법ियो. 선미씨는 인정이 메마르고 척박한 이남사회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여성ियो.》

《?...》

달빛속에 어려오는 추억은 철명으로 하여금 참인간이 지닌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가 하는것을 되새겨보게 하였다.

그는 김연주가 미국류학의 길을 떠나던 그날 조승철과 서영민이 체포되게 된 경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때 당신을 돌려세우려고 거리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운명도 달라질수 있었소. 그리고 선미씨두 사랑하는 애인을 잃지 않았을게구...》

뜻밖의 소리에 연주는 도전적인 눈매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니 그들이 나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었다는건가요?!》

《그렇소. 나도 그때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잘 알고있소. 그날 두사람은 거리에 나가면 붙잡힐수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행장으로 나갔소.》

철명은 그때의 일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조승철과 경순이라는 여성과의 관계까지도...

연주는 피로운듯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추억하기조차 피로운 그날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슴아픈 날들중의 하루였다. 제 자식을 남한테 주지 않으면 안되었던 아픔과 조승철에게서 당한 수치를 안은채 미국행을 해야만 했다.

온몸은 말그대로 상처투성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승철이가 달려와 자기를 붙잡기를 은근히 바랐다. 그런 생각으로 뒤를 돌아본적은 얼마였던가.

허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랭혹한 멸시감에 피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옆에 서있는 선미조차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선미야, 그 사람한테 전해줘. 우리의 관계는 이것으로 영원히 막을 내리자구 말이다.》...

피로롭게 이그러진 그의 낯색을 지켜보던 철명은 쓸쓸한 어조로 말했다.

《경진이 문제도 그렇소. 선미씨가 그애를 찾으려구 지금껏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아마 다는 모를거요. 오늘날까지 조승철변호사에게 친자식이 있다는 말조차 할수 없었으니 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소.》

연주는 리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난 선미가 뭇때문에 그애한테 그리도 관심이였는지 알수 없군요. 그는 어디까지나 남의 자식이 아니나요.》

철명은 여전히 자기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주를 보는것이

안타까웠다. 한 인간의 그릇된 인식을 풀어주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바로 그래서 그가 그토록 돋보이는게 아니겠소. 그는 경진이에게 친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아주고 또 당신들이 재결합되기를 바랐던거요!》

연주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선미가 지금껏 자기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려 했다는것이...

그는 지금까지 홀로 사는 녀자이다. 서영민을 잃은 그에게 있어서 조승철은 더없는 지지점이었을것이다. 더우기 그들은 수십년동안 깊은 인연으로 살아왔다. 승철은 선미에게 있어서 첫사랑 못지 않은 연인으로 될수 있지 않는가. 또 리상과 리념의 일치로 하여 서로 화합하는데는 자그마한 걸림돌도 없을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김연주의 눈앞에는 안개만 짙게 서리고있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그 구역을 벗어날수 없을것만같았다.

《그러니 그가 우리의 옛사랑을 지켜주려 했다는건가요?》

《아마 당신은 내 말이 믿어지지 않을거요.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진실이요!》

연주는 속이 뜨끔해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선미씨가 없었더라면 조승철변호사는 이미 저세상사람이 되었을거요.》

《아니, 그건?...》

철명은 물을 한모금 마시고나서 생각질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깊은 강이 소리없이 흐르듯 참된 사랑은 남들의 눈에 덜 띄우는 법이요. 조선배님에 대한 선미씨의 진정은 순전히 자신에 대한 희생이었소. 수년간의 옥고끝에 조승철변호사는 비록 출옥은 했지만 감옥에서 당한 고문의 후파로 폐인이 되고말았지.》

별들이 깜박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철명의 눈가에는 마음씨착한 한 녀인의 자취가 밟혀왔다. ...

《선미씨, 승철선배님의 병이 위급한데 어찌면 좋겠소?》

숨이 턱까지 닿은 철명의 다급한 소리에 선미는 승철의 하숙방으로 달려갔다.

방안끝은 물론 환자의 상태는 말이 아니였다. 한겨울철의 댕방에서 각혈을 하다가 쓰러진것이다.

《어서 나한테 업혀주세요!》

폐병환자에게 잔등을 내대는 처녀의 행동앞에 철명은 한순간 얼어들었다.

《아니, 어찌자구 그러오?》

《사람이 죽어가구있지 않나요. 어서요..》

선미의 도담한 행동앞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철명은 환자를 제 잔등에 들쳐업었다.

이렇게 생사기로에 놓였던 조승철은 병원으로, 병원에서 다시 선미의 세집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처녀의 몸으로 어찌자구 그러오? 의사선생들의 말처럼 이제라도 결핵 병원으로 옮기는게 어떻소?》

자기의 신상을 넘려해주는 철명에게 선미는 심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 남의 눈치를 생각할새 있나요. 그러구 지금 병원이라는 곳엔 회복자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럼, 선미씨가 치료를 하겠다는거요?》

리선미는 따스한 아래목에 이불을 깔며 박씨같은 이발을 드러내보였다.

《너무 걱정말아요. 나두 의사였던 아버지를 도와 이런 환자들을 치료 해본 경험이 있어요.》

철명은 전염병환자를 거리낌없이 맡아안은 선미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봤다.

봄날의 버들가지처럼 연약하기만 해보이던 저 녀자의 가슴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생겨났을까?

한 처녀의 가룩한 진정앞에 머리가 절로 숙어졌다. 그러면서도 그가 장차 옆사람들에게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 막아내겠는지 걱정되었다.

후날 리선미는 어떻게 되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곁에 없으면 조승철은 꼭 죽을것만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승철의 동료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이 환자를 데려가겠다고 나섰다.

그때마다 선미는 눈물이 그렁해서 그들을 막아나섰다.

《다들 왜 자꾸 이러세요? 물론 처녀인 저한테 흠이 붙을가봐 걱정하는 그 마음들을 모르는건 아니예요. 그러나 저는 설사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도 양보할수 없어요. 왜냐면 환자의 치료에는 녀자의 손이 더 필요하기때문이에요. 그러구 승철씨는 다른 사람도 아니구 제 친구의 애인이

아닌가요. 만일 이 사람이 잘못된다면 후날 무슨 낯으로 연주앞에 나서겠나요?》

리선미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연주가 자리잡고있었으며 그의 사랑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처럼 석달만에 승철은 각혈을 멈추었다. 병세가 호전되면서 바깥출입도 자유롭게 할수 있었다.

선미는 낮이면 어물짐을 이고 장거리에 나갔으며 밤에는 초약을 달이곤 했다. 술한 약들을 지어놓고 환자가 그것을 제시간에 어김없이 먹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어느날 철명이가 몸보신에 좋은 토끼곰을 해가지고 들린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사이에는 서먹서먹한게 꼭 다툼것같았다.

《선배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직하니 묻는 말에 승철은 깊은 한숨을 내그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는 선미쪽을 눈짓했다.

사연인즉은 이러했다. 낮에 경찰이 찾아와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승철에게 트집을 걸었다.

《경관님, 저분은 저의 친구랍니다. 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데 꼭 등록을 해야만 하는가요?》

경찰은 처녀의 아련한 모색을 걸탐스럽게 바라보며 씨벌거렸다.

《젊은것들이 비법적으로 동거생활을 할적에야 다른 목적이 있어서겠지. 병치료야 병원에서 하지 이부자리에서 하는가?》

조승철은 모욕적인 언사에 참지 못하고 내쏘았다.

《여보시오, 경관나리. 정확한 근거도 없이 함부로 험투를 씌우지 마시오.》

경찰은 오히려 히물히물거리며 문턱에 주저앉았다.

《이보라구 젊은이, 세상살이란 음과 양의 결합이야. 그러니 너자를 싫어하는 사내없구 남자를 마다하는 계집이란 없단 말이야. 헌데 일두 치지 못하는 주제들에 동네방네 소문만 잔뜩 내놓구 뭘 할 소리가 있다가 허바닥을 놀려!...》

그는 가방에서 꺼낸 수첩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년장자연하였다.

《이봐, 여기에 어떤 신소들이 적혀있는줄 알아?!... 살아가면서 체일 무서운게 남들의 주둥이질이라는걸 모르는가?!》

심지가 있는 말에 승철은 자못 긴장해졌다.

선미의 얼굴은 이미 주홍빛으로 물들어져있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지만 풍문이 이렇게까지 험하게 떠돌 줄은 몰랐다.

《남녀간의 정사는 이불밑에서 진행되지만 남의 일에 허바닥이 간지러워하는자들의 귀청은 천리밖의 숨소리도 가려듣는다는걸 명심하라구! 그런 년놈들의 주둥이에는 입자처럼 사상이 없어. 그러니 래일 당장 결혼증서를 들고 찾아오든가 아니면 서로 별거생활을 하는게 좋을거네.》

경찰은 히하니 사라졌지만 두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선미의 숨결은 고르롭지 못했다. 처녀의 몸으로 그런 흠을 달게 되었으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다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수록 조승철과 결별을 선언하고 떠난 연주가 야속했다.

그러나 선미는 그것을 일순간의 오해로 보고싶었다. 언제인가는 이들이 꼭 다시 결합되리라고 믿었고 또 자신이 그 징검다리가 되고싶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풍파가 사나운 줄은 몰랐다.

승철의 심리도 복잡했다. 마음씨착한 선미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죄의식이었다. 자아희생적인 그의 행동앞에 머리가 숙어졌다. 성의를 성의로 갚지 못할망정 죄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다음날 선미가 장거리로 나간 틈을 리용해서 그는 철명의 도움으로 자기의 하숙방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병세도 수그러들었다. 혼자서 얼마든지 치료할수 있을것같았다. 더우기 앞으로의 문제도 생각해야 했다. 아직 대학에 적을 그대로 두고있으니 공부를 마저 하고 변호사의 자격도 얻어야 했다.

그날 저녁 리선미가 나타났다.

그 녀자는 아무 말도 없이 약을 지어놓고는 돌아갔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승철이가 미안해서 이제는 발길을 끊으라고 했지만 처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 뭐라고 도저히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날 선미는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다.

《승철씨, 제가 이렇게 찾아오는건 속에 다른 속심이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물론 승철씨두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전 단지 남들의 뒤소리가 두려워 물에 빠진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가는 비렬한 인간으로 되고싶지 않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 성의를 뿌리치지 말았으면 해요.》

승철은 마음이 비단결같은 리선미를 새로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지금껏 그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애인과 서영민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이 저렸다. 허나 오늘은 이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간, 남을 위해 자기를 스스로 없이 바치는 한 여성의 고결한 성품을 보았다.

철명을 비롯한 친구들은 일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그와 결혼할것을 권고했다. 미국으로 간지 수년세월 편지 한장 없는 여자를 더이상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고 하면서...

그때마다 승철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한테 연주가 첫사랑일세. 일시적인 다름이 있었다구련인을 저버릴 수야 없지. 그런 사람은 일생 진정한 사랑을 찾을수 없을거네.》

승철은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연주를 지워버린적이 없었다.

그럴수록 혼기가 넘도록 자기를 위해 모든걸 다 바치는 선미를 대하기가 면구스러웠다. 억지다짐으로 떼버리려 할수록 그 여자는 더 바투 다 가오기만 했다.

《나도 여자예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싶단 말이에요. 그렇다구 연주의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고싶은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어요. 단지 병이 채 낫지 않은 당신을 버리고 돌아선다면 저승에 간 영민씨가 뭐라구 하겠나요?!》

선미는 눈물을 머금고 하소하듯 이야기했다.

《승철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게 되면 나두 내 행복을 찾아 떠나겠어요. 그러니 그런 강박은 하지 마세요.》

여자의 굳은 마음은 아릅드리나무를 뽑아버리기보다 더 힘든 법이다.

선미는 승철이 출옥한 후 근 4년세월을 그에게 바쳤다. 그의 지성으로 건강을 회복한 승철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듯 그에게 있어서 리선미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

《연주판사! 인간을 보는 눈은 그 사람의 인격수양과 정비례하는 법이요. 그렇기때문에 당신은 오늘날까지 그들이 지닌 뜨거운 인간애를 볼수 없었던거요.》

연주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수십년세월 그들의 가슴속에 자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있을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하지만 나는 그들을 오해하고 무턱대고 배척하러 하지 않았는가.

미국류학을 마치고 광주지방법원에 배치되었을 때 연주는 자기를 찾아온 조승철을 매정하게 대했다. 마치 원썩을 대하듯이.

《당신은 나의 진정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사내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리유는 뭔가요? 어제날의 단즙이 생각나서인가요 아니면 리념의 결함이라는 미명하에 나를 당신들이 걷는 길에 끌어당기기 위해서인가요?》

처음부터 따벌처럼 마구 내쫓는 그 녀자앞에 승철은 아연했다. 어찌면 이렇게 말할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마음속에 새겨안고 기다려온 녀자의 입에서 이렇듯 찬서리가 뿜어져나올줄이야.

《연주, 난 지금껏 당신을 기다렸소. 언제이든 날 리해하고 찾아올것이라구 생각하면서 말이요. 그런데...》

연주는 로골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흥, 리해?!... 그 생각자체가 너무도 어처구니없군요. 난 어제날의 김연주가 아니랍니다. 사내의 입김에 녹아 일생을 맡기고 살 그런 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이상 날 찾아오지 마세요.》

《뭐요?!...》

승철의 눈망울은 아연함으로 흐려졌다. ...

《그날 당신을 만나고 돌아온 그는 며칠동안 피로운 한숨속에 모대기였소. 곁에 있는 내가 다 보기 무참할 정도였지. 아마 당신이 그 정상을 보았더라면...》

철명은 그때를 되새겨보기라도 하듯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그는 선미씨가 당신을 찾아가 모든 사연을 말하겠다는것을 겨우 말렸소. 그러던중 윤기옥녀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소. 그 재판에서 당신은 변호사로 나선 선배님을 상대로 자기의 진모를 말끔히 드러내보였소.》

연주도 그때를 잊지 않은듯 피로운 어조로 말했다.

《난 그걸 숨기고싶지 않아요. 그때 난 법대로 피고에게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 녀자의 진정에 칼부림을 하고도 후안무치하게 사회의 법을 비방하려드는 조승철, 그 사람을 복수하고싶었어요.》

철명은 연주를 피땀 바라보고나서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바로 그때 당신의 행동이 그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아마 모를거요. 재판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또다시 각혈을 하며 쓰러졌소.》

김연주는 방망이에 맞은듯 머리가 뻥해졌다.

《그러니?!...》

《그렇소.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한 애인의 모습이 그를 또다시 꺼꾸러지게 했던거요.》

그 어떤 죄의식에 잠기듯 연주의 입가에서는 시르죽은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때 선미가 날 찾아왔었군요?!》

그날 지방법원의 정문에 나타난 선미를 보는 순간 연주의 눈망울은 얼음을 깎아넣은듯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왔니? 혹시 그 사람의 대변인이라도 된건 아니겠지?》

한가닥의 기대감을 안고 온 선미에게는 너무도 박정한 태도였다.

《연주, 난 오늘 너와 같은 너성으로 말하고싶어서 찾아왔다.》

《뭐-어, 같은 너성이라구?!... 아니, 난 미모와 애교로 사내들을 유혹하며 제 목마름을 달래는 너와는 다르다. 그러니 우린 더이상 마주설 필요가 없다고 봐. 그리구 내 명백히 말하건대 난 조승철과 리선미라는 인간을 기억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지 오래다. 그러니 사적이든 공적이든 다시는 날 찾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때부터 수십년세월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그 공백을 보충하려는지 오랜간만에 만난 사이지만 대립과 충돌만 격렬했다.

《그가 또다시 몸져눕게 되자 선미씨는 다시 그를 간호하기 시작했소. 그는 바로 이런 너성이요. 자기의 모든것을 바로 당신들을 위해 바쳤단 말이요. 그런데 당신은 그의 순결한 가슴에 서슴없이 구정물을 뿌렸소.》

연주는 속이 뜨끔해났다. 절로 머리가 숙어지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연주판사, 충고하건대 부모와 자식, 이웃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 그자체를 이해할수 없다는거요.》

그러니 나는 제손으로 제 행복에 칼질한 미련한 년이란 말인가?!

연주는 드디어 자기 인생의 파열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부정하려 했지만 그것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여올라 온몸을 휩싸안고있다. 피부의 감각선들을 뚫고 피줄을 따라 심장으로 맹렬하게 돌진하고있다. 세포와 줄기들은 저마끔 손을 내밀며 단즙처럼 흡입하고있다. 언제 피줄안의 미세립자들이 자기의 본색을 잃고 외부의 침습에 물들지 알수 없다.

두려웠다. 여직껏 단색세포처럼 살아온 자신에게서 새로운 이단자가 생기는것이 무서웠다.

허나 부정할수 없는 현실적인 감각앞에 서슴어지는것을 금할수 없다. 맹혹한 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아름답다. 굳이 피하려 한다 해도

그것은 그림자처럼 지겹게 따라설뿐이다.

조승철과 윤경진, 리선미...

한달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수십년동안 유지해오던 생활의 리듬을 마구 형클어놓은 그들이다. 쉽게 배척할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혈연과 옛정, 그들앞에 지닌 죄의식의 사슬에 칭칭 감겨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자들이었다.

서둘러 탈출할수도 없었다. 모든 현실을 부정해버리기에는 너무도 때가 늦었다.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지 몰랐던 인정의 불씨가 어느새 불길로 피어오르고있었다.

놀라왔다. 아니, 믿어지지 않았다.

수십년세월 헛눈을 팔지 않고 걸어온 길, 오직 출세와 명예를 얻어 그 선상우에서 그들을 눈아래로 굽어보려 했던 내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성정앞에 그 모든것이 결국 모래성으로 되고있지 않는가.

심신을 다잡을수록 피로움은 서서히 온몸으로 퍼져가고있다. 아기자기한 생활의 리듬, 포근한 입김서린 속삭임과 결여된 생이 호소하는 진통이었다.

생활에서의 실패, 그 모든 상처를 법관으로의 명예로 메워버리려 했었다. 헌데 난데없는 바람이 그것들을 위태롭게 하고있다. 일구월심 결눈 질없이 달려온 인생길앞에 인정과 사랑의 파편조각들을 던져놓으며 장애물을 퍼놓고있다.

남들앞에 뿔뿔하게, 더우기 조승철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서고싶었었다. 허나 지금의 물결은 어떠한가. 우련한 조각달의 희미한 빛이였고 그마저 추하고 찬박한 자태였다.

난, 선미의 인정을 오해와 질투라는 눈금으로만 재보지 않았던가?!

이제 와서 그의 고결한 성정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다. 천우의 변함없는 우정을 저울대우에 올려놓으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경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순전히 운명의 장난이라고만 볼수 없다.

남의 꿈에 떠맡긴 피딩이가 오늘은 대바르고 억센 모습으로 꿈같이 나타났다. 기개와 주장이 있어 더욱 마음을 사로잡는다.

허나 제 몸에서 떨어진 자식이라지만 두팔을 벌리며 어머니에게 다가서기를 꺼려하고있다. 오히려 멀리 떠밀어버리며 배척하고있다. 제 아버지와 나란히 하는 걸음새조차 두려워진다. 마치 진폭을 울리는것같아 자신이라는 존재는 길가의 먼지로 날려갈것만같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연주는 자기와 그들사이에는 너무도 큰강이 가로 놓여있다는것을 채삼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지금껏 굳혀왔던 그들에 대한 배척감이 낡은 울바자처럼 세차게 흔들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 어떤 새로운 격랑에 의해 자기라는 존재가 기슭으로 밀려나는것처럼 여겨졌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정당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이 재판을 포기할수도 없지 않는가.

눈가에 어려오는 모습들앞에 두번다시 죄를 짓는것만같아 연주의 가슴은 피로웠다.

선미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도 법에서는 자그마한 인정이나 우정이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지 않니. 단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그 어떤 편견이나 사측을 물리치고 법조항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뿐이다. 그러니 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33

시간은 소리없이 흐르고있다. 피괴한 정적속에 밤주인인 귀뚜라미의 애절은 울음소리만이 방 한쪽구석에서 울린다.

진하디진한 어둠과의 힘내기에 지친 탁상등불빛을 옆에 둔채 연주는 감각없이 앉아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컴퓨터에서는 록화물이 제 기분에 겨워 흘러가고있다.

그 녀자는 벌써 몇번씩이나 이 편집물을 훑어보고있었다. 이제 지쳐서인지 아니면 싫증을 느꼈는지 의자에 등을 기대채 두눈을 감고있다. 심증은 장마당처럼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귀전을 울리는 목소리가 심신을 세차게 두드린다.

《부장판사님, 이 록화물은 위조한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럴수 없어요. 그건 검찰에서 제시한거예요.》

《믿기 어렵지만 이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며칠전 김연주는 록화자료를 법원의 전문분석가와 자기가 잘 아는 외부의 한 록화물편집자에게 정밀조사를 부탁했다.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싶었다.

두사람의 견해는 서로 달랐다. 법원의 분석가는 록화물의 정확성을 주장했고 외부인원은 그것이 조작품이라고 했다.

연주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설명을 부탁했다.

《부장관사님, 여기 이 부분을 주의깊게 보십시오.》

록화편집자는 중간부분에서 록화물을 전진과 후진, 정지를 반복하며 해설했다.

《여기는 피소자가 북의 대표에게 담배를 건네는 동작과 북의 대표가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는 화면이 찍혀져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반쯤 열어놓은 창가림으로 흘러드는 광선과 두 인물의 그림자입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빛은 왼쪽으로부터 즉 상면장소의 동쪽에서 흘러들었습니다. 당시의 계절에 근거하여 각도를 분석해보면 시간상으로는 오전 10시경으로 추측됩니다. 어떻습니까?》

김연주는 그가 가리키는 부분을 눈여겨보았다. 확실히 그의 말이 맞았다.

《헌데 빛의 각도를 놓고 이것이 편집한것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가요?》

사나이는 넋지시 웃음을 보내며 다시 록화물을 돌렸다.

《자, 이번에는 처음화면과 마지막화면 그리고 북의 대표가 담배곽을 꺼내 피소자에게 담배를 권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들의 동작이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와 창문으로부터 흘러드는 광선의 각도에 주의를 돌려 주십시오.》

연주는 교원에게서 강의받는 학생처럼 곰살스럽게 그의 요구대로 행동했다. 한참동안 여겨보던 그는 강하게 뇌리를 치는 발견앞에 《아!-》하고 비명소리를 냈다.

빛은 방금전의 화면에서처럼 왼쪽에서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흘러들고있었다. 건물이 배치된 위치에서 볼 때 서쪽에서 즉 오후에 흘러드는 빛이었다.

검찰의 기소장에도 이 록화물은 대표들의 담화가 끝난 휴식시간인 16시경에 촬영한것으로 기록되어있었다.

서로 다른 빛의 각도와 시간...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길로 그는 법원의 분석전문가를 불렀다.

그는 여전히 록화자료는 그 어떤 편집도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라고 고집했다.

《그럼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는 외부전문가가 가리켜준 부분을 꼭꼭 짚어갔다.

그제서야 그도 어색한 표정으로 뒤덜미를 쓸었다.

《정말, 그렇군요! 현대…》

뒤말을 맺지 못하며 그는 미묘한 눈길로 연주의 낯색을 힐끔 살폈다.

연주는 그의 그러한 태도가 석연치 않았다. 뭔가 말할듯하면서도 속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이 속에 걸렸다.

《꼭바로 말하세요. 그렇지 않다가는 어떤 책임이 당신의 머리에 떨어지게 된다는걸 그래 모른단 말이에요?》

예리한 눈초리와 함께 칼로 찌르는듯한 연주의 어조에 그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사실 이진 원장님이!…》

《뭐라고요?!…》

그렇다면 이 록화물이 그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작품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삼시에 등골로는 찬 기운이 스쳐지나갔다.

이런 비렬한 방법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험투를 씌우려 하다니…

그제서야 재판준비가 늦어진다고 장기철이 왜서 그토록 다그어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었다.

록화물이 위조된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담당재판장을 속이려는 의도를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분명 그 어떤 모략이 숨어있다는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그 녀자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당장 그를 만나 원인을 까밝히고싶었다.

복도로 나서던 그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한시간전에 장기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회의때문에 갔다는 사실이 상기되었던것이다.

심란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였다. 체물처럼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 생각으로 갈피잡지 못하며 이렇게 록화물을 반복해서 보고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시간적인 공간이 차이나는 두 인물들의 행동은 편집이라는 손을 거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것이다. 단지 위조자가 희미하게 알리는 광선의 각도와 그림자의 위치를 놓쳤을뿐이다.

문득 언제인가 원영준이 한 말이 생각났다.

《너두 알다싶이 상반되는 주장과 주의로 항상 복잡한 곳이 바로 이 땅이다. <친북>과 <친미>, <련공>과 <반공>이라는 대립되는 리념이 그 근원이지...》

며칠전까지만 해도 연주는 그의 권고대로 이번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 하리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위조된 증거물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이번 재판은 어디까지나 피소자를 《보안법》에 걸어 제거하기 위한 무서운 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하다면 이것을 단순히 원장이나 담당검사 둘이서 벌려놓은 일로만 보야 하는가?... 아니, 그들의 성격으로써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수 없다. 분명 경찰청이나 사법부의 고위인물이 개입되었을것이다.

새롭게 갈마드는 단정앞에 연주는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결국 법원이라는건 그 연극이 벌어지는 무대이고 연주자신은 출연자가 되어버린 꼴이었다.

이제 와서 보니 록화자료를 제시했다는 증인도 의심되었다. 그도 분명 음모자들에게 매수된 사람이거나 그 끄나불이라는것이 불보듯 명백했다.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것같았다. 무엇때문에 검찰이 그 증인을 그토록 숨기고있는지, 왜서 검사가 전에없이 입술에 기름을 발라가며 자기에게 찰거마리처럼 붙었는지...

문제는 리성삼이가 이번 재판장으로 나를 추천하도록 법원을 쏘서놓았다는데 있다. 오직 리운적인 타산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가 빼없는 고기처럼 놀아대는데는 분명 목적이 있을것이다. 그는 이 기소장이 뒤집힐수 있는 경우를 미리 타산했다. 때문에 피소자와 알뜰관계가 있는 나를 리용하여 그한테 유죄를 선고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 했을것이다!

리해되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원영준이도 연주가 이 재판에 나서도록 적극 부추겼다는데 있다. 허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서둘러 단정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지금껏 내가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그가 이런 음모의 시궁창에 날 차넣을수는 없다. 영준아저씨는 분명 이 모든 내막을 전혀 모르고있을거야. 순전히 내가 법관으로의 명예와 직위를 한시바빠 얻기를 바랐을것이다.

거미줄처럼 엉켜돌아가던 생각들을 정리하던 연주는 드디어 결심을 내렸다.

그래, 내가 이 모략극에서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기소장을 검찰에 퇴송하고 재판을 포기하는것이다.

그는 더이상 지체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전화기가 놓인 곳으로 다가갔다. 리성삼에게 전화를 하려는것이였다.

그가 전화번호를 누르려는데 먼저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뜻밖에도 원영준이였다.

이 밤중에 웬 일일가?

의문은 인차 기쁨으로 화했다. 두말할것없는 구원의 손길이였다. 그에게 사연을 터놓고 의견을 듣고싶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냐, 밤늦게 전화를 해서 안됐다.》

웬 일인지 그의 어조는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나른해보였다.

연주는 입안에 맴도는 제 말을 삼키지 않을수 없었다. 원영준의 불편한 심기를 느낀것이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가 편치않은게 아니세요?》

《그래, 신경을 좀 썼더니 머리가 빠개지는것같구나.》

《갑자기 무슨 불쾌한 일이라두?...》

연주는 근심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수화기에서는 늙은이의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글쎄, 뭐라구 말해야겠는지... 나두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늦게야 전화를 거는거다. 사실 네 동생한테 일이 생겼다!》

수일에 대한 소리가 나오자 연주는 저으기 긴장해졌다.

그애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늙은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걸가?

《아저씨, 그건?...》

석십한 영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기를 잃고있었다.

《허, 난 네 부탁두 있구 해서 그녀석의 뒤를 좀 캐봤는데 이번 재판과 련관이 있을줄이야, 허 참...》

연주는 갑자기 방망이로 코등을 맞은듯 정신이 아찔했다.

《그러니?!...》

바라지 않던 일이 드디어 터진것이다. 조승철에 대한 재판을 말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하던 수일이였다.

헌데 뒤가 켕기는 놈 먼저 선코를 뎀다구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가슴이 찼다.

온몸에서는 기운이 쭉 빠지는것같았다.

요전번 맥주를 마시면서 리성삼의 앞에 후줄근하게 앉아있던 수일의 꼴
기없는 물결이 떠올랐다. 단단히 코가 꺾이게 분명했다.

《아저씨, 그러니 그애가 공범자인가요?》

《다행히두 그 일엔 관여하지 않았더구나.》

연주는 바질바질 타들어가는 속을 부여안으며 되물었다.

《그럼?...》

《그애는 피소자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물증을 내놓은 증인이다. 그것
두 <간첩>혐의를 보여주는 록화자료를 말이다!》

순간 연주는 숨이 꺾 막혔다.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려 했던 증인이 동
생이라는데도 있었지만 그 물증을 위조한 장본인이라는데 있었다. 이어
언제인가 수일이가 며칠동안 해외에 나갔됐다고 하던 류정이의 말이 떠
올랐다.

리해되지 않았다. 이전에는 그래도 진보계에 발을 붙이고 열띤 목청으
로 구호를 웨치던 수일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이렇게 탈바꿈을 했는
지 알수 없었다.

더 의문스러운것은 그가 어쩌서 록화물까지 날조하며 조승철을 《간첩》
으로 고발했는가 하는것이다.

《아저씨, 그러니 그애가 록화물을 조작했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연주의 물음앞에 원영준은 비명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아니, 조작했다는건 무슨 소리냐?》

김연주는 아무래도 말하려던 내용인지라 모든것을 그대로 터놓았다.

수화기에서는 원영준의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니?!...》

그도 어지간히 놀란 모양이였다.

연주는 속에 묻어두었던 자기 생각을 다시 끄집어냈다.

《전, 이 문제를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번 사건에는 정치적목적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소장을 퇴송하고 재판을 포기할 생각이였어요. 그런데 동생이 또 그 일
에 관여했다니...》

연주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 시각 송수화기를 들고 침대에 누워있는 원영준의 얼굴에서는 음흉스러운 웃음이 피어나고있었다.

그는 몇시간전에 장기철이로부터 연주가 록화물에 대한 내막을 알고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미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예견했던지라 영준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다 타산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놓은 그였다. 그 방비책이란 다름아닌 김수일이다. 그를 공개시켜 김연주가 재판을 회피할수 없게 하자는것이였다. 그가 제 동생을 위해서도 재판과정에 록화물위조에 대해 묵인할수 있다고 타산한것이다. 재판규정에 따르면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어있었다.

따라서 김연주는 제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언할것이라고 영준은 타산한것이다.

《허 거참, 일이 별나게 번져지는걸...》

원영준은 우정 참담한 어조로 말했다.

《연주야, 이렇게 된 이상 난 네가 처신에 숙고해야 한다구 본다. 물론 기소내용이 불충분하고 또 그것이 피소자를 법적으로 구인할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여기에 네 동생이 끼여있다는걸 잊지 말거라. 만일 그가 허위진술과 증거물을 위조한것이 알려지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니? 오히려 그에만 피해를 볼게 아니냐. 그리구 장차 원장으로 될 너의 체면은 또 어떻게 되구!...》

연주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했다. 막무가내로 뿌리칠수 없는 조언이였다.

《내 언제인가도 말했지만 사람은 현실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거야.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면 파멸이라는 쓴약밖엔 차례질게 없다는거야 너무 잘 알지 않냐.》

《그러니 아저씨 제가 이 재판의 비법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직선적인 물음앞에 영준은 어정쩡한 투로 말했다. 그렇지 않다가는 눈치빠른 연주가 제 속을 뻥히 들여다볼것같았다.

《글쎄, 꼭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에 네 명예는 물론 더 가깝게는 동생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느냐. 그리구 상대방은 이미 너의 진정을 배척한 장본인이구... 선의라는것두 베풀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는거야.》

《아저씨, 그렇지만 법의 공정성으로 놓구보면...》

《법의 공정성이라는것두 다 집행자의 마음에 달린거다. 손에 들린 칼은 주인의 의사만 따르는 법이야. 때문에 난 네가 이 일을 가볍게 대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구 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수일이는 비록 이복동생이지만 너희 가문의 대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걸 명심했으면 한다. ...》

김연주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영준의 말은 그대로 그의 가슴속에 무거운 짐처럼 쌓이고있었다.

그 녀자는 또다시 혼란스러운 생각에 묻히고말았다.

조승철과 리선미, 윤경진의 얼굴에 동생의 모습까지 겹쳐든다. 만일 모든 사연을 다 알면서도 자기가 비법적인 이 재판을 집행한다면 그들에게 두번다시 죄를 짓는 만용으로 된다. 그리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하면 동생인 수일이에게 법의 칼날이 가게 된다.

종잡을수 없는 심리적부담으로 숨쉬기조차 가뻔다.

34

재판날자가 림박할수록 연주는 도저히 분별을 찾을수 없었다. 사건을 포기해야 할지, 계속 말아야 하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복잡한 심경을 든장질하며 장기철은 불같은 독촉을 해댔다. 그는 이젠 로골적으로 강박해나서기까지 했다.

《부장판사는 사건을 대하기 전에 먼저 상급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르게 가져야 하겠소. 그래 공판날자가 지체되면 당신이 모든것을 책임질수 있따구 보오?...》

게다가 손전화기와 집전화로는 알지 못할 사람들의 전화가 꼬리를 물었다.

《판사님, 중범죄자인 조승철에 대한 공판은 제기일에 진행하는가요? 어떻게 되어 재판준비가 지체되는지 알수 없군요. 혹시 옛시절의 애뜻한 감정에 사로잡혀 법의 공정성을 흐리려 하는건 아닌가요?》

《피소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당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이며 평가라는것을 명심해주세요!》

완전한 협박이고 위협이었다.

연주는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이번 사건을 조작한자들이 서있다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빠진 함정이 어떤 곳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그럴수록 반발심이 치미는것을 금할수 없다. 허나 그것은 어찌된 일인지 흥파안에서 소용돌이칠뿐 분출구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의 어깨우에는 조승철과 수일, 이 두사람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막중한 짐이 실려있는것이다. ...

《똑바로 말해. 그래, 그 록화테프는 어떻게 된거냐?》

연주는 오늘 수일의 집에 찾아가 동생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따지고드는 눈초리에 질린듯 수일은 목을 움츠렸다. 첫추위를 만난 사람처럼 처음부터 풀기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할 소리는 있다는듯 통명스레 내쏘았다.

《그래, 내가 뭘 어떻게 설명하라는거예요?》

《넌 아직도 내앞에서 사실을 숨길셈이냐? 그래,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것을 모르지는 않겠지?》

후줄근해진 수일은 방바닥이 꺼지는듯한 한숨을 내그었다.

《내가 그걸 왜 모르겠나요. 하지만 그들의 손에 걸려들면 어떻게 된다는거야 누이두 잘 알지 않나요!》

김수일은 자기가 랍치되어 《국정원》의 어느 한 밀실에서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회유와 협박, 구타...

몸서리치는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는 수일의 온몸은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방금 얼음구멍에서 나온 사람을 보는것같았다.

연주는 여전히 울분을 토하고있었다.

《넌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혈붙이야. 하지만 난 제 목숨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허나새나 사내라는게 어찌면 그렇게 한순간에 의기를 꺾고 그런 음모에 가담할수 있는가 말이야?》

수일은 드디어 속빈 풀단처럼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두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그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래요, 난 너절하고 비렬한 놈이에요. 강요와 협박에 못이겨 지조를

굽힌 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누이 같으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수 있다구 생각하세요? 내가 그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에요!》

속에 고인 설음을 토해내는 동생의 말마디들은 연주의 가슴에 선풍선
특한 칼날처럼 박혀들었다. 벌써 그들을 겨냥한 화살은 소리없이 날아들
고있었다.

《국정원》에 한번 걸려들면 도저히 발을 뺄지 못한다는것을 그도 모
르지는 않았다. 허나 어떻게 되어 하많은 사람들중에서 꼭 수일이야 지목
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결코 우연이라고만 볼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이것을 참을수 없었다. 자기가 날조된 재판의 주역으로 된것만도
분한데 동생까지 말려들었으니...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이 꼭 자기 남매를 노리고 꾸며진것처럼 여겨졌다.
허나 주범이 누구인지, 무엇때문에 자기들이 그들의 인형이 돼야 하는지
알수 없다.

한편으로는 동생이 가련하게 여겨졌다. 한때는 뭘 한답시고 가슴속에
피를 끓이던 그였다. 헌데 지금의 몰골은 어떠한가. 치마두른 아낙네도
허를 내흔들 정도로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돼버리지 않았는가. 어찌
면 남자가 저리도 무맥할수 있는가?

어린애처럼 한동안 눈물을 쥐여짜던 수일은 갑자기 얼굴을 쳐들었다.
그리고는 울분을 토하듯 말했다.

《하지만 누이라구 나보다 별반 나은게 뭐예요?》

침방울을 마구 날리며 대드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연주는 속이
찢렸다.

《그래, 지금까지 거의나 강력범죄만 취급하던 누이는 어째서 이번 재
판에 나섰는가요? <중복>재판을 통해서 제 몸값을 올리려 한게 아닌가
말이에요?!》

창에 맞은 사람처럼 연주는 켤해진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넌... 내가 그런 비렬한 사람으로 보이니?!》

그러나 수일의 입은 이미 터진 보폭이나 같았다.

《그래요. 예로부터 임금의 선행이 관리들도 선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떤가요? 누구나 권력을 잡으면 선한 사람들에게 폭정을
실시하려고 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구 누이는 그들을 비호하려고 하

고있구요. 뭐, 공정한 판결?!... 흥, 악이 살판치는 이 사회에 그 공정성이라는게 존재하거나 하나요? 악은 언제나 악을 낳는다고 했어요. 오염된 호수에서 사는 물고기처럼 누이나 나나 다 갈구갈단 말이에요! 선하게 살려는 사람한테는 숨쉬는 무덤이나 같은 이곳에서 살아가자면 오직 승냥이가 되는 길밖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물론 제 몸 하나도 유지할수 없단 말이에요.》

놀라왔다. 허나 뭐라고 반박할수 없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껏 부르짖던 《공정성》이라는것도 결국에는?!...

채찍처럼 후려치는 질타에 온몸이 찢겨져 갈기갈기 떨어져나가는것만 같았다. 《종북》재판이 이렇게까지 허위와 모략, 음모로 얼룩진 비열한 살인재판일줄은 몰랐다.

《누이는 지금까지 법은 공정하다고 해왔어요. 하지만 진짜 진범인들이 누구인지는 다는 모를거예요. 난 지금에 와서야 그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회의 진짜 강력범들은 바로 권력을 잡은자들이란 말이에요!》

연주는 동생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거침없이 흘러나오는것이 두려웠다.

《그래, 그건 무엇을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이나?》

《나는 <국정원>에 매수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알파팀>이라는데서 대글조작을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해왔어요.》

《<알파팀>?!...》

《그건 리명박을 비롯한 현 보수집권자들이 저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몇해전부터 <국정원> 산하단체로 만들어낸 하나의 비밀조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망에 가입하여 허위대글을 올려 그 열람자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집권여당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모략기구란 말이에요.》

수일은 지금껏 《알파팀》이 현 《정권》의 비호와 사측밑에 감행한 정치여론확산들과 진보인사들에 대한 얼토당토한 비방과 중상으로 그들을 고립시키려고 진행한 행위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니 그동안 인터넷망에 오른 조승철변호사에 대한 비방도 다 너희들이 조작한거냐?》

김연주는 얼마전 장기철이 보여주던 인터넷가입자들의 대글을 떠올리며 물었다.

《그래요. 그건 다 우리가 한짓이에요. 그뿐인줄 아세요. 이번 선거의 형세를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야당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것은 또 얼마이게요. ...

우리를 조종하는 <학교측>이란 다름아닌 <국정원>이며 <교장>은 <국정원> 원장이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요? 음모와 모략이란 무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자면 스스로 그 웅덩이에 빠져야 한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예요. 사람이란 환경에 제일 잘 적응되는 존재라고 했어요. 이 남조선에서 살아가자면 그 순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연주는 오늘에야 대글을 통한 류언비어의 산생과 류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명백히 알수 있었다. 이는 법적으로 볼 때 응당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허나 이 모든것을 현 보수당국이 직접 주관한다니 무슨 말올더 할수 있으랴.

과연 이것이 이 사회가 부르짖는 《법치주의》란 말인가?... 그러니 이번 일에도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검찰과 법원, 《국정원》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조승철을 《종북》인사, 《간첩》으로 몰아붙이려 하니 정녕 이 땅에는 《법의 공정성》이란 한갓 유명무실한 문구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아닌가?! 아무리 법이 집권세력들에게 복무한다한들 이렇게까지 후안무치할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수일이가 담장무너지듯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연주의 발을 잡았다. 그리고 애원어린 눈길로 올려다보며 사정했다.

《누이두 말했듯이 우린 비록 어머니는 달라도 한피줄을 나눈 형제가 아니나요. 만일 재판에서 내가 제출한 록화물이 조작한것이라는데 드러나고 누이가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한다면 나는 물론 우리 집안은...》

이렇게 말하는 동생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고있었다.

연주는 지금 그가 뭘 말하려 하는지 잘 알고있었다.

《그러니 넌 날더러?!...》

왜서인지 그의 목소리는 연약하게 울렸다.

《그래요. 피소자는 어디까지나 이전에 누이를 배척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리구 이미 <종북>인물로 락인된 사람이구요. 설사 누이가 그한테

무죄를 선언한다구 해도 이 사건은 다시 상소되어 2심에서는 뻔히 유죄로 판결될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1심공판에서 형을 내린다고 누가 뭐라구 하겠나요. 그러구 이번 재판이 누이가 원장으로 되느냐 마느냐 하는 관건적인 고리로 되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수일은 지금 연주의 가장 예민한 곳을 건드리고있었다. 그가 이번 재판에 나선것도, 도중에서 기소장을 퇴송하지 못한것도 다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현실은 그 목적을 실현하자면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그 반대를 요구하고있다. 《국정원》과 검찰청은 물론 법원과 동생까지도…

머리에서는 원영준이 한 충고가 지극히 맴돌고있었다.

《수일이는 비록 이복동생이지만 너희 가문의 대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걸 명심했으면 한다.》

정말 호미난방격이 아닐수 없었다.

수일을 구원하자니 조승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직 자기의 첫사랑을 고이 안고 홀로 살아온 사람이다. 비록 자기는 그를 가슴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지만 그는 어제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진정을 안고있는 잊을수 없는 인간이었다. …

어떻게 동생의 집을 나섰는지 알수 없다. 아무런 감각도 없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없이 길을 걸었다. 정말 운명의 희롱이 이렇게까지 가혹할줄은 몰랐다. 생의 일념으로 지탱해온 그 모든것이 반디불처럼 사라져 버리는것같았다.

아, 내 운명은 왜 이리도 수난으로만 짝 들어찼는가?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누군가가 자기를 의도적으로 이 일에 끌어들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었다.

하다면 그는 과연 누구인가? 장기철, 리성삼…

파도처럼 밀려드는 의문과 의혹, 번민의 고통을 안고 걸던 그는 갑자기 벼락치는듯한 고함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니, 이건 나살이나 처먹었다는게 눈깔은 어디다 팔아먹구 다녀!》 귀청을 찌르는듯한 욕설에 연주는 고개를 돌렸다.

20대초반쯤 되어보이는 젊은 사내가 두눈을 지름뜨고 쏘아보고있었다.

《왜, 뭐가 마뜩지 않다는거야? 제가 한짓을 보거나 하구 눈알을 올롱하니 뜨란 말이야.》

젊은 녀석은 연주의 눈앞에 손가락을 가져다대며 방정치 못하게 놀아냈다. 초보적인 레의와 도덕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너무도 억이 막혀 말이 다 나가지 않았다. 제 생각에 움해서 걷다보니 신문을 사고 돌아서는 그의 손을 다친것이다. 그통에 신문이 도로바닥에 떨어졌다.

사내는 그가 집어주는 신문을 나꿔채듯 걷어쥐었다.

《흥, 그래두 소경은 아닌게로군!... 눈깔이 뜸자리가 아니면 앞을 보고 다녀. 그래야 장차 묘자리두 잘 봐둘게 아니야.》

천박스러운자에게서 날아드는 상스러운 소리가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연주는 멍하니 서있을뿐이다. 요즘 와서 확실히 자기 생활에서는 생기가 없어지고 두눈조차 흐리멍텅한게 도저히 앞날을 가늠할수 없었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는 신문매점주변에서 울리는 사람들의 원망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그러니 윤기옥이라는 녀자가 <간첩>이었다는건 아예 날조였구만?!》

《억울한 루명을 쓰고 녀자의 몸으로 십여년동안 옥살이를 하자니 오죽했겠소.》

《이젠 진짜주범이 밝혀졌으니 이 녀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해!》

저도 모르는 걸음으로 연주는 신문매점에 다가가 신문을 한장 샀다. 지면을 읽어가던 눈동자는 한점에서 굳어졌다.

《진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그럼, 경진이가 끝내!...

아들의 모색을 떠올리며 글줄을 읽던 그의 입가에서는 《아!-》 하는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눈앞은 보이지 않고 무수한 별씨들이 흩날리며 몸이 휘청거렸다.

《아니, 아주머니 왜 그러시우?》

결에 서있던 나이지숙한 사나이가 그를 부축해주었다.

그제서야 연주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다.

《고마워요.》

사람들의 눈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을 내짚었지만 몸은 술에 만취된것처럼 불균형적이었다.

아니야. 그럴수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윤기옥간첩사건》을 조작한 진범인의 얼굴을 떠올리는 그는 천길나락

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그러니 내가 그 녀인에게 내린 판결도?!...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기만 했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으니 이 죄를 무엇으로 씻는단 말인가.

그때 조승철이 한 말이 되새겨졌다.

《당신이 진실로 공정한 판결을 지향한다면 리성적인 사고로 모든 진상을 재음미해봐야 한다고 보오.》

그러나 연주는 그의 충고를 서슴없이 뿌리치며 자기가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했었다. 현대 지금 이 신문에 실린 기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윤기옥의 모습이 새롭게 안겨오고있다.

음모와 모살의 희생물로 된 그에게 나는 피고에게도 량심이 있는가고 말하지 않았는가.

한갓 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뛰어든 《간첩》으로, 《사회안전법》의 대상으로 낙인해왔다. 그런데 그는 친어머니인 자신이 버린 경진이를 어엿하고 톰툰하게 키워왔다. 그 어떤 자선으로 자기의 죄많은 인생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마음과 정, 사랑을 고여 시들어진 자식의 주름발을 펴주었다.

이렇게 놓고보면 정말로 량심이 없는 인간은 바로 나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무질서하게 날아드는 채찍앞에 몸을 내댄다한들 견실한 인간을 모독한 죄를 어찌 다 씻을수 있단 말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돌이 심화될수록 연주는 자기가 지켜온 리념이 구멍이 송송한 벌집처럼 돼버리는 듯한감을 느끼고있었다.

원영준!...

연주는 그 이름조차 경멸스러워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얼굴에 있는 모든 주름발들이 눈언저리에 모여들고있었다.

원영준은 안정감을 잃고 우리안에 갇힌 맹수처럼 방안을 오락가락하였다. 지금껏 유지해오던 모든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버린것이다.

낮색에는 표출하지 못한 불만이 잔뜩 실려있었다. 방안은 담배연기로 자욱했다.

허, 인생의 서곡은 고고성이고 종곡은 탄식이라더니...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노릇이었다. 야심만만한 기질을 가지고 남의 시신우에 쌓아온 성공탑이 이렇게 모래성으로 변할줄은 몰랐다.

그 화근은 책상우에 놓인 신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직 펼쳐놓은 그 대로인 글줄들은 여전히 심장을 마구 찢어대고있다.

《진범인은 누구인가?》라는 기사에는 수십년전에 있었던 《윤기옥간첩 사건》의 진상이 공개되었다.

필자인 윤경진은 1962년 당시의 정세를 언급하면서 미국으로 류학가기 위해 원영준이 꾸민 음모와 모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경진이는 기사에 백남수로인의 참회록에 대해 서술하면서 자기 친구의 안해였던 윤기옥을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그 대가로 제 꿈을 실현한 원영준의 과거사에 대해 적라라하게 까밝혔다.

오래동안 속에 홀로 꿇져두고 때없는 회심속에 돌이켜보던 일이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벌레집은 상으로 기사의 제목을 노려보는 원영준의 눈가에서는 무서운 불꽃이 뿜어져나왔다.

두손으로 신문을 움켜잡았지만 선뜻 찢어버리지는 못했다.

백남수! 그 밥통같은 자식이 모든것을 토설하고 꿄질줄이야 어이 알았는가. 한순간의 방심이 이렇듯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줄이야.

글줄들은 지극히 그를 괴롭히며 오류를 동강내고있었다.

원영준은 이발을 우드득 갈았다. 자기의 뒤를 캐고있는 조승철을 《종북》인사로 몰아 구치소에 처넣었는데 이젠 생똥같은 애송이기자가 뒤구멍을 이렇게 쑤셔놓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당장 모든것을 부정하며 반박기사를 내고싶었지만 백남수가 남긴 참회록은 부인할수 없는 증거물로 남아있었다.

경진이는 기사에서 윤기옥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의 명예회복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사건의 원흉인 원영준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 국민앞에 솔직히 반성하고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글줄들은 영준의 정수리를 겨누고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허나 이렇다한 방비책이 없었다.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진상이란 없다더니... 세월의 이끼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날줄이야!

무슨 일에서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며 빈틈이 없다는 평판을 그림자처럼 달고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만은 그렇지 못했다.

모든것이 두렵기만 하고 무서운 환각이 머리를 쑤셔대고있다.

잠자리도 편안치 않아 어제날의 감미롭던 시절이 악몽으로 변해서 목에 서슬푸른 작두날을 가져다대는듯했다. 그럴수록 세월의 이끼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고 이승에서의 죄의식을 모면하려 했던 일들이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다.

...1962년 대학졸업을 앞둔 원영준은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다. 비록 공부는 한다고 했지만 술과 계집질로 허송세월을 보냈으니 빛이 보일리 만무했다. 먹통안처럼 시키면 래일앞에 한숨만 폭폭 내그었다.

그러니 결국 나의 희망은 망상으로 돼버리고만단 말인가?!

궁지에서 벗어나자면 막강한 세도줄을 얻든가 아니면 묵직한 돈다발이 있어야만 했다.

허나 지금 형편에서 그한테는 의지할 연줄은 물론 당장 옷 한벌 사입을 돈조차 없었다. 집에서 올려보내는 돈은 모두 사창가 기생들의 얹은 속옷에 처넣었던것이다. 남은것이란 기름남비처럼 바질바질거리는 야심밖엔 없었다.

더우기 눈이 쏘는것은 학급에서 어리무던하고 고지식한 《바보》로 인정되었던 친구 한사람이 류학을 가게 된것이다. 그는 확실히 복이 있었다. 몇해전에는 흥녀자대학교에서 인물뽑고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윤기옥이라는 교원을 안해로 맞았으니 그럴만도 했다.

원래부터 남이 잘되는것을 배아파하고 그것을 헐뜯지 못하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성미인 영준에게 있어서 친구는 눈에 든 가시나 다름없었다. 이전에는 그의 머리를 빌려 시험을 통과하느라 속에 없는 친절성을 보여 《다정한 친구》로 둔갑한 그였다. 그런데 이젠 그가 류학까지 가게 된다니 뱀은 꼬일대로 꼬였다.

밤새 잠자리에서 덩굴며 이궁리저궁리하던 그는 새벽 일찍 사창가로 달려갔다. 언제인가 그곳에서 껴안고 재미를 보던 계집이 중앙정보부의 한 인물을 잘 알고있다는 소리를 피득 들은 기억이 난것이다. 그 연출을 타고 들어가면 막혔던 담벽을 뚫을수 있는 묘술을 전수받을수 있을것같았다.

문제는 돈이 있어야 했다. 생각끝에 그는 고향에 있는 부모들의 돈주머니를 말짱 털어 제 계획실현의 밑천으로 삼았다.

아닌게 아니라 몇푼의 돈앞에 코대를 세우던 기생도 엇가락처럼 노근노근해졌다.

백남수라고 하는 사람과 대면한 영준은 꼭 하느님을 만난 기분이었다. 백남수는 중앙정보부의 서울지부에서 요원으로 일하고있는데 고향은 통영이라고 했다. 나이는 영준이보다 서너살정도 우였다.

《임자가 우리 일을 도와 큰 공을 세운다면야 그 걱정거리는 삼복철의 이슬방울이나 같은거지!》

너무도 반갑고 황송하여 영준은 체면도 잃고 방바닥에 이마를 연신 쪼았다.

《선생님, 그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돈뭉치에 눈길을 돌리는 백남수의 갱뿔한 얼굴거죽에는 얇은 미소가 어렸다.

《지금 국민들속에서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님을 총칼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또 <정권>을 가로챈 폭도로 락인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제창하는 반<정부>기운이 계속 확산되고있네. 이것은 장차 이<남한>사회의 실권을 장악해야 할 박의장님한테는 큰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네.》

귀가 향아리만해진 원영준은 그의 《조언》을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귀에 담았다.

《그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임자는 대학내에 숨어있는 북의 <간첩>을 색출해내는걸세.》

《예-예?! 아 그런거야 어떻게... 내가 우리 대학에 <간첩>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흥, 이 자식 눈알이 좀 도는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기름을 좀 쳐줘야 할가보군!》

그는 맹랑한 기색을 짓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이봐,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옷이 있는가? 근거가 없으면 강짜 만들어서라도 하나 메치면 될게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죄없는 사람을...》

백남수는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코웃음을 쳤다.

《허, 이제 보니 아예 숙맥이로군! 이봐, 그런 결심두 없이 남을 가로타고 앓을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그는 원영준의 야심을 계속 자극시켰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에게 가해지는 거대한 힘의 무계이다. 한번 상상해보라. 술한 사람들을 눈아래로 굽어보며 그들에게 호령하는 재미를... 자기한테 굽신거리며 아부와 아침하는자들을 거느리는것, 이것이 사는 멋이 아니겠는가. 그래, 누가 이 권력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만약 이런 야심이 없는자가 있다면 당장 내앞에 끌어오라. 그러면 나는 그자의 상통에 침을 뱉을것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남보다 뒤지는것을 좋아할리는 만무하다. 더 잘살고 더 출세하고 더 오래 살기를 희망한다. 허나 그것은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차례지지 않는다. 때문에 누구는 일생 그 권력을 쫓다가 기운이 진해서 한줌의 재로 돼버리기도 하고 또 누구는 그것이 아득히 멀어보여서 애초에 단념하고마는것이다. 운수좋은자는 부모로부터 세습적인 권력과 부귀를 이어받지만 너처럼 손에 아무것도 없는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쟁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고생과 멸시속에 허리굽은 인생이 되고만다. 이것은 생존방식의 엄연한 법칙이여서 좋든싫든 산소처럼 흡입해야만 한다. 돌이켜보면 역대 권력자들중에 어느 누가 손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야심은 버린다구 해서 결코 보검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행동하는것이다. 남을 짓밟지 못하면 자기가 짓밟힌다는것을 생활의 철리로 삼아야만 자기의 목적을 이룰수 있는것이다.

그래, 넌 이것이 싫다는건가? 아니라면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야 한다. 수단이 어떻든지간에 결과가 중요한것이다. 승자는 결코 재판할수 없는 법이야. ...

그의 《충언》은 드디어 영준의 가슴속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절대로 남한테서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살지 않을테다. 이땅에서는 결코 동정과 인정으로 제 생을 보존할수 없다. 야수가 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발을 지그시 다물고있던 영준은 드디어 결심을 내렸다.

《선생님의 의도를 알만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 대학이 아니라두 일 없겠지요?》

《그럼,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구 아무 놈이나 북의 <간첩>으로 만들어진 말이야. 몰래 그의 책가방에 적색도서나 선전물 같은것을 넣고 경찰에 신고하면 될게 아닌가 말이야. 뒤일은 내가 처리할테니 걱정말구.》

원영준은 온몸에 힘을 가하며 대답했다.

《걱정마십시오. 제 꼭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명심해야 할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용공분자들을 만들어내야 박의장님한테 쏘리는 화살을 북으로 돌릴수 있다는거야. 내 말뜻을 알만하지?》

영준은 무겁게 머리를 끄덕였다.

《예, 꼭 해낼테니 제 문제만 책임져주십시오.》

《그건 걱정말라구. 현 <정권>을 위한 일에 공헌한 사람을 내세우지 않으면 누구를 내세우겠나.》

하숙방으로 돌아온 원영준은 목표를 노리는 저격수처럼 매 사람들을 타진해보았다. 제일 사냥하고싶은 대상은 바로 류학을 가게 된 제 친구였다. 그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면 그대신 자기가 미국에 류학갈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간첩》이라고 하면 누구도 믿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 한번 시위에도 참가하지 않고 교실과 집에 틀어박혀 책만 뒤지는 글쎄주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식을 물어메치고 내가 류학가야겠는데?!...

한참 골머리를 썩이던 그는 바람같이 스치는 생각에 패재를 올렸다.

친구의 안해가 떠오른것이다.

원영준은 즉시 흥녀자대학교에 연줄을 놓아 윤기옥을 료해해보았다. 마음씨가 곱고 인심이 좋아 학생들속에서 인망이 높다는것이다.

영준이는 무릎을 쳤다.

마음씨곱고 인정이 많다는것은 분명 빨간 물을 먹었다는 소리야. 실용성만 중시하는 이남사회에서야 남을 위해주는 작자들은 《빨갱이》물을 먹은자들밖에 더 있는가?!

그는 즉시 행동으로 넘어갔다. 백남수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한테서 적색도서와 선전물을 넘겨받았다.

다음날 그는 여러명의 동창생들을 총동원하여 《졸업축하》를 명분으로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영준은 집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뱃새눈을 굴리며 가방에 넣고 온 《물건》을 어디에 숨겨놓을가 하는것만 생각했다. 그러다가 모두들 술에 지나하게 취했을 때 농작과 벽체사이에 몰래 밀어넣었던것이다. 그것도 너자의 물건이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게 향수를 뿌린 꽃천에 싸서...

모든 일은 얼음판에 박밀듯이 순조롭게 되었다.

다음날 경찰서장이 직접 그 집을 수색하여 《물건》을 찾아냈고 윤기옥은 《간첩》으로 몰려 무기형을 언도받았다.

그 공로로 원영준은 미국으로 류학가게 되었던것이다.

류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안해를 감옥에 보낸 친구는 절명하고 그의 어린 아들마저 거지로 방랑하다가 객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후 영준은 제격 지방의 어느 한 검찰청에 배치받게 되었다.

남을 짓밟고 그의 피를 빨아 리속을 차리는 재미란 참으로 별미였다. 더우기 친구의 안해는 인물이 고와 절로 품에 안고싶은 생각이 드는 녀자였다. 하지만 그는 제것이 아닌 남의것이였다. 차라리 나도 못먹고 너도 못먹는 식으로 감옥에 처넣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막 환성을 지를 정도였다.

이번에 조승철을 《보안법》위반자로 내세운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몇년전부터 윤기옥의 《간첩》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면서 자기에게로 접근해오는 눈에 든 가시였다. 이번 기회에 그에게 《간첩》혐의를 씌워버린다면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도 있고 또 자기한테도 리득이였다.

그는 여기에 김연주를 리용하기로 결심했다. 조승철에게 실련당한 그 녀자의 심리를 리용할 잡도리였다. 명예를 중시하고 자존심이 강한 연주가 불미스러운 과거를 쉽게 지워버리지 않을것이며 또 복수의 감정을 안고있을것이라는 타산에서였다.

오늘과 같은 때에 써먹으려고 그의 《후견인》으로 나서서 각별한 관심을 쏟은 원영준이였다.

그는 연주가 재판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의 동생인 김수일을 이미전부터 이 일에 끌어들였으며 사람들을 내세워 그가 록화물을 위조하게끔 하였다.

모든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치차처럼 잘 맞아돌아가는것같았다. 그런데

삭은 바자로 노란개 주둥이라구 똥판지같이 윤경진이라는 기자가 《윤기옥 간첩사건》의 내막을 밝혀내어 이렇게 신문지상에 공개할줄이야.

아무리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구 해도 이거야 너무하지 않는가. 꼭 압소한테 물린 기분이다.

그것은 원영준에게 덮쳐든 거대한 폭풍이었다. 이제는 꼭지떨어진 조롱 박신세나 다름이 없었다.

아침 첫 시간에 벌써 청와대와 《국정원》 원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원국장, 당신은 우리의 처지를 난처하게 만들었소.》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제 잘못을 모면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더우기 이번 조승철에 대한 재판이야 당신이 처음부터 조직한게 아니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그것이 부메랑이 될수 있는 조짐만 보인단 말이요.》

원영준은 이마에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손바닥으로 훔치며 변명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후대책을 취하는중입니다.》

《여보시오.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은 동정을 받을수 있지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것이 설사 새것이라도 비난을 받게 되는거요. 그러구 그 일은 당신이 아니래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더이상 비치지 않는게 좋겠소!》

원영준은 후줄근해진 인상으로 한숨을 내그었다. 뭐라고 사정할 기운도 없었다.

자기의 과거사는 물론 조승철에 대한 재판조차 그것이 《종북》사냥의 한 고리라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누가 그 일을 맡아 수습할것이다. 지금까지 《종북》재판이 무의미한 결실을 안고 끝난 력사는 없었다. 어떻게 하나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야마는것이 《남한》사회의 법이라는데 그는 잘 알고있었다.

문제는 신문에 실린 이 기사인데 그것은 벗을수 없는 울가미나 같았다. 민심이 들고일어나는것을 막기 위해서도 상부에서는 지체없이 자기를 해임시킬것은 뻔했다.

차장은 벌써부터 영준을 달갑지 않은 인물로 취급하고있었다. 이미전부터 시답지 않게 여겨오던 찰나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련발하니 좋은 기회로 삼는것같았다.

원영준은 이 모든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그러진 심통은 울화를 치밀었지만 그것을 꼭 터칠수도 없는

쳐지었다.

모든게 꿈처럼 찾아왔다가 꿈같이 진행된것만같았다. 무엇이래도 하나 걸어줘려고 미친것처럼 두손을 내저었지만 공허한 공간일뿐이다. 이제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고말았다.

모대김으로 머리를 쥐어짜던 그는 갑자기 치미는 생각에 얼굴을 들었다. 그러니 나의 운명도 이렇게 종말을 고한단 말인가?!...

한점을 응시하던 그의 눈빛은 드디어 사그러지기 시작했다. 미구에 차례질 참담한 선고앞에 순종하듯 그는 거적눈을 슬며시 감았다.

36

김연주는 요 며칠새 열병을 앓고난 사람처럼 되었다. 왕성하던 잎새들을 마가을바람에 잃은 활엽수를 방불케 했다. 이전에 비해 대어섯살은 더 늙어보였다. 그도 그럴것이 혼미해질 정도의 정신적고충에 시달렸다.

친숙한 사람들이 전혀 낯선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낯선 사람들이 정답게 여겨지는 요지경에 들어서는듯한 느낌이다.

자신의 변화도 놀라웠다. 평소에 마르고 딱딱하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어느 구석에 그런 습이 있었는지 본인조차 놀랄 정도이다.

지금도 그는 이중삼중으로 겹쳐드는 복잡한 심리를 안고 마석 모란공원으로 오르고있다. 흉곽을 짓누르는 압박은 스스로 청하는 참회로부터 오는것이였다.

어떠한 충동에 의해서, 무슨 체면으로 이곳으로 왔는지 그자신도 느끼지 못하고있다.

민주렬사들이 잠든 곳으로 오르는 경사길은 마치 숨가쁜 제 인생을 되밟는듯하였다. 속히워 살아왔다기보다 구린내나는 오물더미에 스스로 몸을 잠그고 서식해온 자인이였다. 그 무엇으로도 가셔버릴수 없는 악취가 세포와 피줄들을 마구 오염시켜 다시는 환생할수 없는 몸이다.

서쪽 저 너머로 떨어지는 석양의 여광이 렬사들의 봉분을 포근히 감싸고있다. 노을은 나무들과 잔디들은 물론 묘소들을 감홍빛으로 물들이며 숙연한 정서를 구슬프게 빚어내고있다. 쓸쓸하게 비쳐드는 마지막해살사이로 날아에는 산비둘기들의 울음소리는 추도곡의 선률인양 피를 토해내는듯싶다.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깨끗한 삶을 바친 평혼 들앞에 선 그의 심중은 괴롭기 그지없었다. 내디디는 걸음조차 서슴어졌고 호흡조차 조심스러워 온몸은 땅으로 잦아드는듯했다.

《민주열사 윤기옥》이라고 쓴 묘비앞에 머리숙인 그의 눈굽은 물기로 축축해졌다. 봉분앞에 놓인 흰 꽃송이조차 연주의 심중을 대변하듯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인간으로서 한 인간앞에 지은 잘못이 이렇듯 가슴을 저미는 죄의식으로 변할줄은 몰랐다.

어제 밤 그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아니, 잘수 없었다.

20여년전의 그 공판장에서 한 녀인에게 내린 그릇된 판결이 지극히 괴롭히고있었다. 이전에는 자부로 충만되었던 가슴이 이 시각에는 더없는 고통으로 타들어가고있었다.

신문에 실린 글은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너무도 충격적인것이였다.

《나는 현시대의 젊은 기자로서 이 기사를 통해 한 인간의 운명, 아니 이 사회가 걸어온 살륙과 음모의 력사중에서 그 한토막을 투시해보려고 한다. 강권과 권력이 살판치는 이남사회에서 가혹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한 녀인, 1960년대초 군사파쑈독재에 의해 간첩 아닌 <간첩>으로 몰려 한생을 억울하게 살아야만 했던 그의 고통스러운 삶의 흔적을 돌이켜 보자니 눈물보다 증오가 북받치는것을 금할수 없다. 저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 땅에서 민주와 통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 위해 사대집권세력들이 벌린 수많은 모략과 음모에 대한 격분으로 붓끝조차 떨리고있다. …》

필자인 윤경진은 글에서 윤기옥이 어떻게 되어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그로 하여 온 가족이 억울한 생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눈물겨운 사연을 그대로 밝혔다. 그리고 법적절차도 없이 15년간의 옥고를 치르였으며 출옥후에 또다시 3년간의 형기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래, 이것을 정녕 죄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그 대가로 출세와 영달을 얻은 원영준이와 같은자들의 행위로만 봐야 하겠는가. 아니, 절대로 그렇게 볼수 없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파쑈악법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극악한 분렬주의자들이 산생시킨 비극이라고밖엔 달리 볼수 없는것이다.

이렇듯 너절하고 비렬한 모살행위에 의해 우리 국민이 흘린 피눈물은 강을 이루고있다. …》

예리한 수술칼처럼 흉곽을 도록내는 글줄앞에 연주는 머리가 숙어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자기에게 하는 심문처럼 여겨졌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쉽게 믿을수도 없었다. 원영준이가 그런자일줄이야.

지금까지 더없는 은인으로 여기며 그를 따른 자신이 너무도 천박하게 여겨졌다. 그럴수록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지어 무섭기만 했다.

이러한 생각은 그로 하여금 이 땅을 새로운 눈으로 투시해보게 하였다.

어찌 보면 이 《남한》사회란 하나의 무대를 방불케 한다. 사람들이란 그 무대우에서 움직이는 배우들이나 다름이 없다. 여기서 연출가는 어디까지나 권력자들이다. 그들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주역들과 단역들이 움직인다.

출연자들은 자기들이 한갓 정치의 꼭두각시, 희생물이라는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아니,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집행하기도 한다. 모르고 배역에 충실한 사람, 알면서 역수행으로 땀을 뻘뻘 흘려대는 사람…

그 흐름은 어쩔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기필코 권력을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를 산생시킨다. 누구나 타인의 호령에 움직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남을 조종하고싶은 야심만이 존재한다. 때문에 인간은 권력을 향해 질주하며 그 길에서 승자와 패자가 규정되는것이다.

력대 실권자들은 얼굴에 두툼한 가면을 쓰고 사회를 통치해왔다. 그들에게는 허바닥이 두개인데 하나는 밖에서 말하는 허이고 다른것은 집안에서 말하는 허이다. 이것을 어떻게 잘 구사하는가에 따라 제 몸무게가 구별된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말도 있듯이 독재자의 밑에는 아첨과 음모의 사환군들이 번식하기마련이다. 상전의 허가 두개라면 이들은 세계의 허바닥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웃사람을 받드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사람을 억누르기 위한것이며 나머지는 제 리속을 위한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인간생활이란 하나의 가면무도장이나 같은것이다. 단지 누가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떤 춤을 추어 관중들의 인기를 더 많이 끌어당기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한창 선거전에 열이 올라 자기에게 투표를 구걸하는 후보자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수 있다. 이럴 때는 모두 선량한 인간으로 둔갑하여 세상에서 좋다 하는 언어와 표현, 인간의 덕망과 배려에서 제일

으뜸가는 말만 골라서 쓴다. 마치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었다는 전설속의 프로메테우스라도 되려는듯이...

이런 생활방식은 청와대로부터 시작하여 하부말단의 공무원에게까지蔓延되어있다.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기의 사고를 바꾸며 살아야 한다는것이 이 사회의 《생존철학》이다.

윤기옥의 묘를 찾기 전에 그는 원영준의 집에 찾아가 신문을 내흔들며 따지고들었다.

《그래, 이게 사실인가요?》

영준은 낫색이 새파래진 연주를 바라보며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그래, 사실이면 어쩔다는거냐?》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너절하고 비렬한 음모군인줄은 몰랐어요. 제 앞길을 위해 죄없는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놓을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눈에서 불을 내뿜는 그의 행동앞에 영준은 태연한 자세였다. 그는 여유있게 담배를 빨아대며 씨벌거렸다.

《히, 네가 나를 그런 태도로 대한다는것이 정말 놀랍구나. 나는 지금껏 그래도 네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너희 집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 네가 지망대로 법관으로 될수 있는것두 다 내 덕이라는걸 잊은건 아니겠지?》

《물론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난 지금껏 당신처럼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손을 적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영준은 갑자기 앙천대소하듯 웃어댔다.

《뭐라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하긴 너야 민사건이나 강력범죄사건을 다루면서 자기는 공정한 판사라구 자칭하며 정치에서의 중립을 주장해왔지.》

그는 어지러울 정도로 연주의 앞을 오가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지만 그걸 누가 인정이나 해준대. 내가 알기에도 넌 윤기옥이를 <사회안전법>에 걸어 재구속할 때부터 정치에 발을 들여놨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해!》

너무도 험한 감투를 씌우려드는 원영준의 행동에 연주는 항변하듯 반발했다.

《아니예요. 그건 생트집이에요. 난 어디까지나...》

하지만 그는 말을 채 맺지 못했다. 지금 와서 자기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돌이켜보면 확실히 그릇된 판결로 윤기옥에게 유죄를 선언한것이다. 물론 그때에는 그 녀자가 원영준의 희생물인줄은 몰랐다. 그러나 알고 했던 모르고 한짓이든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안전법》으로 정치권력자들의 적수를 제거해준것이나 다름없었다.

원영준은 능글맞은 웃음을 띠고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왜 도중에 말을 끊는거냐? 이랬든저랬든간에 넌 그 일로 하여 나와 한배에 탄 몸이나 같단 말이야. 알겠어!》

연주는 몸부림치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예요. 난 절대로 당신과 같은 악마로 될수 없어요.》

《악마?!...》

말을 되뇌이던 영준은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그래, 내가 너를 치마두른 악녀로 키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것이 큰 실책이었다!》

연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따지고들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이미전부터 나를!...》

원영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아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댔다.

《이제 와서 더 숨길 필요도 없지. 솔직히 말해서 그때 네가 윤기옥의 재판을 맡게 광주지방법원에 의뢰한것은 바로 나다. 난 너를 장차 반공리념이 투철한 치마두른 법관으로 키우려고 했지.》

연주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늙은 승냥이가 자기의 진속을 드러내면 낼수록 자기가 무서운 악인의 손아귀에 엮매여있었다는것을 스스로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넌 굳이 네 애비의 훈시를 따라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재판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고 고집했지.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지.》

《뭐라구요?! 그러니...》

《그래, 모든것을 정확히 알아야 너도 제 처신을 바로할수 있을테니까.》

영준은 책상우에 놓인 차를 한모금 들이키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난 너를 어떻게 하든 내가 이미 결심한대로 키우려구 이번 재판에 끌어들었다. <윤기옥간첩사건>을 캐고있는 나의 적수인 조승철을 <간첩>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에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수일이를 랍치하여 《국정원》의 끄나불로 만들고 또

명예를 중히 여기는 연주의 심리를 리용한 모든 내막을 실토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주는 아연감을 금할수 없었다. 원영준의 감언리설에 속히워 이렇게까지 무서운 구렁렁이에 떨어진 자신을 보는것이 두려웠다.

《그러니 이번 모략재판의 주범은 바로 당신이였군요!》

원영준은 등받이에 잔등을 기대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르데면 그렇다고 할수 있지. 하지만 명심할것은 내가 아무리 <국정원>의 국장이라두 다 집권자의 사환군에 불과하다는것을 알아야 해. 난 단지 그들의 의사를 집행하면서 내 리속을 차리는 일에 너희 형제를 리용했을뿐이야!》

《어쩌면 당신이 제 친구의 자식들을 이런 무서운 모략에 끌어들일수가 있는가요?》

《뭐, 친구?!... 흥,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까운 벗인체하는자가 제일 무서운 원썩라는것을 넌 여직 모르는것같구나. 제 목적을 실현하려면 설사 그가 부모나 형제든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한다는것이 이 사회의 <생존철학>이라는것을 모르는가 말이다.》

원영준은 울분을 참지 못해 씹씹거리는 연주를 보는데서 재미를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니 너두 지금 말은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리라구 본다. 이젠 바로 너와 네 동생이 살아남을수 있는가 마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란 말이다.》

《그만해요!》

연주는 드디어 분별을 잃기 시작했다. 지금껏 자기를 그토록 통략하고 서도 이제 더 무서운것을 하라고 부추기고있지 않는가.

《난, 절대로 당신처럼 살수 없어요. 설사 제 명을 다 살지 못한다 해도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수 없단 말이에요.》

원영준은 어처구니없다는듯 쓰겁게 웃어댔다.

《그럼 어디 네 생각대로 해봐라. 그렇게 되면 아마 나처럼 실직되는 정도가 아닐걸!...》

《닥쳐요. 더이상 위협과 협박으로 우리 형제를 리용할 생각은 애초에 그만두는게 좋을거예요.》

김연주는 더이상 원영준과 마주서고싶지 않아 문을 박차고 나왔다.

너절한 인간들과 마주하면 거기서 뿜겨나오는 악취로 하여 자신도 마취될것만같았다. ...

속히워 살아온 인생에 대한 뼈저린 후회심을 안고 윤기옥의 돌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량볼로는 드디어 물줄기가 흘러내리고있었다. 옳바른 삶의 리념이 없이 온전한 의식으로 사고하지 못하다나니 죄없는 사람의 운명에 돌을 던진 참회의 눈물이었다.

언제인가 읽어본적이 있는 윤기옥의 수기 《옥중에서 찾은 출로》의 글줄이 눈앞에 어려온다.

《...이제는 나에게 남은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철창너머에서 안해와 엄마를 애타게 찾다가 절명한 남편과 자식의 봉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싶다. 허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혼백앞에 죄되는 일이다. 불의앞에 허리를 굽힌 안해와 어머니, 통일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옥중의 이슬로 사라진 령혼들을 배척했다는것을 안다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겨내야만 했다. 채 피지 못하고 죽은 아들애의 고귀한 꿈과 희망이 하나된 강토에 비낀 어린애들의 귀여운 웃음과 명랑한 노래속에 이어지게 해야 한다. 설사 이 몸이 한줄기의 연기로 사라진다 해도 좋다. 사상전향으로 긴 생을 사느니 차라리 저 비전향장기수들처럼 통일의 길에 깨끗한 삶을 바치고싶은것이 나의 심정이다. 먼 후날 설사 그 누가 몰라준대도 아쉬운것이 없을것같다. 왜냐면 이 윤기옥이라는 인간의 피와 살, 녀은 민족의 소원을 이루는 길에 조금이나마 바쳐졌기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나는 통일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해 이 험한 가시밭길을 스스로 가는것이다. ...》

글줄들은 지금 이 시각 김연주의 뇌리를 지극히 자극하고있었다.

용서! 과연 내가 용서를 받을수 있는 몸인가? 치욕과 오욕으로 절어든 이 몸으로 어떻게 이분앞에 감히 나선단 말인가?

사정없이 후려치는 문초앞에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는 말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절감하고있었다.

지금껏 자기가 웨쳐온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란 한갓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보수세력들이 췌치는 허위이며 자기는 그 하수인이였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라는 존재는 오직 법이라는 칼을 물고 반인민적인 폭거를 일삼는 정치세력들의 대문을 지켜주는 사냥개에 불과하였다. 결국 오늘까지 참된 인간들을 모욕하며 그들의 깨끗한 량심에 먹칠해왔다.

쓰라린 아픔으로 하여 두눈을 감은 그는 잊을수 없는 모습들을 되새겨 보았다. 확실히 그들은 자기보다 아득한 높이에 서있었다.

어쩌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리도 한모습일까? 여기에 묻힌 민주열사들은 물론 리선미, 조승철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무엇때문에 이렇듯 참된 인간들이 이 사회에서는 배척을 받아야 하며 법정의 죄인으로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이 지닌 리념은 자기의 삶을 바쳐 국민들을 독재의 사슬에서 구원하고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자는데 있지 않는가. 찬양을 받아야 하고 지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언제까지 범죄자로 낙인되어 폭력과 악법의 희생물로 되어야 하는가. 하긴 나도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경멸시해오지 않았던가.

허나 인생을 수정하기에는 너무도 때가 늦었다. 그를 에워싸고있는 감탕판은 너무 깊고 진득진득했다.

과도처럼 밀려드는 막급한 후회심으로 그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서서히 구름지대를 내려덮는 어둠조차 자기의 앞길에 드리우는 장막처럼 여겨졌다.

《연주!》

갑자기 귀전에는 부드러운 음정이 들려오고있었다.

그 어떤 녀의 부름인양 김연주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눈앞에 있는 윤기옥의 사진에서 울려나온 목소리는 분명 아니었다.

그렇다면!...

반가움과 두려움의 혼탁속에 고개를 돌리려는데 소복단장을 한 녀인이 그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연주는 정확히 보고있었다. 눈앞의 안개발은 간 곳 없고 리선미의 모습만이 또렷하니 안겨왔다.

《?!...》

선미는 윤기옥의 봉분앞에 꽃송이를 드리며 큰절을 올리고있었다.

...보석알들을 다분하게 박은 밤하늘가에는 둥근 보름달이 의젓하게 걸려있었다. 달빛어린 길을 따라 두 녀인이 모란공원을 내리고있었다.

지금 이 시각 연주의 심리는 복잡했다. 선미가 이곳에 나타난것도 이상하지만 그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었다.

오직 오해와 질투, 불신으로만 대해왔던 옛 친우이다. 철명을 통해 그의 진정을 안 순간부터 만나기 서슴어지고 설사 마주했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여지조차 없었다. 단지 자기의 이전 행동에 대해 스스로 용서를 비는 심정이다. 받은 정은 너무도 아름답고 그것을 준적은 단 한번도 없는 야박한 자신이어서 더 지탱하기 힘든 이 자리였다.

서먹서먹한 공기를 밀어던지며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난, 네가 여기로 꼭 올거라구 생각했어.》

연주는 어림짐작으로도 그가 오늘은 자기를 만나려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승철에 대한 공판이 인차 시작되는것이다. 그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을것이다.

하나 지금 선미는 그런 내색은 전혀 내비치지 않고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너야, 경진이의 친어머니가 아니니.》

《머-어, 친어머니?!...》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는 소리에 연주는 주춤 걸음을 멈추고 선미에게 돌아섰다.

얼마나 듣기 좋은 부름인가. 하지만 나는 여직 그것을 스스로 배척하지 않았던가.

머리는 자꾸만 아래로 숙어지고있었다.

연주의 심중을 헤아린듯 선미는 그의 한손을 꼭 잡았다.

《난, 네가 비록 경진이를 남한테 넘겨주었지만 항상 그애를 가슴속에 안고있었을것이라구 본다. 그래서 오늘두 이렇게 그를 키워준 고마운 인을 찾아온게 아니겠니.》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자기 심정을 알아주는 선미가 더없이 고마웠다.

그러나 잊지 않고있다는것과 품에 꼭 껴안고 사랑을 주고 정을 주었다는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세상에 어머니치구 제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다는 말이 있다. 비록 육체는 주었어도 자식의 성장에 이바지 못했다면 어찌 어머니라구 말할수 있겠는가!

연주는 경진이의 모색을 떠올리며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아니, 난 어머니의 자격을 스스로 켜버린 녀자야. 우리 경진이한테는 악한들에 의해 칼부림을 당하면서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키워준 윤기옥, 그밖에는 더 다른 어머니가 있을수 없어. 그애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게구.》

선미는 그의 손을 꼭 잡은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래, 지금 경진의 심정은 십분 그럴수 있어. 그렇다구 넌 어머니로서
서의 본분을 영원히 포기하겠다는건 아니겠지?... 난 설사 부모라구 해
두 자식앞에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어야 한다구 생각해. 그리
구 언제든지 제 진짜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구.》

그는 밤공기를 한껏 들이키며 하늘을 바라봤다.

《연주, 밤의 모습은 달빛과 별빛으로 이루어지듯 한가정은 부모와 자
식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겠니. 허나 넌 지금껏 오해라는 울타리를 허물
지 못하고있었지. 이루지 못한 꿈은 망상으로 끝나지만 이룰수 있는 일
을 실현하지 못하는것은 본인의 나약함에 있다구 난 생각해. 그릇된 한
걸음은 인생에 흑점을 남기지만 바른 한걸음을 내디디지 못하면 일생 후
회를 안게 된다!》

연주는 달빛이 어린 선미의 눈동자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티없는 마
음이 그대로 어린 눈망울은 지금 자기를 한껏 껴안고있는듯했다. 그속에
비낀 제모습은 꼭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대학시절엔 온실안의 꽃처럼 연약해보였던 리선미였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상상할수 없이 굳세고 역센 모습이었다. 바람세찬 들판에서 찬이
슬을 맞으며 피어난 아름다운 코스모스처럼 여겨졌다.

허나 연주로서는 그 향기조차 말할수 없는 처지였다. 무슨 낮으로 그
들의 심장속에 자리를 정할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선미, 고맙다. 하지만 난 너희들이 탄 열차에서 이미 뛰어내린 몸이
아니니. 다시 승차권을 얻는다는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지.》

모래우에 부은 물처럼 잦아드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선미는 안타까
웠다. 친우에게서 어제날의 명랑함과 쾌활함을 느낄수 없는것이 분했다.

《연주야, 어둠이 싫다고 피하기만 하면 언제 광명을 찾겠니. 그리고 사
람이 피부색은 바꿀수 없지만 마음을 바꾸는것은 제자신에게 달린게 아니
겠니. 난 이제라도 네가 자기의 행복을 다시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연주는 코언저리가 시큰해오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자기는 비록 홀몸으
로 살면서도 옛 친우의 사랑을 재현시키려고 헌신한 선미였다. 그도 녀성
이었으며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싶었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것을
남을 위해 깡그리 바치지 않는가.

《연주, 난 네가 다시는 경진이와 승철씨의 곁을 떠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사랑이 없는 가슴엔 오직 증오만 남게 되는 법이야!》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선미의 눈길을 피하며 연주는 걸음을 내디댈다. 가슴속엔 오직 그에 대한 고마움만이 샘솟고있었다.

다정히 손을 잡고 구릉지대를 내려오던 그들은 도중에서 한 사나이와 마주쳤다.

연주와 선미는 그가 경진이라는것을 동시에 알아보았다.

《아니, 임자가 어떻게?...》

경진이는 선미의 목소리에 밝은 기색을 지었다. 그러다가 그옆에 서있는 연주를 보는 순간 낯색을 흐렸다.

《윤기옥선생님의 묘소에...》

그의 손에 들린 한떨기의 꽃송이가 그의 말을 증명하고있었다.

연주는 눈언저리가 시큰해왔다. 키워준 은인을 못잊어 그의 묘를 찾는 아들이 대견스러웠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시서늘해졌다. 자기를 대하는 그의 표정은 너무도 차갑고 냉담했던것이다.

두사람사이에는 서먹서먹한 감정이 흐르고있었다. 하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방금전 선미와 나누던 그 감정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오히려 그들앞에 서있자니 모든것이 어색하고 송구스럽기만 했다.

《선미야, 난 먼저...》

이런 말을 남기고 걸음을 떼는데 선미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

연주가 주춤 멈춰서자 선미는 경진에게 몸을 돌렸다.

《방금 네 친어머니두 그분을 찾아갔었다. 그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선 경진의 목소리가 어둠을 헤갈랐다.

《친어머니라구요?... 그래, 선생님은 누가 저의 어머니라는겁니까?》

날카롭고 랭랭한 그의 말은 연주에게 들썩워진 모닥불이나 같았다. 그렇다고 변명조차 할수 없는 그였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친어머니의 자격을 상실한 존재였다.

돌발적인 행동에 바빠난 선미는 권고조로 말했다.

《경진아, 사람이 길을 잘못 든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죄는 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물론 나중에는 남한테까지 해를 주게 되지. 하지만 위기에 빠진 어머니를 구원하지 않는것처럼 더 큰 불효, 더 큰죄는 없다. 난 네가 어머니를 용서하기를 바란다!》

용서?!...

경진이는 잠시 망설이듯 선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절절하고 간절한 청이 어린듯한 그의 눈빛은 지금 그에게 하많은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선생님, 정이 없으면 뜻이 통하지 않고 뜻이 다르면 하나로 융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혈연적으로 이루어졌다한들 서로의 지향과 목적이 다른 사람을 어찌 모자간이라구 할수 있겠습니까!》

낮으나 저력있게 울리는 목소리는 연주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고있었다.

《그리구 이자 용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뭘 용서해준다는겁니까? 스스로 제 자식을 버린데 대해서 말입니까?》

경진은 속에서 일어나는 울분을 억제하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럴수 없습니다. 제 부모한테서 배반당한 수많은 고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수 있다구 생각하십니까? 그래, 법정에서도 과실로 빚어진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는가 말입니까?》

격해진 심증을 억제하며 경진은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너무도 쉽게 해왔습니다. 허나 이제는 더이상 그 표현을 반복할수 없다고 봅니다. 비록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제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제 개인의 향락과 공명만을 추구하는자들을 그래 같은 동포로 여겨야 하는가 말입니다. 전세대들이 우리 세대에게 분렬의 아픔을 유산처럼 넘겨주면서도 용서라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할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수십여년세월 동강난 강토를 부여안고 피를 토하는 민족의 고통을 치료할수 있다는겁니까?》

선미는 놀라우면서도 미더운 시선으로 경진이를 바라봤다. 어디서 이렇듯 대바르고 끝끝한 젊은이가 생겨났을가 하고 의심할 정도이다. 사고와 인식, 의식에서 자기 세대와는 큰 차이를 가지고있다. 이렇듯 훌륭한 청년들이 통일을 위해 굳건히 싸워가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뻐근했다.

《저는 더이상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중이 안고있는 상처에 칼질을 하는 사대매국노들과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그에 동조한자들의 행위를 더이상 묵인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경진이는 연주에게 몸을 돌렸다.

《판사님, 집안에서의 잘못은 실수로 될수 있지만 밖에서 저지른 잘못은 죄로 되는 법입니다.》

입술을 깨물며 서있던 연주는 온몸의 진을 깡그리 짜내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러니 역시 리념에 관한 문제로구나?!》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방향을 가늠할수 없었다. 애써 자신을 가다듬는 그의 입가에는 쓰거운 웃음이 피어났다. 자기 인생에 대한 참담한 비양 조였다.

《그렇습니다. 전 오늘의 이 비극이 결코 우리 집안에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강요당하는 아픔이라구 생각합니다. 윤기옥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의앞에 머리를 숙이고 불의앞에 항거하는 정신을 체현해야 한다구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판사님을 어머니라고 부를수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상처를 제때에 도려내지 못한다면 이런 비극이 계속 이어질수 있기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없으며 사랑이 없으면 양심이 있을수 없고 양심이 없으면 참된 민족애가 있을수 없습니다!》

준절한 선고앞에 연주는 온몸이 한줌으로 줄어드는듯싶었다. 흐려지는 정신을 겨우 부여잡으며 그는 간신히 중얼거렸다.

《경진아, 오해하지 말아. 난 결코 용서나 구걸하자고 여기로 온것이 아니다.》

연주는 피롭게 숨을 내그으며 말을 이었다.

《네가 말한것처럼 참회라는 말로 인생을 다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구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거란다. 이전에두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그러니 부디 날 기억하지 말아라!》

그는 망막속에 아들을 새겨넣으려는듯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고집스럽게 생긴 모습은 꼭 승철의 옛시절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앙증한 입술만은 꼭 자기를 닮은것같다.

가슴은 더없이 쓰리고 아팠다.

경진아, 어쩌면 그리도 모질수가 있느냐. 그래 날 어머니라고 단 한번 만이라도 불리주면 못쓴다더냐?...

선미에게로 돌아선 그는 슬픔을 애써 감추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미안해. 아무래도 난 너희들과 함께 갈수 없는 몸인가봐!》

그의 목소리는 비감으로 떨리고있었다.

선미는 절절한 마음속당부로 간곡하게 말했다.

《정진이를 너무 탓하지 말아.》

연주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래, 난 그를 탓하는게 아니라 나자신에 대해 책망할뿐이다.》

《연주, 난 이제라도 네가 제 본태를 찾기 바란다.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민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수 있어!》

연주는 씩쓰레한 미소를 지었다.

《참, 뜻이 깊은 말이구나! 그러구 오늘은 참 고마웠어. 자, 그럼...》

연주는 몸을 돌리고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어디로, 어떤 생각으로 가는지 그자신도 모르고있었다.

37

오늘 아침도 XX지방법원가까이에 있는 확성기에서는 여느날과 같이 플류트곡이 흘러나오고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생을 다시한번 관조해보시라...》

이전에는 무심하게 흘러보낸 곡조였다. 허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치 도 연주자신에게 하는 설교처럼 들려왔다. 부드러운것같지만 담겨진 의미는 폭포수의 장엄한 울림처럼 뇌리를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새 펍 추가신것같습니다!》

원장후임으로 공식화되면서부터 법원내 판사들과 직원들이 저마끔 앞에 나타나곤 한다. 그들의 표면에는 보는 사람이 따분할 정도로 아첨기 어린 웃음들이 피여있었다.

이런 일에 습관되지 못한 연주에게 있어서 그 모든것은 모기떼의 성화로밖엔 여겨지지 않았다.

이제 그는 인생에서 제일 힘겨운 일, 조승철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피로운 날들이였다. 한편으로는

많은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다.

여느때라면 기소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판결문의 초안까지 머리속에 환히 안고있었을 그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렇지 못했다. 아직 혼잡스러운 생각들로 하여 눈앞은 뿌영기만 했다.

사무실안에 들어선 그는 문어구에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지금껏 결눈질없이 달려온 인생의 목적을 향해 반갑게 들어서던 곳이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오늘은 모든것이 낯설기만 했다. 정감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멀미 같은것이 나기만 했다.

인생의 목적이 이 직4각형안에 맴돌고있다는 생각에 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으며 너무도 많은 대가를 치르었다.

왜 그런지 지금은 감방처럼 여겨진다. 이 자그마한 평방안에 갇히워 음모와 모살의 설교를 받으며 살아온 자신을 새롭게 보았다.

재판전까지는 불과 몇분밖에 남지 않았다.

중량감이 온몸에 실린듯 연주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이제 시작될 공판은 매우 중요했다. 걸어온 삶의 줄달음을 영원히 포기하는가 마는가 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시각이다.

시계의 초침소리는 심장의 박동처럼 온몸을 세차게 두드리고있다.

버릇처럼 서류들을 책상우에 꺼내놓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다가갔다.

장안에 걸려있는 법복을 보는 눈망울은 근엄하게 굳어졌다. 수십년세월 인생의 회로애락을 함께 나뉘온 유일한 동행자였다. 《하느님의 사도》로 자처하며 이 사회의 법을 지켜온 《전투복》이다. 하지만 왜 그런지 오늘은 그것을 입기가 확실히 서슴어진다.

《부장판사님, 출정시간이 되었습니다!》

등뒤에서 울리는 소리에 놀란듯 그는 법복을 꺼내들었다.

잠시후 김연주는 배석판사들과 서기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따라 법정으로 향하는 길은 별스럽게 길어보였다.

《악한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악한 세상으로 된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입니다. 내가 분한것은 날 낳은 어머니가 바로 그 악한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겨레의 아픔을 가시기 위해 후더운 심장을 바치는 열혈의 심장들을 파쑈악법으로 무참히 교살하려든단 말입니다!...》

어데선가 경진의 목소리가 공명되어 울려온다.

밀려드는 잡념들로 하여 연주의 안면근육은 몹시 굳어져있었다.

《부장판사, 잠깐만...》

승강기안으로 들어가려던 그 녀자는 등뒤에서 울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원장인 장기철이 서있었다. 재판준비과정을 놓고 신경질적으로 대하던 기색은 없고 어느때와 같이 부드러운 표정이다.

연주는 그와 마주서기가 두려웠다. 원영준과 한짝이 되어 이 모략재판의 앞잡이로 나선 장본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재판정으로 출정하는 판사를 멈춰세우는 그의 의도가 의문스러웠다.

《원장님, 무슨 가르치심이 있습니까?》

심사가 뻗어있는 목소리가 그 녀자의 입가에서 흘러나왔다.

기철은 혼연한 기색으로 그를 한쪽구석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있던 문건을 내밀었다.

《이건 뭘니까?》

연주는 속이 띠끔해왔다. 그가 또 무슨 교활한 생각을 고안해냈는지 의심스러웠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보는게 좋을거요!》

반갑지 않았지만 별수 없었다.

마지못해 문건을 들여다보던 연주의 두눈은 화등잔만해졌다.

《아니?...》

기철은 눈가에 의미있는 웃음을 띠운채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걸 상부의 지시요!》

상부의 지시?!...

선뜻 이해되지 않는듯 연주는 그의 두눈을 뚫히 들여다보았다. 마주보는 눈빛은 부드러운것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살기가 느껴졌다.

이 사람이 말하는 상부란 과연 어대인가?...

문득 원영준이가 하던 말이 상기되었다.

그러니 진짜 음모의 소굴은!...

순간에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다. 무서운 일이었다. 《범치주의》를 제창하던 그들이 이번 재판에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할줄은 몰랐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것이 작성되다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의 절차와 공정성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는 로골적

인 간섭이었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있는 재판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
군 한다는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당하고보니 뭐라고 심정을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상부의 지시란 다름아닌 피고에게 《보안법》을 적용하여 무조건 유죄
를 선고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재판장을 무시해버리는 월권행위였다. 아니, 그보다도 더한것은
이번 일은 단순히 원영준이나 장기철을 비롯한 몇명이 모여서 꾸민 모략
극이 아니라는것이다. 그들은 한갓 각본의 작성자들에 불과했을것이다. 그
들의 배후에는 지방자치제선거와 때를 맞추어 또다시 《색갈론》을 제창하
며 《종북》재판을 벌려 민심을 끌어당기려는 현 당국이 서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버쩍 들었다.

그러니 나도 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말인가!

심한 모욕감으로 온몸은 경련이 일듯 떨리고있었다.

《원장님, 전 이 재판을 포기하겠습니다!》

단호한 연주의 립장에 장기철은 놀란듯이 펄쩍 뛰었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그래, 이제 와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거요?》

허나 그 녀자는 고집을 허물지 않았다.

《원장님두 지금 이것을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재판장입니까
아니면 이들의 하수인입니까?》

연주는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종북》인사들을 처형할 목적밑에 꾸며
진 날조극이라는것을 까밝히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담당재판장이 이렇게 나오니 바빠난것은 장기철이었다. 만일 연주가 자
기 결심을 단행한다면 이 일이 언론에 공개될것은 물론이고 그로 하여 모
든 책임이 자기의 머리우에 쏟아질것은 뻔했다. 문턱앞에서 넘어지는 격
으로 될수 있다는 우려심에 그는 연주를 얼리기로 결심했다.

《부장판사, 너무 흥분해서 그러지 말고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오. 물
론 이것은 범활동에 대한 간섭이요. 그렇지만 당신두 목전의 일만 보지
말구 뒤일을 봐야 할게 아니요.》

《?!...》

기철은 자못 부드러운 어조로 계속했다.

《이것 보오. 당장 당신에 대한 임명장이 떨어질 판인데 당사자가

그렇게 나오면 우에서 뭐라구 하겠소.》

《원장님, 전 결코 자존심을 모욕당하면서까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철은 황황히 그의 말을 저지시켰다.

《아, 그러지 말구 내 말을 마저 듣소. 만일 당신이 이 지시문때문에 재판을 포기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공판은 또 그만큼 연기될텐데 누가 그 책임을 지겠는가 말ियो? 그리고 지금 증인대기석에 앉아있는 당신의 동생은 또 어떻게 되구?...》

《뭐라구요?!...》

은근한 암시가 어린 말에 연주는 입술을 짹 깨물었다.

그러니 난 내 동생의 운명을 걸고 이런 도박판에 나선다는 소리가 아닌가?!...

어제 밤에도 류정이가 찾아와 두손을 부여잡고 울먹이며 사정했다.

《누이, 이렇게 말하면 안되겠지만 어떻게 하겠나요. 그래두 애정이 아버지야 누이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아니나요! 그리고 우리 애정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무겁게 내려누르는 중압감에 온몸이 한줌으로 줄어드는듯싶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음흉한 웃음이 서린 리성삼의 모색도 어렴풋이 나타나고있다.

《실수란 우둔한자들의 장식물에 불과한거요. 허나 명예를 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치명적인 상처로 남게 되는 법이지. 난 당신이 부디 자기의 존엄과 지위를 위해 옳은 결심을 내리기를 바라오. 그까짓 친북분자때문에 한생을 바쳐 세운 탑을 무너뜨리는 미련한짓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거요.》

김연주는 또다시 복잡한 심리적혼란에 말려들었다.

만일 내가 재판을 포기한다면 내 동생 수일이네?!... 그는 미국에서 억울하게 추방되어 나를 찾아 이곳에 온 하나밖에 없는 일점혈육이 아닌가.

눈앞에는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던 류정이와 조카애의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린다.

과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 그러니 난 지금껏 외워온 법의 공정성을 스스로 어겨야 한단 말인가?!...

시계추같은 생각에 휩싸인 연주는 문건을 받아들고 승강기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어떻게 되어 법정으로 들어가는 문앞에 이르렀는지 알수 없었다. 경위의 인사조차 건성 받아넘겼다.

법정은 자못 무거운 중량감을 느끼게 하였다.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이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맨 앞줄에 윤경진과 리선미가 앉아있었다. 그뒤로 십여명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이 자리를 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각계각층의 방청객들이었다.

시간이 박두하자 검사인 리성삼이 두명의 서기와 함께 검사석에 들어섰다. 해반지르르한 얼굴에 기쁨기도는 머리카락은 그의 위엄을 돌구어주었다. 재판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몸가꾸기에 무던히도 힘을 넣었다는게 알렸다.

그는 위엄있게 마른기침을 해대고는 괜히 법의를 한번 휘둘리고 자리에 앉았다.

방청객들의 눈길이 자기에게 쏠린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어떻게 하나 첫 공판에서부터 피고를 수세에 몰아넣어 이 재판정의 공기를 손아귀에 틀어잡아야 한다는것이 그의 내심이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경위가 웨치는 구령이었다.

오전 9시, 법정으로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함께 들어섰다.

수백쌍의 눈길들이 자기에게 쏠리자 연주의 가슴은 세찬 방망이질로 두근거렸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리가 떨렸다. 꼭 처음으로 재판정에 나서는것같은 심정이었다.

방청객들의 눈총을 받으며 그는 천천히 재판석으로 오르는 계단에 발을 내디뎠다.

갑자기 《삐저덕!》 하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온몸으로 전기가 스쳐가는듯싶었다.

뒤에서 따라오던 배석판사들이 나무계단을 밟으며 내는 소리였다.

이전에는 법정에 있는 방청객들과 피소자들에게 위압과 긴장감을 조성해주느라 우정 내던 소리였다.

헌데 오늘은 그 소리에 온몸의 피가 얼어드는듯했다. 벌써 뒤통수는 땀으로 젖어들고있었다.

내가 왜 이렇가? 절대로 긴장하지 말자.

길게 호흡하며 그는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라 배석판사들이 제 위치들을 차지했다.

《앉으시오.》

경위의 구령이 울렸다.

방청객들은 의자소리를 내며 자리에 앉았다.

연주는 이전과 다름없이 재판정을 둘러보았다. 비좁게 들어찬 방청객들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다.

처음으로 눈에 띄이는것은 역시 경진이와 선미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는 긴장감이 떠돌고있었다. 이미 면식이 깊은 대학의 선후배들로 꾸려진 변호인단의 눈초리들이 시야에 안겨들었다. 차갑게 굳어진 그들의 눈빛들은 지금 자기를 심리하고있는듯했다.

그들과 대조적인 사람은 오직 리성삼뿐이다.

방금 염색을 했는지 반듯하게 벗어진 이마뒤로 까만 머리칼들이 윤기를 뽐어내고있다. 본시 약고 반드러운 사람의 표적인듯 두볼은 끓는물에 덴 것같이 불깃불깃했다. 아침술을 마시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거만하게 앉아있던 성삼은 연주의 시선이 자기에게 돌려지는것을 느끼자 의미있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의 승패를 거머쥔 승자의 모색이다. 아마 그도 상부에서 내려보냈다는 지시문의 내용을 알고있는 모양이다.

허나 그의 심중도 그리 편안한건 아니였다. 오늘의 이 좌석이 꼭 바늘 방석처럼 여겨졌다. 피고에 못지 않게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것이다.

원영준이 해임되자 그는 하루아침에 끈땀어진 갓신세가 되고말았다. 그동안 갓은 아양으로 신주처럼 모셔왔건만 그 연줄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만것이다. 부장검사자리는 먹여놓은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돌덩이로 변할줄이야.

허나 쉽게 물러설 그가 아니였다.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하나 숨씨를 보여 제 낯을 드러내보일 야심을 품고있었다.

이미 상전들로부터 재판의 흐름을 어떻게 몰아가야 하는가를 암시받은 그였다. 또 김연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와 판결이 목적인대로 되지 않을 경우 상소할데 대한 지시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조승철은 비록 1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언받는다 해도 2심에서는 꼭 유죄로 선고받을것이다.

손에 잡힌 주패장들은 모두 성삼에게 유리한 패쪽들이였다. 이제 주

어진 조건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피고에게 유죄를 선언할수 있었다.

마른침을 삼키고난 김연주는 사건기록철을 앞에 놓고 손가락에 꿀무를 켜다. 그리고 필통에서 연필을 꺼라잡았다. 노상 반복되는 일이지만 손동작은 서툴렀다.

준비가 끝나자 그는 길게 호흡하고나서 마이크를 당겨 스위치를 넣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피고인 조승철!-》 하는 경위의 목청이 울렸다.

이어 피고대기실의 문이 열리더니 경찰의 감시속에 조승철이 들어섰다.

법정의 눈길들은 약속이나 한듯 그에게로 쏠렸다. 저마끔 오리목이 되어 웅성거렸다.

연주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저건 또 무슨 행동인가?

피고는 뜻밖에도 하얀 베천으로 만든 옷에 베감투를 쓰고 천연스럽게 들어서고있었다.

왜 저런 차림을 했을가?

연무처럼 피어오르는 의문으로 그는 저도 모르게 물었다.

《피고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승철은 버젓하니 피고석에서 일어났다.

《상복은 왜 입었습니까?》

승철은 법정을 둘러보았다. 역실역실한 눈가에서는 정기가 뿜어져나오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예리하고 날카로워보였다. 다난한 세월을 살면서 생겨난것이였다.

《원인은 단 한가지입니다. 이전에 일제가 <을사5조약>으로 우리 나라를 강탈하던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복을 입고 거리에 떨쳐나와 도란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두고 피눈물을 뿌리며 곡성을 터쳤습니다. 허나 그때로부터 한세기가 넘은 오늘날에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민족 부흥의 새시대를 열어가려는 민중의 통일열망이 <보안법>이라는 칼날에 의해 무참히 도륙당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은 이 땅이 외세에 의해 갈라진 때로부터 수십년세월 마음속의 상복을 벗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민족의 한 성원인 내가 어찌 상복을 입지 않을수 있단 말입니까!》

연주는 예리한 물체에 찢리운듯 흠칫했다. 그의 말마디들은 꼭 자기를 겨냥하고 날아드는 화살처럼 여겨졌다.

장내의 분위기는 더없이 숙연해졌다. 방청객들은 경건한 눈길로 피고를 뜨겁게 포옹하고있었다. 그들은 민족의 숙망을 이루는 길에서 자신이 마지막사형수로 나서려는 조승철의 의지를 읽고있었던것이다.

방청석에서 가벼운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허, 정말 그렇구만!》

《겨레의 녀원이 죽어가고있으니 상복을 입는거야 응당하지!》

《우리두 상복을 입어야 할걸 잘못했는가보구만!》

《피고는 지금 이 재판정을 모독하고있소.》

엇갈린 주장들은 끝이 없었다.

《정숙을 보장해주십시오.》

연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서야 각이한 주장들은 거품처럼 서서히 주저들기 시작했다. 비록 이렇게 말하였지만 심리적인 충격은 매우 컸다. 조승철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방청객들만이 아닌 자기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있었다.

정의와 진리의 말살은 바로 이 법정에서부터 시작되고있지 않는가. 바로 나는 지금 그 시행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바빠나기 시작한것은 리성삼이었다. 재판은 시작부터 제 박자를 잃고있다는것을 의식한것이다.

그는 참지 못하고 의자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재판장님, 전 본 사건의 담당검사로서 피고의 행동에 항의합니다. 저건 명백히 자기의 죄과를 은폐시키고 이 재판을 적색선전을 위한 마당으로 몰아가자는 행위로밖에는 달리 해석할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입에 게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피고에게 선손을 떼웠다는데로부터 오는 오기였다.

연주는 배석판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견해를 조용히 내놓았다.

《전 피고의 의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이야 어디까지나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는데 있지 피고가 입고있는 옷을 론하는 마당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연주는 《검사의 항의를 기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성삼은 입술을 움썹움썹하더니 제풀에 주저앉고말았다. 불편으로는 경련 같은것이 일고있었다.

연주는 흐려진 법정외 공기는 물론 자기의 복잡한 심리까지 바로잡을 심산으로 법관다운 무게와 위엄을 담아 발언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한 피고 조승철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그는 재판장인 자기소개로부터 시작하여 배석판사들과 검사, 변호인단의 성원들에 대해 일일이 소개하고 계속했다.

《피고에 대한 기소장을 검사가 제기하겠습니다.》

리성삼은 손바닥으로 뒤통리를 한번 쓸더니 문건철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청석의 눈길들은 일제히 그의 기름기내뻔 이마에 집중되었다.

성삼은 김연주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기소장을 펼쳐들었다. 기사니목처럼 길게 뻗어있는 마이크를 타고 뿜어내는 그의 웅글은 목청이 재판정에 울렸다.

《우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몇달전부터 변호사 조승철이 저지른 범죄행위들을 접수하고 심리하였습니다. 저는 본 사건을 담당한 검사로서 제시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한편 증인들을 만나 심도있는 료해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피고가 매우 위험한 범죄를 감행했다는 물적 및 인적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

기소장을 랑독하는 성삼을 바라보며 조승철은 속으로 조소를 금치 못하고있었다. 글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역시 리성삼의 얼굴이 엿보이는 기소문이었다. 대세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으로 행동하는 그자의 생활관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집권자의 입김이 어느쪽으로 향하는가를 주시하다가 거기에 발을 들어놓는 리성삼, 과연 이제 《정권》이 또 바뀔다면 너는 또 어떤 탈바가지를 쓰고 나타나겠는가? 하긴 저렇게 그릇에 따라 모양새를 갖추줄 아는 자들을 두고 《살아갈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세상에는 저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앞에서는 마치 《국가》의 존망을 두고 걱정하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뒤에서는 제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운자들이 존재하는 이 남조선에서 민중의 의사는 공허한 웨침에 불과하지 않는가.

저런자들로 하여 정의는 말살되고 부정의만이 머리를 쳐들고있다. 진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량심적인 사람들이 저런자들에 의해서 탄압당하고있다. 민중의 의사와 요구가 짓밟히고 독재자의 무제한한 권력만이 살판친다면 저렇듯 속무른 아침쟁이들만 성하게 되는것이다.

검찰청에서 곰살스럽게 놀아대던 성삼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치 매춘부처럼 옆에 찰떡같이 붙어서 이러쿵저러쿵하며 귀맛좋은 소리를 해낼 때 그의 역스러움에 구토감을 금할수 없었다. 어떻게 하나 사건을 재판으로 끌어가자는 속심으로 감언리설을 늘어놓던자였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속에 품고있던 고름집을 터뜨리며 악취를 풍겨대고있다.

리성삼은 재판석과 방청석을 둘러보고나서 다시 기소장에 눈길을 박았다.

《그럼, 지금부터 피고의 범죄사실을 본 재판에 제기하겠습니다. …》

얼굴이 수수지짐작처럼 되어가지고 침방울을 뿌리는 그의 력설을 듣는 연주는 낮이 간지러워지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재판준비과정에 그가 말하는 내용이 모두 거짓과 허위라는것은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이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든것을 까밝히고싶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과 동생의 머리우에 비구름을 몰아오는 행위라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삼의 목소리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는 지금 첫 발언권을 부여받은 기회를 리용하여 조승철을 압박하리라 결심했다. 재판석은 물론 방청객들에게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가를 납득시켜야만 하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흥분하거나 격동되면 노상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벌개진 안면에서는 승승한 마마자국들이 붉게 상기되었다. 마치 달변가도 무색할 정도로 여러가지 표현과 수식어들과 손세까지 섞어가며 열을 올렸다. 얼굴색은 갈수록 더 붉어졌다. 마치 물이라도 뿌리면 칙칙하는 소리를 내며 김을 내뿜을것같았다.

그는 검사석의 책상모서리에 한손을 얹고 다른 손에는 기소장을 들고 읽어나갔다. 그러다가 가끔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천천히 그러면서도 박력을 주어 강조하였다. 그리고는 잠시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보기도 했다. 그 대목에 대해 주의를 돌려달라는 뜻이었다.

재판정은 쥐죽은듯이 고요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리성삼은 그것을 감지하며 내심으로 패재를 올렸다. 콩나물시루처럼 텅없이 들어찬 청중이 기소문에 심취되어있는듯싶었다. 자기가 그들의 마음을 거머쥐기 시작했으며 그들과 하나의 숨결로 맥박치는것만같았다. 서기들과 함께 달라붙어 한문장한문장을 북데기속에서 베타고르듯하며 써놓은 기소장이 은을 내기 시작한것이다.

그의 웅변술은 뚜렷한 어조에 풍부한 어휘, 남성중음의 화술도 능숙하였으며 문법도 정확하기 그지없었다.

거의 1시간나마 기소문을 읽고난 그는 재판석을 올려다보며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담당검사로서 피고의 <리적행위>에 대해 수사심리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

성삼은 잠시 숨을 고르며 손수건으로 이마와 얼굴의 땀을 닦았다.

《본 사건에 제시된 피고의 행위는 <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와 <기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되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의 범죄행위는 현 <정권>을 반대하고 이 사회를 적색화할 목적밑에 강행되었다고 인정하면서 그에게 가장 엄한 형벌을 적용해줄것을 재판정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말을 마친 리성삼은 자기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물고뿌를 들고 물을 마시는척하면서 피고석을 바라보았다.

이보게 승철이, 날 탓하지 말라구. 생활이 이런걸 낸들 어찌겠나. 올리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게 아닌가. 정세의 흐름에 맞게 선택할 줄 아는게령리한 사람이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수 없는게 인생의 리치란 말일세. 자네가 걸친 그 상복은 기필코 입자를 위한 상복으로 될거네.

눈을 내리칸채 앉아있는 연주의 머리속엔 검사의 말이 맴돌고있었다.

엄한 형벌! 그래, 누가 누구에게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소리인가? 재판장인 내가?... 아니면 이 재판을 막뒤에서 조종하는 현 《정권》이?...

이런 생각은 그로 하여금 번민의 회오리속에 깊이 말려들게 하였다.

방금 검사라는 사람은 법의 공정성을 마구 도륙내면서 무근거하고 신빙성도 없는 기소장을 마구 렴거하여 이 재판정을 모독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재판장인 나는 흑막속의 진상을 알고있으면서도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있다. 무엇때문인가? 나의 명예때문에?... 아니면 동생때문에?...

연주는 재판의 다음 절차를 잊은듯 미동이 없었다.

나는 법정의 저울추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이 사건조작의 주범들과 저 검사의 그릇된 처사를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가?...

그는 턱밑에 반듯하게 놓인 문건을 내려다보았다. 상부에서 내려보낸 지시문이었다.

심장을 어찌나 조이고 비틀어대는지 눈앞이 아찔했다. 글줄들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날로 변하며 섬광을 번뜩이고있었다. 오만가지의 생각이 여울목에서 물고기튀듯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방청석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재판장의 침묵에 대한 항의였다.

옆에 있던 배석판사가 참지 못하고 다가와 귀뜸해주었다.

《재판장님, 공판을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연주는 얼굴을 들었다.

방청석의 수백쌍 눈초리들이 지금 자기를 주시하고있었다.

예리한 눈초리가 피부에 와닿는듯한 느낌에 그는 눈길을 돌렸다.

경진이와 선미의 긴장된 모습이 눈에 비껴들었다.

이어 뇌리를 예리하게 후려치는 너인의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려왔다.

《...내 말하고싶은것은 법관인 당신들이 한 인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사회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겁니다. 사대매국노들과 반통일분자들이 득세하는 이 남조선이 어떤 사회인가를 말입니다.》

얼음물을 뒤집어쓴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흐리마리하던 눈앞은 트이기 시작했다. 이 순간 칙닝쿨처럼 아귀찬 정신이 피줄들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래, 나는 이 자리에서 모든것을 까뽀쳐야 한다. 더이상 정의로운 인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할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품처럼 가라앉는 소음을 감지하며 나직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 사건을 맡은 재판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전까지 자기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하고 심한 고민속에 잠겨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차후 저와 저의 동생에게 차례질 후과가 두려웠기때문입니다.》

방청객들은 무슨 소리냐는듯 서로 마주보며 술렁이었다. 재판장의 돌발

적인 행동에 그들의 의문은 더 커지고있었다.

눈치가 역빠른 기자들은 벌써부터 재판석가까이로 나오려고 움썰거리
는 기미를 보이고있었다.

김연주는 검사석을 바라보면서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방금 검사는 피고에게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장으로
서 본 재판에 제출된 기소장은 모두 모략과 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을 공
개합니다.》

리성삼이 화독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 당신은 지금 무… 무슨 소리를 하는지요?》

연주는 그의 반발을 귀등으로 흘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정작 이렇게 마
음속의 고충을 터놓기 시작하니 두려운것이 없었다. 그는 기소내용의 허
위성과 조작, 그 음모의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성삼의 낮가죽은 나무가지에 매달린채 겨울을 나는 서리맞은 돌배처럼
시퍼렸다. 울분을 토하지 못해 혼자서 씹씹거리기만 했다.

방청석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재판장은 지금 피고를 변호하고있다!》

《재판장을 퇴장시키라!》

우익세력들의 고함소리였다.

허나 그들의 악담소리를 누르는 정의로운 웨침들이 터져나왔다.

《웁소, 이진 완전히 날조품이요!》

《<중복>재판을 당장 걸어치우라!》

《우리는 조승철변호사의 죄를 인정할수 없소. 당장 석방하라!》

혼탕된 재판정을 진정시키고 김연주는 지금껏 속에서 끓고있던 웨침을
천천히 터놓았다.

《저는 재판장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이 기소를 본 재
판에서 취급할수 없다는것을 명확히 하면서 늦게나마 기각한다는것을 선
언합니다.》

리성삼은 불붙는 고간의 쥐처럼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는 미친것처럼
책상을 두드리며 날쳤다.

《당신은 지금 독판치기를 하고있소.》

연주는 코웃음을 날리며 그를 쏘아보았다. 적의와 분노가 화염처럼 뿜어
나오고있었다. 그는 지시문이 들어있는 문건철을 들어보이며 조소를 보냈다.

《검사님은 아직도 여기에 기대를 거는가요?! 그래, 진실이란 한점도 없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이따위 종이장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모독하자는건가요?! 바로 당신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반북대결의 발화점으로 써먹으려는 광신자들때문에 이 땅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있어요. 그래, 당신들은 아직도 <보안법>과 같은 파쑈악법으로 통일로로 달리는 민중의 지향과 념원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성삼은 연주를 노려보며 이를 우드득 갈았다.

《재판장, 그따위 감성적인 론리는 이 재판에서 통하지 않소. 난 이 사건을 상소하고야말것ियो.》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나도 보수세력이 집권하고 <보안법>이 존재하는한 이 사회에서는 공정한 판결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낀 몸이에요. 하지만 내가 말하고싶은것은 가장 공정한 심판관은 오직 민심이며 부정의로는 정의를 절대로 판결할수 없다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참다운 정의를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숭고한 리념과 의지는 절대로 꺾을수 없는거예요. 이것은 한생 자기라는 울타리안에서 법전만을 주문처럼 외워온 나의 뼈저린 체험이 가져다준 진리예요!》

낮으나 저력있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진폭으로 울렸다.

연주는 자기에게 머물러있는 시선들을 감촉하고 눈길을 돌렸다. 승철과 경진 그리고 선미를 비롯한 참된 인간들의 따뜻한 고무였다. 달려가 후더운 가슴들에 얼굴을 묻고 쌓이고쌓인 설음과 자책의 눈물을 한껏 흘리고싶었다.

그들과의 거리는 불과 몇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한테는 지금 너무도 아득하게만 보였다.

경진아, 난 영원히 네 어머니로 될수 없는 사람인가보구나!

조승철의 미더운 눈빛이 비껴들었다.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포근히 감싸주고 가슴속의 아픔을 가져주던 잊을수 없는 시선이다.

승철오빠! 부디 절 용서해주세요. 난 영원히 당신을 나의 친오빠로 여길거예요.

증인대기석에서 한사람이 일어섰다.

동생인 수일이였다. 피를 다 빨리운듯한 자세였지만 입술은 뭔가 말하러는듯 떨리고있었다.

후줄근한 그의 모색은 연주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허나 달리 행동할수 없는 그였다.

수일아, 제발 이 누이를 리해해다오. 물론 난 오늘 너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의와 파쑈가 란무하는것을 뻔히 알고있으면서도 묵인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져오려는 뜨거운 심장들이 계속 짓밟히우기만 할게 아니냐. 내가 당부하고싶은 것은 앞으로 나처럼 살지 말라는거다. 제 개인만을 위해 산다면 종당에는 부모와 형제는 물론 민족도 겨레도 모르는 매국노로밖에는 달리될수 없단다!

38

사무실에 들어선 연주는 거울앞에 마주섰다. 한참동안 생각질은 눈길로 법복입은 모습을 들여다보던 그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허울처럼 흘러내린 법의는 불품없이 바닥에 버려졌다.

연주는 크게 들이켰던 숨을 길게 내그었다.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던 멍예를 벗어버린듯 온몸이 거뜨했다.

이윽고 그는 단출한 차림새로 법원을 나섰다. 더이상 악을 번식시키는 이 소굴에서 살고싶지 않았다.

정문에는 언제 와있었는지 기자들로 웅성이고있었다. 김연주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것이다.

그들은 엄지닭의 품으로 달려오는 병아리들처럼 우르르 다가와 마이크를 내뒀다.

《부장판사님은 오늘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담대한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가요?》

연주는 자그마한 주저도 없이 그들앞에 나섰다.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판사가 아니랍니다. 왜냐면 전 방금전에 스스로 사표를 냈으니까요!》

기자들속에서는 놀라움과 의혹이 엇갈린 목소리들이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왔다.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힘든 결심을 하셨군요.》

방금전에 질문한 기자가 선코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 질문했다.

《제가 알기에는 부장판사님은 인차 이곳 법원의 원장으로 되신다는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예를 한순간에 포기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번 일로 하여 자신의 앞날을 영원히 배척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연주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었다. 그리고는 꾸밈없는 심정을 그대로 터놓았다.

《인생은 피롭고 짧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가의 락엽처럼, 시들어진 들꽃처럼 되어버리지요. 저는 오늘날까지 푼수없이 하늘너머 어딘가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허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후회는 항상 뒤에 있듯이 지금 와서 걸어온 길을 더듬노라면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곤 합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그 무엇에 현혹되기를 좋아하며 또 그것으로 하여 자신을 피롭히려 하는가고 말입니다. 지금껏 명예와 직위를 바라며 악인들과 몸을 섞어온 저는 늦게나마 선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나의 후반생이 그 더러운 얼룩점들을 다 씻어줄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참된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을 두고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여느때없이 당당한 모습이다. 마치 그 어떤 철쇄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저는 늦게나마 인간본연의 자세, 정의와 진리를 말살하는 파썸악법을 휘두르는자가 아니라 그에 저항하는 반항아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명필이가 그앞에 다가서며 질문했다.

《판사님의 용단에 저는 진심으로 탄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택을 내리기까지는 심리적고충이 매우 컸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전 이번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수십년간의 법관생활을 뼈저리게 돌이켜보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어요. 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안법>이야말로 복잡다단한 이 사회를 유지할수 있는 법률이라고 인식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내가 느낀 소감을 피력한다면 그 법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가장 파썸적인 악법이라는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보안법>은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매우 위험한 독소입니다.》

속에 걸려있던 응어리를 터놓기 시작하니 온몸이 평온해지는데했다.

《그 실례가 바로 오늘 재판입니다. 여러분들도 방금전에 직접 목격해서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현 당국자들이 모략과 음모로 고안해낸 또 하나의 <중복>사냥이라는것을 저는 숨기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를 주장하고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속에서 누구인가가 던지는 물음이었다.

김연주는 연한 미소를 머금은채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했다.

《독약이 무서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우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새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사회의 검찰은 수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고있다고 말하는것입니다. 바로 민족의 화합과 단합,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열혈의 심장들을 표적으로 해서 말입니다. 가장 잔인한 폭압은 <합법성의 그늘>밑에서, <정의의 기발>밑에서 감행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확언합니다. 이 땅에서의 <법치주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공정한 판결>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싶습니다.》

《그럼, 판사님이 단행한 기소장의 기각과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은 사실상 무의미한것이라는겁니까?》

연주는 나직하나 확신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래요. 나는 비록 재판준비과정을 통하여 얻은 결론에 따라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대매국노들이 <정권>을 잡고있는한 피고의 무죄는 꼭 유죄로 뒤집혀지고말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운운하는 <법치주의>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건대 그래, 이런 악법이 정의로운 인간들을 단죄하고 처벌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겁니다? 때문에 저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법적장애물인 <보안법>과 같은 각종 악법은 지체없이 폐지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나이지숙한 기자가 다가왔다.

《저는 지금까지 부장판사님은 강력범들을 많이 취급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이번 재판에 나서게 되였는지 또 이번 재판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소감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김연주는 천천히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열두밤을 다 새워 이야기한들 어이 다 말할수 있으랴.

《방금 기자선생이 말한것처럼 저는 지금껏 주로 강력범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 삶의 보람을 느꼈다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

연주는 자기가 법관을 지명한 원인에 대해서, 왜 폭력범죄만을 취급하였는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방금 기자선생은 이번 재판을 통한 저의 심정에 대해 물었는데 그에 대해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남한>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강력범죄집단은 <보안법>과 같은 파쑈악법들을 휘두르는 매국역적들의 무리인 리명박<정권>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이라는것입니다. 이자들은 언제이든 전체 국민들이 내리는 판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입니다.》

놀라움에 젖은 기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렌즈의 섬광들이 빛을 뿌렸다. 한 인간의 환생에 보내는 뜨거운 격려였고 찬사였다.

이번에는 처너지자가 질문을 들이댔다.

《그럼, 우린 앞으로 판사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겠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연주는 주춤했다. 정말이지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다시는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경진이를 비롯한 후대들앞에 부끄럽지 않을 새로운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기자선생들, 력사는 무심히 흘러가지만 매 시대가 남긴 흔적은 후세에 남게 됩니다. 전 오늘의 시대에는 중립이란 결코 있을수 없으며 통일이나 분렬이나 하는 량단선에서 어느것을 선택하겠는가 하는것은 각자가 스스로 결심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시대는 악이 선을 이길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전에는 악이 선을 재판하였지만 이제는 선이 악을 재판해야 할 시대입니다. 악법도 나쁘지만 그것을 만들고 리용하는자들은 더한 악한들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스스로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는것입니다. 장차 이 김연주라는 인간은 오늘의 이 량심선언을 깊이 새겨안고 새롭게 터득하고 간직한 진리의 길을 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주는 그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걸음을 옮겼다. 더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가 정문을 벗어나는데 등뒤에서 《어머니!—》 하는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연주는 걸음을 멈추었다. 분명 자기에게 하는 소리였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아닌 경진이라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어머니!— 아, 얼마나 듣고싶었던가!

지금껏 언제 한번 애뜻하게 불러본적도 또 들어본적도 없는 정다운 부름이었다.

하나 한순간의 그릇된 의식과 행동으로 하여 그 진정을 받아들일수 없는 처지가 된 연주였다.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미덥고 훌륭한 자식을 품에 꼭 껴안고싶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운명으로 감수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경진의 발걸음소리가 다가오는것을 의식하자 나직한 어조로 말했다.

《경진아, 오지 말아!》

은근한 무게를 안고 울리는 소리에 경진은 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니!—》

육친의 정이 고패치는 부름앞에 연주는 가까스로 등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진아! 나는 너한테서 어머니라는 말을 들은것만으로도 기쁘다. 그러나 더이상 날 그렇게 부르지 말아. 난 너에게 너무도 많은 빛을 남겼다! 그건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수 없는거야.》

그는 목구멍으로 피어오르는 오열을 겨우 억제했다.

《그리고 내 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부할게 있으니 들어주겠니?》

《웁니까?》

《부디 아버지를 잘 모시거라. 그는 오늘까지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분이다. 그러니 네가...》

뜨겁게 달군 쇠꼬챙이로 가슴을 마구 찌셔대는것만같아 그의 말은 중도에서 끊어지고말았다.

이제 헤어지면 영영 다시 만날수 없는 이들이다. 그렇지만 가야만 했다. 그것은 스스로 내리는 판결이고 선언이다. 더이상 그들의 가슴속에 멍을 남기고싶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떼는데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꼭 잡았다. 부드럽고 차분한 감각은 다름아닌 선미의것이였다.

《연주, 넌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거냐? 그래, 이전처럼 승철씨와 제 자식의 곁을 떠나겠다는거니?》

연주는 그에게 천천히 돌아섰다.

《날 더이상 막지 말아. 내가 무슨 낮으로 그들과 나란히 한단 말이야!》
선미는 그의 말을 부정하며 꾸짖듯 말했다.

《넌 지금 자기 죄의식에 너무 포로되어있어. 그래, 네가 방금 기자들 앞에 한 그 량심의 목소리는 다 거짓이었니? 무서운 진탕속에서 벗어나 드넓은 대지를 확보하겠다는 그 말이 허위였는가 말이다?》

연주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볼수 없었다.

용서를 받고싶었다. 허나 죄많은 인생에 어이 그것을 바랄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내가 이들의 결을 떠나면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온몸은 서서히 뜨거워지고있었다. 더없이 친근한 사람들의 품을 두번다시 잃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고하는것이나 같았다.

허나 인생길은 시발점에서의 작은 편차가 궁극에 가서는 무한대의 거리로 벌어지는 법이 아닌가. 나는 이들과 가까워지려 해도 이전의 공간을 무엇으로 메꾸단 말인가?

《선미, 나도 승철오빠의 결으로 가고싶어. 그러나 난 그 깨끗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을 그런 녀자가 못돼. 오히려 그이를 더 흐리게 할뿐이다. 그래서 난 내스스로 나대로의 길을 택하는거다.》

《아니, 넌 이미 그의 결으로 돌아온 몸이야. 방금 저 기자들앞에서 자기의 진심을 터놓은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제 행복을 다시 찾았어!》

경진이는 물기어린 두눈으로 연주를 바라보며 절절하게 말했다.

《어머닌 이전처럼 또 저와 아버지를 버리시렵니까?》

아들의 물음앞에 연주는 목이 메었다. 지금 경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는 잘 알고있었다. 함께 가고싶었다. 이들과 한데 어울리며 진정한 삶을 누리고싶었고 민족앞에 무엇인가 해놓고싶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집안에는 안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년세월 홀로 살아오신 어머니를 집에 꼭 모셔가야 한대구 몇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진정에 넘친 목소리는 연주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었다.

《아버지가!...》

속이 뭉클 젖어들었다. 지금 이 시각도 뜨겁고 진실한 사랑으로 자신을 품어주는 조승철에 대한 생각으로 눈곱이 찌릿해왔다.

선미가 웃으며 재촉했다.

《연주, 어서 가자. 이제 네가 그를 대신해야 하지 않겠니. 그도 그것을 바라고있어!》

그의 입가에는 한떨기 꽃같은 미소가 피어있었다.

김연주는 드디어 현실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투명한 해살이 그의 술많은 머리칼과 고전적인 옆모습을 밝게 비쳐주고있었다.

《그러니?!...》

《저두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싶습니다.》

가슴은 크나큰 걱정으로 부풀고있었다. 자기의 품으로 다가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그의 심중은 드디어 분출구를 찾고있었다.

《경진아, 나를 다시한번 어머니라구 불러줄수 없겠니?》

윤경진은 물기가 그렇하니 멧힌 눈으로 연주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엄마야!-》 하며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내 아들이!-》

모자간은 굳게 포옹한채 뜨거운 눈물로 서로를 적시고있었다. 그것은 새 삶을 찾은 한 너인의 행복한 눈물이었으며 친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은 자식의 기쁨어린 눈물이었다.

이윽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은 김연주는 맑고 그윽한 웃음을 지었다.

《선미, 나도 이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겠어. 그이의 뜻을 이어 하나된 강토를 위해 싸우는 참된 인간으로 살겠어!》

《연주야!-》

《선미야!-》

그들은 서로 손을 뜨겁게 부여잡았다. 머리우에는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이 가없이 펼쳐져있었다.

— 끝 —

장편소설 판 결

저 자 량 흥 일
편 집 성 문 호
장 정 김 영 일
교 정 립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쇄 공장
인 쇄 주체110(2021)년 11월 5일
발 행 주체110(2021)년 11월 9일

7-1512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45-6



ISBN 978-9946-31-145-6



9 789946 311456 >